1/NB10584578.0000.wav|나 오늘부터 뉴스룸 2부에서는 그날의 주요 산을 한마디의 단어로 시작해서 앵커브리핑으로 풀어보겠습니다

1/NB10584578.0001.wav|오늘 뉴스룸 2 주목한다 너는 저 돌입니다

1/NB10584578.0002.wav|돼지 젖 차에 갑자기 돌 이름 두 글자로 사용하는 단어는 흔히 저녁에 강하다는 의미로 쓰이고

1/NB10584578.0003.wav|난파 직전의 새정치연합을 책임지게 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

1/NB10584578.0004.wav|난 그냥 산돼지처럼 돌파하는 스타일이다

1/NB10584578.0005.wav|이렇게 얘기했습니다

1/NB10584578.0006.wav|몸이 좋지 않다면서 만남을 주저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 가서 만난 것도 바로 이런 저돌 성이 없었다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

1/NB10584578.0007.wav|문구 1 비대위원장이 저돌적으로 돌파해야 할 과정 과연 무엇인가

1/NB10584578.0008.wav|첫 번째는 계파주의 청산

1/NB10584578.0009.wav|지난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의 패배한 이후에 대선평가 위원장을 맡았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

1/NB10584578.0010.wav|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

1/NB10584578.0011.wav|계파정치 청산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

1/NB10584578.0012.wav|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이 보고서는

1/NB10584578.0013.wav|아 갑자기 반 발 끝에 결국 채택 되지 않았습니다

1/NB10584578.0014.wav|아마 야당에서 한상진교수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

1/NB10584578.0015.wav|문희상 당시 비대위원장이 공교롭게도 208번지 청소는 내세웠던 바로 그 시기의 비대위원장 였죠

1/NB10584578.0016.wav|개파 청산에 관한 문 비대위원장은 어찌 보면 실패했다고 봐야만 합니다

1/NB10584578.0017.wav|원하는 공유가 돼 책임은 당 대표가 혼자지는 이런 기형적 구조가

1/NB10584578.0018.wav|안경

1/NB10584578.0019.wav|최근 4년 동안의 임기 2년의 야당 지도부 교체 숫자를

1/NB10584578.0020.wav|늘려서 무료 10번이나 교차로 됐음

1/NB10584578.0021.wav|같은 기간에 3일간은 반 4명의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

1/NB10584578.0022.wav|실패가 부조화된 방해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누가 리더가 되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

1/NB10584578.0023.wav|자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

1/NB10584578.0024.wav|어떠한 추가 협상도

1/NB10584578.0025.wav|불가다 이렇게 못 박은 청와대 와

1/NB10584578.0026.wav|여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

1/NB10584578.0027.wav|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는 유족들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

1/NB10584578.0028.wav|겉은 장비 속은 조절하고 불리우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새정치연합이 저돌적으로 말 그대로 저돌적으로 풀어가야 할

1/NB10584578.0029.wav|과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584578.0030.wav|세월호 참사는 오늘로 161 재를 맞았습니다

1/NB10584578.0031.wav|쓸쓸한 팽목항

1/NB10584578.0032.wav|자원봉사자 마자 하나둘 철수 하고 있고

1/NB10584578.0033.wav|슬픈 2014년은 오늘로 일해

1/NB10584578.0034.wav|100일이 남았습니다

1/NB10584578.0035.wav|잠시 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스토어에서 만나겠어

1/NB10585784.0001.wav|차 하여서 앵커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뉴스 룸이 주목한다는 터치입니다

1/NB10585784.0002.wav|잠결에 뿌리다가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리고 많은 꼴이다

1/NB10585784.0003.wav|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당해서

1/NB10585784.0004.wav|새정치민주연합 L 박수현 의원의 이런 말을 했군요

1/NB10585784.0005.wav|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2년에 국회로 한 거를

1/NB10585784.0006.wav|돌아가 봐야만 합니다

1/NB10585784.0007.wav|휴대폰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

1/NB10585784.0008.wav|솔직한 내 심정입니다

1/NB10585784.0009.wav|이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상 우리 여야가

1/NB10585784.0010.wav|대화와 타협을 통해서

1/NB10585784.0011.wav|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국 걔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

1/NB10585784.0015.wav|예 이렇게 3번 부득이고 보관은 통화가 됐는데요

1/NB10585784.0016.wav|국회선진화법은 재적의원 중에 밥 아니 아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맛

1/NB10585784.0017.wav|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든 법이죠

1/NB10585784.0018.wav|당신의 표결 결과는 재석 100 92명 중에 찬성 100 27명

1/NB10585784.0019.wav|반대 48명 직원 17명으로 탄성이 매우 압도적이었습니다

1/NB10585784.0020.wav|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사람은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

1/NB10585784.0021.wav|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

1/NB10585784.0022.wav|찬성표를 던졌다

1/NB10585784.0023.wav|Hello 데까지 보도가 됐던 국회에서의 몸싸움 다수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야당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요

1/NB10585784.0024.wav|당시 다 수상이었던 새누리당은 왜 그렇다면 스스로 이렇게 버텨

1/NB10585784.0025.wav|왔을까요

1/NB10585784.0026.wav|법안이 마련된 시점은 이명박 정권 말기 지난 2012년 총선 즈음이었습니다

1/NB10585784.0027.wav|한해 전부터 불어닥친 이른바 안철수 바람이

1/NB10585784.0028.wav|여권은 매섭게 위협하고 있었던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인지

1/NB10585784.0029.wav|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칫하면

1/NB10585784.0030.wav|소장이 될지도 모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앞장서서 만드는 법 아니 바로 국회선진화법이 없다 이런 겁니다

1/NB10585784.0031.wav|그러나

1/NB10585784.0032.wav|예상외로

1/NB10585784.0033.wav|선전한 새누리당은 지금도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고

1/NB10585784.0034.wav|세월호 이수로 작동을 멈춘 부케가

1/NB10585784.0035.wav|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법안을 처리한 건수는

1/NB10585784.0036.wav|0 번입니다

1/NB10585784.0037.wav|재국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더치를 스스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줘

1/NB10585784.0038.wav|11명의 원희 개정안을 제출한다이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

1/NB10585784.0039.wav|주목할만한 사실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 중 3명은 2년 전에 국회 표결 당시에 찬성표를 던진 일이었습니다

1/NB10585784.0040.wav|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이 아닌 후진 헌법이라는 덫에 걸렸다고 주장합니다

1/NB10585784.0041.wav|역설적이게도 A7 장본인은 새누리당이 없습니다

1/NB10585784.0042.wav|약속이 맺어졌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었다는 증거 다

1/NB10585784.0043.wav|앤드류 카네기 말입니다

1/NB10585784.0044.wav|약속을 맺은 양쪽이 신뢰를 회복할 길은 없는 것일까요

1/NB10585784.0045.wav|어제 저희들이 전해 드리는 여론조사 결과는

1/NB10585784.0046.wav|고백 애정보다는 양쪽에 정치력을 주문하고 있어

1/NB10587175.0001.wav|최창엽은 jtbc 뉴스룸 다시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룸 2분은 앵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587175.0002.wav|오늘 뉴스룸 주목한다는 기록입니다

1/NB10587175.0003.wav|며칠 전에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

1/NB10587175.0004.wav|어떤 초등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 한통을 공개

1/NB10587175.0005.wav|현재는 이런 내용이었는데

1/NB10587175.0006.wav|기러기 무리는 먹이를 찾아서 무료 4만 km를 이동하는데

1/NB10587175.0007.wav|그 중에 너는 전체가 날아가는데 7% 11

1/NB10587175.0008.wav|부안 동료가 사냥꾼의 총을 맞아서 대우에서 이탈하게 되면

1/NB10587175.0009.wav|다른 두 마리의 동료들이 부상당한 길을 끝까지 보살펴 준다

1/NB10587175.0010.wav|와싱턴 제로 던 상황이 좀 의미심장 하지요이 편지 그래 주목한 사람은 누구야 있을까요

1/NB10587175.0011.wav|두 달 전에 세 정치야

1/NB10587175.0012.wav|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식 모드에 들어간 안철수 의원

1/NB10587175.0013.wav|자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의 이른바 기저귀 편재 주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

1/NB10587175.0014.wav|아진아

1/NB10587175.0015.wav|19일로 정치 입문 2년을 맞은 아니 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

1/NB10587175.0016.wav|낡은 정치와 치열하게 경쟁에서 새정치를 구체화하고 싶었는데

1/NB10587175.0017.wav|그렇게 하지 못했다

1/NB10587175.0018.wav|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겠다

1/NB10587175.0019.wav|들어갔어 2년 전에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눈부신 첫걸음의 어떤 것과는 달리 지난 시간들은 안철수 위원에게 상처와 시련이 하는지도 모르겠고

1/NB10587175.0020.wav|결국 성공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라는 말도 나왔다

1/NB10587175.0021.wav|같이 갈 수 없었다 그건 세종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

1/NB10587175.0022.wav|누구보다 가까웠던 측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

1/NB10587175.0023.wav|안철수 의원의 입으로 불륜 금태섭 대변인도 지금 내려가

1/NB10587175.0024.wav|아니요 내 곁을 떠난 것은 비단 측근 구만이 아니었습니다

1/NB10587175.0025.wav|단 한 명의 위원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못했다

1/NB10587175.0026.wav|이런 얘기도 나왔고 3 정체가 무엇인지 돌아오기를 바란다

1/NB10587175.0027.wav|엄청난 보내 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

1/NB10587175.0028.wav|박래수 역시

1/NB10587175.0029.wav|그리고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것이다

1/NB10587175.0030.wav|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부상당한 기로기로 여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른 기러기들에게 일정에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겠지요

1/NB10587175.0031.wav|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비상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

1/NB10587175.0032.wav|전체 기록이 무리에게 7%의 동력을 제공한다

1/NB10587175.0033.wav|지도자의 역할

1/NB10587175.0034.wav|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

1/NB10587175.0035.wav|7%대

1/NB10587175.0036.wav|일정 퍼센트

1/NB10587175.0037.wav|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성공의 의심스러운

1/NB10587175.0038.wav|그리고 가장 다르게 위험한 것은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는 일이다

1/NB10587175.0039.wav|군주론을 지은 마키아벨리의 말이었습니다

1/NB10587175.0040.wav|정심은 인연을 맞은 안철수 의원은 다시 안철수 다음에 찾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

1/NB10587175.0041.wav|그러나

1/NB10587175.0042.wav|세상에서

1/NB10587175.0043.wav|가장 헤매게 온지도 모르는 새정치와 새로운 질서를

1/NB10587175.0044.wav|아직도

1/NB10587175.0045.wav|그 윤곽이 뭐 합니까

1/NB10588435.0000.wav|S 찾아가 본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588435.0001.wav|오늘 뉴스룸에 주목한다 너는 복사하고 합니다

1/NB10588435.0002.wav|안 그래도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국회에 복 사과가 던져졌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

1/NB10588435.0003.wav|며칠 전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

1/NB10588435.0004.wav|백설공주에게 사과 두 개를 주고 먹으라는 것이다

1/NB10588435.0005.wav|광주리에 10개의 사과를 넣어서 두 개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다

1/NB10588435.0006.wav|세월호 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대신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학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

1/NB10588435.0007.wav|자신들에게 복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한 셈인데요

1/NB10588435.0008.wav|특검 추천권 양보라는 복사 거는 절대 받을 수도 먹을 수도 없다는 여당 그리고

1/NB10588435.0009.wav|화병 없이는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야당에 팽팽하게 맞선 현서 오늘 아침

1/NB10588435.0010.wav|새누리당에선 이런 기판까지도 나왔습니다

1/NB10588435.0011.wav|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한테 국회 참석해 달라고 하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

1/NB10588435.0012.wav|예

1/NB10588435.0013.wav|여야가 서로 입장이 바뀌면 같은 말을 서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나서

1/NB10588435.0014.wav|조금 전에

1/NB10588435.0015.wav|뉴스룸 유튜브에서 전화 연결을 한 전명선 세월호 가족 대책 위원장

1/NB10588435.0016.wav|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

1/NB10588435.0017.wav|꿈 입장이 바뀐듯한 그런 것을 보이기도 했습니다

1/NB10588435.0018.wav|이와 함께 전의 현장은 여야의 2차 합의하는 미흡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

1/NB10588435.0019.wav|그러나

1/NB10588435.0020.wav|박근혜 대통령은 여야의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

1/NB10588435.0021.wav|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이렇게 이미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

1/NB10588435.0022.wav|유족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

1/NB10588435.0023.wav|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든 식물 국회의원 하고 싶어하는 여당 앞에 놓여진 과제

1/NB10588435.0024.wav|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더 높이 난다

1/NB10588435.0025.wav|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

1/NB10588435.0026.wav|설득과 협의라는 진통을 겪어야만

1/NB10588435.0027.wav|무언가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를 텐데요

1/NB10588435.0028.wav|사과가 영그는 계절에 정치권이 내놓을 수 있는 설득과 협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

1/NB10588435.0029.wav|호박씨 복서 가만 맺을 것인지 아니면

1/NB10588435.0030.wav|햇사과를 국민들 앞에 내놓겠습니다

1/NB10588435.0031.wav|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개

1/NB10588435.0032.wav|수지에서 해법을 한번 틀어 봐

1/NB10591910.0000.wav|오늘 뉴스룸이 주목한 단어

1/NB10591910.0001.wav|하마

1/NB10591910.0002.wav|호수나 하천도 늪지대에서 합니다

1/NB10591910.0003.wav|하루동안 먹는 모기의 양은 60kg

1/NB10591910.0004.wav|웬만한 남자 몸무게 해 줘 많이 먹습니다

1/NB10591910.0005.wav|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하마는 풀을 먹는 하마가 아닙니다

1/NB10591910.0006.wav|오늘 먹는 하니

1/NB10591910.0007.wav|세금을 먹는 하마로 불리우는 4대강 사업

1/NB10591910.0008.wav|세종 완공 예정인 4대강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22조 원입니다 2천만원 비용 중에 팔찌

1/NB10591910.0009.wav|아시는 것처럼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 대신 빚을 내서 부담해서

1/NB10591910.0010.wav|송해 붙여 팔찌의 해당하는 시장은 매년 국가가 대신 내고 있는데요 작년만해도 이자가 3016 원이었습니다

1/NB10591910.0011.wav|이밖에도 1,300억 원이 넘는 유지관리비가

1/NB10591910.0012.wav|4대강에 들어갔습니다 집 작년에

1/NB10591910.0013.wav|약 4,300원의 예산이 4대강에 투입됐다

1/NB10591910.0014.wav|더구나 공사완공 이후에 이후인 내년부터는 수공에 부채 원금 완도 국민 세금에서 연차적으로

1/NB10591910.0015.wav|이제 걷어 나가게 됩니다

1/NB10591910.0016.wav|이쯤 되면 돈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제법 어울려 보이기도 하고

1/NB10591910.0017.wav|그런데

1/NB10591910.0018.wav|그런데

1/NB10591910.0019.wav|사당에 드는 비용이

1/NB10591910.0020.wav|천문학적 일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다면

1/NB10591910.0021.wav|4대강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

1/NB10591910.0022.wav|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물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저희 저희 TV가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듯이

1/NB10591910.0023.wav|수질개선과 홍수 예방이란 효과 대신에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어도 이름도 생소한 큰빗이끼벌레가 주목을 받는다

1/NB10591910.0024.wav|흐르지 않는 강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

1/NB10591910.0025.wav|2년 전에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장애 한 얘기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렇게 혼을 했는데

1/NB10591910.0026.wav|사업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

1/NB10591910.0027.wav|사업 효과에 대한 논란만 갈수록 번지고 있는 셈이다

1/NB10591910.0028.wav|준설 통 안 틀어도 8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도

1/NB10591910.0029.wav|온대간대 없어졌음

1/NB10591910.0030.wav|지금까지 4대강 모래를 팔아서 국고로 회수한 돈은

1/NB10591910.0031.wav|총 313억 원에 불가합니다

1/NB10591910.0032.wav|관리자 않고 싸우던 모래를 관리하는 비용은 지난 5년 동안 1578 원이 들었어

1/NB10591910.0033.wav|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

1/NB10591910.0034.wav|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한 마디

1/NB10591910.0035.wav|지금 불거지고 있는 논란을 통해서

1/NB10591910.0036.wav|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얼마나 신중하게

1/NB10591910.0037.wav|믿음 있게 진행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지금

1/NB10591910.0038.wav|배우기

1/NB10591910.0039.wav|그리고 오늘부터

1/NB10591910.0040.wav|뉴스룸 또 다시

1/NB10591910.0041.wav|4대강의 시선을 모아 보겠습니다

1/NB10591910.0042.wav|너무나도 값비싸게 수업료

1/NB10591910.0043.wav|보내 문자

1/NB10593181.0000.wav|수고했습니다 오늘 뉴스 주목한다 너는

1/NB10593181.0001.wav|싸가지

1/NB10593181.0002.wav|거짓말은 아닙니다

1/NB10593181.0003.wav|식물의 싹을 뜻하는 짝수의 사투리로

1/NB10593181.0004.wav|어감이 주는 고약한 때문인지 최근에는 마치 역설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

1/NB10593181.0005.wav|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권에서이 싸가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지요 어제 뉴스룸에 출연한 강준만 전북대 교수 역시

1/NB10593181.0006.wav|진보진영이 싸가지 없으면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

1/NB10593181.0007.wav|진보진영의 싸가지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알고 보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

1/NB10593181.0008.wav|배선 8배 대해서

1/NB10593181.0009.wav|우리가 싸가지 없는 진보를 자초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

1/NB10593181.0010.wav|말해 봐

1/NB10593181.0011.wav|야권의 패배는 생각은 진보적이지만 막말이나 과격한 접근을 치료 하는 이른바 태도 보스에게 외면당하기 때문이다

1/NB10593181.0012.wav|이런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진단도 나온다고

1/NB10593181.0013.wav|앞서 지난 2007년에 김원웅 전 의원은

1/NB10593181.0014.wav|싸가지 없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당이 망했다

1/NB10593181.0015.wav|이렇게 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

1/NB10593181.0016.wav|자 그런데 여기서

1/NB10593181.0017.wav|궁금증 하나 생깁니다 일환 싸가지 결핍증 이것은 그렇다면

1/NB10593181.0018.wav|진보진영에 만 나타나는 증상인가 하는 점입니다

1/NB10593181.0019.wav|세월호 유족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여당의원

1/NB10593181.0020.wav|왜 또 있습니다

1/NB10593181.0021.wav|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

1/NB10593181.0022.wav|이점 가면

1/NB10593181.0023.wav|막 가자는 거지요

1/NB10593181.0025.wav|2004년 이었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낸 노골적인 조롱과 욕설로 논란이 됐다

1/NB10593181.0026.wav|연극 환생경제 한 장면입니다

1/NB10593181.0027.wav|차 어떻게 보면

1/NB10593181.0028.wav|모든 정치권이 좌우구분 없는 이른바 싸가지 결핍증에 걸렸다고 할 수도 있겠다

1/NB10593181.0029.wav|그렇다면 왜

1/NB10593181.0030.wav|진부에 싸가지 없으면 유독 더 부각 되는 걸까

1/NB10593181.0031.wav|어제 뉴스룸에서 만난 강종만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

1/NB10593181.0032.wav|보수를 이대로 좋다는 분들 아닙니까

1/NB10593181.0033.wav|친구는 바꿔보자는 분 아니에요 예 누가 쉬운가요

1/NB10593181.0034.wav|다 똑같은 잘못 똑같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

1/NB10593181.0035.wav|진모가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

1/NB10593181.0036.wav|예 잘 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칙

1/NB10593181.0037.wav|강준만 교수는 진보가 그것을 지키고 또 넘어서야만 한다는 처방전을

1/NB10593181.0038.wav|내가 어떻게 됐어

1/NB10593181.0039.wav|즐겁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다

1/NB10593181.0040.wav|그렇습니다

1/NB10593181.0041.wav|즐겁지 않으면 진보가 아닐 수 있겠죠 물론 보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

1/NB10593181.0042.wav|이 말은 미국의 컴퓨터과학자 이반 서덜랜드에 말이

1/NB10593181.0043.wav|국민을 내려다보다 가르치려는 정치가 아니라 즐거운 친구

1/NB10593181.0044.wav|나가서 품격있는 정치를 위한 고민

1/NB10593181.0045.wav|비단 진보진영에 국한되는 건 아닐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

1/NB10593181.0046.wav|고스톱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

1/NB10593181.0047.wav|광교 새 생각을 빌자면

1/NB10593181.0048.wav|어 그래도 진보에서 먼저 고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못다 전화 드린 강준만교수와의 인터뷰

1/NB10593181.0049.wav|3시 후에

1/NB10594493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와신 것을

1/NB10594493.0001.wav|환영합니다

1/NB10594493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이 주목한다 너는

1/NB10594493.0003.wav|계란입니다

1/NB10594493.0004.wav|그중에서도

1/NB10594493.0005.wav|날개

1/NB10594493.0006.wav|최근에 한 손에 쏙 들어오는요 자그만한 계라니

1/NB10594493.0007.wav|하늘을 날아다니며

1/NB10594493.0008.wav|어 저번에 이런 막 계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

1/NB10594493.0009.wav|전치 2주 간 의사 진단이 나왔다 계란이 눈에 맞았다면 실명 했을 뻔 했다

1/NB10594493.0010.wav|뭐 약간 엄살이 섞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안상수 창원시장이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

1/NB10594493.0011.wav|지난 16일에 창원시의 야구장이 변경에 불만을 품은 새누리당 김성일 시의원

1/NB10594493.0012.wav|자신에게 계란을 던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어제

1/NB10594493.0013.wav|김희원

1/NB10594493.0014.wav|구속됐습니다

1/NB10594493.0015.wav|안상수 시장은이 사건을 민주주의와 108만 창원시민의 대한 패러다 이렇게 주장했고 새누리당은

1/NB10594493.0016.wav|김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율의 결의서 44

1/NB10594493.0017.wav|제명 처분했습니다

1/NB10594493.0018.wav|계란 소동은 다른 곳에서도 사실 있었습니다 지난 18일에 쌀관세화 항의하는 농민단체 회원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서 계란과 고추 던진 것인데요 새누리당은 그 배후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을 지목하고 징계안을 국회 제출했습니다

1/NB10594493.0019.wav|종교적으로 부활을 상징하는이 계란의 향이라는 낱말 풀이가 더해진 셈이죠

1/NB10594493.0020.wav|허공에 날아다니는 슬픈 계란의 흑역사

1/NB10594493.0021.wav|잘 자길 없습니다

1/NB10594493.0022.wav|지난 1991년 정원식 국무총리가 학생들로부터 계란과 밀가루 세리랑 해서

1/NB10594493.0023.wav|전국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던 사례가 있었고

1/NB10594493.0024.wav|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들

1/NB10594493.0025.wav|맞아 맞아

1/NB10594493.0026.wav|그리고 유력 정치인들 역시 이날 계란 세례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

1/NB10594493.0027.wav|계란 대신 다른 무언가가 날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1966년 김두한의 원이 국회에서 총리와 장관들에게 오물을 투석 한 일이 있었고

1/NB10594493.0028.wav|몇 년 전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로 가스가 불려지기도 했습니다

1/NB10594493.0029.wav|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계좌가 던진 신발에 맞을 뻔 한 적도 있었죠

1/NB10594493.0030.wav|여기서

1/NB10594493.0031.wav|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

1/NB10594493.0032.wav|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

1/NB10594493.0033.wav|폭력의 원인을 제공하는 원죄가 더 큰 것인지 아니면

1/NB10594493.0034.wav|폭력을 행사하는 자에 범죄가 더 큰 것인지이 문제를 따져봐야 할 텐데

1/NB10594493.0035.wav|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듯이

1/NB10594493.0036.wav|각자의 판단은 제각각일 수도 있습니다

1/NB10594493.0037.wav|그러나 결과 놓고 보자면

1/NB10594493.0038.wav|계란을 던지든 그 무엇을 던지든 던진 사람은 대부분 가해자가 됐고 맞은 사람은 피해자가 돼서

1/NB10594493.0039.wav|잘못 여부와 상관없이

1/NB10594493.0040.wav|더 당당해 직원 했어

1/NB10594493.0041.wav|내가 던진 기억은 생생 하지만

1/NB10594493.0042.wav|내가 다친 기억은 생생 하지 마

1/NB10594493.0043.wav|내가 상대를 다치게 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는다

1/NB10594493.0044.wav|오랫동안 농구선수로 활동했던 kbl 프로 야구 프로농구 죄송합니다

1/NB10594493.0045.wav|devil 프로농구연맹 김영기 총재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

1/NB10594493.0046.wav|결국 여론은 던진 사람보다는

1/NB10594493.0047.wav|맞은 사람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

1/NB10594493.0048.wav|계란 던지기

1/NB10594493.0049.wav|신중해야 되겠죠

1/NB10594493.0050.wav|아직 깨어나지도 못한

1/NB10594493.0051.wav|병아리들을

1/NB10595786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이불을 다시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

1/NB10595786.0001.wav|먼저 오늘의 앵커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595786.0002.wav|오늘 뉴스룸이 주목한다 너는 인빅터스입니다

1/NB10595786.0003.wav|인빅터스는 정복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낮은 옵니다 좀 어렵긴 하지

1/NB10595786.0004.wav|영국 시인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씨 제목이기도 한대요

1/NB10595786.0005.wav|인빅터스의 첫 구절을 잠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

1/NB10595786.0006.wav|나를 감싸고 있는 칠흑 같은 암

1/NB10595786.0007.wav|신께 감사하네

1/NB10595786.0008.wav|내게 정복당하지 않은 영혼을 주셨습니다

1/NB10595786.0009.wav|나는 내 운명의 주인

1/NB10595786.0010.wav|나는 내 영혼의 선장

1/NB10595786.0011.wav|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좋아했다는 2시 올해 초에 하는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

1/NB10595786.0012.wav|바로 오늘

1/NB10595786.0013.wav|사회 정치연합 원내대표 찍을 내려놓고

1/NB10595786.0014.wav|박영선 의원

1/NB10595786.0015.wav|세상에서 가장 슬픈

1/NB10595786.0016.wav|세월호 특별법 참 슬프게 타결됐다 이제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

1/NB10595786.0017.wav|조금은 쓸쓸한 퇴장

1/NB10595786.0018.wav|사장 지현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돼 찜한 출제됐던 50일전 상황을 떠올려본다면 더욱

1/NB10595786.0019.wav|다들 꼭 배를 맞추라고 하니 마치겠다

1/NB10595786.0020.wav|이거 지난 5월에 야당 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된다

1/NB10595786.0021.wav|비대위원장 이제까지 겸임하게 된

1/NB10595786.0022.wav|박영선 원내대표의 말이었는데

1/NB10595786.0023.wav|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빼라고 이렇게 표현을

1/NB10595786.0024.wav|그러나 화려한 출발이 어찌

1/NB10595786.0025.wav|만장일치로 추대되었고

1/NB10595786.0026.wav|난파 직전의 당을 위기에서 구한다면 정신 박영선의 그자는

1/NB10595786.0027.wav|혹 배가 아니라

1/NB10595786.0028.wav|성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

1/NB10595786.0029.wav|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만장일치로 보냈던 그 저는 결국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

1/NB10595786.0030.wav|세월호 법원 유가족 반발과 당내 싸늘한 반응을 나왔고

1/NB10595786.0031.wav|우리 단원 협상에서 좋습니다

1/NB10595786.0032.wav|패배를 인정합니다

1/NB10595786.0033.wav|어떤 비판도

1/NB10595786.0035.wav|이상돈 깜짝 카드는 당내 강경파의 격한 반말을 써

1/NB10595786.0036.wav|이상돈 교수의 영입 카드가

1/NB10595786.0037.wav|계속된다면

1/NB10595786.0038.wav|저는

1/NB10595786.0039.wav|박영선 당대표를 향했어

1/NB10595786.0040.wav|사태 촛불을 하는 단식을

1/NB10595786.0041.wav|이어갈

1/NB10595786.0042.wav|밥이 오는 결국 팔당 카드로 배수진을 쳤지요 당신 팔당 24가 국면전환용 카드 있는지 아니면

1/NB10595786.0043.wav|정말 탈당을 하고 싶었는지 이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

1/NB10595786.0044.wav|있음에서 다시 윌리엄 회의실

1/NB10595786.0045.wav|인빅터스이 마지막 문장을

1/NB10595786.0046.wav|꺼내볼 fake

1/NB10595786.0047.wav|나는 내 운명이죠

1/NB10595786.0048.wav|나는 내 영혼의 선장

1/NB10595786.0049.wav|배고파 기온은

1/NB10595786.0050.wav|창 회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

1/NB10595786.0051.wav|그리고 큰 애가 연체에 올렸더니 10분 묘하게도 그녀의 정치인생 중 가장 뜨거웠던 올 한해

1/NB10595786.0052.wav|지배하고 있는

1/NB10598644.0000.wav|메시지

1/NB10598644.0001.wav|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려 줘서 고마워

1/NB10598644.0002.wav|오늘 뉴스룸이 주목한다 너는

1/NB10598644.0003.wav|벼락입니다

1/NB10598644.0004.wav|소리도 크군요

1/NB10598644.0005.wav|맞으면 큰일은 압니다

1/NB10598644.0006.wav|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주기까지 하지

1/NB10598644.0007.wav|근데 난데없는 마른하늘에 왜 벼락이 치느냐 이별

1/NB10598644.0008.wav|혹은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바로

1/NB10598644.0010.wav|지난 다섯 달 동안 이어졌던 국회의 공전이 정상화되면서

1/NB10598644.0011.wav|국정감사 일정이 잡히게

1/NB10598644.0012.wav|피감기관

1/NB10598644.0013.wav|600 일은 두 군데

1/NB10598644.0014.wav|옆에 최대 급이라고 합니다

1/NB10598644.0015.wav|준비기간은 딱 13만 주어진다 3 최단기 중국 밤이 되었습니다

1/NB10598644.0016.wav|날벼락을 맞은 건 실무를 담당하는 의원실 보좌진 인데요

1/NB10598644.0017.wav|이야기 잠시 들어 보게

1/NB10598644.0018.wav|일주일 안에 이게 가능하냐

1/NB10598644.0019.wav|원 실무자들이 거의 대부분 날 새는 분위기예요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

1/NB10598644.0020.wav|받아 적어

1/NB10598644.0021.wav|자 그렇다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이 순간도 벼락치기를 준비 중인 국회는 과연 국가 미란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

1/NB10598644.0022.wav|이렇게 매년 과거에 이런게 힘들어

1/NB10598644.0024.wav|프리든 아마 국민드라마 곧 폭발할 것 같아

1/NB10598644.0025.wav|골프채를 저지하고

1/NB10598644.0026.wav|반드시 인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

1/NB10598644.0027.wav|예약할 것 없이 이번에는 정책 국감 좀 민생 국감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는이 장면을 잊지 않고 있어

1/NB10598644.0028.wav|먼저 호통 국감

1/NB10598644.0029.wav|아니

1/NB10598644.0030.wav|그리고 매년 자료만 살짝 바꿔서 끼워넣는 재탕 삼탕 식 붕어빵 국감 있습니다

1/NB10598644.0031.wav|보여주기식 퍼포먼스도 빼놓을 수 없겠죠

1/NB10598644.0032.wav|만약 국정감사가

1/NB10598644.0033.wav|엉터리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우체국

1/NB10598644.0034.wav|부실 예산안 심사로 이어져서 그 피해는

1/NB10598644.0035.wav|고스란히 국민 여러분 늦게 돌아

1/NB10598644.0036.wav|그리고이 장면 역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

1/NB10598644.0037.wav|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선포하는 그날

1/NB10598644.0038.wav|국회 역시 입법부의 보육원 아니었던

1/NB10598644.0039.wav|국정감사 권을 빼앗겼습니다

1/NB10598644.0040.wav|결국 16년이란 암흑기를 거친 뒤에 87년에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 회의

1/NB10598644.0041.wav|88년에 겨우 도착

1/NB10598644.0042.wav|소중한 국회의 권리가 바로

1/NB10598644.0043.wav|정 감사했던

1/NB10598644.0044.wav|이것이 우리가 국감을 하네 한번 그냥 겪고 보내는 연례행사로 생각해선 절대 안 될 이유도 없고

1/NB10598644.0045.wav|자 사자성어 외에는 유난히 달리는 말과 관련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

1/NB10598644.0046.wav|짧은 시간에

1/NB10598644.0047.wav|벼락치기로 굿 할머니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에게는

1/NB10598644.0048.wav|주마가편

1/NB10598644.0049.wav|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는 뜻으로

1/NB10598644.0050.wav|잘하는 일을 더 잘 하도록 격려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를 드릴까요

1/NB10598644.0051.wav|아니면이 짧은 시간에 준비한 국감에 결국엔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는 우려를 남아서

1/NB10598644.0052.wav|주마간산

1/NB10598644.0053.wav|달리는 말에서 산을 바라본다

1/NB10598644.0054.wav|자세히 보지도 않고 대충 살핀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를 드릴까요

1/NB10598644.0055.wav|고민 끝에

1/NB10598644.0056.wav|이 두가지 사자성어

1/NB10598644.0057.wav|모두들

1/NB10599787.0000.wav|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

1/NB10599787.0001.wav|어제 오늘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죠

1/NB10599787.0002.wav|even if the sun from anywhere you make the

1/NB10599787.0003.wav|be happy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맥클린의 돈워리비해피이라는 노래죠 걱정하지 행복해질 거야 아주 기분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래를 먼저 들려 진 이유는 오늘의 단어가 바로 돈 워리이기 때문에

1/NB10599787.0004.wav|얼마 전에 적십자사 총재로 선출에서 낙하산 논란을 불러 원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이런 말을 했더니

1/NB10599787.0005.wav|넌 장난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

1/NB10599787.0006.wav|예 돈워리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김성주 회장은

1/NB10599787.0007.wav|어디로 경춘 아니지만 적십자사 총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

1/NB10599787.0008.wav|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적십자 회비를 한 번도 나지 않아서 바로 구설수에 올랐죠 회비도 내지 않은 총재가 어떻게 세대를 것이냐

1/NB10599787.0009.wav|비아냥 마저 듣게 되었습니다

1/NB10599787.0010.wav|자 그렇다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이름 받고 후배들은 이번 정부 들어서 대체 어디까지 침투한 것일까요

1/NB10599787.0011.wav|새정치연합 민병두의원 공공기관 친북인명사전이란 자료를 갔는데

1/NB10599787.0012.wav|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공공기관 200명이 넘는 친박 인사가 선임됐고

1/NB10599787.0013.wav|심지어 지난 반년 사이에 그 숫자가 2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

1/NB10599787.0014.wav|실제로 최근에는 인천공항공사의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입니다 줄곧 경남도 행정직에 있었던 심박 박완수 창원시장이 사장의 내정 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4층 바로 직전에 역시 낙하산으로 사정이 됐던

1/NB10599787.0015.wav|정창수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과 몇 달 만에 강원지사 출마 하느라고 사표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

1/NB10599787.0016.wav|자 이밖에도 곽성문 코바코 사장도 한국관광공사 자리에 오른 자니 윤 씨

1/NB10599787.0017.wav|그리고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사회에서나 감사직 자리까지

1/NB10599787.0018.wav|우리 사회 곳곳에 수많은 나 카산드라

1/NB10599787.0019.wav|포진에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

1/NB10599787.0020.wav|근데 이런 반론도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낙하산 이번 정도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냥 과거에는 코드인사 논란도 있었고

1/NB10599787.0021.wav|대통령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 어찌 보면

1/NB10599787.0022.wav|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

1/NB10599787.0023.wav|그렇다면 우린 아무 걱정 없이

1/NB10599787.0024.wav|돈워리 비해피

1/NB10599787.0025.wav|하면 되는 걸까

1/NB10599787.0026.wav|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

1/NB10599787.0027.wav|우리가 비해 피할 수 없는 이유 그건 뭘까요

1/NB10599787.0028.wav|아무런 원칙도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 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

1/NB10599787.0029.wav|대통령이 광주 회원이 말을 못 굳이 들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공 개혁을 위한 필수요소는

1/NB10599787.0030.wav|무엇일까요

1/NB10599787.0031.wav|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공기업에게 노조와의이면 합의를 잦은 공시하도록 한 결과

1/NB10599787.0032.wav|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

1/NB10599787.0033.wav|내가

1/NB10599787.0034.wav|뭐라고 얘기하면

1/NB10599787.0035.wav|각종 어떻게 줬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

1/NB10599787.0036.wav|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기업 2.2 속에 있는데도 직원복지를 과다하게 써서 환심을 사고

1/NB10599787.0037.wav|때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할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 거지

1/NB10599787.0038.wav|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

1/NB10599787.0039.wav|어리석은 것은 없다

1/NB10599787.0040.wav|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

1/NB10599787.0041.wav|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가산 인서는 누구나 그랬다 이런 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낙하산 인사는 기획재정부 추산 공기업 부채 500조원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을

1/NB10599787.0042.wav|돈워리 가니

1/NB10599787.0043.wav|월

1/NB10600918.0000.wav|메시지 창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00918.0001.wav|오늘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00918.0002.wav|쿠쿠 1일 전에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유난히 한일전에 목숨 거는 분들 많이 되시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본을 상대할 때마다 특유의 투혼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

1/NB10600918.0003.wav|그래서 이제 씻고 나는 아무튼 질 때 보다는 이길 때가 훨씬 많다

1/NB10600918.0004.wav|최근 아시안 게임 만 보더라도 금메달 숫자가 79대 47 뭐 압도적으로 우리가 위입니다 그런데

1/NB10600918.0005.wav|3월 달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

1/NB10600918.0006.wav|19대 0

1/NB10600918.0007.wav|영대 식당

1/NB10600918.0008.wav|우리가 영이고 일본 19

1/NB10600918.0009.wav|어떤 종목인지 생각하셨는지

1/NB10600918.0010.wav|한국이 일본의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분야 바로 노벨과학상 수상자 성적표

1/NB10600918.0011.wav|어제 발표된 노벨물리학상이 일본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가면서 일본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총 19명입니다

1/NB10600918.0012.wav|그래선지 노벨상 시즌 매년 10월 만 되면 우리나라는

1/NB10600918.0013.wav|노벨상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거 같습니다

1/NB10600918.0014.wav|배가 아프십니까 아니면

1/NB10600918.0015.wav|차라리 일본이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

1/NB10600918.0016.wav|현실 보자면 배 아픈 거 부러우면 더욱더 건강해진다

1/NB10600918.0017.wav|지금 보시는 건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지갑 속에 한 두 장씩 놓고 다녀

1/NB10600918.0018.wav|천 원짜리 지폐

1/NB10600918.0019.wav|집회소 게임물은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세균학자 노구치 히데요

1/NB10600918.0020.wav|가장 많이 쓰이는 지폐 과학자의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1번이 얼마나 과학 기술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 줘

1/NB10600918.0021.wav|지방대를 졸업하고 지방 기업에서 하고 싶은 연구 했더니 노벨상을 받았다

1/NB10600918.0022.wav|아 이렇게 얘기해

1/NB10600918.0023.wav|나카무라 슈지 교수

1/NB10600918.0024.wav|또 지방 정밀 업체 직원 신분으로 노벨상을 거머진 다나카 고이치

1/NB10600918.0025.wav|그리고 해외 유학 한 번 가지 않고도

1/NB10600918.0026.wav|노벨물리학상을 받은

1/NB10600918.0027.wav|마스카와 도시 대교수 등에 이런 사례는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

1/NB10600918.0028.wav|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

1/NB10600918.0029.wav|중앙일보가 한국 물리학회 소속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

1/NB10600918.0030.wav|다시 대학을 간다며

1/NB10600918.0031.wav|물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한 숫자가

1/NB10600918.0032.wav|2002년과 2007년에 모두 절반을 넘겼습니다

1/NB10600918.0034.wav|반 이상이 만족 못 하고 있다 이런 의미

1/NB10600918.0035.wav|작년에 국감자료 만 봐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7개 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38%에 달합니다

1/NB10600918.0036.wav|또한 기초체력으로 꼽히는 연구개발 투자 역시 1번에 비하면 6배가량

1/NB10600918.0037.wav|뒤져 있습니다

1/NB10600918.0038.wav|19대 0이라는 한일관 스쿠버는 어찌보면 매우

1/NB10600918.0039.wav|당연한 그런 숫자 2로 하자

1/NB10600918.0040.wav|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

1/NB10600918.0041.wav|정답은 어찌보면 매우 식상합니다

1/NB10600918.0042.wav|기본에 충실해라

1/NB10600918.0043.wav|시험에서 1등을 학생이 교과서만 봤다 이렇게 대답한 것도 마찬가지 이칠수 있을 텐데

1/NB10600918.0044.wav|일본 역시 처음부터 노벨상과 같지는 않았습니다

1/NB10600918.0045.wav|지난 1901년에 1회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일본인이 첫 거론된 이후에

1/NB10600918.0046.wav|이번에 첫 노벨상은 그로부터 무료 반 세계적인 대전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리고

1/NB10600918.0047.wav|2000 노벨상으로부터 또다시 반세기 남짓한 시간을 더 투자한 결과

1/NB10600918.0048.wav|과학분야 노벨상 19개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

1/NB10600918.0049.wav|실패만 겹쳐서 20년 동안 매일 울고만 싶어지는 좌절의 연속이었다

1/NB10600918.0050.wav|지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야마나카 신야 교수의 말입니다 신야 교수가 매일 그렇게 울고 싶었던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

1/NB10600918.0051.wav|기초 과학 이런 기본에 충실 어떤 일본의 저력 때문이었을까

1/NB10600918.0052.wav|그리고 한국의 노벨 화학상 수상에 좌절된 오늘 밤에

1/NB10600918.0053.wav|축구 한일전 8보다 지금의 상황을 더 뼈아프게 여겨야 할 우리야말로

1/NB10600918.0054.wav|조금 울어야 할지도 모르고

1/NB10601681.0000.wav|jtbc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룸 앵커브리핑으로 문을 열어

1/NB10601681.0001.wav|우표 한 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2000년 북한에서 발행된 우표

1/NB10601681.0002.wav|오시는 대로 오징어가 그려져 있고

1/NB10601681.0003.wav|근데 윗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오징어가 아니라 낙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

1/NB10601681.0004.wav|어떻게 된 일일까요

1/NB10601681.0005.wav|실제로 우리가 오징어라고 부르는이 생물 근데 남쪽 바다 가면 북쪽 바다로 헤엄쳐 가면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징어가 아니야

1/NB10601681.0006.wav|딱지가 되는 겁니다

1/NB10601681.0007.wav|지난 6월 29일에 노동신문 해도 김정은이 말린 명태와 말린 낙지 등을 살펴 보았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이 말린 낙지 역시

1/NB10601681.0008.wav|마른 오징어를 뜻합니다

1/NB10601681.0009.wav|그렇다면 낙지는 뭐라고 부를까요

1/NB10601681.0010.wav|북에서 낙지를 서해낙지라고 한다고 하네

1/NB10601681.0011.wav|북한에서 오징어라고 부르는 선물은 남한에 내려오면 갑오징어가

1/NB10601681.0012.wav|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매워 내야 할 생각보다 깊습니다

1/NB10601681.0013.wav|북한 노동신문을 보고 계신다

1/NB10601681.0014.wav|외국이라는 한자어로

1/NB10601681.0015.wav|외국이라고

1/NB10601681.0016.wav|수고했습니다

1/NB10601681.0017.wav|또 PS 역시 여유가 아닌 오일을 사용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

1/NB10601681.0018.wav|한자 발음 표기가 서로 달라고 나오는 차이

1/NB10601681.0019.wav|맞춤법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시옷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

1/NB10601681.0020.wav|우리는 잘 덤이라고 쓰지만 거기선 잘 덤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

1/NB10601681.0021.wav|나라 이름도 달리 부른다

1/NB10601681.0023.wav|우리나라 팀과 경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

1/NB10601681.0024.wav|예

1/NB10601681.0025.wav|잘 틀리셨습니다 북한조선중앙 텔레비전에 스포츠 중계 장면인데 북한은들을 수장국 연방으로 부릅니다 폴란드는 스웨덴은 스웨디 해라고 보내 줘

1/NB10601681.0026.wav|이밖에도

1/NB10601681.0027.wav|검사는 한다는 됐으면 한다 이렇게 하고요 누룽지는

1/NB10601681.0028.wav|가마치

1/NB10601681.0029.wav|수제비는 뜨겁다

1/NB10601681.0030.wav|보자면 남북이 오는 차이는

1/NB10601681.0031.wav|이러다가 조만간 통역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올만큼

1/NB10601681.0032.wav|벌어지고 있어

1/NB10601681.0033.wav|얼마 전에 북한의 시세 3인방에 다녀간 이후에 여권 에서조차 남북한 교육을 금지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

1/NB10601681.0034.wav|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끼리 쉬는 것도 중요하겠죠

1/NB10601681.0035.wav|흔한 말로 연애도

1/NB10601681.0036.wav|어

1/NB10601681.0037.wav|아내보고 결혼을 할 순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

1/NB10601681.0038.wav|연애 기본은 말이 통해야 하는 것이니까

1/NB10601681.0039.wav|흩어지고 갈라지는 우리 연어를 광장에서 뛰놀게 해야 한다

1/NB10601681.0040.wav|고은 시인의 말이

1/NB10601681.0041.wav|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줬던 10월부터 지금까지도 괴테 문학 용어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

1/NB10601681.0042.wav|중국과 대만 역시

1/NB10601681.0043.wav|양한 사전을 만들어서

1/NB10601681.0044.wav|서로간에 이질감을 좀 이렇게 줄여 나가고 있지

1/NB10601681.0045.wav|그리고

1/NB10601681.0046.wav|오늘 한글 창제 500 68 돌을 맞은 한글날

1/NB10601681.0047.wav|남과 북이 함께 편은 겨레말 사전에 편찬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

1/NB10601681.0048.wav|반가운 소식

1/NB10601681.0049.wav|기대를 걸어봅니다

1/NB10601681.0050.wav|남북한 바닷속을 이동할 때마다 이름이 달라져야 하는 낙지와 오징어를

1/NB10604725.0001.wav|뉴스룸 2부

1/NB10604725.0002.wav|기다려 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게

1/NB10604725.0003.wav|오늘 아침 오래 된 책을 하나 보내 드렸습니다 지난 1995년에 나온 구효서 씨의 라디오 라디오라는 소설입니다

1/NB10604725.0004.wav|1960년대 휴전선 인근에 살던 11살 강병택 아 주인공이고

1/NB10604725.0005.wav|1시 휴전선 근처 마을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땔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

1/NB10604725.0006.wav|이라 6

1/NB10604725.0007.wav|자기의 한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날은

1/NB10604725.0008.wav|한여름에도 계곡이 흰 눈으로 뒤덮인 것처럼 일화가 쏟아져 쌓였다

1/NB10604725.0009.wav|누구네 부엌일 가든 거기에는 삐라가 가득가득 넘쳐 흘렀다

1/NB10604725.0010.wav|벨라미의 반응 빌어요

1/NB10604725.0011.wav|어찌보면 이름부터 요상한 21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방이나 포스터를 뜻하는 영어 빌에서 나왔다고

1/NB10604725.0012.wav|펄럭인다라는 의미의 일본어 비라비라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

1/NB10604725.0013.wav|어찌됐건 이삐라는

1/NB10604725.0014.wav|처음에 한 이념대결 현장의 예외없이 등장에 왔습니다

1/NB10604725.0015.wav|한국전쟁 당시 UN 군이 북한에 살포한 빌라에 총량이

1/NB10604725.0016.wav|25장

1/NB10604725.0017.wav|펼치면 한반도를 20분 뒤졌고

1/NB10604725.0018.wav|집으로 열 바퀴 돌고 더 남을 양이었습니다

1/NB10604725.0019.wav|1950년에 세계 인구가 25명 이었으니까

1/NB10604725.0020.wav|한 사람이 한 장씩 나눠줄 수도 있을 정도였다

1/NB10604725.0021.wav|그러나 삐라를 동원한 심리전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

1/NB10604725.0022.wav|독일이 동서독으로 불리던 시절의 서독의 심리전 총책임자 했던 오핀 북변 더 박사가 이런 말을

1/NB10604725.0023.wav|핫도그녀

1/NB10604725.0024.wav|1972년까지 다량의 전단의 동독에 뿌렸지만

1/NB10604725.0025.wav|더 큰 효과를 발휘 한 것은

1/NB10604725.0026.wav|텔레비전 광고했다

1/NB10604725.0027.wav|시대가 바뀌면서 삐라는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박제가 되어버린 겁니다

1/NB10604725.0028.wav|우리 역시 지난 2004년 남북회담에 서상호 비방을 중지하기로 하면서 공식적인 삐라 살포를 중단한지

1/NB10604725.0029.wav|10년이 넘었습니다

1/NB10604725.0030.wav|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민간단체 삐라살포 였지

1/NB10604725.0031.wav|정부가 민간단체에 자율적이고 현명한 처신이 필요하다면서 개입을 거리는 사이에

1/NB10604725.0032.wav|경기도 연천 주민들은 동네로 나라든 싫다네

1/NB10604725.0033.wav|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

1/NB10604725.0034.wav|고향은 이들은 통일의 딸감으로 쉬고 싶은 마음에 비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

1/NB10604725.0035.wav|원찬 은비라는 오히려 남북한의 갈등을 유발하는

1/NB10604725.0036.wav|구미시가 돼버린 셈입니다

1/NB10604725.0037.wav|하시구요 소설 라디오 라디오에 한 구절로 돌아가볼까

1/NB10604725.0038.wav|일하고 연필을 바꿔준다는 소식

1/NB10604725.0039.wav|라벨 죽은 아이들

1/NB10604725.0040.wav|북쪽에서 보낸 비람 안 쳐 주는 경찰 아저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

1/NB10604725.0041.wav|남해에서 보낸 비라는 그런 문서가 아니다

1/NB10604725.0042.wav|경찰 아저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

1/NB10604725.0043.wav|싫어

1/NB10604725.0044.wav|이 어원도 불분명한 존재는 어찌보면 남북분단과 체제경쟁 속에서 서로에게 내밀었다

1/NB10604725.0045.wav|밥 안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604725.0046.wav|물론 상대방에겐 프론 문서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

1/NB10604725.0047.wav|지금 경쟁은 이미 답이 나와 있죠

1/NB10604725.0048.wav|분단 60년을 넘긴 지금 그걸 모를 리 없는 그들에게

1/NB10604725.0049.wav|남해 서부 장비라는 마치 총 산처럼 느껴졌던 모양이다

1/NB10604725.0050.wav|그들이 보내온 답안지

1/NB10604725.0052.wav|실제

1/NB10605984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이불을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룸 앵커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

1/NB10605984.0001.wav|오늘 뉴스 루비 주목한다 너는 낚시입니다

1/NB10605984.0002.wav|낚시로 물고기를 낚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

1/NB10605984.0003.wav|여기 조금 다른 물고기가

1/NB10605984.0004.wav|하나 있어

1/NB10605984.0005.wav|저건 낚시를 해도 미끼를 물지 않는다

1/NB10605984.0006.wav|지난 2009년 11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 4대강에 풀겠다

1/NB10605984.0007.wav|로봇 물고기

1/NB10605984.0008.wav|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크면 다른 물고기들이 놀라니까 작게 만들라 이런 구체적인 지금까지 내린 바가 있었는데요

1/NB10605984.0009.wav|여기서 해 먹은 로봇 물고기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

1/NB10605984.0010.wav|어제 국감에서 벌어진 한 장면 때문입니다

1/NB10605984.0011.wav|로봇 물고기 개발이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실패라고 불러

1/NB10605984.0012.wav|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저희가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

1/NB10605984.0013.wav|미래창조과학부

1/NB10605984.0014.wav|장관의 발언은 믿기지가 않습니다

1/NB10605984.0015.wav|이건 그냥 말로

1/NB10605984.0016.wav|값진 실패고 이것이 바로

1/NB10605984.0017.wav|창조경제

1/NB10605984.0018.wav|물론 과학은 한 번에 버전으로 성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실태조차 값진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

1/NB10605984.0019.wav|그 값진 실패가

1/NB10605984.0020.wav|혹시 모모 한국 책 사업에서 들었던 것이라면 이야기가 좀 발라 줘

1/NB10605984.0021.wav|감사원 결과만 놓고 본다면

1/NB10605984.0022.wav|정부가 속도전으로 연구를 밀어붙이는 로봇 물고기 9개중 8개가 고장이 났고

1/NB10605984.0023.wav|그나마 나머지 한 대는 불량품이

1/NB10605984.0024.wav|미끼를 물기는 그냥 친한 고철 덩어리로 막을 내린 것인데요 예산만 총 57억원의 들었습니다

1/NB10605984.0025.wav|맞지도 않는 비싼 로봇 불고기

1/NB10605984.0026.wav|국민만 바껴버린 생리대

1/NB10605984.0027.wav|그러나 로봇 물고기 사업에 들어간 57억원 어찌보면 새발의 피

1/NB10605984.0028.wav|조족지혈 있어 모르겠습니다

1/NB10605984.0029.wav|JTBC가 추전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

1/NB10605984.0030.wav|녹차라떼 라고까지 녹조 제거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혐한

1/NB10605984.0031.wav|4,300원이 들어갔습니다

1/NB10605984.0032.wav|또 잘 퇴적된 구간을 다시 팔 경우에 드는 비용은

1/NB10605984.0033.wav|감사원 추산만으로 2895

1/NB10605984.0034.wav|팔리지도 않고 사슴 준설토를 관리 하느라고 사용한 비용은 2,500원 이였죠 이밖에도

1/NB10605984.0035.wav|4대강 사업에 국민이 낚인 비용은가이 천문학적인

1/NB10605984.0036.wav|앞으로

1/NB10605984.0037.wav|계속될 것으로

1/NB10605984.0038.wav|그런데 어제 국감장에 투석하는 정종한 성북동 부장 건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

1/NB10605984.0039.wav|낭비가 아니다

1/NB10605984.0040.wav|꼭 해야 할 사업을 했다고 생각한다

1/NB10605984.0041.wav|전임 장관은 4대강 사업이 낭비가 아니었다고 하고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로봇 물고기 사업도 값진 실패라고 말합니다

1/NB10605984.0042.wav|그러나 그 값진 실패에 따른 비싼 값은 과연 누가 치는 걸까요

1/NB10605984.0043.wav|또 앞으로 그 값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

1/NB10605984.0044.wav|만약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어렵다면 적어도 더 나쁜 곳으로 만들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만 한다

1/NB10605984.0045.wav|이 말은 네덜란드의 건축가 헤르만헤르츠버거 MRI

1/NB10605984.0046.wav|과연 4대강 사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떤 곳으로 맞는 걸까요

1/NB10605984.0047.wav|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일까요

1/NB10605984.0048.wav|잠시 후에 이어질 기획취재

1/NB10605984.0049.wav|4대강 사업과 거기에 들어가

1/NB10605984.0050.wav|9분

1/NB10605984.0051.wav|또 들어가야 해

1/NB10607174.0000.wav|뉴스룸 2부에 문을 열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

1/NB10607174.0001.wav|뉴스룸 2분은 역시 앵커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07174.0002.wav|오늘 뉴스룸이 주목한다 너는 소설입니다

1/NB10607174.0003.wav|사실 같지만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바로 소설인데요

1/NB10607174.0004.wav|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

1/NB10607174.0005.wav|분단국가인 남과북에는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은 사연들이 쏟아지고 합니다

1/NB10607174.0006.wav|오늘 남북의 별들이 아주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

1/NB10607174.0007.wav|7년 전에 마지막 장성급 회담에서

1/NB10607174.0008.wav|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사선 몸싸움 하자 벌어졌고

1/NB10607174.0009.wav|최근에 서로 송탄까지 주고 받은 사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

1/NB10607174.0010.wav|그러나 소설 같은 해피엔딩을 바라기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

1/NB10607174.0011.wav|바로 어제 일입니다 41 넘게 자취를 감췄던 김정은이 돌연 등장하면서

1/NB10607174.0012.wav|그동안에 정신이 상설의 사망설에 트랙터 서울까지

1/NB10607174.0013.wav|이렇게 쏟아졌던 소설같은 보도들은

1/NB10607174.0014.wav|하루아침에 오버가 되고 말았다

1/NB10607174.0015.wav|사실 북한을 향한 술은 되면 이런 소문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86년에 어떤가요

1/NB10607174.0016.wav|하루 사이에 주변 구글

1/NB10607174.0017.wav|83년 이었지

1/NB10607174.0018.wav|하루 사이에 주변국을 뒤집어 놓은 김일성 피격 사망설이 있었고

1/NB10607174.0019.wav|같은 날 조간신문에서 사망한 김일성이 석탄 신문에서는 다시 살아나

1/NB10607174.0020.wav|웃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

1/NB10607174.0021.wav|어찌 보면 김정은 신병이 상서를

1/NB10607174.0022.wav|북한이 얼마나 폐쇄되는 국가 인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

1/NB10607174.0023.wav|그러나 다친 사회를 향해서 계속되는 주변국에 업적과 언론에서 대는 소설들은

1/NB10607174.0024.wav|오히려 혼란과 까닭 모를 공포만 초대할 뿐이었습니다

1/NB10607174.0025.wav|그런 소설 같은 보다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

1/NB10607174.0026.wav|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가 이렇게 볼멘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

1/NB10607174.0027.wav|북한의 실세 3인방이 다녀가고 또 대통령이 524 조치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

1/NB10607174.0028.wav|사내는 정말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

1/NB10607174.0029.wav|그러나 소설 같은 통일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여분은

1/NB10607174.0030.wav|결국 꿈꾸는 자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

1/NB10607174.0031.wav|나는 이천

1/NB10607174.0032.wav|30년 내 줘 방글라데시에 빈곤이 사라지는 소설을 쓴다

1/NB10607174.0033.wav|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경제학자 무하마드 유누스 애 말입니다 자신의 소설 같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은행을 설립해서

1/NB10607174.0034.wav|빈곤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

1/NB10607174.0035.wav|똑같은 공식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

1/NB10607174.0036.wav|지금이 순간 남과 북은 어떤 소설을 함께 쓰고 있을까요

1/NB10607174.0037.wav|또한 남북의 사람들은 그 소설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

1/NB10607174.0038.wav|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

1/NB10611681.0000.wav|세차장 뉴스룸 이불을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

1/NB10611681.0001.wav|뉴스룸 앵커브리핑으로 문을 열 개

1/NB10611681.0002.wav|음료가 매우 뜨거우니

1/NB10611681.0003.wav|조심해야 된다

1/NB10611681.0004.wav|일용 커피잔에 쓰여있는 이런 문구를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

1/NB10611681.0005.wav|오늘 뉴스 이미 주목한다 너는 바로 뜨거운 커피

1/NB10611681.0006.wav|뜨거운 커피를 주문한 사람에게 뜨거우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

1/NB10611681.0007.wav|1994년에 미국에서 조금은 좀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화상을 입은 여성

1/NB10611681.0008.wav|소송을 걸어서

1/NB10611681.0009.wav|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받아낸 겁니다 그 돈으로

1/NB10611681.0010.wav|100만 불이 나 졌어

1/NB10611681.0011.wav|뜨거운 커피에 대해 수도 있다는 경고를 소리 한 쪽의 막중한 책임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

1/NB10611681.0012.wav|다른 장면을 하나 더 보실까요 일본 도심의 도로 공사장

1/NB10611681.0013.wav|지나는 확인이 거의 없는데도

1/NB10611681.0014.wav|둘레는 바리케이트가 쳐져요

1/NB10611681.0015.wav|안전요원까지 팔 수도 있어

1/NB10611681.0016.wav|지나가는 시민들 바로 옆에서 위험천만한 작업을 진행하는 우리의 공사 현장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전화

1/NB10611681.0017.wav|일본 삿포로에서 팜 11시

1/NB10611681.0018.wav|아무도 지나가지 않은데도 안전요원이서 있는 장면을 본받을

1/NB10611681.0019.wav|지난 주말에 16명의 사망자를 낸

1/NB10611681.0020.wav|환풍구 붕괴 참사

1/NB10611681.0021.wav|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막는 사람도 없었고

1/NB10611681.0022.wav|전공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인제

1/NB10611681.0023.wav|유역에서는 왜 조심 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도 물론 나옵니다 그러나 집단 속에 포함된 대중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

1/NB10611681.0024.wav|시험 결과가 하나 있는데

1/NB10611681.0025.wav|바로 1968년에 진행된 이른바 방관자 실험입니다

1/NB10611681.0026.wav|받침 방안에 연기가 세워 들어올 때 혼자 있던 사람 중에 75%가 재빨리 사실을 지적한 반면

1/NB10611681.0027.wav|여럿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불과 38% 많이

1/NB10611681.0028.wav|문제를 지적했다는 내용입니다

1/NB10611681.0029.wav|다시 말해서이 실험은 대중이 모일 경우의 책임이 다 분산이 돼서

1/NB10611681.0030.wav|위험물 과소평가게 된다 이런 결과를

1/NB10611681.0031.wav|보여주고 있는 것이죠

1/NB10611681.0032.wav|안전요원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

1/NB10611681.0033.wav|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으면서 통치하는 이상한 집에 형태

1/NB10611681.0034.wav|폴란드 출신의 사상가 지그문트 바우만 책임지지 않는 지금 스탭 국가와 사회시스템을 이렇게 정의

1/NB10611681.0035.wav|세월호 참사 이후의 안정이란 말을 그야말로 닳도록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

1/NB10611681.0036.wav|뜨거운 커피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

1/NB10611681.0037.wav|지나가는 행인이 없어도

1/NB10611681.0038.wav|홍 사장은 치킨은 안 좋냐

1/NB10611681.0039.wav|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

1/NB10611681.0040.wav|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자신의 책임을 다한 그 다음에

1/NB10611681.0041.wav|가장 마지막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

1/NB10612821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이불을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

1/NB10612821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

1/NB10612821.0002.wav|서울 성수대교에서 시작합니다

1/NB10612821.0003.wav|오늘 뉴스룸 2 주목한다 너는 통증입니다

1/NB10612821.0004.wav|몸이 아프다고 보내오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기도 하지요

1/NB10612821.0005.wav|매년 10월이 되면 잊혀졌던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

1/NB10612821.0006.wav|하는 인사 버릴 수가 없어

1/NB10612821.0007.wav|내가 억지로 머리 속의 지우 돼가지고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안 지워집니다 그렇다 생성하기 나지

1/NB10612821.0009.wav|비명 소리 못 해서

1/NB10612821.0011.wav|여기서

1/NB10612821.0012.wav|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제가 좀 빨리 와서 할머니 나 좀 더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랑합니다

1/NB10612821.0013.wav|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 저는 아침 뉴스 앵커였습니다

1/NB10612821.0014.wav|처음에 급보가 전해졌을 때만 해도 늦어 성수에 교회 난간 정도가 무너졌으리라고 여겨졌을 정도로

1/NB10612821.0015.wav|자형 다리 붕괴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

1/NB10612821.0016.wav|그러나 뒤로 들어온 상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

1/NB10612821.0017.wav|버스 타고 등교하던 8명의 여학생들을 포함해서 32명이

1/NB10612821.0018.wav|황망하게 목숨을 잃었다

1/NB10612821.0019.wav|거짓말처럼 잘려나가는 상판은 거야 물에 젖은 책 가방에 모습

1/NB10612821.0020.wav|종일 석포리 산 하던 차에 기억에서 성 세계는 20년째 여전히 선명한 통증으로 남아 있습니다

1/NB10612821.0021.wav|인제였습니다

1/NB10612821.0022.wav|사고 전에 7시 미니 다리에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관계자가이를 목살 했던 4시 알려 줬고

1/NB10612821.0023.wav|구조단 역시 한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

1/NB10612821.0024.wav|그보다 2년 전에는 신행주대교 가공사 중에 통째로 내려 앉았는데

1/NB10612821.0025.wav|오래된 다리에 대한 경각심은 없었습니다

1/NB10612821.0026.wav|88 올림픽 없어 그리고 올해는 굶고 장치를 상사 난 뒤에 문빈 정부가 들어선 들렸지

1/NB10612821.0027.wav|그런 상황에서

1/NB10612821.0028.wav|서울 한복판에서 한강 다리가 끊겨 따는 것은

1/NB10612821.0029.wav|어찌 보면

1/NB10612821.0030.wav|우리 자존감의 분과도 같았던 것입니다

1/NB10612821.0031.wav|그러나 불행하게도 성수대교 붕괴는 그 이후에 이어진다 형 참사에서 맛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

1/NB10612821.0032.wav|건물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삼풍백화점 사고

1/NB10612821.0033.wav|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

1/NB10612821.0034.wav|20년이 지난 노래만 해도

1/NB10612821.0035.wav|대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체육관이 무너졌다

1/NB10612821.0036.wav|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

1/NB10612821.0037.wav|또 지난 주말에는

1/NB10612821.0038.wav|공연을 보던 사람들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햇습니다

1/NB10612821.0039.wav|하늘과 땅 그리고 강과 바다에서 대형사고가 무고한 죽음들이

1/NB10612821.0040.wav|아침 대답이 환상처럼

1/NB10612821.0041.wav|반복되고 있는 거

1/NB10612821.0042.wav|하인리히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

1/NB10612821.0043.wav|큰 새가 오기 전에는

1/NB10612821.0044.wav|작은 제가 29

1/NB10612821.0045.wav|사소한 제가 300건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하 있니

1/NB10612821.0046.wav|어느 날 갑자기 이게 우연한 재난은 결코 없다는 것을

1/NB10612821.0047.wav|강조하고 있어

1/NB10612821.0048.wav|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밤이 있다

1/NB10612821.0049.wav|이 밤에 역사는 불행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

1/NB10612821.0050.wav|밤에 한 복판에서 있는 당신은

1/NB10612821.0051.wav|잠들지 말아야 한다

1/NB10612821.0052.wav|신영복 교수의 말입니다

1/NB10612821.0053.wav|1994년에 오늘

1/NB10612821.0054.wav|20년 전 그날 아침

1/NB10612821.0055.wav|7시 40분

1/NB10612821.0056.wav|안전에 관한 우리의 시간은 바로 거기서 멈춰서 있었던 것은 아닌지

1/NB10612821.0057.wav|그리고 우리의 밤에 한 복판에서 잠들어 버린 것은 아니었는지

1/NB10612821.0058.wav|20년 전의 성수대교는 우리에게 묻고

1/NB10613998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뉴스룸 앵커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13998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 해 주목한다 너는

1/NB10613998.0002.wav|정입니다

1/NB10613998.0003.wav|큰아들 우리 사회를 갑과 을이 존재하는

1/NB10613998.0004.wav|갑을 사회 갑을 관계라고 편하죠

1/NB10613998.0005.wav|여기 값도 일도 아니야

1/NB10613998.0006.wav|경애 위치에 놓인

1/NB10613998.0007.wav|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면서

1/NB10613998.0008.wav|함께 늘어나게 된 사람

1/NB10613998.0009.wav|집 앞이나 동네에서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마주치게 되는

1/NB10613998.0010.wav|바로 경비원

1/NB10613998.0011.wav|작년에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 경비원 수는 181006 -

1/NB10613998.0012.wav|평균 나이가 66입니다

1/NB10613998.0013.wav|짐작하셨겠지만 최근 경비원이란 직업에 시선이 다시 모아 주는 이유는

1/NB10613998.0014.wav|입주민의 모욕적인 대우에 상처입고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

1/NB10613998.0015.wav|한 아파트 경비원의 서현 때문입니다

1/NB10613998.0016.wav|사 하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라고 화단 아래로 던져 주는 듯

1/NB10613998.0017.wav|입주민으로부터 받은 수치심과

1/NB10613998.0018.wav|모멸감을 견디다 못해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

1/NB10613998.0019.wav|장재원

1/NB10613998.0020.wav|인삼 기능

1/NB10613998.0022.wav|실제로 전국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들이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는

1/NB10613998.0023.wav|지난 2010년부터 신고로 인해서 알려진 것만 700 16 거네 이름이

1/NB10613998.0024.wav|아파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관리인의 뺨을 때리고

1/NB10613998.0025.wav|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먹을 알려 줘

1/NB10613998.0026.wav|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 일까지 있었죠

1/NB10613998.0027.wav|알려준 사례가이 정도니까

1/NB10613998.0028.wav|경비원들의 감춰진 모멸감과 소름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고도 남는다

1/NB10613998.0029.wav|가해지는 가해자는 평범한 주민 드렸는데요

1/NB10613998.0030.wav|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면했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

1/NB10613998.0031.wav|그저 사용자라는 이유 하나로 평범한 사람들이 갑이 돼서 부리는 횡포를

1/NB10613998.0032.wav|경비원들은 값들도 아닌 경희대에서

1/NB10613998.0033.wav|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던 거

1/NB10613998.0034.wav|그러나

1/NB10613998.0035.wav|이번 사건

1/NB10613998.0036.wav|그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다녀

1/NB10613998.0037.wav|안타까운 일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

1/NB10613998.0038.wav|국제기구에서 발표한 통계치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노인 가운데 63%가

1/NB10613998.0039.wav|지금이 순간에도

1/NB10613998.0040.wav|돈을 벌고 있고 이중 80%는 오로지 3개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

1/NB10613998.0041.wav|황혼 노동이 더 이상 비켜갈 수 없는 현실 되면서 사람들이 3시 맞춰 보고 있는 직업들은

1/NB10613998.0042.wav|나 자신이 혹은

1/NB10613998.0043.wav|내 부모와 가족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

1/NB10613998.0044.wav|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내 자신이 기뻐지고

1/NB10613998.0045.wav|누군가를 괴롭히면 내 자신이 괴로워진다

1/NB10613998.0046.wav|그것이 바로 마음의 메아리

1/NB10613998.0047.wav|법정스님이 남긴 말입니다

1/NB10613998.0048.wav|아파트 경비원이 굴뚝에 올라 가서 시위를 해야 하고

1/NB10613998.0049.wav|심지어는 몸에 불을 붙이는 사람

1/NB10613998.0050.wav|우리가 나누는 마음에 메아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황폐해진 거야

1/NB10615428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뉴스룸 앵커브리핑으로 시작하기

1/NB10615428.0001.wav|오늘 뉴스룸이 주목한다 너는

1/NB10615428.0002.wav|지점

1/NB10615428.0003.wav|지난 1972년 6월로 돌아가 볼까요 미국 현대사를 뒤흔든 워터게이트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고 시작했습니다

1/NB10615428.0004.wav|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스 내 자신을 위해서 CIA 출신 이온이 포함된 비밀

1/NB10615428.0005.wav|상대방 있는 민주당 선거 캠프를 도청 하려다가 발각된 사건

1/NB10615428.0006.wav|이 여파로 2년 뒤에 대통령의 사인까지 했으니까

1/NB10615428.0007.wav|미국의 정치와 언론 시스템

1/NB10615428.0008.wav|1972년 워터게이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는 말이 나올만큼 큰 파장을 가져 왔었지

1/NB10615428.0009.wav|사건을 끈질기게 파이팅 주인공은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runtime 젊은 기다렸어

1/NB10615428.0010.wav|그리고 그 뒤에는 엄청난 권력에 오답을 뚝심있게 막아내면서 보도를 진두지휘한

1/NB10615428.0011.wav|편집인 벤자민 브래들리가 있었어

1/NB10615428.0012.wav|어제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 줬습니다

1/NB10615428.0013.wav|워터게이트 전송

1/NB10615428.0014.wav|전설적인 편집자

1/NB10615428.0015.wav|경쟁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 오바마 대통령도

1/NB10615428.0016.wav|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얼만큼 그가 언론사에 남긴 울리면

1/NB10615428.0017.wav|크고도 깊습니다

1/NB10615428.0018.wav|브래들리를 20세기를 대표하는 언론인으로 만드는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 1 뿐만이 아니었습니다

1/NB10615428.0019.wav|미국 정부의 베트남전 개입 과정을 담은 펜타곤 문건 보도가 있었는데요

1/NB10615428.0020.wav|브래들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보도를 막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벌인 끝에

1/NB10615428.0021.wav|국가안보를 이유로 아이폰 일을 치면 안 된다 이런 매우 상징적인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

1/NB10615428.0022.wav|사건을 단순하게 보지 말고 깊숙이 취재

1/NB10615428.0023.wav|언론과 정보가 너무 사이가 좋으면

1/NB10615428.0024.wav|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

1/NB10615428.0025.wav|탐사보도의 새장을 펼쳐낸 언론인 벤자민 브래들리

1/NB10615428.0026.wav|그가 언론을 향해서 남긴 말은

1/NB10615428.0027.wav|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

1/NB10615428.0028.wav|적용됩니다

1/NB10615428.0029.wav|그리고 그는 후배 기자들에게

1/NB10618854.0000.wav|뉴스룸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브리핑으로 시작을 하죠

1/NB10618854.0001.wav|오늘 뉴스 루미 주목한다는 재방송입니다

1/NB10618854.0002.wav|본방송을 놓쳤거나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요긴한 서비스죠 그런데

1/NB10618854.0003.wav|유독 여기에서는 썩 유쾌하지 않은 재방송이 무한반복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

1/NB10618854.0004.wav|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

1/NB10618854.0005.wav|어딜까요

1/NB10618854.0006.wav|서울맹학교 장광현 진정애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

1/NB10618854.0007.wav|한 번도 신문 안 하셨습니다 안민석 의원 신청 하셨는데

1/NB10618854.0009.wav|며칠 전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강연진 서울맹학교 교장은 증인 속에서 딱 4시간만

1/NB10618854.0010.wav|그저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야 했습니다

1/NB10618854.0011.wav|심지어 강원도 동해시에 서울까지 올라와서네 고객님 그렇다 한 마디로 답변을 맞추는 증인도 있었습니까

1/NB10618854.0012.wav|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허두승 나는 이런 풍경들 혹시 처음 보셨습니까

1/NB10618854.0013.wav|그렇다면 이런 장면은 어떠신지요

1/NB10618854.0014.wav|나가세요 하기 싫으면

1/NB10618854.0015.wav|윤정철 내놓고 나가지고

1/NB10618854.0016.wav|무슨 말씀이 몰래 한글 못 알아 먹어요 지금 기가 막혀서

1/NB10618854.0018.wav|예 따져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통인지 분간이 어려운 이런 장면들은 이번 국감에서 만 도드라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

1/NB10618854.0019.wav|매년 이론상 며느리 무한 반복 되면서 국감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증인들의 수법도

1/NB10618854.0020.wav|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

1/NB10618854.0021.wav|1 - 3 \*

1/NB10618854.0022.wav|이 말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

1/NB10618854.0023.wav|1시

1/NB10618854.0024.wav|미리 연수를 동안 안 팔고 있어서 증인 채택이 안 되게 한다

1/NB10618854.0025.wav|이도

1/NB10618854.0026.wav|해외로

1/NB10618854.0027.wav|오케바리

1/NB10618854.0028.wav|상병

1/NB10618854.0029.wav|아파서 입원했던 핑계를 댄다 이런 의미인데

1/NB10618854.0030.wav|실제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각 국감출석 당일에 비행기 시간까지 바꿔 가면서 출장을 떠나서 이른바

1/NB10618854.0031.wav|뺑소니 소장이란 얘길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그냥 끝에

1/NB10618854.0032.wav|결국 출석을 했죠

1/NB10618854.0033.wav|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시선은 45도 아래로 표정은

1/NB10618854.0034.wav|딱딱하지 않게 하라

1/NB10618854.0035.wav|이런 내용의 국감 증인 출석 용구 외과에 맞어 암암리에 성행 중이라고 하니까

1/NB10618854.0036.wav|반짝 국방 시즌 동안에 방심하면 하고 보자는 증인들의

1/NB10618854.0037.wav|갈수록 교묘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

1/NB10618854.0038.wav|매년 반복되는 국감의 풍경도 7시 재미 있으십니까

1/NB10618854.0039.wav|아니면

1/NB10618854.0040.wav|지겨워 오십니까

1/NB10618854.0041.wav|주막 안성과 주마가편

1/NB10618854.0042.wav|처음 국감을 시작하다 날에 저희 뉴스룸 내놨던 2개 말과 관련된 사자성어 했습니다

1/NB10618854.0043.wav|급하게 준비하는 국방 였지만 주마간산 말해 올라서 풍경을 대충 살피듯이 보지 말고

1/NB10618854.0044.wav|주마가편

1/NB10618854.0045.wav|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열심히 해 달라 그런 의미 였는데요 아마

1/NB10618854.0046.wav|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바람을 가셨을 것 같습니다

1/NB10618854.0047.wav|그러나 이번 국감에 결과는

1/NB10618854.0048.wav|아무래도 또다시 말이 들어가는 사자성어

1/NB10618854.0049.wav|매듭 지어야 할 것 같아

1/NB10620453.0000.wav|매실청 자려고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20453.0001.wav|예 다들 아시는 노래입니다 하나뿐이라는 공연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진작 하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51회 저축의 날이었습니다 베트남 1964년에 가난탈출 지상과제로 내선 박정희 정부가 만들었고요

1/NB10620453.0002.wav|저 출근 애국이다 이런 9월에 한 푼 두 푼 열심히 저축한 사람들한테

1/NB10620453.0003.wav|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팔아 주기로 했습니다

1/NB10620453.0004.wav|당시 기사들을 좀 살펴 볼까요

1/NB10620453.0005.wav|점심굶기 27년 신발 끼워 700만원 저축

1/NB10620453.0006.wav|신문 팔아픔 던져 줘

1/NB10620453.0007.wav|집사 고도 2000여만원 모아

1/NB10620453.0008.wav|이런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

1/NB10620453.0009.wav|담뱃값 해도 요즘 흔히 보이는 흡연 경고문구가 아니라 절약 저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었지

1/NB10620453.0010.wav|대통령 역시 몸서 저축을 신청했습니다 매달 5천 원씩 뽀뽀 적음

1/NB10620453.0011.wav|박정희 대통령이 매월 25일 5,000원 식을 예금 한다는 내용도 소개가 이렇게 떠요

1/NB10620453.0012.wav|그렇다면 반세기가 지난 오늘의 우리 사회 빨간 돼지 저금통 오늘은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을까

1/NB10620453.0013.wav|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가계저축률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

1/NB10620453.0014.wav|1988년도에 24.7%

1/NB10620453.0015.wav|정점을 찍은 가계저축률

1/NB10620453.0016.wav|90년대부터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

1/NB10620453.0017.wav|작년에 가게에 저축률은 4.5%

1/NB10620453.0018.wav|OECD 평균이 5.3% 이니까

1/NB10620453.0019.wav|세계 꼴찌 수준의 저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

1/NB10620453.0020.wav|자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 출고 달고 계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불과 반세기만에 왜 이렇게 달라진 거 있을까요

1/NB10620453.0021.wav|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최근 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 1% 대로 내려갔습니다

1/NB10620453.0022.wav|돈 있어도 은행에 놓지 않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

1/NB10620453.0023.wav|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

1/NB10620453.0024.wav|저축할 돈이 없다

1/NB10620453.0025.wav|갈 곳을 잃어서 떠도는 돈 그렇게 단기부동자금에 약 757조 원으로 사상최대라고 하는 오늘인데 이와는 정반대로 가게 부천

1/NB10620453.0026.wav|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1040 저번에 바랍니다

1/NB10620453.0027.wav|다시 말해서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 돈을 맡겨야 될지 모르고 없는 사람들은 빚만 잔뜩 쌓아 놓았을뿐

1/NB10620453.0028.wav|저축할 이유도 여유도 의지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

1/NB10620453.0029.wav|또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

1/NB10620453.0030.wav|금강 몇 년 전에 대주주들의 각종 탈법과 잘못된 투자 그리고

1/NB10620453.0031.wav|금융당국의 부상 관리감독이 초래한 저축은행 사태

1/NB10620453.0032.wav|무료 9만 3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

1/NB10620453.0033.wav|치핵은 모두 합쳐서 1조 2000억원에 이름이

1/NB10620453.0034.wav|저축이 일정에 제한으로 돌아온 겁니다

1/NB10620453.0035.wav|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저축 하라고 격려하는 것도

1/NB10620453.0036.wav|자녀들한테 빨간 돼지저금통과

1/NB10620453.0037.wav|땡그랑 한 푼 노래를 가르치면서

1/NB10620453.0038.wav|저축의 미덕을 강조하는 것도 참으로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

1/NB10620453.0039.wav|너와 나의 복된 미래적으로 설계하자

1/NB10620453.0040.wav|국가가 저축을 장 8시 전에 사용되던 표입니다

1/NB10620453.0041.wav|지금 20대 저축은

1/NB10620453.0042.wav|과거 고성장 시대 낡은 유물이 됐다

1/NB10620453.0043.wav|그리고 저 쪽에 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

1/NB10620453.0044.wav|나야말로 맹장 초록나무

1/NB10620453.0045.wav|그래서 퇴화된

1/NB10620453.0046.wav|진짜 맛있는 것만 같습니다

1/NB10622041.0000.wav|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

1/NB10622041.0001.wav|오늘 이제

1/NB10622041.0002.wav|앵커브리핑 시작할 텐데 오늘 뉴스 선택한다

1/NB10622041.0003.wav|동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젠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바둑 용어

1/NB10622041.0004.wav|이상입니다

1/NB10622041.0005.wav|바둑은 누가 집을 많이 만드느냐가 승패를 가는데 자기집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집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을 미생 즉 생사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하고요

1/NB10622041.0006.wav|자기 집으로 확정이 된 상태를 완생이라고 부른다고

1/NB10622041.0007.wav|이미 생이란 단어를 내놓은 이유는 최근에 최근 아니죠 벌써

1/NB10622041.0008.wav|한 2 3년 됐습니다

1/NB10622041.0009.wav|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화제목입니다

1/NB10622041.0010.wav|며칠 전에 누적판매부수 100만부를 넘겼고

1/NB10622041.0011.wav|최근에는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역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다

1/NB10622041.0012.wav|내용 어찌 보면 매우 평이합니다 온도 100도 없는 젊은이가

1/NB10622041.0013.wav|종합무역상사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가서 겪는 이야긴데

1/NB10622041.0014.wav|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웃고 울고 또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

1/NB10622041.0015.wav|무엇일까요

1/NB10622041.0016.wav|작은 가면 며칠 뒤에는 발 형 마트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하트가 개봉됩니다

1/NB10622041.0018.wav|잠깐 볼까요 예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

1/NB10622041.0019.wav|예 가족의 생계를 아이의 학비를 위해서 노후 밥벌이 문제로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

1/NB10622041.0020.wav|최근 들어서 이런 영화 드라마가 쏟아지고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

1/NB10622041.0021.wav|어제 통계청 자료 보니까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려 600만명을 넘어섰으며

1/NB10622041.0022.wav|월급을 받는 사람의 셋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고

1/NB10622041.0023.wav|그 비정규직의 셋 중 하나는 또 시간제노동자라고 합니다

1/NB10622041.0024.wav|공식 통계수치가이 정도니까 짐작하건데 잡히지 않는 수준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

1/NB10622041.0025.wav|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초화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직업선택의 최우선 같이 역시 달라졌지

1/NB10622041.0026.wav|10년 전에 직업선택의 1순위 조건 있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

1/NB10622041.0027.wav|직업선택의 1순위는 다름 아닌 안정성으로 바뀌었습니다

1/NB10622041.0028.wav|600만명을 넘어섰으며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일들을

1/NB10622041.0029.wav|미선이 그저 단순한 만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 카드가

1/NB10622041.0030.wav|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

1/NB10622041.0031.wav|너무 줘 빨리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

1/NB10622041.0032.wav|편의점에서 백화점과 마트에서 그리고 아파트 경비실

1/NB10622041.0033.wav|회사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

1/NB10622041.0034.wav|영화가 그리고 만화가

1/NB10622041.0035.wav|아침에 이야기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

1/NB10622041.0036.wav|바둑판 위에서 의미없는 돌은 없다

1/NB10622041.0037.wav|바로

1/NB10622041.0038.wav|마미 상에 한 구절

1/NB10622041.0039.wav|바둑은 우리가 사는 세상가 달만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둑판에 노인

1/NB10622041.0040.wav|우리의 삶을

1/NB10622041.0041.wav|비록 미생이라 해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

1/NB10622041.0042.wav|평가 받고 있는 걸까요

1/NB10622041.0043.wav|만화 미생의 작가 윤태호 씨가

1/NB10622041.0045.wav|제 옆에

1/NB10623646.0001.wav|오늘 뉴스룸이 주목한 단어

1/NB10623646.0002.wav|앵커브리핑

1/NB10623646.0003.wav|단어는

1/NB10623646.0004.wav|합입니다

1/NB10623646.0005.wav|며칠 전에

1/NB10623646.0006.wav|전북 전주 시청에 밥과 관련된 손편지 갖고 처리했습니다

1/NB10623646.0007.wav|밥이 너무 맛있어서

1/NB10623646.0009.wav|회사 다르면 짱짱짱 맛있다고 해서

1/NB10623646.0010.wav|구글이 사 먹었다

1/NB10623646.0011.wav|너무너무 감사하다

1/NB10623646.0012.wav|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

1/NB10623646.0013.wav|글씨는 뭐 비트 배틀 하지마

1/NB10623646.0014.wav|오후 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

1/NB10623646.0015.wav|현재는 전주시가 아침을 먹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한테 배달 중인 아침 도시락 수거 하면서 발견됐어

1/NB10623646.0016.wav|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이 또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연일 텐데

1/NB10623646.0017.wav|아이들이 밥과 관련된 놀랄만한 결과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동양육시설 과거에 놓고 원이라고 부르던 것이죠 여기에 지원되는 급식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

1/NB10623646.0018.wav|일반중학교 급식비가 4천 원이고요

1/NB10623646.0019.wav|저소득층 최저 급식비 권고 금액이 3,500원 있는데 비해서

1/NB10623646.0020.wav|이런 시설아동 급식비는

1/NB10623646.0021.wav|최적 급식데도 못 미치는 2,000원

1/NB10623646.0022.wav|당연히 식당은 비쌀 수밖에 없다

1/NB10623646.0023.wav|아름다운 재단이 지난 1년 동안의 시설아동 84 맥에 3,500원이 넘는 급식비를 지원 했더니

1/NB10623646.0024.wav|다른 시설 아동들 보다 키가 더 많이 자라고

1/NB10623646.0025.wav|체중도 더 늘었다는 건

1/NB10623646.0026.wav|앞서 소개한 손편지 학생 그리고

1/NB10623646.0027.wav|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모두

1/NB10623646.0028.wav|점심은 학교에서 무상급식 애들 받고 있겠죠

1/NB10623646.0029.wav|앞으로이 아이들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

1/NB10623646.0030.wav|며칠 전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

1/NB10623646.0031.wav|뭐 잘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

1/NB10623646.0032.wav|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

1/NB10623646.0033.wav|정복의 사정은 가까이되는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 부담으로 몽땅 돌려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

1/NB10623646.0034.wav|반발하고 있는 교육감들이

1/NB10623646.0035.wav|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

1/NB10623646.0036.wav|물론 무상급식이 줄어든다고 해서

1/NB10623646.0037.wav|저소득층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

1/NB10623646.0038.wav|루나

1/NB10623646.0039.wav|저거는 이것만은 분명 할 것 같습니다

1/NB10623646.0040.wav|자칫하면

1/NB10623646.0041.wav|밥은 밥이다

1/NB10623646.0042.wav|눈칫밥을 먹는

1/NB10623646.0043.wav|누군가에게는 눈물 나는 급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

1/NB10623646.0044.wav|한은서 물고 날은 파악하고

1/NB10623646.0045.wav|볕은 서럽게 차갑고

1/NB10623646.0046.wav|백석 시인의 메세 소리 중에 한 구절

1/NB10623646.0047.wav|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

1/NB10623646.0048.wav|더 이상 밥이 누군가에게 서러움으로 다가 오는 날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

1/NB10623646.0049.wav|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선생에 돌입했습니다

1/NB10623646.0050.wav|그리고 웃는 아이에서 편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

1/NB10627990.0000.wav|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앵커브리핑부터 준비했습니다

1/NB10627990.0001.wav|오늘 뉴스룸이 주목한다는 국밥이

1/NB10627990.0002.wav|지난 주말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

1/NB10627990.0003.wav|60대 독거 노인이 자신의 장례 비와 밀린 공과금을 가지런히 남겨 놓은 채

1/NB10627990.0004.wav|스스로

1/NB10627990.0005.wav|목숨을 끊은 사연

1/NB10627990.0006.wav|고맙습니다

1/NB10627990.0007.wav|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지요

1/NB10627990.0008.wav|헤이즈 마치고

1/NB10627990.0009.wav|어부인 이런 내 뭐가 적혀 있었고 봉투안에는 빳빳한 만원권 10장이 들어있었다고 하지요

1/NB10627990.0010.wav|짐작컨데 기분은 매우 정갈한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다 뭔가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

1/NB10627990.0011.wav|못 견뎌 했을 때

1/NB10627990.0012.wav|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생활고를 비관한 일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면서 추워진 날씨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둡고도 스산하게 만들고

1/NB10627990.0013.wav|홀로사는

1/NB10627990.0014.wav|그리고 가난한 노인 앞에 다가 온 세상

1/NB10627990.0015.wav|어떤 모습이었을까

1/NB10627990.0016.wav|통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

1/NB10627990.0017.wav|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무료 95명 다시 말해서

1/NB10627990.0018.wav|건강한 노인 200명 중에 5도 안 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다

1/NB10627990.0019.wav|한 달 동안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노인 가구가 절반 이상 일하는 통계도

1/NB10627990.0020.wav|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노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회비에서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이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시간제가 대부분입니다

1/NB10627990.0021.wav|답답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까요 노인의 자살률 역시 평균보다

1/NB10627990.0022.wav|월등히 높습니다

1/NB10627990.0023.wav|결국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몸이 아프고

1/NB10627990.0024.wav|또

1/NB10627990.0025.wav|아프게 다가올 가나 내까지 시달리고 있는

1/NB10627990.0026.wav|이런 구호를 기억하실 겁니다 효도하는 효도 정답

1/NB10627990.0027.wav|선거철 아니 지금 한다면 정치권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렇다면

1/NB10627990.0028.wav|차가운 방에서 혼자 유서를 쓰고

1/NB10627990.0029.wav|스스로 장례 비까지 챙기는 노인

1/NB10627990.0030.wav|우리네 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

1/NB10627990.0031.wav|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다

1/NB10627990.0032.wav|살아간다는게

1/NB10627990.0033.wav|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러

1/NB10627990.0034.wav|함민복 시인의 작품 중에 한 구절이 어스

1/NB10627990.0035.wav|지금 우리는 복집 없다 심지어

1/NB10627990.0036.wav|억지 파이팅을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

1/NB10627990.0037.wav|그러나 가난한 마주한 지금의 노인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노인들에게

1/NB10627990.0038.wav|우리가 외치는 복지는

1/NB10627990.0039.wav|반지 더부룩한

1/NB10627990.0040.wav|홈페이지도 모르겠어

1/NB10629447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은 동시 한 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

1/NB10629447.0001.wav|나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

1/NB10629447.0002.wav|국제 중학교를 나왔어

1/NB10629447.0003.wav|민사고를 나와서

1/NB10629447.0004.wav|하버드 내려갈거다

1/NB10629447.0005.wav|그래 그래서 나는

1/NB10629447.0006.wav|내가 하고 싶은

1/NB10629447.0007.wav|정말 하고 싶어

1/NB10629447.0008.wav|미용사가 될 거야

1/NB10629447.0009.wav|아마 들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쓴 8살에 꿈이랑 제목의 동심

1/NB10629447.0010.wav|아마도 민사고 와 하버드 대학은 어른들의 꿈이 되고

1/NB10629447.0011.wav|미용사가 되고픈 아이는

1/NB10629447.0012.wav|어른들 위해서 좋은 학벌과 스펙을 쌓아야만 해

1/NB10629447.0013.wav|1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

1/NB10629447.0014.wav|그러나 오늘 뉴스룸 주목한다 너는 1등이 아니

1/NB10629447.0015.wav|꼴찌

1/NB10629447.0016.wav|왜일까요

1/NB10629447.0017.wav|외면 하고 싶은 성적표가 하나 있습니다

1/NB10629447.0018.wav|60점 3점

1/NB10629447.0019.wav|복지부가 학생들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

1/NB10629447.0020.wav|그리고 54.8%

1/NB10629447.0021.wav|아동결핍지수 내 옆집 학생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고 답한 수치를 따져보면 제 자리는 더욱 확실해집니다

1/NB10629447.0022.wav|얼핏 화면으로만 봐도

1/NB10629447.0023.wav|어

1/NB10629447.0024.wav|오재석 두번째인 헝가리 와도 커다란 차이가 나지요 압도적인 꼴찌

1/NB10629447.0025.wav|배차 아이들한테는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

1/NB10629447.0026.wav|문항별로 살펴보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데

1/NB10629447.0027.wav|정기적인 취미 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이런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것입니다

1/NB10629447.0028.wav|1등만을 강요하지만 정작 행복 지수는 울진항

1/NB10629447.0029.wav|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

1/NB10629447.0030.wav|그리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외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

1/NB10629447.0031.wav|확대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을 예고 중인 초중고등학교 9시등교 제 그리고

1/NB10629447.0032.wav|예상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

1/NB10629447.0033.wav|찬성과 반대 입장이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 아이들 삶의 질과

1/NB10629447.0034.wav|지정 취소 여부를 두고 소송까지 진행될 자율형 사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

1/NB10629447.0036.wav|그런데 논쟁하는

1/NB10629447.0037.wav|어른들 모습을 보면 정작 중요한 무언가를 빼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

1/NB10629447.0038.wav|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진영 바르게만 몰두한 나머지

1/NB10629447.0039.wav|지금의 논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

1/NB10629447.0040.wav|이걸 입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

1/NB10629447.0041.wav|1930년대를 살았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

1/NB10629447.0042.wav|어른이 어린이를 내리 누르지 말자

1/NB10629447.0043.wav|30년 40년 뒤진 옛 사람이 30년 40년 앞 사람을 잡아 길 좀 알려 줘

1/NB10629447.0044.wav|맑은 사람은

1/NB10629447.0045.wav|새 사람을 위하여

1/NB10629447.0046.wav|그들의 뒤를 따라서 만 새로 가질 수도 있고

1/NB10629447.0047.wav|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

1/NB10629447.0048.wav|방정환 선생은

1/NB10629447.0049.wav|이미 거의 200년 전에

1/NB10629447.0050.wav|아이들이 틀어서 어른을 앞선 사람이라고 했다

1/NB10629447.0051.wav|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했지

1/NB10629447.0052.wav|그리고

1/NB10629447.0053.wav|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

1/NB10629447.0054.wav|어른들에게 내린 울린 아이들이 불행을 이야기하는

1/NB10629447.0055.wav|그래서

1/NB10629447.0056.wav|아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인 나라

1/NB10629447.0057.wav|남아 있어

1/NB10631198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앵커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이 주목한다는 8시

1/NB10631198.0001.wav|질문입니다

1/NB10631198.0002.wav|저는 오늘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보고 신해철 씨가 지난 1995년에 발표한 노래 제목이 이동하죠

1/NB10631198.0003.wav|면접에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

1/NB10631198.0004.wav|그는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하고 예방이 가능했던 사망의 수치가이 정도로 그 말을 해

1/NB10631198.0005.wav|좀 과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

1/NB10631198.0006.wav|진짜로 더운게 잡힌 수질을 지금부터

1/NB10631198.0007.wav|보여 드리고

1/NB10631198.0008.wav|지난 2010년 이후의 의료 사고로 인한 소송은 매년

1/NB10631198.0009.wav|손 건에 육박하고

1/NB10631198.0010.wav|법정으로 바로 가기 바로 전단계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접수된 의료 분쟁 역시

1/NB10631198.0011.wav|작년 한 해 동안

1/NB10631198.0012.wav|3만 6천 원에 달라고

1/NB10631198.0013.wav|여기서 환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

1/NB10631198.0014.wav|대법원에 따르면

1/NB10631198.0015.wav|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승소한 경우는

1/NB10631198.0016.wav|1심판결에 기준으로 해서

1/NB10631198.0017.wav|전체 1%에도 미치지 못하고

1/NB10631198.0018.wav|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 정도 되겠지

1/NB10631198.0019.wav|민사소송 법에 따르면 병원측의 과실을 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

1/NB10631198.0020.wav|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에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은

1/NB10631198.0021.wav|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먹긴 설명없이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

1/NB10631198.0022.wav|미국의 웨버 의사인 아트 가운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학은

1/NB10631198.0023.wav|불완전한 과학인

1/NB10631198.0024.wav|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모험

1/NB10631198.0025.wav|이렇게 말했어

1/NB10631198.0026.wav|목숨을 건 외줄 타기의 비유 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현대 의학의 아직은 수많은 오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

1/NB10631198.0027.wav|물론 의학적으로

1/NB10631198.0028.wav|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

1/NB10631198.0029.wav|또 믿고 싶지 않은 죽음의 원인을 의료진의 과제에서 찾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

1/NB10631198.0030.wav|그러나 환자의 승소율이 불과 1%도 안되는 의료 소송에 가혹한 현실을

1/NB10631198.0031.wav|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

1/NB10631198.0032.wav|법은 환자보다 의사를 더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

1/NB10631198.0033.wav|이제 그 첫 걸음을 겨우 때입니다

1/NB10631198.0034.wav|신해철 씨의 죽음으로 인해

1/NB10631198.0035.wav|뛰는 거 싫은 사람에게

1/NB10631198.0036.wav|내게 다가올

1/NB10631198.0037.wav|끝나려면

1/NB10631198.0038.wav|나는 무엇을 찾았다 말을 해야 하는가

1/NB10631198.0039.wav|지하철 중에서 어떤 넥스트가 발표했던 그 노래 한 구절

1/NB10631198.0040.wav|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곁을 떠난고 신해철

1/NB10631198.0041.wav|자신이 아닌 우리에게 무엇을 찾았냐고 묻고

1/NB10633045.0000.wav|매실청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앵커브리핑을 시작하지

1/NB10633045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을 선택한다는

1/NB10633045.0002.wav|반반입니다

1/NB10633045.0003.wav|예

1/NB10633045.0004.wav|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

1/NB10633045.0005.wav|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반반 짬짜면 일한게 있지

1/NB10633045.0006.wav|주말 저녁이면 생각 나는 치맥 역시

1/NB10633045.0007.wav|양념 반 후라이드 반

1/NB10633045.0008.wav|그래서 양반 후반이 인기 기도합니다

1/NB10633045.0009.wav|선택이 어려울 때 고르게 저는 반반이 돼 생일 섬인데

1/NB10633045.0010.wav|요즘 다른 의미에서

1/NB10633045.0011.wav|회사가 대구에는 반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

1/NB10633045.0012.wav|어이가 없다 몸을 정치 외교 반에 걸치는 것은 잘못했다

1/NB10633045.0013.wav|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을 내고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 4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

1/NB10633045.0014.wav|몰라 그렇다고 해서 절대 출발한다 이런 말은 없긴 했습니다만

1/NB10633045.0015.wav|유도 보니까 경쟁하듯 손을 내밀었던 정치권이 좀 머쓱해진 상황이 됐죠

1/NB10633045.0016.wav|그동안에 반 총장은 두고 버린 여의 경제는 그야말로 나 뜨거울 정도였습니다

1/NB10633045.0017.wav|공교롭게도 반기문 총장의 별명 역시

1/NB10633045.0018.wav|반반이라고 합니다

1/NB10633045.0019.wav|뭔데 애매한 오빠 때문에 기도하고 또 누구에게도 욕 먹지 않는 적당한 처지는 때문이기도 하다

1/NB10633045.0020.wav|이번에도 여당과 야당이 모두 글을 잡아당기는 셈이니까 명불허전 반반이라는 별명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

1/NB10633045.0021.wav|어찌 됐든 정치권은 아직 온전히 희망을 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반 총장의 공식 성명서 어디에도

1/NB10633045.0022.wav|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정치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

1/NB10633045.0023.wav|우정잉

1/NB10633045.0024.wav|부정한

1/NB10633045.0025.wav|반반 정치

1/NB10633045.0026.wav|요즘 유행하는 말처럼

1/NB10633045.0027.wav|사귈 듯 말 듯 하는

1/NB10633045.0028.wav|애매한 관계가 됐단 얘깁니다

1/NB10633045.0029.wav|정치적인 대척점에서서 있는 두 정당이 한 사람을 향해서 보내고 있는 구매 후에 혹은

1/NB10633045.0030.wav|미리 흠집내기

1/NB10633045.0031.wav|요 어떻게 보시는지요

1/NB10633045.0032.wav|아 점심 빨리 갑작스레 불어닥친 반기문 10분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정당정치가 갖고 있는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

1/NB10633045.0033.wav|여야 모두가 혁신과 새정치를 외치고 있지만

1/NB10633045.0034.wav|정작 내부에서는 희망도 돼 안도 오인페 하기 어렵다는 현실을

1/NB10633045.0035.wav|아 저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

1/NB10633045.0036.wav|권력은 늘 위험하다

1/NB10633045.0037.wav|가장 나쁜 것들을 유혹하면서

1/NB10633045.0038.wav|가장 좋은 것들

1/NB10633045.0039.wav|타락시킨다

1/NB10633045.0040.wav|미국의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에드워드 에디의 말입니다

1/NB10633045.0041.wav|이 말은 반 총장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

1/NB10633045.0042.wav|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쓸까요

1/NB10633045.0043.wav|역시 지금은

1/NB10633045.0044.wav|반바지

1/NB10637509.0000.wav|museum 오늘 여기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먼저 앵커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

1/NB10637509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다 너는 도둑입니다

1/NB10637509.0002.wav|바로 어제는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꼭 2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시민들에게 1989년에

1/NB10637509.0003.wav|베를린 장벽 붕괴

1/NB10637509.0004.wav|마치 도둑처럼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

1/NB10637509.0005.wav|화면을 잠시 보실까요

1/NB10637509.0006.wav|마이너

1/NB10637509.0007.wav|바로 지체 없이 생들 것이다

1/NB10637509.0008.wav|동독 고위관료가 주민 여행자유화 조치를 설명하면서

1/NB10637509.0009.wav|의도치 않게 소독 가지를 포함해서 바로 당장이라고 말했습니다

1/NB10637509.0010.wav|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수로 온 것들은이 말 한 마디에 텔레비전을 보던 동독 사람들이 맡긴 베를린장벽으로 몰려갔고

1/NB10637509.0011.wav|냉전의 괴물이라고 불리었던 장벽이 하루아침에

1/NB10637509.0012.wav|무너지게 된 것이죠

1/NB10637509.0013.wav|그러나 베를린 장벽은 그저 도둑처럼 위원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

1/NB10637509.0014.wav|브란트 서독 총리가 꾸준히 추진해온 동방정책 그리고

1/NB10637509.0015.wav|자유를 향한 열망과 심인정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였던 것입니다

1/NB10637509.0016.wav|25년 전에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켜본 분단 한국 역시 뜨거운 열망이 빠졌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

1/NB10637509.0017.wav|꿈 같은 통일이

1/NB10637509.0018.wav|휴전선 철조망이 마치 꽃 길처럼 변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

1/NB10637509.0019.wav|최근에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통일은 도둑 같이 온다

1/NB10637509.0020.wav|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다

1/NB10637509.0021.wav|어찌 보면 그만큼 통일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나이 즈음에 남북관계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고는

1/NB10637509.0022.wav|크고 작은 총 성분입니다

1/NB10637509.0023.wav|오늘도 휴전선 경고 사격이 있었지

1/NB10637509.0024.wav|두려운 것은 이런 국지적인 만철이 어느새 일상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

1/NB10637509.0025.wav|남북이 서로를 향한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

1/NB10637509.0026.wav|통일 도둑처럼 대박을 치면서 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

1/NB10637509.0027.wav|당장 주말 사이에 동북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

1/NB10637509.0028.wav|북한에 억류 미국인 석방 하면서 북미 적분이 이루어졌고 오늘은

1/NB10637509.0029.wav|중일정상회담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

1/NB10637509.0030.wav|통일은 그냥 공부가 왜 교전에서조차 처음처럼 고립된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분석가들의 얘기입니다

1/NB10637509.0032.wav|풀벌레 오가고 바람은 흐르고 마음도 그러게 녹슬은 철망을 거두고 마음껏 흘러서 가게 김민기 씨의 노래 철망 앞에 한 구절입니다 풀벌레 바람도 마음대로 오가는데 사람의 마음을 바쳐 있으니 25년 전에 베를린장벽 붕괴는 우리에겐 여전히 남의

1/NB10639096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

1/NB10639096.0001.wav|앵커브리핑로 시작하기

1/NB10639096.0002.wav|이 시간 이후로 정치색을 법칙을 주시기 바랍니다

1/NB10639096.0004.wav|졸려 수색 중단 결정으로 인해

1/NB10639096.0005.wav|정부의 9 4 5

1/NB10639096.0006.wav|참 슬픈 노래 말 못하는 고통스러운 신정동

1/NB10639096.0007.wav|자유를 위한 공무원 분들과

1/NB10639096.0008.wav|자원봉사자 님들의 고생도

1/NB10639096.0009.wav|지역으로 힘들어하는 진도 국민의 아픔도 모두 눈 녹듯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

1/NB10639096.0011.wav|세월호 참사 211

1/NB10639096.0012.wav|결국 9명의 생명이

1/NB10639096.0013.wav|차가운 바다 속에 남겨야 돼

1/NB10639096.0014.wav|그리고 지금부터 아홉명의 이야기를 다시

1/NB10639096.0019.wav|미칠 것 같아

1/NB10639096.0020.wav|제일 다른 내게 나지

1/NB10639096.0023.wav|오이지

1/NB10639096.0024.wav|강릉 참을 수 내게 주어진 다른 길 없어

1/NB10639096.0025.wav|너는 내가 이름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때 온 우주가 그 소망을 올 것이다 닦아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중에 한 구절

1/NB10639096.0026.wav|잊지 않겠습니다

1/NB10640807.0000.wav|대신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앵커브리핑을 준비해서

1/NB10640807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이 주목한다는 새책입니다

1/NB10640807.0002.wav|좀 얄미운 단어죠 제대로 하려면 또 눈치도 좀 있어야 하고요

1/NB10640807.0003.wav|바로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사치가 한건 있었습니다

1/NB10640807.0004.wav|눈치 좀 없었던 거 같긴 합니다 정부가 달탐사의 2415번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들이밀었던 주장이 나온 겁니다

1/NB10640807.0005.wav|권예진 첫째는 달탐사의 산 시작이라도 합시다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함

1/NB10640807.0006.wav|정부는 왜 몰라 늘 감사하면서까지 쪽지를 드릴게 되는 것일까

1/NB10640807.0007.wav|여수 상가

1/NB10640807.0008.wav|대선후보 TV 토론 해당 싫어 돌아가 보기

1/NB10640807.0009.wav|지금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

1/NB10640807.0010.wav|보내는 계획이 있는데

1/NB10640807.0011.wav|저는 국어를 2020년까지 합 당기려고 합니다

1/NB10640807.0012.wav|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

1/NB10640807.0013.wav|흘리게 될 것입니다

1/NB10640807.0014.wav|예 달에 태극기를 플레이한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생겨난 미래창조과학부 역시

1/NB10640807.0015.wav|계획을 앞당겨 틀어

1/NB10640807.0016.wav|예정대로라면 사기 대상이 틀어지면 2017년에는 발사체가 시험 봤어 되는 대형 우주쇼가

1/NB10640807.0017.wav|펼쳐지게

1/NB10640807.0018.wav|근데 이건 우리의 봤어 제가 아닌 미국에 봤어

1/NB10640807.0019.wav|입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어

1/NB10640807.0020.wav|우리는 다 이후에 너를 돈은 그래도 선만 그 위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

1/NB10640807.0021.wav|그로부터 바로 3년 뒤인 2020년에

1/NB10640807.0022.wav|우리의 기술력으로 발사체를 만들어서 달 착륙 선까지 보낼 수 있을지

1/NB10640807.0023.wav|과제로 남습니다

1/NB10640807.0024.wav|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강의실 전 과정을 우리가 한다면 2015년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

1/NB10640807.0025.wav|기억하시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우주인을 보낸다고 260억 원이나 들였지만

1/NB10640807.0026.wav|결과적으로는 우주관광 만하고 왔다 하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

1/NB10640807.0027.wav|그 우주인 이소연씨 난 지금

1/NB10640807.0028.wav|항공 우주 연구원을 떠났지

1/NB10640807.0029.wav|또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발사체를 너 싫어 의존해야 했던 나로호 사업에 대한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

1/NB10640807.0030.wav|달을 가리키는데

1/NB10640807.0031.wav|왜 손가락을 쳐다보니

1/NB10640807.0032.wav|이런 말이 있죠

1/NB10640807.0033.wav|혹시 지금의 정부는 대통령이 달을 가리키면

1/NB10640807.0034.wav|달이 아니라

1/NB10640807.0035.wav|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

1/NB10640807.0036.wav|예산 부족으로 아이들의 급식봇 보육소 논란이 한창인 바로 지금이 시기에

1/NB10640807.0037.wav|맹목적인 환상을 고집하기보다

1/NB10640807.0038.wav|있는 그대로의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

1/NB10640807.0039.wav|코스모스의 작가 칼세이건

1/NB10640807.0040.wav|3월 달에 가는 것이 환상이 될지 아니면 현실 될지는

1/NB10640807.0041.wav|물론 두고 봐야 할 일

1/NB10640807.0042.wav|그러나 그것이 맹목적인 환상이 되지 않으려면

1/NB10640807.0043.wav|우리는

1/NB10640807.0044.wav|우주까지 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해야 하지 않을까

1/NB10642506.0000.wav|해 시청자 여러분 뉴스를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노래하듯이 앵커 브리핑 준비했어

1/NB10642506.0001.wav|추운 날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그리고 지켜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날씨 어때

1/NB10642506.0002.wav|그러나 오늘 뉴스룸이 주목한다 너는 푸른 봄입니다

1/NB10642506.0003.wav|한자로 하면 청춘

1/NB10642506.0004.wav|차가운 날씨에 푸른 빛에 보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

1/NB10642506.0005.wav|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총 64만명 있습니다 몇 해 전에

1/NB10642506.0006.wav|수능 날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집 근처 고등학교들 돌아왔다는 작가 김훈

1/NB10642506.0007.wav|당신 목소리 이렇게 편해

1/NB10642506.0008.wav|모든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본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

1/NB10642506.0009.wav|무슨 일일까요

1/NB10642506.0010.wav|수능은 등급을 정해서 밑에 있는 아이들을 잘라내는 것이다

1/NB10642506.0011.wav|해결할 수 없는이 모순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

1/NB10642506.0012.wav|그들의 맞지 않은 아이들을 잘라내고 있다 이런 얘기

1/NB10642506.0013.wav|올해도 수능 시험을 보지 않기로 결정한 몇몇이 화제에 올랐다

1/NB10642506.0014.wav|유명 연예인도 있었고요

1/NB10642506.0015.wav|학원 사회를 공부한다고 선한 학생들도 있었어

1/NB10642506.0016.wav|그 밖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

1/NB10642506.0017.wav|시험을 보지 않기로 결정한 많은 학생들을 뒤로하고 또 그들의

1/NB10642506.0018.wav|행방을 궁금해하지 않은

1/NB10642506.0019.wav|수능은 진행 되었습니다

1/NB10642506.0020.wav|그러나 수능 시험이라는 첫 고비를 넘기는 아이들의 미래는 앞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

1/NB10642506.0021.wav|세계 최고 수준의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 때문인지 올해 6월 말에 기준으로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대학생

1/NB10642506.0022.wav|7만명을 넘어섰습니다

1/NB10642506.0023.wav|반값등록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

1/NB10642506.0024.wav|모자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혹은 취업용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생 10명 중 3명

1/NB10642506.0025.wav|추후 확정

1/NB10642506.0026.wav|졸업 후에 취업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

1/NB10642506.0027.wav|어제 제가 보도 해드렸죠 실업자에 정애를 사실상 실업 상태인 사람 이렇게 높였더니

1/NB10642506.0028.wav|10.1%

1/NB10642506.0029.wav|열 명 중에 한 명이 실업 상태

1/NB10642506.0030.wav|이제 고작 시험을 싫었던 아니면 대학 대신 사회 생활을 선택했던 아 아무튼 세상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 어린 미래들에게

1/NB10642506.0031.wav|했어요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던져 준 것은 아닌가

1/NB10642506.0032.wav|먼저 세상을 살고 있는 선배들의 마음이 없이

1/NB10642506.0033.wav|두렵고 또 편치가 않습니다

1/NB10642506.0034.wav|영국 총리 리젠 윈스턴 처칠 역시 어느 대학에 졸업식 강연을 부탁 받았을 때

1/NB10642506.0035.wav|같은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군요

1/NB10642506.0036.wav|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 줄 것인가

1/NB10642506.0037.wav|저층 고민 끝에

1/NB10642506.0038.wav|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음

1/NB10642506.0039.wav|절대로

1/NB10642506.0040.wav|포기하지 마

1/NB10642506.0041.wav|절대로 포기하지 마라

1/NB10642506.0042.wav|그리고

1/NB10642506.0043.wav|절대로

1/NB10646561.0000.wav|메시지 찾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46561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다 너는

1/NB10646561.0002.wav|콩입니다

1/NB10646561.0003.wav|콩

1/NB10646561.0004.wav|뭔가를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

1/NB10646561.0005.wav|사람의 토량이나 씀씀이를 뜻하기도 하지요

1/NB10646561.0006.wav|통을 이야기하는 이유

1/NB10646561.0007.wav|불도저라는 별명답게 활동한 추진력을 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큰 투자 때문에

1/NB10646561.0008.wav|마침 기쁜 소식

1/NB10646561.0009.wav|한 가지를

1/NB10646561.0010.wav|패드립

1/NB10646561.0011.wav|어제 마칩니다

1/NB10646561.0012.wav|UAE 유전 개발을 위한

1/NB10646561.0013.wav|홍기 약이 체결되어 우리 의견을 가게

1/NB10646561.0014.wav|그러나 자원외교를 통해서 들어온 서교는 지금까지 없다고 하지

1/NB10646561.0015.wav|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들어가는 돈이 5년 동안 총 41층

1/NB10646561.0016.wav|야당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30일 정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

1/NB10646561.0017.wav|최근에 자원외교가

1/NB10646561.0018.wav|통 큰 투자가 아니라

1/NB10646561.0019.wav|깡통 투자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

1/NB10646561.0020.wav|2조원을 주고 산 에너지 업체를 200억에 대표하다 석유공사가 자원외교를 위해서 인수한 캐나다 에너지 업체를 투자금액 100분의 1 수준에 팔았던 주장이 이렇게 나왔어

1/NB10646561.0021.wav|이에 대해서 석유공사 350억원이라고 반박했다

1/NB10646561.0022.wav|200억 인하 350억

1/NB10646561.0023.wav|대부분의 투자금을 날린 것은

1/NB10646561.0024.wav|재미없어 보임

1/NB10646561.0025.wav|당시 캐나다 현재 언론조차 한국이 왜 부실덩어리 기업을 인수한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의아해 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

1/NB10646561.0026.wav|이번일은 예견된 실패 였는지도 모르겠어

1/NB10646561.0027.wav|총 41조 원이 투입된 자원개발사업 회수율은 지금까지 13%입니다

1/NB10646561.0028.wav|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랑스럽게 말했던 유정개발 6시

1/NB10646561.0029.wav|총 800억원이 들어갔지만

1/NB10646561.0030.wav|회수율은 9%에 불과해서

1/NB10646561.0031.wav|통큰 사업의 선거라고 하기에는

1/NB10646561.0032.wav|그저 민망할 따름입니다

1/NB10646561.0033.wav|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

1/NB10646561.0034.wav|해외자원 투자는 세계적인 주세요

1/NB10646561.0035.wav|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자원외교를 단기 실적만 가지고

1/NB10646561.0036.wav|성급하게 재단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죠

1/NB10646561.0037.wav|맞습니다 지금의 결과만 놓고 자원외교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

1/NB10646561.0038.wav|근데 최근에 공개된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

1/NB10646561.0039.wav|사실 사업성은 지금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다

1/NB10646561.0040.wav|그러나 감은 좋다

1/NB10646561.0041.wav|대표적인 MB 맨으로 꼽히는 주방수전 가스공사 사장이 40억 달러 약 4조 4000억원의 들어가는 가스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기록이 나와

1/NB10646561.0042.wav|또

1/NB10646561.0043.wav|이미 하기로 다 한 거 아니냐 한 거 어떻게 만 원이야

1/NB10646561.0044.wav|이렇게 말하는 공기업 관계자도 있어

1/NB10646561.0045.wav|새누리당이 한 관계자 역시 이런 말을 전합니다

1/NB10646561.0046.wav|대통령 형이 빵가루 올리고 돌아다니니까 브로커 현재 업자들은 기회다 싶어서 작정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다

1/NB10646561.0047.wav|다시 말해서

1/NB10646561.0048.wav|성공 확률이 20%에 그치고

1/NB10646561.0049.wav|각종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불확실한 자원 개발에 임하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

1/NB10646561.0050.wav|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결정했는데

1/NB10646561.0051.wav|혹시나 수십조원의 들어가는 사업을 단순히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

1/NB10646561.0052.wav|아닌가

1/NB10646561.0053.wav|의심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

1/NB10646561.0054.wav|나는 불도저가 아니다

1/NB10646561.0055.wav|컴퓨터가 달린 컴도 자다

1/NB10646561.0056.wav|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

1/NB10646561.0057.wav|weather 달지는 않겠죠

1/NB10646561.0058.wav|앵커

1/NB10648120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이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48120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다 너는 무상입니다

1/NB10648120.0002.wav|공짜

1/NB10648120.0003.wav|대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최근의 무상복지를 둘러싼 국회 안팎에 논의가 치열합니다

1/NB10648120.0004.wav|어제도 30분 무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

1/NB10648120.0005.wav|마구잡이식으로 터져나오는

1/NB10648120.0006.wav|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느꼈다고 생각해

1/NB10648120.0007.wav|다 무상급식은 물론 야당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그래서 마구잡이식 부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가능합니다 야당은 이렇게 막 받았습니다

1/NB10648120.0008.wav|무상보육

1/NB10648120.0009.wav|고교 무상교육 누구의 공약이고 약속 있니

1/NB10648120.0010.wav|김무성 대표의 바르는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

1/NB10648120.0011.wav|무상 즉 공장은

1/NB10648120.0012.wav|공짜 논란이 다 지금은 정치권 화두가 되는 상황인데요

1/NB10648120.0013.wav|여자에게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무상이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

1/NB10648120.0014.wav|야당 역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해서

1/NB10648120.0015.wav|무상이라고 매도하지 마라

1/NB10648120.0016.wav|매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구요 어느새 이렇게 발에 툭툭 차에게는 무상이란 단어

1/NB10648120.0017.wav|근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지금 가는 처지가 사뭇 달랐습니다

1/NB10648120.0018.wav|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 집입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

1/NB10648120.0019.wav|예방접종 무상지원

1/NB10648120.0020.wav|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전액

1/NB10648120.0021.wav|지금 무상이란 단어가 무료 28차례 등장합니다

1/NB10648120.0022.wav|문재인 후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

1/NB10648120.0023.wav|증세를 전제로 확인했지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

1/NB10648120.0024.wav|이무상 약속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

1/NB10648120.0025.wav|무상 공짜라는이 매력적인 단어는 적어도 그 당시에

1/NB10648120.0026.wav|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승리의 특효약이었습니다

1/NB10648120.0027.wav|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단어로 사용됐던 것이다

1/NB10648120.0028.wav|그러나 따지고 보면

1/NB10648120.0029.wav|무상 제공 잘하는 것도 사실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

1/NB10648120.0030.wav|만드는 적게 드는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니까

1/NB10648120.0031.wav|아무튼 그렇다면 상황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

1/NB10648120.0032.wav|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과거에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

1/NB10648120.0033.wav|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공약 대통령 임기 끝날 때 하시겠습니까

1/NB10648120.0034.wav|그렇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

1/NB10648120.0035.wav|예

1/NB10648120.0036.wav|소화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

1/NB10648120.0037.wav|정치권 스스로가 공약을 다 지킬 수 없다

1/NB10648120.0038.wav|비밀 공짜 공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있던데

1/NB10648120.0039.wav|그렇다면 공짜 약속을 믿고 표를 해 준 사람들은 그저 순진하다고 만 봐야 하는 걸까

1/NB10648120.0040.wav|공짜 약속이 그저 덮개만 느껴지는 5번 혹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구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

1/NB10648120.0041.wav|인생무상

1/NB10648120.0042.wav|세월호

1/NB10648120.0043.wav|더 덥다는 의상 말이지요

1/NB10648120.0044.wav|그 많은 무상복지 약속들이 이젠 모두 무서운 하게만 느껴질까요

1/NB10648120.0045.wav|오늘 본의 아니게 정말 장난처럼 돼 버렸는데 내친김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

1/NB10648120.0046.wav|무상 약속이

1/NB10648120.0047.wav|무성하게 만 느껴진다

1/NB10648120.0048.wav|그저 부상해

1/NB10649695.0000.wav|3시 청소하라고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49695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말은 잘 부탁드립니다

1/NB10649695.0002.wav|머리가 아쉬울 때 하는 말인데 요즘에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리는 것은

1/NB10649695.0003.wav|어딜까요

1/NB10649695.0004.wav|그 예산 관련돼서

1/NB10649695.0005.wav|국회 협조를 공학에서 왔지요 잔다고

1/NB10649695.0007.wav|박은실 오후 6시

1/NB10649695.0010.wav|예 바야흐로 예산 전쟁의 막 이러면서 국회의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최전방은 물론 심사가 진행되는 회의장입니다 의원 회관

1/NB10649695.0011.wav|쿠바의 대표

1/NB10649695.0012.wav|회장 앞에는 총알 답변을 준비한 1명 3초대 기조가 즐비합니다 제가 일부에서 그 현장 보여드리기로 했지

1/NB10649695.0013.wav|1등 사수는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 지리고요 평소에는 목에 힘 주는 고위 공직자들

1/NB10649695.0014.wav|이제마는 꼼짝없이 슈퍼 그리 됩니다

1/NB10649695.0015.wav|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

1/NB10649695.0016.wav|허리를 굽힐 따름이다

1/NB10649695.0017.wav|자 위원들 사정 역시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예산으로 챙겨서 지역 주민에게 존재감을 보여야 하다 보니까

1/NB10649695.0018.wav|깡패들

1/NB10649695.0019.wav|양아치

1/NB10649695.0020.wav|이렇게

1/NB10649695.0021.wav|본심을 내놓기도 합니다

1/NB10649695.0022.wav|그런데 돌격 앞으로 이렇게 보호를 위해 치열한 예산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은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

1/NB10649695.0023.wav|살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

1/NB10649695.0024.wav|안전행정부가 내년도 새마을운동 예산 56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

1/NB10649695.0025.wav|다 쓰지도 않은 예산이 3년 동안 총 74 학원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

1/NB10649695.0026.wav|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행위는 해당 예산을 전액 통과시켜 줘

1/NB10649695.0027.wav|그 이후에 얘기할 TV에서 일단 보류 되길 했다지만

1/NB10649695.0028.wav|표정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

1/NB10649695.0030.wav|먼저 빼 먹는 것이 임자다

1/NB10649695.0031.wav|예산

1/NB10649695.0032.wav|권력이다

1/NB10649695.0033.wav|이런 생각 때문일까요

1/NB10649695.0034.wav|대부분의 정부기관이 해마다 묻지마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

1/NB10649695.0035.wav|감사원이 최근의 3년 동안 밝혀낸 복지예산 누수액 만해도 무료 7천억원의 바랍니다

1/NB10649695.0036.wav|무조건적인 예산 그러기는 자칫하면 예산 누수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

1/NB10649695.0037.wav|시공 여사

1/NB10649695.0038.wav|다산

1/NB10649695.0039.wav|정약용

1/NB10649695.0040.wav|목민심서에 나오는 말

1/NB10649695.0041.wav|공공의 재산을 내것처럼 아껴야 훌륭한 목민관이 다 이런 의미인데

1/NB10649695.0042.wav|지금 예산 전쟁이 많은 분들 혹시 공공의 잘 사는 내가처럼 아끼는 것이 아니라

1/NB10649695.0043.wav|공공의 재산적 나랏돈을 마치 내 것이니

1/NB10649695.0044.wav|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

1/NB10649695.0045.wav|이번에 우리가

1/NB10649695.0046.wav|잘 부탁드립니다

1/NB10649695.0047.wav|우리 마음대로 주무르지 말아 주십시오

1/NB10649695.0048.wav|그거 원래

1/NB10649695.0049.wav|우리 돈이

1/NB10651272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51272.0001.wav|앵커브리핑에 주목한다 너는 우분투

1/NB10651272.0002.wav|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

1/NB10651272.0003.wav|얼마 전에 많은 이들의 가슴을 뻐근하게 했던 순간을 오늘 다시

1/NB10651272.0004.wav|서울역

1/NB10651272.0005.wav|초등학교운동회 100m 달리기 장면입니다

1/NB10651272.0006.wav|1등을 가리는 경기였지만

1/NB10651272.0007.wav|6학년 친구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

1/NB10651272.0008.wav|몸이 불편한 친구의 손을 잡고

1/NB10651272.0009.wav|하고 있어 나라

1/NB10651272.0010.wav|결승선을 통과한 겁니다

1/NB10651272.0011.wav|아이들이 가르쳐 줘

1/NB10651272.0012.wav|행복의 품격

1/NB10651272.0013.wav|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일 학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방법은 역시 답했습니다

1/NB10651272.0014.wav|달리기에서 1등 하면 맛있는 과일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나

1/NB10651272.0015.wav|아프리카 아이들 역시

1/NB10651272.0016.wav|약속이라도 한 듯

1/NB10651272.0017.wav|나란히 손을 잡고

1/NB10651272.0018.wav|달력

1/NB10651272.0019.wav|맛있는 과일은 사이좋게 나눠 먹었죠

1/NB10651272.0020.wav|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어떨까요 여기 두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

1/NB10651272.0021.wav|20m 하늘 위에서 일주일 넘게 농성 중인 CNN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일부에서 현장을 전해 드립니다

1/NB10651272.0022.wav|오늘은

1/NB10651272.0023.wav|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

1/NB10651272.0024.wav|둘 다 정규직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의 문제

1/NB10651272.0025.wav|그 요즘 또 하나의 이슈는 수능시험 출제오류 논란이 줘 문제 하나에 수많은 학생들이 매달릴

1/NB10651272.0026.wav|부모들은 본의 아니게 남을 떨어뜨리고 내 자신을 부치기 위해서

1/NB10651272.0027.wav|기도를 하고

1/NB10651272.0028.wav|3000배를 하고

1/NB10651272.0029.wav|밤을 새기도

1/NB10651272.0030.wav|아무도 이기지 않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지지 않았다

1/NB10651272.0031.wav|소설가 김연수 씨의 말입니다

1/NB10651272.0032.wav|앞머리에서 이야기했던 오늘의 단어

1/NB10651272.0033.wav|5분 제 뜻을 이제 말씀 드리게

1/NB10651272.0034.wav|남아프리카 반투어에서 나온 우분투라는 말은

1/NB10651272.0035.wav|함께 있지 내가 있다

1/NB10651272.0036.wav|당신이 행복할때 나도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고

1/NB10651272.0038.wav|이기지 않았어

1/NB10651272.0040.wav|지지도 않아

1/NB10655097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어

1/NB10655097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다 너는

1/NB10655097.0002.wav|16,000원

1/NB10655097.0003.wav|20년 전에 신문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

1/NB10655097.0004.wav|1994년 6월 9일자 계양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

1/NB10655097.0005.wav|김수환추기경 근로소득세 16,000

1/NB10655097.0006.wav|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소득세를 내기를 하면서 김추경 역시 16,000원에 세금을 냈다는 내용

1/NB10655097.0007.wav|무슨 얘긴지 짐작 하셨겠죠 최근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

1/NB10655097.0008.wav|오늘도 국회 여당 위원들과 종교계 대표가네 간담회가 있었는데요

1/NB10655097.0009.wav|잘 노는 애진 못했어

1/NB10655097.0010.wav|천주교와 불교 쪽에서는 과세 방안에 대해서 찬성 아니 입장도 입장을

1/NB10655097.0011.wav|지속적 지속적으로 견지 했고요 개신교계의 의견이 좀 관련

1/NB10655097.0012.wav|종교인 과세 문제는 알고 보면 지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

1/NB10655097.0013.wav|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

1/NB10655097.0014.wav|이건 그 당시에 이낙선 국세청장의 발언이 논란이 시작되었단 얘긴데

1/NB10655097.0015.wav|2부 46년 동안에

1/NB10655097.0016.wav|내 정보 차원에서의 시도는 번번이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

1/NB10655097.0017.wav|자

1/NB10655097.0018.wav|부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

1/NB10655097.0019.wav|개신교계의 일부가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

1/NB10655097.0020.wav|제 사장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즉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닌 성직자 간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

1/NB10655097.0021.wav|워낙 수입이 적어서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두 번째 번호

1/NB10655097.0022.wav|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세무 조사 등 명목으로 주무를 수 있다

1/NB10655097.0023.wav|종교의 자유가

1/NB10655097.0024.wav|치매 된다 하는 것이 마지막 이유

1/NB10655097.0025.wav|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우호적이지 나는 거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종교인 과세 찬성 했어

1/NB10655097.0026.wav|전국 2만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교회협의회

1/NB10655097.0027.wav|여러 개신교 목사들이

1/NB10655097.0028.wav|사진에서 소득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

1/NB10655097.0029.wav|수입 면세점 보다 적은 목회자의 경우에 오히려 소득신고를 해야만 각종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

1/NB10655097.0030.wav|그러나 이번에 가까스로 올라간 종교인 과세 안 역시 통과는

1/NB10655097.0031.wav|불투명합니다

1/NB10655097.0032.wav|기저귀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끝에 가서는 예전처럼 무산될 것으로

1/NB10655097.0033.wav|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이 말은

1/NB10655097.0034.wav|정치권이 표를 빌미로 하나 어마어마한 압력을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로 일으키기도 합니다

1/NB10655097.0035.wav|오늘날 개신교를 있게 한 16세기 종교개혁의 기본정신은

1/NB10655097.0036.wav|목회자와 일반 성도가

1/NB10655097.0037.wav|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거룩하다는 사실이다

1/NB10655097.0038.wav|세금에 있어서는

1/NB10655097.0039.wav|둘 사이를 9분하는

1/NB10655097.0040.wav|삼한교회 박득훈 목사의 말인데

1/NB10655097.0041.wav|바로 종고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

1/NB10655097.0042.wav|이렇게 말했습니다

1/NB10655097.0043.wav|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

1/NB10655097.0044.wav|이렇게 쓰여 있습니다

1/NB10655097.0045.wav|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

1/NB10655097.0046.wav|하나님의 것은

1/NB10655097.0047.wav|하나님에게

1/NB10655097.0048.wav|바치라 하시니

1/NB10656710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656710.0001.wav|앵커브리핑 시작하기

1/NB10656710.0002.wav|오늘 브리핑에 주목한다 너는 노스텔지아

1/NB10656710.0003.wav|상수

1/NB10656710.0004.wav|그리움을 뜻함

1/NB10656710.0005.wav|어원을 들여다 보면 그리스에서 생겨난 말입니다

1/NB10656710.0006.wav|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생기는 그리움과 슬픔을

1/NB10656710.0007.wav|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

1/NB10656710.0008.wav|여러모로 신경이 편찮으실 되지

1/NB10656710.0009.wav|며칠 전에 한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에 아랍에미리트 추가는이 전 대통령을 배송하는 자리 없다고 하는데

1/NB10656710.0010.wav|직원들이 4대강 국정조사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고이 전 대통령은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

1/NB10656710.0011.wav|야당에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채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

1/NB10656710.0012.wav|정정당당하게

1/NB10656710.0013.wav|맛있겠다

1/NB10656710.0014.wav|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이는 어떤 속내가 단계 될까

1/NB10656710.0015.wav|좀 황당했을 또 모르겠습니다 퇴임한 지인이

1/NB10656710.0016.wav|핵심 국정과제인 어떤 4대강과 자원 의견은 이른바 사자방 비로 묶여서 비판의 대상이 됐으니까

1/NB10656710.0017.wav|침묵하던 전 대통령은 조금씩 반론을 시작을 했죠

1/NB10656710.0018.wav|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서 안타깝다

1/NB10656710.0019.wav|작년 이맘때는 4대강 독도에 대해서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기를

1/NB10656710.0020.wav|배신감도 좀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

1/NB10656710.0021.wav|직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

1/NB10656710.0022.wav|아 죄송합니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어

1/NB10656710.0023.wav|뭐야가 한꺼번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했습니다만

1/NB10656710.0024.wav|일부 위원들 맞아 여기에

1/NB10656710.0025.wav|아들 하고 있어

1/NB10656710.0026.wav|개국공신 하다가 최측근이었던 정두원 의원 맞아 정정당당 하면 국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

1/NB10656710.0027.wav|더구나 정윤도 회고록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

1/NB10656710.0028.wav|정두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고초를 겪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

1/NB10656710.0029.wav|회고록 때 회고록의 대결이 될지도 모르고

1/NB10656710.0030.wav|상수

1/NB10656710.0031.wav|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회고록에는 아마도 이런 향수를 포함한 모든 이야기들이

1/NB10656710.0032.wav|당길 때

1/NB10656710.0033.wav|자 오늘은

1/NB10656710.0034.wav|부개 말로

1/NB10656710.0035.wav|맺음을 하겠습니다

1/NB10656710.0036.wav|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정권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올 것이다

1/NB10656710.0037.wav|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에 맞아

1/NB10656710.0038.wav|그리고

1/NB10656710.0039.wav|향수

1/NB10656710.0040.wav|노스텔지아

1/NB10656710.0041.wav|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도

1/NB10656710.0042.wav|노스탤지어는 빈약한 기억이 만들어낸 하루살이 작품일 뿐이다 미국의 소설가

1/NB10656710.0043.wav|플로렌스 키 내 말이

1/NB10658206.0000.wav|지성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58206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다 너는 책 문입니다

1/NB10658206.0002.wav|조선시대 왕이 관료를 뽑을 때 취재한 일종의

1/NB10658206.0003.wav|논술 시험문제를 마라

1/NB10658206.0004.wav|당시의 왕들은 이런 문제들을 냈다고 하는군요

1/NB10658206.0005.wav|그대가 공 잘 하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

1/NB10658206.0006.wav|중종이 출제한 시험 문제

1/NB10658206.0007.wav|또 당신 30회 어떤 광해군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

1/NB10658206.0008.wav|섣달그믐 밤에 서글퍼

1/NB10658206.0009.wav|그 까닭은 무엇인가

1/NB10658206.0010.wav|이런 창문을 내놔

1/NB10658206.0011.wav|당시에 여운을 남긴 급제자가 나오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

1/NB10658206.0012.wav|암기와 벼락 치료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다

1/NB10658206.0013.wav|수많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야만 답안을 써 놓을 수 있는 문자

1/NB10658206.0014.wav|선비들의 학문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

1/NB10658206.0015.wav|수능출제 방식을 재검토하라

1/NB10658206.0016.wav|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짓을 내렸습니다

1/NB10658206.0017.wav|무료 64만명 이행시 할 수는

1/NB10658206.0018.wav|2년 연속

1/NB10658206.0019.wav|둘째 오류 사고를 냈습니다

1/NB10658206.0020.wav|실수 안 하게 경쟁이 돼 버리는 수능 시험이 정작 출제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셈이었다

1/NB10658206.0021.wav|수능이 아니라 문

1/NB10658206.0022.wav|9분

1/NB10658206.0023.wav|수학능력시험이 아니라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비아냥이 나올만큼

1/NB10658206.0024.wav|수능은 어느새 조롱거리로

1/NB10658206.0025.wav|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해도 그냥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필요치 않은 지식을 배우라고 허비하고 있다

1/NB10658206.0026.wav|아마도 금방 대책은

1/NB10658206.0027.wav|나올 겁니다

1/NB10658206.0028.wav|현재 방식을 바꾸려면 대통령의 죄가 있었고

1/NB10658206.0029.wav|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질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

1/NB10658206.0030.wav|has

1/NB10658206.0031.wav|그러나 지금 우리는 단순히 수능출제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

1/NB10658206.0032.wav|단 한 번의 시험으로 12년 배움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

1/NB10658206.0033.wav|마땅한 것인가

1/NB10658206.0034.wav|그리고

1/NB10658206.0035.wav|그 시험을 통해서 64만 청춘의 인생 등급을 매기는 것이

1/NB10658206.0036.wav|강하늘

1/NB10658206.0037.wav|3과정 이렇게 무거워도 싶습니다

1/NB10658206.0038.wav|여기서 다시 조선시대 창문을 꺼내 보겠습니다

1/NB10658206.0039.wav|우리의 교육제도는 어떠하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말해 봐

1/NB10658206.0040.wav|1558년 1558

1/NB10658206.0041.wav|명종 13년생 회사에 출제되는 문제

1/NB10658206.0042.wav|아 그때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구나

1/NB10658206.0043.wav|지금 학원

1/NB10658206.0044.wav|유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도

1/NB10658206.0045.wav|그럼 고민은 분명히 있었던 거야

1/NB10658206.0046.wav|그리고

1/NB10658206.0047.wav|이 시험에서 급제한 조 정도는 창문에 이렇게

1/NB10658206.0048.wav|다패스

1/NB10658206.0049.wav|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경쟁시켜 등용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치 않으며

1/NB10658206.0050.wav|교육이 실패하는 주된 원인은

1/NB10658206.0051.wav|바로

1/NB10659740.0000.wav|배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기

1/NB10659740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이 주목한 단어

1/NB10659740.0002.wav|나쁜손

1/NB10659740.0003.wav|현직 서울대 교수 학생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

1/NB10659740.0004.wav|나도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이 무료 20명을 넘어섰고 오늘 급기야 기자회견까지 열렸다

1/NB10659740.0005.wav|저희는 그 동안 가슴 속에 큰 상처를 먹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세상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

1/NB10659740.0006.wav|그러나 현재 상황에 어디까지 저에겐 큰 용기가 필요했고 여전히 두려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피해자에게라고 칭했습니다

1/NB10659740.0007.wav|이름을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두려웠고 취업에 반영되는 학점을 교수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외에도 자칫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

1/NB10659740.0008.wav|상할 수가 있으니까

1/NB10659740.0009.wav|그저 속앓이만 해왔을 겁니다

1/NB10659740.0010.wav|결국 해당 교수는 면직 처리되었습니다

1/NB10659740.0011.wav|공교롭게도 이번 주는 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그러나

1/NB10659740.0012.wav|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이름바꿔 200평 성추행 사건

1/NB10659740.0013.wav|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

1/NB10659740.0014.wav|1993년 최초의 성희롱 소송은 대학에서 벌어진 일로 시작되었고

1/NB10659740.0015.wav|해방 이후부터 2012년 말까지 성희롱 판례를 분석한 논문을 보니까

1/NB10659740.0016.wav|소송의 30%가

1/NB10659740.0017.wav|대학교수와 관련해서 이씨

1/NB10659740.0018.wav|이 중에 유죄가 인정된 것은 60% 정도

1/NB10659740.0019.wav|근데 왜

1/NB10659740.0020.wav|대학이 없을까요

1/NB10659740.0021.wav|짐작하건대 학생이 그만큼

1/NB10659740.0022.wav|약자 이거 그 반면에 교수는 그만큼

1/NB10659740.0023.wav|기득권을 쥐고 있는 강자였다는 의미를 겁니다 또

1/NB10659740.0024.wav|학교가 그만

1/NB10659740.0025.wav|폐쇄적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

1/NB10659740.0026.wav|권위와 권력

1/NB10659740.0027.wav|갑에 지위를 가진 이들이 저지르는 권력형 성범죄

1/NB10659740.0028.wav|학교 분만이 아니라

1/NB10659740.0029.wav|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

1/NB10659740.0030.wav|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얼마지의 법정에 서게 될 텐데요 민망하게도

1/NB10659740.0031.wav|성추행

1/NB10659740.0032.wav|3부요인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장에서는 것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해

1/NB10659740.0033.wav|골프장 캐디를 성충 했다 했다는 선지 국회의장에 핑계는 좀 옹색하게 합니다 딸 같아서

1/NB10659740.0034.wav|이밖에도 전 국립의료원장 이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 됐고

1/NB10659740.0035.wav|전직 검찰총장은

1/NB10659740.0036.wav|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역시 더 받고 있습니다

1/NB10659740.0037.wav|저는 사회지도층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

1/NB10659740.0038.wav|민주사회에서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

1/NB10659740.0039.wav|이런 사건들 일어날수록 사회지도층이란 단어는 더더욱 쓰기가 좀 민망해 좀

1/NB10659740.0040.wav|모든 조약에는

1/NB10659740.0041.wav|반드시

1/NB10659740.0042.wav|무지가 뿌리 내리고 있다

1/NB10659740.0043.wav|수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입니다

1/NB10659740.0044.wav|그런데 배울만큼 배운 분들이 또 가질만큼 가진 분들이

1/NB10659740.0045.wav|설날 무지해서

1/NB10659740.0046.wav|몰라서 그러시죠

1/NB10659740.0047.wav|아 마켓

1/NB10663442.0000.wav|메시지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63442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다 너는 연기입니다

1/NB10663442.0002.wav|정국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공방으로 온통 뒤덮였습니다

1/NB10663442.0003.wav|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 그냥 이런 속담이 있긴 합니다만

1/NB10663442.0004.wav|의혹만 자욱했던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진

1/NB10663442.0005.wav|몽글몽글 불안하고 있는 각종 소문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엄 단지를 내렸지요

1/NB10663442.0006.wav|국기문란 행위

1/NB10663442.0007.wav|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

1/NB10663442.0008.wav|청와대는 사건을 첫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습니다 기초적인 확인조차 없었다라고 지적했다

1/NB10663442.0009.wav|마치 연기처럼 실체가 없는 소문이란 주장

1/NB10663442.0010.wav|근데 오늘 알려진 내용들을 살펴보면

1/NB10663442.0011.wav|더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

1/NB10663442.0012.wav|의혹의 당사자인 정씨가 입을 열었습니다

1/NB10663442.0013.wav|2007년에 정치인 박근혜 10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일을 나는 7년 동안 야인으로 돌아왔다

1/NB10663442.0014.wav|싸구려 음모론의 나라가 걱정 된다고도 말했습니다

1/NB10663442.0015.wav|근데 그 동안은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조 회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런 말을 또 했다고

1/NB10663442.0016.wav|대통령은 11년간 보조하면서 정 윤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

1/NB10663442.0017.wav|2004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있었던 진영 의원 좋잖아

1/NB10663442.0018.wav|비서실장 일은 다음에 수소문해 봤는데

1/NB10663442.0019.wav|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

1/NB10663442.0020.wav|정윤회 씨 본인이 말한 활동중단 시점은 2007년인데

1/NB10663442.0021.wav|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조 회원 다른 직원들은

1/NB10663442.0022.wav|2007년 훨씬 이전부터 전혀

1/NB10663442.0023.wav|이성실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

1/NB10663442.0024.wav|다이슨 되면 정윤회 씨가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친박 의원들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

1/NB10663442.0025.wav|그것도 아니라면

1/NB10663442.0026.wav|정식아 정말 싫지 없는 연기같은 존재인지 좀 헷갈리기 시작해

1/NB10663442.0027.wav|후회도 자고 나면 쏟아지는 명쾌한 속에서 선출 권력의 권위를 상징하는 청와대는

1/NB10663442.0028.wav|본의 아니게 불똥이 되었습니다

1/NB10663442.0029.wav|악사 주 천리

1/NB10663442.0030.wav|중국

1/NB10663442.0031.wav|송나라에서 유래한 말이 조 나쁜 일은

1/NB10663442.0032.wav|휴일을 달린다 이런 의미

1/NB10663442.0033.wav|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은 더 빨리 더 멀리 가는 것이 인간 사겠죠

1/NB10663442.0034.wav|송나라 때도 아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야

1/NB10663442.0035.wav|폴리가 아닌 마리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

1/NB10663442.0036.wav|오늘의 주목 단어

1/NB10663442.0037.wav|연기

1/NB10663442.0038.wav|맞고 나니

1/NB10664935.0000.wav|매실청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64935.0003.wav|오늘 앵커브리핑이 주목한다는 필요하십니다

1/NB10664935.0004.wav|일본어

1/NB10664935.0005.wav|올레 광고 전단지 란 뜻이고 일본에선 혼용해서 쓰이기도 한다고 하는군요

1/NB10664935.0006.wav|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

1/NB10664935.0007.wav|확인할 수 없는 소문은 증권가 정보지를 찌라시라고 칭하기도

1/NB10664935.0008.wav|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 인사들이 둘러싼 각종 풍선들이 입주하실 단골메뉴 미다 80년대 중후반에

1/NB10664935.0009.wav|찌라시가 주가를 흔들기도 했던 전성기때는

1/NB10664935.0010.wav|한밤중의 비밀스레 팩스로 유통이 됐고

1/NB10664935.0011.wav|연구 동향 2천만 원짜리 물건도 있었다고 하니까 위력 또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

1/NB10664935.0012.wav|그러나 맞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인 소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주로

1/NB10664935.0013.wav|SNS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고요

1/NB10664935.0014.wav|문제는이 찌라시가 활동 무대를 청와대까지 높여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사실

1/NB10664935.0015.wav|근거 없는 풍선을 먹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

1/NB10664935.0016.wav|청와대 대변인 공식 브리핑에서 찌라시라는 비속어가 등장했습니다

1/NB10664935.0017.wav|정윤회 문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

1/NB10664935.0018.wav|지난 2012년에 대성 터널 비욘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논란도 결국 찌라시로 마무리가 되지

1/NB10664935.0019.wav|찌라시 좀 틀어 대화로 중에 일부 다 하는

1/NB10664935.0020.wav|그런 물건이 들어왔습니다

1/NB10664935.0021.wav|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증권가 찌라시에서 봤다고 말한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

1/NB10664935.0022.wav|점잖지 못한 단어 지라시

1/NB10664935.0023.wav|정치권이 사설정보지 혹은 전단 같은 다른 교회를 두고

1/NB10664935.0024.wav|유독 찌라시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

1/NB10664935.0025.wav|1947년 미국 뉴멕시코 로즈웰 2는 미확인비행물체 UFO가 처음으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외계인을 미국 정부가

1/NB10664935.0026.wav|감추고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

1/NB10664935.0027.wav|그 유명한 음모이론의 탄생이 없어

1/NB10664935.0028.wav|음 뭐 이러는 거야 찌라시는

1/NB10664935.0029.wav|닮아 있습니다

1/NB10664935.0030.wav|그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

1/NB10664935.0031.wav|할머니 딴 얘기

1/NB10664935.0032.wav|정윤회문건의 경우에도 그것이 음모에서 찌라시가 되는 순간의 그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도 또한 증명할 필요도 없어지는

1/NB10664935.0033.wav|보스웰리아

1/NB10664935.0034.wav|UFO가 떨어진지

1/NB10664935.0035.wav|9분 떨어졌다고 믿게 된지 50주년이 되는

1/NB10664935.0036.wav|1997년 7월에 저는 바로 그 로스웰

1/NB10664935.0037.wav|UFO 신봉자들 취재 중이었습니다

1/NB10664935.0038.wav|바로 그날 미국무성

1/NB10664935.0039.wav|미국 정부가 외계인을 감추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명을 내놓았죠

1/NB10664935.0040.wav|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로 하나 더 부쳤습니다

1/NB10664935.0041.wav|이렇게 실컷 설명해도 당신들은 저녁 믿지 않겠지만

1/NB10664935.0042.wav|음모론이 던질 하시든 그것이 하는 공통점은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때도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불신감을 버리지 못 하게 한다는데요

1/NB10666450.0000.wav|배신자 그리고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66450.0001.wav|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

1/NB10666450.0002.wav|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

1/NB10666450.0006.wav|예 전국 애연가들의 가슴을 내리치는 소리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666450.0007.wav|어젯밤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

1/NB10666450.0008.wav|애연가들의 여론은 보글보글 끌었고 더 논란은 뭉게뭉게 퍼지고 있습니다 마치

1/NB10666450.0009.wav|담배 연기처럼 말이지

1/NB10666450.0010.wav|오늘 앵커브리핑 정한다는 이제는 귀하신 몸이 되어 버린

1/NB10666450.0011.wav|홍초 미

1/NB10666450.0012.wav|흔히들 공처라고 부르기도 하지

1/NB10666450.0013.wav|애연가들의 원망은 정치권을 향합니다 무료

1/NB10666450.0014.wav|80%의 인상안을 밀어붙인 여단은 물론이고 또

1/NB10666450.0015.wav|늘어나는 세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만 매달리기

1/NB10666450.0016.wav|야당 역시 눈총을 받긴 매 한 개

1/NB10666450.0017.wav|부족한 나라 국가는 때문이든 아니면 정말로 국민의 건강 때문이든 국가가 버린 담배와의 전쟁

1/NB10666450.0018.wav|알고 보면

1/NB10666450.0019.wav|유리가 꽤 깊습니다

1/NB10666450.0020.wav|조선을 담배 나라로 만들겠다

1/NB10666450.0021.wav|담배를 19개 도로 샀는데

1/NB10666450.0022.wav|정말 저는 이렇게 담배 사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

1/NB10666450.0023.wav|가슴이 답답한 고질병

1/NB10666450.0024.wav|오로지 남령초 즉 담배에서만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고 하지요

1/NB10666450.0025.wav|동의보감에도 담배 효능이 적혀 있더군요

1/NB10666450.0026.wav|연천

1/NB10666450.0027.wav|한독

1/NB10666450.0028.wav|지금 감기가 심해서 생기는 병 그리고 풍습

1/NB10666450.0029.wav|10키로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경우 이걸 뭐라 내면서 살충 효과도 있다

1/NB10666450.0030.wav|냉한 음식의 체한 됐으면

1/NB10666450.0031.wav|신효하다

1/NB10666450.0032.wav|신기한 효험이 있다 이런 소리가 나와

1/NB10666450.0033.wav|그러나 당시에도 역시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

1/NB10666450.0034.wav|18세기 실학자이 동네가 귀여운 다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

1/NB10666450.0035.wav|전국 360개 고을마다 만 명이 넘는 흡연자가 있으니

1/NB10666450.0036.wav|비용을 한 사람당

1/NB10666450.0037.wav|하루 일문으로 한 푼으로 쳐도

1/NB10666450.0038.wav|1년에 1260 마냥이 된다

1/NB10666450.0039.wav|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 줘

1/NB10666450.0040.wav|충분히 구휼할 수 있는

1/NB10666450.0041.wav|큰 재물이다

1/NB10666450.0042.wav|한양이 지금 물 따르는 10만원 과장이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니까 이걸 담배 그만 물었어 절약 드는 1260 만 양은 지금 돈으로 치면 9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

1/NB10666450.0043.wav|XG

1/NB10666450.0044.wav|담배를 그 많은데 백성을 구입을 하자

1/NB10666450.0045.wav|오늘 둘러싼 담배전쟁 즉 본 전자를 사용하니 전쟁이 벌어진 것인데요

1/NB10666450.0046.wav|어찌 보면 담뱃불을 올려서 국민건강을 구제하겠다는

1/NB10666450.0047.wav|지금 정부의 발상과 일맥상통 앱 보이기도

1/NB10666450.0048.wav|합니다

1/NB10666450.0049.wav|그러나 국회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 사진을 넣는 것조차 무산시켰다

1/NB10666450.0050.wav|조선시대 이성민은 유일한 복지적인 관점에서 금영을 펼쳤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다

1/NB10666450.0051.wav|나와 시와 담배는 삼위일체

1/NB10666450.0052.wav|공초 오상순 씨 내 작품 나와 씨와 담배 중에 한 거지

1/NB10666450.0053.wav|담배를 너무 사랑해서 호를 공처럼 외쳤던 시

1/NB10666450.0054.wav|세수할 때 도착 담배를 놓지 않았다는 일화로 유명했습니다

1/NB10666450.0055.wav|그러나 세상에 편하고 또

1/NB10666450.0056.wav|사람들의 인식도 한 달라지면서

1/NB10666450.0057.wav|이제 담배랑 많은 애니갓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

1/NB10666450.0058.wav|답답한 마음에 담배나 한대 더 해 오시렵니까

1/NB10666450.0059.wav|아니면

1/NB10666450.0060.wav|저처럼

1/NB10666450.0061.wav|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는 금연의 길로

1/NB10666450.0062.wav|돌아서 싫으니까

1/NB10666450.0063.wav|애견가들에게 잔인하게 다가올 2015년은 이제

1/NB10668183.0000.wav|메시지 찾아 여러분 뉴스룸 이후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브리핑입니다

1/NB10668183.0001.wav|오늘 브리핑 해 주목한다 너는 푸른 물방울이

1/NB10668183.0002.wav|누가 이것을 지구라 했는가

1/NB10668183.0003.wav|이것은 수고

1/NB10668183.0004.wav|상설 타고 먼바다에 나가 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

1/NB10668183.0005.wav|지구가 안인숙

1/NB10668183.0006.wav|육지로 가득한 동그라미가 아니라

1/NB10668183.0007.wav|끝없이 펼쳐지는 바닷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의미죠

1/NB10668183.0008.wav|시인의 표현처럼 어쩌면 지구라는 별은 허공에 떠있는 푸른 물방울

1/NB10668183.0009.wav|눈물 같은 바다로 이루어지는 곳인지도 모르겠어

1/NB10668183.0010.wav|마지막 하직인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

1/NB10668183.0011.wav|신모라 노영호 선장의 교신 내용

1/NB10668183.0012.wav|이렇게 전해 줬어

1/NB10668183.0013.wav|전부 살아나서 부산서 소주 한잔하다 한 잔 하자는 지인의 메시지

1/NB10668183.0014.wav|허공에 흩어졌다

1/NB10668183.0015.wav|듬직한 남편

1/NB10668183.0016.wav|효심깊은 혼자였던 선원들도 하나 둘

1/NB10668183.0017.wav|주검으로 발견된

1/NB10668183.0018.wav|국회의원 인접한 태평양 최북단 받아 배정하는 침몰한 배들이 많아서 바다무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하지

1/NB10668183.0019.wav|또한 선박 혹은 무리한 졸업이 문제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

1/NB10668183.0020.wav|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

1/NB10668183.0021.wav|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 지난 1957년에 부산항을 출발한 지남 홈이다

1/NB10668183.0022.wav|뭐

1/NB10668183.0023.wav|남쪽 바다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부쳤습니다

1/NB10668183.0024.wav|그 후에 1966년에

1/NB10668183.0025.wav|우리 힘으로 만든 첫 실습선 박병호

1/NB10668183.0026.wav|시험 조배 성공했는데요 200 경호가 향한 곳이 바로

1/NB10668183.0027.wav|웨딩 헤어

1/NB10668183.0028.wav|원양어선의 귀향이 뉴스가 될만큼 선원들이 외화벌이 역군으로 대접받던 시절도 있었지요

1/NB10668183.0029.wav|고되고 열악한 업무환경을

1/NB10668183.0030.wav|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

1/NB10668183.0031.wav|오룡 호가 사고를 당한 날도 사고력은 높은 파도가 바람 탓에 다른 어선들은 이미혜 안쪽으로 피항 중이었습니다

1/NB10668183.0032.wav|무리하게 요구된 할당량이 문제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

1/NB10668183.0033.wav|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목숨을 잃었고

1/NB10668183.0034.wav|국민안전처 출범했지만 여전히

1/NB10668183.0035.wav|컨트롤 타워는 없었습니다

1/NB10668183.0036.wav|바다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

1/NB10668183.0037.wav|눈물은 무엇인가요

1/NB10668183.0038.wav|나는 질문 거 같다

1/NB10668183.0039.wav|한상훈 씨네

1/NB10668183.0040.wav|내 수상 위의 자산어보 중에

1/NB10668183.0042.wav|오랜 시간 바다에서 살아온 작가 한창 오늘

1/NB10668183.0043.wav|이렇게 말해

1/NB10668183.0044.wav|눈물의 바다

1/NB10668183.0045.wav|푸른 물방울

1/NB10668183.0046.wav|그러나 더 이상 바다를 눈물로만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

1/NB10668183.0047.wav|푸른 빛의 바다를 슬픔과 눈물이 아닌

1/NB10668183.0048.wav|큰 빛

1/NB10668183.0049.wav|아름다움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

1/NB10668183.0050.wav|세월호 의사

1/NB10668183.0051.wav|오룡호가 뭔지

1/NB10672509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앵커브리핑 시작하기

1/NB10672509.0001.wav|오늘은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

1/NB10672509.0002.wav|한비자의 나오는 이야기인데

1/NB10672509.0003.wav|어떤 술 잘 빚는 사람이 주막을 찾았습니다

1/NB10672509.0004.wav|인심도 좋고

1/NB10672509.0005.wav|또 안주도 일품인데

1/NB10672509.0006.wav|손님이 용두 했답니다

1/NB10672509.0007.wav|고민을 하던 주인은 마을의 어른을 찾아갔습니다

1/NB10672509.0008.wav|그랬더니 마을 어른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

1/NB10672509.0009.wav|밤에 주막에 혹시 사나운 개가 있는가

1/NB10672509.0010.wav|배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근처에는 얼씬도 못 하니까 당연히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

1/NB10672509.0011.wav|구매대행

1/NB10672509.0012.wav|주사

1/NB10672509.0013.wav|예

1/NB10672509.0014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다 너무

1/NB10672509.0015.wav|대구 자에 사나울 맹자 술 주

1/NB10672509.0016.wav|그리고

1/NB10672509.0017.wav|7시

1/NB10672509.0018.wav|백아산 오면 수리 쉬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

1/NB10672509.0019.wav|청와대 실수가 없으니까 내가 키우는 진돗개가 실수를 한 이야기가 있다

1/NB10672509.0020.wav|박근혜 대통령이 개가 등장하는 개그하는 개그를 던졌습니다

1/NB10672509.0021.wav|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비선실세 의혹을 반박하면서 내놓은 말이야

1/NB10672509.0022.wav|실제 청와대에는 진돗개 두마리가 삽니다

1/NB10672509.0023.wav|희망이와 새로운

1/NB10672509.0024.wav|대통령의 청와대 입장할 때 이웃 주민에게 선물 받은 강아지라고 하자

1/NB10672509.0025.wav|찌라시 같은 얘기들은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마음 놀아 이런 의미로 그래 내가 한 거고

1/NB10672509.0026.wav|그러나 그저 웃고 넘기기에는 요즘게 와 관련된 말들이 너무 치고 또 넘칩니다

1/NB10672509.0027.wav|나는 토사구팽에 사냥개가 돼서 스스로 숨어지내는 사람이다

1/NB10672509.0028.wav|그런데 이제는 진돗개가 되어야겠다

1/NB10672509.0029.wav|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정해서 씨가 이런 말을 했지

1/NB10672509.0030.wav|토사구팽

1/NB10672509.0031.wav|다시는 토끼사냥 뒤에 버려지는 사냥개 2분이라는 환경

1/NB10672509.0032.wav|정윤아 씨와 정반대 주장하고 있는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

1/NB10672509.0033.wav|나는

1/NB10672509.0034.wav|청와대 와치독

1/NB10672509.0035.wav|감시견이었다

1/NB10672509.0036.wav|비선실세 논란은 어느틈엔가 사냥개와 워치독 간의 으르렁대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

1/NB10672509.0037.wav|전직 장관까지 쏟아지는 말들과 의혹에 가세했습니다

1/NB10672509.0038.wav|자 다시 구맹주산의 고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

1/NB10672509.0039.wav|주막 주인은 사나운 개 때문에 장사가 안 됐죠

1/NB10672509.0040.wav|그리고 한비자는

1/NB10672509.0041.wav|구맹주산의 고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

1/NB10672509.0042.wav|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사나운 개와 같은

1/NB10672509.0043.wav|어찌 천자의 눈과 귀가 가로 막히지 않고

1/NB10672509.0044.wav|국가의 관심이 없을 수 있겠네

1/NB10674179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차순선 역시 앵커브리핑

1/NB10674179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이 주목한 단어

1/NB10674179.0002.wav|놓지 마

1/NB10674179.0003.wav|땅콩을 포함한 견과류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쓰시더군요 말도 안되는 과도하게 흥분하는 등등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

1/NB10674179.0004.wav|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상하네 화재입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가 아니죠

1/NB10674179.0005.wav|승무원

1/NB10674179.0006.wav|땅콩은 잘못 갖다 주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파장이 며칠째 계속 됐습니다 결국 그냥

1/NB10674179.0007.wav|장안항공 대표적에서는 사퇴했습니다

1/NB10674179.0008.wav|한국 경영자들의 연설문을 모아둔 책에는 조양호 회장

1/NB10674179.0009.wav|아버지 조양호 회장의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

1/NB10674179.0010.wav|인사는 시스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객의 불만

1/NB10674179.0011.wav|임시변통으로 양해만 구할 것이 아니라

1/NB10674179.0012.wav|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바꿔라

1/NB10674179.0013.wav|조현아 부사장은 고객의 불만을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을까요

1/NB10674179.0014.wav|자국 기내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을 내려 놓은 채

1/NB10674179.0015.wav|비행기는 출발했음

1/NB10674179.0016.wav|물론 늦게 출발했어

1/NB10674179.0017.wav|한국을 대표하는 국적기

1/NB10674179.0018.wav|대한항공에서 일어난 이번 소동은 외신에서 더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

1/NB10674179.0019.wav|귀신의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

1/NB10674179.0020.wav|부사장이 서비스 때문에 보너스 과도하게 화를 내서 비행기를 지연시키다

1/NB10674179.0021.wav|안 그래도 글로벌 항공사들의 경쟁이 피를 말리는 상황에서 대표 북적 천사에 대한 이런 외신 기사들은 뼈 없습니다

1/NB10674179.0022.wav|아까 말씀드린

1/NB10674179.0024.wav|한국 경영자들의 연설문을 모아 놓은 책

1/NB10674179.0025.wav|열정은 시보다 아름답다

1/NB10674179.0026.wav|이 책 가운데는 맞춤

1/NB10674179.0027.wav|조현아 부사장 외할아버지 의자도 창업자 이동하니

1/NB10674179.0028.wav|고종훈 선배 회장이 말도 있더군요

1/NB10674179.0029.wav|사람 얼굴을 조각할 때 처음엔

1/NB10674179.0030.wav|코를 크게 눈은 작게 만들어

1/NB10674179.0031.wav|한번 딱 끊고는 크게 할 수 없고

1/NB10674179.0032.wav|크게 음악 한 눈은 작게 할 수 없다

1/NB10674179.0033.wav|얼굴 조각이라는 그중에 일부 분이었습니다 그만큼

1/NB10674179.0034.wav|신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 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지

1/NB10674179.0035.wav|차 그나저나 뉴욕 공항에서 내려서 몸과 마음이 외톨이가 됐을

1/NB10674179.0036.wav|그 사무장의 심정은 어땠을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

1/NB10674179.0037.wav|혹시

1/NB10674179.0038.wav|혼잣말로 이렇게 외치는 않았을까

1/NB10674179.0039.wav|오늘

1/NB10674179.0040.wav|encode

1/NB10675843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알겠습니다 앵커브리핑입니다

1/NB10675843.0001.wav|불장난

1/NB10675843.0002.wav|어떤 느낌이 드십니까

1/NB10675843.0003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사람입니다

1/NB10675843.0004.wav|이성계 의혹의 정점에서 있는 정형외과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용 안 합니다

1/NB10675843.0005.wav|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그 분장하는 춘천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지라고 생각합니다

1/NB10675843.0006.wav|정현 횟수는

1/NB10675843.0007.wav|불장난

1/NB10675843.0008.wav|아 그것도 엄청난 불장난이라고 말을 했어

1/NB10675843.0009.wav|실제로 부른 사람을 홀리 기도하는 아주 매혹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다

1/NB10675843.0010.wav|더구나 그 구례 장날이란 단어가 붙는 순간

1/NB10675843.0011.wav|헛된 의미 없음 그러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 뭐 이런 느낌을 도와주게 되지

1/NB10675843.0012.wav|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이 한순간에 찌라시가 되어 버린 것과 비슷합니다

1/NB10675843.0013.wav|그렇다면

1/NB10675843.0014.wav|불을 붙인 사람은 누구였을까

1/NB10675843.0015.wav|그것도 정윤희 씨 자신의 표현에 따르자면 토사구팽에 버려진 사냥개가 돼서 숨어지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이지

1/NB10675843.0016.wav|그리고 역시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 불장난의 춤을 추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

1/NB10675843.0017.wav|문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

1/NB10675843.0018.wav|그러면 이번 정부 들어서 비서는 과실수 의혹은 왜 끊임없이 나오는지 또

1/NB10675843.0019.wav|인사에 대한 주인 얘기는 왜 그리 많은지 이건

1/NB10675843.0020.wav|조금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은

1/NB10675843.0021.wav|아니었습니다

1/NB10675843.0022.wav|그래서 아무리 확인해도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의문점을 짚어보는 것이

1/NB10675843.0023.wav|언론의 존재이유 일 수도 있습니다

1/NB10675843.0024.wav|아시는 것처럼 언론의 역할

1/NB10675843.0025.wav|질문 하는 것이니까요

1/NB10675843.0026.wav|초등학생들이 그래

1/NB10675843.0027.wav|불조심 포스터

1/NB10675843.0028.wav|만약 누군가의 불장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

1/NB10675843.0029.wav|큰 불이 될 수도 있다면

1/NB10675843.0030.wav|더 번지기 전에

1/NB10675843.0031.wav|거야 말할 것입니다

1/NB10675843.0032.wav|그리고

1/NB10675843.0033.wav|소방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

1/NB10675843.0034.wav|모든 불에 흔적을

1/NB10675843.0035.wav|바로 점 향하고 있다

1/NB10675843.0036.wav|오늘의 앵커

1/NB10677536.0000.wav|시선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77536.0001.wav|한국작가회의 사장을 지낸 2시 영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

1/NB10677536.0002.wav|일금 5만 원이나 3만 원에 시 한 편 원고료도 소득세와 부가세가 붙는다

1/NB10677536.0003.wav|왜 고객 소득에 개신교 목사들에게 산화제를 요구해야 한다

1/NB10677536.0004.wav|논의하는 구성했던 종교인 과제는 올해도 결국 무산됐다

1/NB10677536.0005.wav|과제 하겠다는 초코와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쪽에 놀리는 참 오랫동안 도대체 왔지요 결과는 늘 같았지만

1/NB10677536.0006.wav|때마침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

1/NB10677536.0007.wav|시사회로 차 난항을 겪고

1/NB10677536.0008.wav|한 달 선교회는

1/NB10677536.0009.wav|자신의 교회가 나오는 부분은 모두 지우라고 했습니다

1/NB10677536.0010.wav|영화의 제목은 쿼바디스

1/NB10677536.0011.wav|왓츠앱으로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의미

1/NB10677536.0012.wav|오늘 앵커브리핑 주목한다 너희 기도합니다

1/NB10677536.0013.wav|영화에선 몇 개의 숫자가 등장합니다

1/NB10677536.0014.wav|먼저 3,500원

1/NB10677536.0015.wav|강남 노른자위 땅에 들어선 사랑의 교회 건축비 수정에게 및

1/NB10677536.0016.wav|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인 거대 예배당이 문을 열 전날에 담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

1/NB10677536.0017.wav|주님만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 하겠고

1/NB10677536.0018.wav|주님을 두려워하는 사역을 하겠다

1/NB10677536.0019.wav|그러나 사랑의 교회 설립자 옥한흠 목사의 아들 오면 오시는 이렇게 얘길 합니다이 건물에 머리말에 이렇게 쓰고 싶다

1/NB10677536.0020.wav|한국교회는

1/NB10677536.0021.wav|이렇게 침몰했다

1/NB10677536.0022.wav|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78100 그리고 25000개

1/NB10677536.0023.wav|무엇을 뜻하는 것일까

1/NB10677536.0024.wav|78,000 결혼 한국 개신교 교회 숫자 9

1/NB10677536.0025.wav|2만 5천 개는 1집 걸로 하나씩 있다는 전국의 편의점 숫자입니다

1/NB10677536.0026.wav|그러니까 교회가 전국 편의점 숫자에 3배가 넘는 담 얘깁니다

1/NB10677536.0027.wav|다시 내가 화내고 저는 사온 거 미약 17.1 가장이라는 추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

1/NB10677536.0028.wav|성전의 크기가 크다

1/NB10677536.0029.wav|그리고 교회의 숫자와 헌금 액수가 많다고 해서

1/NB10677536.0030.wav|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

1/NB10677536.0031.wav|그러나

1/NB10677536.0032.wav|자녀에게 교회 재산을 줘서 송사에 휘말리지 목사 그리고

1/NB10677536.0033.wav|심지어는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목사가 10억 원 넘는 전별금을 챙겨 나간다

1/NB10677536.0034.wav|다시 새 교회를 차리는 법

1/NB10677536.0035.wav|또 셋업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전문 경영자를 끼워서 아들에게

1/NB10677536.0036.wav|편법으로 불러 주는 사람

1/NB10677536.0037.wav|850만 개신교 신자들은 물론이고 바라보는 모두를

1/NB10677536.0038.wav|불편하게 합니다

1/NB10677536.0039.wav|영화를 만든 김재환 감독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목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

1/NB10677536.0040.wav|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

1/NB10677536.0041.wav|참고로 김재환 감독은 모태신앙 에다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고 하는군요

1/NB10677536.0042.wav|몇 달 전에 창립 9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념예배를 진행했습니다

1/NB10677536.0043.wav|소득세를 자진납부 하고 있고 교회 자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바로 그 단체입니다

1/NB10677536.0044.wav|예배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

1/NB10677536.0045.wav|흔들리는 교회 다시 광야로

1/NB10677536.0046.wav|오늘의 주제 포바디 스로 돌아갑니다

1/NB10677536.0047.wav|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던 베드로는 십자가를지고 걸어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

1/NB10677536.0048.wav|쿠오바디스

1/NB10677536.0049.wav|어디로 가시나이까

1/NB10677536.0050.wav|논란을 빚고 있는 영화가 왜이 말을 제목으로 썼는지는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

1/NB10677536.0051.wav|앵커

1/NB10681562.0000.wav|회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앵커브리핑

1/NB10681562.0001.wav|선반

1/NB10681562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단어입니다

1/NB10681562.0003.wav|얼굴 하나 밝아지기 해도 부족한 글입니다 그러나

1/NB10681562.0004.wav|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기는 충분하지요

1/NB10681562.0005.wav|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 아는 속담이 있는데 최근에이 손바닥으로 어떻게든 하늘을 가리고 싶었던 그런

1/NB10681562.0006.wav|난처해진 사람들의 처지가 줄줄이 공개가 되는구나

1/NB10681562.0007.wav|언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은

1/NB10681562.0008.wav|통화 됩니다

1/NB10681562.0009.wav|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

1/NB10681562.0010.wav|세모 경희가 주검으로 발견됐다

1/NB10681562.0011.wav|유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

1/NB10681562.0012.wav|QM5 개미는 청와대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경찰인 한 모병제를 회유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지

1/NB10681562.0013.wav|청와대는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

1/NB10681562.0014.wav|그 어느 누구도 한경이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제한도 없었다

1/NB10681562.0015.wav|그러나 JTBC 취재 결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파견 경찰관이 지난 8일

1/NB10681562.0016.wav|산모 경이를 만났다

1/NB10681562.0017.wav|삽입을 하면 취소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

1/NB10681562.0018.wav|다시 말해서 회유를 했다는 것이죠

1/NB10681562.0019.wav|누구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청와대 반박도 따라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

1/NB10681562.0020.wav|이 소식은

1/NB10681562.0021.wav|저희가 일부에서 단독으로

1/NB10681562.0022.wav|자세히 전해 드립니다

1/NB10681562.0023.wav|두 번째 회의는 논란에 휩싸인

1/NB10681562.0025.wav|항공기 리턴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대한항공에서 있었습니다

1/NB10681562.0026.wav|사무장에 대한 사체의 수도가 알려졌죠

1/NB10681562.0027.wav|직원들이 수 차례 집으로 찾아가서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

1/NB10681562.0028.wav|당시 1등 속에서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승객이 없이

1/NB10681562.0029.wav|모형 비행기 와 달력을 줄테니까 사과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

1/NB10681562.0030.wav|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했던 대한항공은 더욱 거센 비난을 자초한 셈이 됩니다

1/NB10681562.0031.wav|4시 청와대 문건 홈으로 돌아가죠 숨진 채 발견된 최경회 유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198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

1/NB10681562.0032.wav|그런 강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게시판에 의견을 올린 한 16년차 기장

1/NB10681562.0033.wav|이렇게 말합니다

1/NB10681562.0034.wav|부디 회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이내 장막에서 벗어나 달라

1/NB10681562.0035.wav|작은 손바닥으로 스스로 가린 혹은 누군가를 회의해서 가려던 진실은

1/NB10681562.0036.wav|이렇게 금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

1/NB10681562.0037.wav|오늘

1/NB10681562.0038.wav|앵커브리핑

1/NB10683315.0000.wav|메시지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해 주목한다는

1/NB10683315.0001.wav|미기입니다

1/NB10683315.0002.wav|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요

1/NB10683315.0003.wav|일본어로 먼저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 결과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없습니다

1/NB10683315.0004.wav|아베노믹스 실패와 각료들의 일단 스캔들 비롯한 각종 악재를 딛고거든 승리

1/NB10683315.0005.wav|그러다 투표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52%로 떨어졌습니다

1/NB10683315.0006.wav|심지어 홋카이도 비례 대표 구혜선

1/NB10683315.0007.wav|지지정당없음

1/NB10683315.0008.wav|이런 이름에 좀 장난스러운 이름의 정당이

1/NB10683315.0009.wav|무료 10만 표를 받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

1/NB10683315.0010.wav|지난 17대 대선에서 10만 표를 모았던 허경영 후보가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하다

1/NB10683315.0011.wav|일본 국민들이

1/NB10683315.0012.wav|아베 총리를지지 해서가 아니라 야 나는 더 못 믿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

1/NB10683315.0013.wav|똑같은 공식을 우리 정치권에 적용해 봅니다

1/NB10683315.0014.wav|내일 새정치연합 이른바 빅쓰리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위해서

1/NB10683315.0015.wav|비대위원장을 사퇴합니다

1/NB10683315.0016.wav|단권 레이스가 본격화 된 겁니다

1/NB10683315.0017.wav|그러나

1/NB10683315.0018.wav|잡으면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

1/NB10683315.0019.wav|36만 명예시민 선거인단 명부가 사라졌다

1/NB10683315.0020.wav|친노 진영에선 특정 파일 소행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

1/NB10683315.0021.wav|평당원 그리 경선룰 관련해서 당대표실에서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

1/NB10683315.0022.wav|대파 해체

1/NB10683315.0023.wav|0 1100

1/NB10683315.0024.wav|이렇게 내세웠던 구글은 어느 회사 다 증발 했어

1/NB10683315.0025.wav|왜 국민이 자신들한테 실망 했는지

1/NB10683315.0026.wav|무엇을 원하는지 살피기 없어서

1/NB10683315.0027.wav|그저 기득권 챙기기에는

1/NB10683315.0028.wav|급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

1/NB10683315.0029.wav|이런

1/NB10683315.0030.wav|지리멸렬한 야당에 대한 대중의 심판은

1/NB10683315.0031.wav|다음과 같습니다

1/NB10683315.0032.wav|30%대 대통령 지지율 낮게 내려앉은 여당의 지지율이에도 불구하고 야당은

1/NB10683315.0033.wav|반사이익 쫓아 누리지 못한 채

1/NB10683315.0034.wav|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

1/NB10683315.0035.wav|이번 청와대 문건 파문 관련해서도 야당의 존재감을

1/NB10683315.0036.wav|거의 없어 보입니다

1/NB10683315.0037.wav|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야당은 지난 730 재보선에서

1/NB10683315.0038.wav|11대 4로 참패한 바 있습니다

1/NB10683315.0039.wav|세월호 참사가 거듭된 인사 문제 와중에 나온 결과였습니다

1/NB10683315.0040.wav|자 이제 오늘의 주먹 단어 위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요

1/NB10683315.0041.wav|역사학자 토인비는 메기효과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

1/NB10683315.0042.wav|긴장이 철을 살아 있게 한다

1/NB10683315.0043.wav|북해 먼 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그냥 수주에 넣어서 운반하면 다 죽어 버리지 마

1/NB10683315.0044.wav|천적인 메기를 넣으면

1/NB10683315.0045.wav|긴장한 청어들이 싱싱하게 살아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

1/NB10683315.0046.wav|대한과 견제

1/NB10683315.0047.wav|그니까 건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죠

1/NB10683315.0048.wav|견지 받지 못하는 권력은 위험합니다

1/NB10683315.0049.wav|지금 한글 야당은 과연 금액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

1/NB10683315.0050.wav|혹시

1/NB10683315.0051.wav|여전히

1/NB10683315.0052.wav|자기들끼리만 물고 뜯는 싸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

1/NB10683315.0053.wav|아닐까

1/NB10685095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은이 말에 주목했습니다

1/NB10685095.0001.wav|침묵의 경비

1/NB10685095.0002.wav|크리스마스는 며칠 앞두고 서울 조계사 앞에 예쁜 풍경 하나가 대체 전에 일찍 문 앞에는 고운 빛깔의 성탄트리가 설치된 겁니다 트리 옆에는 양볼이 발그레한 동자승 도서 있습니다 바라보는 이들을 절로 미소짓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

1/NB10685095.0003.wav|같이 포옹하고 같이 간다니까 얼마나 줬으니까 다 이게 종교의 편파 없이 다 같이 할 수 있는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우리나라도 싸우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

1/NB10685095.0004.wav|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조계종 성탄트리는 지난 2010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

1/NB10685095.0005.wav|석가탄신일은 교회 하고 성당에 그리고 성탄절에는 불교가 이렇게

1/NB10685095.0006.wav|서로의 기념물 기념일을 축하하는

1/NB10685095.0007.wav|선한 송해

1/NB10685095.0008.wav|점차 늘고 있는 것이죠

1/NB10685095.0009.wav|아름다운 종교의 모습

1/NB10685095.0010.wav|얼마 전에 터키 최대 이슬람 사원인 블루모스크 방문

1/NB10685095.0011.wav|프란치스코 교황 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

1/NB10685095.0012.wav|침묵의 정보

1/NB10685095.0013.wav|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신을 벗고

1/NB10685095.0014.wav|다른 종교를 향해서 보여준 2분 간의 침묵

1/NB10685095.0015.wav|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드러낸 장면으로

1/NB10685095.0016.wav|혜자 됩니다

1/NB10685095.0017.wav|시청 앞 광장 해도 교회도

1/NB10685095.0018.wav|어 그래 국회에도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트리들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

1/NB10685095.0019.wav|근데 조금 다른 이유로 화제를 불러온 트리도 있습니다

1/NB10685095.0020.wav|한국기독교총연합회

1/NB10685095.0021.wav|한기총이라고 줄여서 부른다

1/NB10685095.0022.wav|이한기 총회 애기봉 등탑 철거 자리

1/NB10685095.0023.wav|9m 높이의 성탄절을 세운다고 막혀서

1/NB10685095.0024.wav|갈등이 불거진

1/NB10685095.0025.wav|한기총은 편의점 등이

1/NB10685095.0026.wav|복음의 통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

1/NB10685095.0027.wav|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

1/NB10685095.0028.wav|종교단체 사람들은 점등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

1/NB10685095.0029.wav|주민들은 연말 연초 내내 불안에 떨어야 한다

1/NB10685095.0030.wav|과연 누구를 위한 성탄전야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

1/NB10685095.0031.wav|침묵의 경비

1/NB10685095.0032.wav|교황이 우리에게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은

1/NB10685095.0033.wav|파일은 인정하는 포용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

1/NB10685095.0034.wav|오늘 조계종의 자승 총무원장

1/NB10685095.0035.wav|성탄트리 점등식면서 이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

1/NB10685095.0036.wav|부모와 형제 이우승 모두 부처와 같이 대하며

1/NB10685095.0037.wav|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

1/NB10685095.0038.wav|예수로 살아갑시다

1/NB10685095.0039.wav|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 갑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

1/NB10685095.0040.wav|분열과 대립으로 어지러운 2014년 3회

1/NB10685095.0041.wav|모두가

1/NB10685095.0042.wav|함께 행복할 평화로운 성탄절을

1/NB10685095.0043.wav|기다림

1/NB10686902.0000.wav|지성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686902.0001.wav|중국 산동성에서 가장 높은 산인 태산이 어느 날 떠나갈 듯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했죠

1/NB10686902.0002.wav|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

1/NB10686902.0003.wav|그런데 천지를 진동하는 태산에서 툭 튀어나온 것은 작은 생쥐 한 마리 였다죠

1/NB10686902.0004.wav|태산명동 서일필

1/NB10686902.0005.wav|시장만 연락하고

1/NB10686902.0006.wav|결과는 보잘 것 없음

1/NB10686902.0007.wav|요란하게 일을 벌였지만 결과는 생지 한 마리다

1/NB10686902.0008.wav|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쓰는 말입니다

1/NB10686902.0009.wav|앵커브리핑에 주목한다

1/NB10686902.0010.wav|이름 박지선 국정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동안의

1/NB10686902.0011.wav|정권의 그림자 실세로 불려왔던 인물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친동생까지 줄줄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

1/NB10686902.0012.wav|그러나 나라를 지우는 파문의 최종 결과는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박관천 경위와 죽은 채경이가 다 떠 않게 되었습니다

1/NB10686902.0013.wav|그러나 왜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조차 뚜렷하게 밝혀진 않았죠 여기에다가 박지만 회장은 지금

1/NB10686902.0014.wav|자신이 주장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 모든 사실을

1/NB10686902.0015.wav|구했습니다

1/NB10686902.0016.wav|그렇게함으로써 좋지

1/NB10686902.0017.wav|해당 사항 없습니다

1/NB10686902.0018.wav|대구 살아 있는 박관천 경희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형국입니다

1/NB10686902.0019.wav|금사리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렸다 또 고래를 멸치로 만들었다는 세관의 비아냥이 나오는 대목입니다

1/NB10686902.0020.wav|다 이렇다 보니까 정작 국민들이 갖고 있던 궁금증은 여전히

1/NB10686902.0021.wav|위 속으로만 남아 있습니다

1/NB10686902.0022.wav|당시에 장관이 직접 토로했던 문화체육부 과정에 좌천 인사논란

1/NB10686902.0023.wav|또

1/NB10686902.0024.wav|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재개해 봤던 이름

1/NB10686902.0025.wav|문고리 삼인방의 역할도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리는

1/NB10686902.0026.wav|청와대가 무시와 무지 무능감 무책임 이렇게 삼으로 일관하고 있던 지적 어제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대로라면

1/NB10686902.0027.wav|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지도 모르겠다

1/NB10686902.0028.wav|다시 들여다봅니다 태산명동 서일필

1/NB10686902.0029.wav|태산이 떠나갈

1/NB10686902.0030.wav|지금 들더니 고작 중의 한 마디로 마무리되는 수술

1/NB10686902.0031.wav|부여군 갈치

1/NB10691612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이후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691612.0001.wav|바보

1/NB10691612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오른 단어입니다

1/NB10691612.0003.wav|매년 사자성어로 한해를 정리하는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

1/NB10691612.0004.wav|지록위마를 뽑았습니다

1/NB10691612.0005.wav|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

1/NB10691612.0006.wav|유난히 올해 유행처럼 회자됐던 말이기도 했지

1/NB10691612.0007.wav|추천 위원인 곽복선 경상대 교수의 이런 말을 했더니

1/NB10691612.0008.wav|수많은 사슴들이 말로 바뀐 아내였다

1/NB10691612.0009.wav|온갖 거짓이 진실인양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

1/NB10691612.0010.wav|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록위마 일진데 그렇다면 사슴을 말이라고 부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할까요

1/NB10691612.0011.wav|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비속어 중에 박하나

1/NB10691612.0012.wav|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

1/NB10691612.0013.wav|환자를 살펴보니까

1/NB10691612.0014.wav|사슴 목장

1/NB10691612.0015.wav|마이 마사지

1/NB10691612.0016.wav|누구냐

1/NB10691612.0017.wav|이박사의 어원은 산스크리트 유래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바로이 지록위마 고사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도 있고

1/NB10691612.0018.wav|14 20 1%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카스 바보라는 이야기입니다

1/NB10691612.0019.wav|이제는 많이 알려진 지록위마 예고에서는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음

1/NB10691612.0020.wav|진시황의 죽자 환관 인조가 어린 왕자를 앞세워서 실권을 장악하고

1/NB10691612.0021.wav|황제에게 사슴을 받치면서 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

1/NB10691612.0022.wav|간신히 윗사람을 농락 하면서 권세를 휘두르거나

1/NB10691612.0023.wav|흑백이 뒤바뀌고 진실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을 급함

1/NB10691612.0024.wav|2014년 대한민국의 이치로쿠 이마에 공식을 대입해 볼까요

1/NB10691612.0025.wav|담뱃값은 올렸지만 다 국민건강 때문이다

1/NB10691612.0026.wav|내리라고 했지만 비행기를 볼 이라고는 하지 않았다

1/NB10691612.0027.wav|그리고 56.9 차는 남겼지만 실패한 자원외교는 아니다

1/NB10691612.0028.wav|다른 이야기까지

1/NB10691612.0029.wav|인터넷과 SNS는 이렇게

1/NB10691612.0030.wav|지록위마 시리즈가 돌고 있어

1/NB10691612.0031.wav|실제로 수원지법에 한 부장판사는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

1/NB10691612.0032.wav|어떤 사건이 생겨 가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

1/NB10691612.0033.wav|지록위마 fingertips

1/NB10691612.0034.wav|징계를 받기로 했습니다

1/NB10691612.0035.wav|지록위마

1/NB10691612.0036.wav|혹은 바보

1/NB10691612.0037.wav|내가 보기엔 분명히 사슴 같은데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

1/NB10691612.0038.wav|내가 바보인가

1/NB10691612.0039.wav|이렇게 국민들은 헷갈리기만 합니다

1/NB10691612.0040.wav|그리고 다가올

1/NB10691612.0041.wav|2015년 3회

1/NB10691612.0042.wav|또 다시 지록위마 일시적이 될 것입니다

1/NB10691612.0043.wav|여러분께서 어떻게 예상하시는

1/NB10693603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한다는

1/NB10693603.0001.wav|분입니다

1/NB10693603.0002.wav|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인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려청자가 매끈한 피부를 가진 민낯을 하면

1/NB10693603.0003.wav|조선의 분청사기는 거친 살결을 가리려고 분을 바른 얼굴이다

1/NB10693603.0004.wav|이쁜 천사의 경우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표면이 거칠어진 파 3

1/NB10693603.0005.wav|품질로 매끈하게 꾸며 놨다라는 의미입니다

1/NB10693603.0006.wav|실제로 화장 혹은 분출은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 없는 무언가를

1/NB10693603.0007.wav|감초 주기도 하지요

1/NB10693603.0008.wav|어찌 보면 우리 경제 역시 거칠거칠한 맨얼굴

1/NB10693603.0009.wav|고흥군 치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

1/NB10693603.0010.wav|어제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

1/NB10693603.0011.wav|구조개혁 체질 개선 그리고

1/NB10693603.0012.wav|경제활력 높인다 이것이 맨 위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

1/NB10693603.0013.wav|거기서 나온 얘기들 보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

1/NB10693603.0014.wav|정규직 과보호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

1/NB10693603.0015.wav|또 가게 부천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

1/NB10693603.0016.wav|이렇게 정보가 내놓고 있는 진단 드린데요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

1/NB10693603.0017.wav|당장 해고가 쉬워지게 되면 1060 원에 달하는 빚더미 가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

1/NB10693603.0018.wav|또

1/NB10693603.0019.wav|쉬운 해고를 전제로 해 놓고 최저 임금을 인사하고

1/NB10693603.0020.wav|임금 교섭을 장녀 하겠다라는 것이야말로 직장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

1/NB10693603.0021.wav|고용불안의 민낯을 가리는 분실이 아닌가 하는

1/NB10693603.0022.wav|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

1/NB10693603.0023.wav|추운 겨울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국민 한분한분을 챙기겠습니다

1/NB10693603.0024.wav|바로 2년 전에 애교 만세 박근혜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향해서 내 나왔던 약속이 기도합니다

1/NB10693603.0025.wav|그러나이 추운 겨울 따뜻한 잠자리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하군요

1/NB10693603.0026.wav|우리 사회의 수많은 미생물

1/NB10693603.0027.wav|일터가 점점 더 불안한 사람들이 늘고 있고

1/NB10693603.0028.wav|거리로 나서 노동자들은

1/NB10693603.0029.wav|내미는 손 잡아 달라 이렇게

1/NB10693603.0030.wav|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

1/NB10693603.0031.wav|아무도 그 날에 신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

1/NB10693603.0032.wav|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

1/NB10693603.0033.wav|이성복 시인

1/NB10693603.0034.wav|그날 그날 중에 한 구절입니다

1/NB10693603.0035.wav|자 이쯤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

1/NB10693603.0036.wav|경제민주화

1/NB10693603.0037.wav|이정부 탄생의 미끄럼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바로 그 경제민주화 말입니다

1/NB10693603.0038.wav|상황이 이렇게 될 거야

1/NB10693603.0039.wav|한번 해보기라도 했으면 어땠을까

1/NB10693603.0040.wav|아쉬움

1/NB10695457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말은 산타

1/NB10695457.0001.wav|방문입니다

1/NB10695457.0002.wav|시우 말 다 놔두고 굳이 영어 한자를 섞어 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 유치원에 가정통신문 때문인데요

1/NB10695457.0003.wav|산타에 관한 안내문 이런 제목입니다 며칠 전 읽어 드릴까요

1/NB10695457.0004.wav|이 안내문을 영어와 한자를 섞어서 쓰고 봉해서 보내는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이 산타에 대한

1/NB10695457.0005.wav|신비감을 지니게 해서

1/NB10695457.0006.wav|동심의 즐거운 추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

1/NB10695457.0007.wav|어른들이 읽기에도 이렇게 쉬운 문장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

1/NB10695457.0008.wav|혹시나 아이들이 발견했던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게끔 고난이도의 장치를 심어 놓은 것이죠

1/NB10695457.0009.wav|산타를 믿는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의 자취가 아주 돋보입니다

1/NB10695457.0010.wav|산타의 방문

1/NB10695457.0011.wav|내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몰래 선물을 두고 간다는 이야기

1/NB10695457.0012.wav|이것은 산타를 믿지 않는 우리 어른들한테

1/NB10695457.0013.wav|한 번쯤 다시 경험해 보고 싶은 판타지지도 모르겠어

1/NB10695457.0014.wav|1843년 발표된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의 기억하시죠 인정 버리라고 넘는 지독한 구두쇠 스크루지

1/NB10695457.0015.wav|성산 8호선

1/NB10695457.0016.wav|과거와 현재 미래를

1/NB10695457.0017.wav|정우만 뒤에

1/NB10695457.0018.wav|이웃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아

1/NB10695457.0019.wav|오헨리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도 탐스러운 머리카락을

1/NB10695457.0020.wav|잘라서

1/NB10695457.0021.wav|남편의 스케줄을 산 아내와

1/NB10695457.0022.wav|시계를 팔아서 안에 머리핀을 준비한 남편의 이야기

1/NB10695457.0023.wav|이런 거 보면 낭만적이고 더 아름다운 고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는 이유는 그만큼

1/NB10695457.0024.wav|우리 어른들이 사는 세상이 황폐하고 또 삭막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

1/NB10695457.0025.wav|알겠어 오늘만 그만 산타가 돼야 하는 아빠 엄마

1/NB10695457.0026.wav|혹은 아직도 산타의 선물을 기대하는 누군가에게도 마법 같은 판타지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

1/NB10695457.0027.wav|아이들이 9시까지 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

1/NB10695457.0028.wav|지난 2011년 미국 폭스 뉴스 앵커 로빈 로빈슨이 한말입니다

1/NB10695457.0029.wav|뉴스 진행 도중에

1/NB10695457.0030.wav|산타는 없다 이렇게 말해서 시청자의 거센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로빈슨은

1/NB10695457.0031.wav|다음날 바로 공식 사과 방송을 했다고

1/NB10695457.0032.wav|박은아 전화 지금 시각 역시

1/NB10695457.0033.wav|9시가 다 되어가고 있구나

1/NB10695457.0034.wav|이민우 썅 분들도 계시겠지만

1/NB10695457.0035.wav|여기에

1/NB10695457.0036.wav|경고등 일 하고 있었습니다 13세 이상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혹시 13세 이상 산타할아버지는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산타가 없다고 믿는 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산타할아버지가 없다는 것

1/NB10695457.0037.wav|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

1/NB10696554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에 오늘 열겠습니다

1/NB10696554.0001.wav|소가 물을 마시듯

1/NB10696554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시골은

1/NB10696554.0003.wav|소환사의 협곡을 얘기했는데 우리 컴퓨터그래픽 하는 분은 직설법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고

1/NB10696554.0005.wav|연말입니다 내일은 2014년에 마지막 주말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지요

1/NB10696554.0006.wav|술자리 약속 줄줄이 밀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좀 황당한 사건이 하나 알려 줬거든요

1/NB10696554.0007.wav|초등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

1/NB10696554.0008.wav|노래방에서 먼저 자리를 비웠던 이유로 학교 선생님을 폭행했다고 하자

1/NB10696554.0009.wav|이제 월례회 따르면이 교장선생님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

1/NB10696554.0010.wav|시계게 매맞는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연말이면 크게 늘어납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잠깐 전화 드렸죠 차에 구토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

1/NB10696554.0011.wav|욕설을 하고 때리기까지 하는 취객이 연말이면 더 많아진다고 함

1/NB10696554.0012.wav|경찰청 자료만 봐도

1/NB10696554.0013.wav|12월에는 운전자폭행 사고가

1/NB10696554.0014.wav|평소보다 30% 가까이 급증했습니다

1/NB10696554.0015.wav|소가 물 마시듯 마시는 저 사람들은 뭐냐

1/NB10696554.0016.wav|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들에게 쓴 편지

1/NB10696554.0017.wav|적당히 마시라는 말씀드렸죠 이런 당부도 눈에 띕니다

1/NB10696554.0018.wav|부리 입술과 혀를 적시지 않고 곧바로 목구멍으로 넘어가냐

1/NB10696554.0019.wav|요즘 말로 하면

1/NB10696554.0020.wav|원샷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 같아

1/NB10696554.0021.wav|술에 관련된 난동 사건 역시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

1/NB10696554.0022.wav|1784년 정조 8년에

1/NB10696554.0023.wav|청주를 마실지 탁주를 마실지 이걸로 꽃 앞선 친구들

1/NB10696554.0024.wav|칼부림을 하다가 한 명이 죽는 사건까지 발생한다

1/NB10696554.0025.wav|요새로 따지면 소주나 맥주 놔두고 싸우는거나 마찬가지인데

1/NB10696554.0026.wav|세요

1/NB10696554.0027.wav|어 그냥 섞어 마시면 되지

1/NB10696554.0028.wav|이렇게 혀를 끌끌 차고 있어

1/NB10696554.0029.wav|부당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

1/NB10696554.0030.wav|실제로 폭탄주를 마시는 사람이 그냥 1년 사이에 1.7 배가 늘었다는 통계도 나와있더군요

1/NB10696554.0031.wav|이 중 단연 인기는 역시 맥주에 소주를 섞는다

1/NB10696554.0032.wav|소맥입니다

1/NB10696554.0033.wav|아니 소맥입니다

1/NB10696554.0034.wav|우리는 왜 이리 많이 마시고 빨리 마치고 또 섞어서 맛일까를 생각해 봤어

1/NB10696554.0035.wav|그랬더니

1/NB10696554.0036.wav|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

1/NB10696554.0037.wav|기진 맥진

1/NB10696554.0038.wav|기운이 없어지고 맥이 풀렸다

1/NB10696554.0039.wav|중소기업인들이 꼽은 올해 사자성어라고

1/NB10696554.0040.wav|어디 중소기업인 꿈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

1/NB10696554.0041.wav|기진맥진 하셨지요 그만큼 모두에게

1/NB10696554.0042.wav|너무나 힘들었다

1/NB10696554.0043.wav|2014년 이런 의미겠죠

1/NB10696554.0044.wav|루나

1/NB10696554.0045.wav|술 한 잔으로 쉽게 잊어버리게

1/NB10696554.0046.wav|올해는 잊어서는 안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

1/NB10696554.0047.wav|기억하고

1/NB10696554.0049.wav|기다리라고 했어

1/NB10696554.0050.wav|바로크 사진

1/NB10701349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701349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다 너는

1/NB10701349.0002.wav|cipa입니다

1/NB10701349.0003.wav|선천성무통각증 및 무한증을 뜻하는 의학용어

1/NB10701349.0004.wav|이희병

1/NB10701349.0005.wav|찡했습니다

1/NB10701349.0006.wav|피곤함과

1/NB10701349.0007.wav|거기 배고파

1/NB10701349.0008.wav|벨소리 같은 권능은 일반인처럼 느끼게

1/NB10701349.0009.wav|고통이나 뜨거움 차가운 같이 꼭 느껴야 할

1/NB10701349.0010.wav|감각을 알려주는 알람기능이 꺼져 있다

1/NB10701349.0011.wav|더운 곳에 가도 땀을 흘리지 않아서 열사병에 걸리고

1/NB10701349.0012.wav|몸 어딘가에 상처가 나도 아프면 느끼지 못해서 자숙하며

1/NB10701349.0013.wav|목숨이 위험해 질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

1/NB10701349.0014.wav|cipa

1/NB10701349.0015.wav|무통각증 및 무한

1/NB10701349.0016.wav|지금의 야당인 새정치연합 의사들이 본다면

1/NB10701349.0017.wav|아마도 이런 진단을 내리지 않을까

1/NB10701349.0018.wav|앞서 말씀드린 cipa 증상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

1/NB10701349.0019.wav|피곤함과 헉

1/NB10701349.0020.wav|해설 같은 본능

1/NB10701349.0021.wav|그대로 느낀다

1/NB10701349.0022.wav|야당역 시간

1/NB10701349.0023.wav|당신의 본능에는 충실합니다

1/NB10701349.0024.wav|다음 총선에서 어떻게든 뵙지만 달면 된다

1/NB10701349.0025.wav|개발을 우선시해서 준석이 하나는 구태본

1/NB10701349.0026.wav|이건 그대로라는

1/NB10701349.0027.wav|그리고 고통이나 뜨거움 차가 오면 같이

1/NB10701349.0028.wav|우리 몸에 꼭 필요한

1/NB10701349.0029.wav|알람 기능이 꺼져 있는 cipa 다른 증상

1/NB10701349.0030.wav|야당에선 이렇게 나타납니다

1/NB10701349.0031.wav|거듭된 대선 패배

1/NB10701349.0032.wav|총선과 지방선거에서의 8

1/NB10701349.0033.wav|여당 지지율 랩 반토막을 간신히 유지하는 지지율

1/NB10701349.0034.wav|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과연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는 있는가 하는 것이다

1/NB10701349.0035.wav|사장 시원하게 대한 평가가

1/NB10701349.0036.wav|너무 박한 가요

1/NB10701349.0037.wav|오늘 사정시간 문재인의원 당권도전 요청하였습니다 어제는 박지원 의원의 출마를 선언했다

1/NB10701349.0038.wav|두 사람 모두

1/NB10701349.0039.wav|야당 나오냐고

1/NB10701349.0040.wav|혁신은 왜 초에는 있음

1/NB10701349.0041.wav|바라보는 시선과 나는 감기 좀 있습니다

1/NB10701349.0042.wav|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당내외 따가운 시선들 마저도 무통각증 때문에 많이 느끼지 못한다

1/NB10701349.0043.wav|그래서 혁신을 통한 야당 다운이 야당이 결국 또

1/NB10701349.0044.wav|우주선에 미친다

1/NB10701349.0045.wav|고통의 사라지는 세계는 결코 축복이 아니다 가장 두려운 공포

1/NB10701349.0046.wav|영국 출신의 한샘병 전문회사인 폴 브랜드의 말이야

1/NB10701349.0047.wav|위험을 느끼는 알람 기능을 잃은

1/NB10701349.0048.wav|야

1/NB10701349.0049.wav|마님

1/NB10701349.0050.wav|그것을 고치지 못한다

1/NB10701349.0051.wav|역시 마찬가지 결과가

1/NB10701349.0052.wav|나타날 수도 있습니다

1/NB10701349.0053.wav|앵커

1/NB10703177.0000.wav|메시지 창 열어 본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703177.0001.wav|국제시장

1/NB10703177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의 주목한 단어입니다

1/NB10703177.0003.wav|부산 국제시장에 처음부터 이렇게 국제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

1/NB10703177.0004.wav|광복 이후에 일본인들이 두고간 물건을 내다 파는 노점이 모여서

1/NB10703177.0005.wav|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만들어졌고 당시 불렸던 이름은

1/NB10703177.0006.wav|도떼기시장

1/NB10703177.0007.wav|1948년 이후에야 자유시장이란 이름이 새로 보셨죠 이사 유상희

1/NB10703177.0008.wav|특정의 계단식은

1/NB10703177.0009.wav|한국 전쟁통이었습니다

1/NB10703177.0010.wav|부산은 전국에서 몰려온 피란 인파로 넘쳤고

1/NB10703177.0011.wav|구호물자 와 미군 창고에서 흘러나오는 물건들

1/NB10703177.0012.wav|당신은 이제 씨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 물건들도

1/NB10703177.0013.wav|양담배 미제 화장품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

1/NB10703177.0014.wav|국제 시장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도 바로이 의미 없다고 하는군요

1/NB10703177.0015.wav|모두가 힘들었던 시절에

1/NB10703177.0016.wav|많은 사람들의 삶터가 되었던 국제시장이

1/NB10703177.0017.wav|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

1/NB10703177.0018.wav|옆동에 세계를 견제는 아버지를 그린 영화 국제시장이 흥행몰이 중이다

1/NB10703177.0019.wav|한성 농가의 영화평이 논란이 되었습니다

1/NB10703177.0020.wav|이 고생을 우리 후손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다행이다 나는 정말 토가 나온다

1/NB10703177.0021.wav|정신승리 하는 사이라는게

1/NB10703177.0022.wav|문제가 되는 말을 옮기면 이렇습니다

1/NB10703177.0023.wav|물론이 영화는 대중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화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가 역시 자유입니다

1/NB10703177.0024.wav|칭찬을 할 자유도

1/NB10703177.0025.wav|호평을 할 자유도 있는 것이죠

1/NB10703177.0026.wav|그리고 그 영화평에 대한 대중의 평가도

1/NB10703177.0027.wav|아 딱 들어맞는 평가 다 이렇게 박수를 칠 자유가

1/NB10703177.0028.wav|안드로

1/NB10703177.0029.wav|당신 생각은 틀렸다

1/NB10703177.0030.wav|이렇게 비판할 자유가 똑같이 주어져야 합니다

1/NB10703177.0031.wav|그러나 넘치 말아야 할 수는 있습니다 대한 이게이 영화평론가의 출생지가 논란이 됐다

1/NB10703177.0032.wav|전라도 출신이라는 겁니다

1/NB10703177.0033.wav|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번 논쟁의 출신지라는 낡은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

1/NB10703177.0034.wav|과거로 돌아가

1/NB10703177.0035.wav|부모 고향까지 가져가면서 낙인을 찍고 밀쳐 내던 그런 황당했던 시절을 말하는 것이죠

1/NB10703177.0036.wav|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도 논란이 됐던 한 기업체가 있습니다

1/NB10703177.0037.wav|채용 기준이 이렇습니다

1/NB10703177.0038.wav|전라도 출신은 지원 불가

1/NB10703177.0039.wav|고생 피난 끝에이 기업은 직원 시술하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

1/NB10703177.0040.wav|씁쓸한 뒷맛을 남겼던 우리 사회

1/NB10703177.0041.wav|한 단면이 없습니다

1/NB10703177.0042.wav|먹고 사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던 전쟁통 국제 시장 아내는

1/NB10703177.0043.wav|나와 남이 따로 없었습니다

1/NB10703177.0044.wav|어떻게든 함께 살아내야 했다

1/NB10703177.0045.wav|다들 똑같은 사람이 어떤 것이죠

1/NB10703177.0046.wav|전라도와 경상도

1/NB10703177.0047.wav|재외동포와 지역 토박이가 뒤섞여서 말 그대로

1/NB10703177.0048.wav|국제적인 화분 이루었던 국제 시장을 둘러싼

1/NB10703177.0049.wav|이비 국제적 논란을 바라보면서

1/NB10703177.0050.wav|몇 해 전에 유행했던 개그 한 토막을 떠올렸습니다

1/NB10703177.0051.wav|개그는 개그일뿐

1/NB10703177.0052.wav|오해하지 말자

1/NB10703177.0053.wav|영화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화는 영화일뿐

1/NB10703177.0054.wav|오해는

1/NB10703177.0055.wav|포도

1/NB10703177.0056.wav|오버는 하지 말았으면

1/NB10704959.0000.wav|계산기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 주목한다 너는 얼굴입니다 2014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봐도 또 보고 싶은 기분 좋은 얼굴들이 있는가 하면

1/NB10704959.0001.wav|한해를 정리하는 많은 분들로 붐비는이 곳에서 다양한 얼굴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

1/NB10704959.0002.wav|제일 고생하시는 부모님께서 써요 세월호 단원고 언니 오빠들 사진 곳에서도 자신의 할 일들을 묵묵히 하시는 분들 끝까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같이 했던 동료들과 함께 기억을 나누고 싶어

1/NB10704959.0003.wav|예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오래 기억하고 싶은 얼굴들을 남겨주셨습니다

1/NB10704959.0004.wav|제일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세월호 희생자 300여명이 얼굴을 꼭 기억하고 싶다 이렇게 남겨 주시고요 또 함께 말없이 우리 사회에서 제 몫을 다 하는 모든 성실한 시민들도 기억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

1/NB10704959.0005.wav|예

1/NB10704959.0006.wav|팟캐스트 중이라 그밖의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에 김선아씨

1/NB10704959.0007.wav|흑백 사진 한 장을 올려 주셨는데

1/NB10704959.0008.wav|잠시 일을 그만두신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청춘 이야기

1/NB10704959.0009.wav|생각을 들었습니다

1/NB10704959.0010.wav|실직 이로 인해서 늘 움츠려들게 그 어깨로

1/NB10704959.0011.wav|묵묵히 험한 세상 버티 오신

1/NB10704959.0012.wav|아버지입니다 이렇게

1/NB10704959.0013.wav|보내셨어요

1/NB10704959.0014.wav|홍예원 시켜서는 쌍용차 공장 굴뚝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 잊지 말아야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고 하셨고요 이성훈 수도

1/NB10704959.0015.wav|이 글을 보는 당신도 역시 노동자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지

1/NB10704959.0016.wav|광주 31사단

1/NB10704959.0017.wav|윤 일병이

1/NB10704959.0018.wav|지금쯤이면 살았을 상병 계급장입니다

1/NB10704959.0020.wav|이렇게

1/NB10704959.0021.wav|가서 찍은 사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

1/NB10704959.0022.wav|납세자 믿어

1/NB10704959.0023.wav|신용태 씨가 올려 준 사진은 담배 사진입니다 2분은 담배 피우시는 분인 거 같은데

1/NB10704959.0024.wav|웬만하면 끝냈어

1/NB10704959.0026.wav|제작진 가운데서 끊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

1/NB10704959.0027.wav|제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정말 그 친구들이 끊었는지 알려 드리고

1/NB10704959.0028.wav|동작구 이성 1시 반복되는 갑의횡포 반복되는 사고와 무능한 기철이

1/NB10704959.0029.wav|이 가운데 장그래가 그나마 힘과 위로를 주는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보내 줘

1/NB10704959.0030.wav|축하할 일도 있군요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

1/NB10704959.0031.wav|아들이 잘 하고 또 살아갈 세상은 보다 말고 건강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

1/NB10704959.0032.wav|남종수 씨의 귀한 첫 아들 사진인데

1/NB10704959.0033.wav|어 이렇게 예쁜 잘생긴

1/NB10704959.0034.wav|아이 사진은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

1/NB10704959.0035.wav|카드

1/NB10704959.0036.wav|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았던 의견은 역시 잃어버린 300 4명의

1/NB10704959.0037.wav|얼굴 드려요

1/NB10704959.0038.wav|이광재 씨가 이렇게 말하면

1/NB10704959.0039.wav|세월호 아이들의 얼굴

1/NB10704959.0040.wav|우리가 잊지 않기로 약속했잖아

1/NB10704959.0041.wav|그렇습니다

1/NB10704959.0042.wav|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용은이 두 가지입니다 제주의 향미 씨 가족이 오래 얼굴이

1/NB10704959.0043.wav|세월호 시장 저도 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도 고통을 함께하는 가족이었습니다

1/NB10704959.0044.wav|지우려고 해도 저절로 기억되는 것이 가족이다

1/NB10704959.0045.wav|영원히 기억될

1/NB10704959.0046.wav|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

1/NB10704959.0047.wav|예 보내 주세요

1/NB10704959.0048.wav|장승학 씨는 하나를 이렇게 정리해주셨네요

1/NB10704959.0049.wav|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

1/NB10704959.0050.wav|내가 가치를 하지 않았는데

1/NB10704959.0051.wav|안전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

1/NB10704959.0052.wav|그리고

1/NB10704959.0053.wav|내가

1/NB10704959.0054.wav|말을

1/NB10704959.0055.wav|사슴이라고 하지 않아

1/NB10704959.0056.wav|이렇게 보내 줘

1/NB10704959.0057.wav|자하 내년에도 역시 우리는 수많은 얼굴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모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얼굴만 아니겠죠 어떻게든 피하고만 싶은 얼굴 또한 여정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모두

1/NB10704959.0058.wav|겪어 내면서 한해를

1/NB10710213.0000.wav|시청자 그러면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710213.0001.wav|김삼순

1/NB10710213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단어입니다

1/NB10710213.0003.wav|10년 전에 드라마

1/NB10710213.0004.wav|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

1/NB10710213.0005.wav|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

1/NB10710213.0006.wav|촌스러운 이름 파세 속상해하는 삼순이에게

1/NB10710213.0007.wav|택시 기사가 이런 농담을 던집니다

1/NB10710213.0008.wav|이름이 도대체 어때서 삼순이 많아 아니면 되지

1/NB10710213.0009.wav|결국 삼순이는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

1/NB10710213.0010.wav|대신 자신의 개성과 실력으로

1/NB10710213.0011.wav|일도 사랑도 얼른 해피엔딩으로 드라마는 마무리됩니다

1/NB10710213.0012.wav|자 오늘 난데없이 삼순이를 떠올린 이유

1/NB10710213.0013.wav|당명을 바꾸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입니다

1/NB10710213.0014.wav|유력 당대표 후보 2명이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겠다고 나섰죠

1/NB10710213.0015.wav|호남 트로이카는 것으로 분석된다 온대

1/NB10710213.0016.wav|박래수조차 비난 여론이 나왔습니다

1/NB10710213.0017.wav|엉뚱하게도 당명 개정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상한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인데요 급하면

1/NB10710213.0018.wav|야당은 이름을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

1/NB10710213.0019.wav|2000년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 민주당

1/NB10710213.0020.wav|민주당

1/NB10710213.0021.wav|민주통합당

1/NB10710213.0022.wav|새정치민주연합

1/NB10710213.0023.wav|대부분 민주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이 공통점이 일합니다

1/NB10710213.0024.wav|87년부터 따지면 이번이 열한 번째 다

1/NB10710213.0025.wav|2000년부터 따지면 이번이 8번째다

1/NB10710213.0026.wav|언론도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 봐 야 제대로 확인이 가능하구요

1/NB10710213.0027.wav|송호석 의원들조차 간혹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

1/NB10710213.0028.wav|패스만 좀 적을 뿐이지 당면 세탁 반응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에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당에서 시작해서

1/NB10710213.0029.wav|신한국당의 조사 한나라당 그리고

1/NB10710213.0030.wav|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영업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물론

1/NB10710213.0031.wav|야당에 비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

1/NB10710213.0032.wav|백년을 훌쩍 넘는 당명을 가진 미국과 영국 보길도 가까운 대만과 일본에서 아래만 받아

1/NB10710213.0033.wav|우리 정당들의 이런 잦은 박명 변경은 좀 민망할 지경입니다

1/NB10710213.0034.wav|물론 이름은 당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수단입니다

1/NB10710213.0035.wav|이름을 바꾸는 것만큼 상징적인 변화도 없겟죠 근데 이름을 바꾸면

1/NB10710213.0036.wav|반은 달라질까

1/NB10710213.0037.wav|작년 3월에 당명을 바꾼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면 그동안의 새정치와 영화배우 정신을 잘 살려고 했던 걸까요

1/NB10710213.0038.wav|껍데기는 가라

1/NB10710213.0039.wav|신동엽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

1/NB10710213.0040.wav|북하면 간판만 바꾸는 기업을 소비자가 실리는 마문 하지만 뭐지

1/NB10710213.0041.wav|질소가 가득한 과자 포장보다는 알찬 내용물이 중요하듯이 박명 보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닐까요

1/NB10710213.0042.wav|21세기에 들어서서도

1/NB10710213.0043.wav|혁진 장렬히 아니라 박명만 작년에 했던 제일제당

1/NB10710213.0044.wav|이번에도 또 껍데기만 받고 있습니까

1/NB10710213.0045.wav|하물며 삼순이도 안 바꾼 이름을 말해

1/NB10710213.0046.wav|앵커

1/NB10712221.0000.wav|지성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브리핑입니다

1/NB10712221.0001.wav|100명이 사는 마을

1/NB10712221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이 주목한 말입니다

1/NB10712221.0003.wav|우리나라가 100명이 함께 사는 마을이라고 가정을 해 보자

1/NB10712221.0004.wav|이 중에 20살 해서 34 사이즈를 청년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을에 사는 청년은

1/NB10712221.0005.wav|100명 중에 20명

1/NB10712221.0006.wav|지금부터 2015년 오늘을 사는 우리마을 청년 20명의 삶을 들여다 볼까 합니다

1/NB10712221.0007.wav|먼저 호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못합니다

1/NB10712221.0008.wav|이 20명의 청년들은 평균 310 9만 원

1/NB10712221.0009.wav|학자금대출

1/NB10712221.0010.wav|382 만원에 저축은행 빚을 갚고 있습니다

1/NB10712221.0011.wav|또 이승우 명 중에 여덟 명은

1/NB10712221.0012.wav|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끼 이상

1/NB10712221.0013.wav|아니 점에서 끼니를 해결합니다

1/NB10712221.0014.wav|학교를 졸업한 뒤에 첫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1개월

1/NB10712221.0015.wav|학원이나 연수동 이른바 스펙을 쌓는데 들인 비용은

1/NB10712221.0016.wav|평균 4270 만 원입니다

1/NB10712221.0017.wav|또 취업이 걱정돼서 대학 졸업을 늦추기 위해서는 1학기 평균 61만 원에 비용을

1/NB10712221.0018.wav|대학에 내야 합니다

1/NB10712221.0019.wav|어렵게 직장에 들어간 이들의 사정은 어떨까요

1/NB10712221.0020.wav|이 스무 명 중에 열 명 이상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합니다

1/NB10712221.0021.wav|그래서 평균 근속 기간

1/NB10712221.0022.wav|19개월

1/NB10712221.0023.wav|1년 반 정도 미라

1/NB10712221.0024.wav|지학 기간이 끝났거나 임금이 낮은 탓에

1/NB10712221.0025.wav|다른 직장을 찾느라 일을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

1/NB10712221.0026.wav|지난해 신규 취업이 12년 만에 최대 치웠다고 하지 마

1/NB10712221.0027.wav|50대 이상 장년층이 대부분이었고

1/NB10712221.0028.wav|30대 신규 취업은 오히려 2만명 가량 줄어들었습니다

1/NB10712221.0029.wav|20대 취업이 없이 6만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아르바이트생과 인턴 등 비정규직 증가율이 정규직보다

1/NB10712221.0030.wav|세 배가 더 많았습니다

1/NB10712221.0031.wav|옆동네 일본말을 좀 보니까 30대 초반 남성 중에 비정규직의 결혼율이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더군요

1/NB10712221.0032.wav|젊은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우리 마을 역시

1/NB10712221.0033.wav|아기 울음 소리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

1/NB10712221.0034.wav|100명이 사는 마을

1/NB10712221.0035.wav|제목은 통화 같지만 현질은 통화가치 못합니다

1/NB10712221.0036.wav|100명 중에 20명

1/NB10712221.0037.wav|청년이 행복하지 못한 우리 마을

1/NB10712221.0038.wav|1시이는 지금의 청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

1/NB10712221.0039.wav|이력서 쓰기가 듣기 가든 이력 뒤로

1/NB10712221.0040.wav|그나마 S 팩은 스팸으로 사이즈

1/NB10712221.0041.wav|눈 굵은 불면의 밤을

1/NB10712221.0042.wav|무각본

1/NB10712221.0043.wav|버디

1/NB10712221.0044.wav|앵커

1/NB10714094.0000.wav|내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14094.0001.wav|소설가 성석제 시에 투명인간 중 한 구절로 시작을 하자

1/NB10714094.0002.wav|앞으로 나란히

1/NB10714094.0003.wav|신입생들의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렸다

1/NB10714094.0004.wav|이브를 슬쩍 지나서 바람에 흔들흔들

1/NB10714094.0005.wav|끊어질 듯 말 듯 여행을 계속하는 중

1/NB10714094.0006.wav|턱 아래 고드름처럼 매달렸다

1/NB10714094.0007.wav|잠실이 믿을 수 없게도 기다란 그 국물이 한꺼번에 빠르게

1/NB10714094.0008.wav|출발하는 자리로 되돌아갔다

1/NB10714094.0009.wav|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단어는 바로

1/NB10714094.0011.wav|국제 유가가 1년새 거의 반 토막이났습니다 두바이 육아 배럴당 50달러 아래까지 떨어져서 뉴스가 됐고요

1/NB10714094.0012.wav|하락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

1/NB10714094.0013.wav|당연히

1/NB10714094.0014.wav|우리나라 기름값도 내려갔죠

1/NB10714094.0015.wav|그러나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

1/NB10714094.0016.wav|내리긴 내렸는데

1/NB10714094.0017.wav|국제유가의 비하면 터무니없이 덜 내려가는 것 아니냐

1/NB10714094.0018.wav|불만 때문입니다

1/NB10714094.0019.wav|가격도 천차만별이며 다 어제 저희들이 보도한 것처럼 같은 서울 안에서도 리터당 1400원에 주유소가 있는 반면에

1/NB10714094.0020.wav|2000 300원에 가까운 주유소까지 있다고 하지요

1/NB10714094.0021.wav|지난 2011년 매일매일 기름값이 오르던 시절에는 부지런히 가격표를 받거든 주유소들이

1/NB10714094.0022.wav|정작 가격을 내릴 때는

1/NB10714094.0023.wav|이런저런 이유로

1/NB10714094.0024.wav|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

1/NB10714094.0025.wav|아 모른 정유사와 주유소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세금이 절반 이상이라서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

1/NB10714094.0026.wav|근데 오늘 KDI를 비롯한 5개 국책연구기관이 자료를 하나 내 갔는데요

1/NB10714094.0027.wav|유가 하락이 가격 인하로 이어져야

1/NB10714094.0028.wav|가계부 매력이 커진다 이런 내용입니다

1/NB10714094.0029.wav|만약 유가가 10% 내려 갈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 보지요

1/NB10714094.0030.wav|그 기업이 그 하락분을 전체 제품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

1/NB10714094.0031.wav|gob 구조 4,500

1/NB10714094.0032.wav|소비자는 그 앱에서 훨씬 적은 1조 1000억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 반면에

1/NB10714094.0033.wav|기업이 만유가 하락분을 모든 제품 가격에 다 반영하면

1/NB10714094.0034.wav|기업의 이근희 줘 7,500원 소비자는

1/NB10714094.0035.wav|5조 2천억원의 제대로 본다는 겁니다

1/NB10714094.0036.wav|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커진다는 거죠

1/NB10714094.0037.wav|이게 다시 섭이를 이어지는 선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

1/NB10714094.0038.wav|근데도 최근에는 6단은 반토막이 났는데 기업들이 주요 석유관련 제품 40개 중에 절반 이상의 가격을

1/NB10714094.0039.wav|오히려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있습니다

1/NB10714094.0040.wav|콧물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하나 같았습니다

1/NB10714094.0041.wav|콩물이 아래로 흐를 때는 서서히

1/NB10714094.0042.wav|그러나

1/NB10714094.0043.wav|훌쩍 들이마실 때는 순식간에

1/NB10714094.0044.wav|기름값도 물과도 마치 콧물 같단 생각을 해 봤습니다

1/NB10714094.0045.wav|내릴때는 천천히

1/NB10714094.0046.wav|그러나 올라갈 때는

1/NB10714094.0047.wav|순식간에

1/NB10714094.0048.wav|앵커브리핑

1/NB10716113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16113.0001.wav|요초

1/NB10716113.0002.wav|요망한 풀 저한테 있습니다

1/NB10716113.0003.wav|오늘 앵커브리핑 중국 한다는데요

1/NB10716113.0004.wav|사회가 시작된지 오늘로 한 주가 지났습니다

1/NB10716113.0005.wav|성공대 하셨는지요

1/NB10716113.0006.wav|올해는 열기가 달랐던 금연 결정자들 많이 계셨습니다

1/NB10716113.0007.wav|그러면 이번에는 반드시 끊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이들의 결기도

1/NB10716113.0008.wav|또 다람쥐가 도토리묵 한 두 갑씩 장애 뒀던 재고 담배

1/NB10716113.0009.wav|이제 슬슬 바닥 날씨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

1/NB10716113.0010.wav|오늘은 작심삼일 인내의 한계치를 도달한 분들을 위한 위로의 앵커브리핑입니다

1/NB10716113.0011.wav|1638년의 인조실록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래 피운 자가 백해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 해도 끊지 못하니

1/NB10716113.0012.wav|사람들이

1/NB10716113.0013.wav|요망한 풀요 초라 일컬었다

1/NB10716113.0014.wav|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이호초이 요망한 풀과의 전쟁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취업사이트 채용 나네

1/NB10716113.0015.wav|흡연자는 안 뽑는다 이런 항목이 논란이 됐다 그냥

1/NB10716113.0016.wav|식당 커피정 PC 방 모두 금연구역이 됐고 금연 거리도 더

1/NB10716113.0017.wav|길고 넓어졌습니다

1/NB10716113.0018.wav|그 옛날에 장발과 미니스커트단속 받으실 단속 방법 흡연자가 쫓고 쫓기는 웃지 못할 풍경까지 보입니다

1/NB10716113.0019.wav|그러나 더러워서 끊겠다 이렇게 했던 이른바 담배 세트 왕따들

1/NB10716113.0020.wav|불만은 많습니다

1/NB10716113.0021.wav|불법은 아닐진대 담배가 이렇게 죄악시 되는 사회 분위기

1/NB10716113.0022.wav|할 말이 있다는 것이겠죠

1/NB10716113.0023.wav|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입을 통해서 색다른 금연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

1/NB10716113.0024.wav|3주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

1/NB10716113.0025.wav|타인에게 화풀이 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실컷 먹기

1/NB10716113.0026.wav|아 이건 사흘 휴가도 눈치 보일 직장인들 입장에선 꿈도 못 긁으면 법이죠

1/NB10716113.0027.wav|예산 주간 이렇게 나쁜남자가 돼야 할 정도로 힘들고 고된 것이

1/NB10716113.0028.wav|금연이라는 의미일 겁니다

1/NB10716113.0029.wav|그리고 십자가 윌리엄 서로 야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

1/NB10716113.0030.wav|담배 자체보다는

1/NB10716113.0031.wav|담배 피우고 쉽게 만드는 상황이 암에 원인일지도 모른다

1/NB10716113.0032.wav|이런 말이었습니다

1/NB10716113.0033.wav|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너 사실 이게 좀 힘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아무튼 그럴 수만 있다면

1/NB10716113.0034.wav|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도 하나의

1/NB10716113.0035.wav|걸립니다

1/NB10716113.0036.wav|게다가 불과 열흘 전보다 2천 원이나 더 주고 사서 피우는데

1/NB10716113.0037.wav|왜 세상은 나에게 이런저런 눈치를 주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

1/NB10716113.0038.wav|그런분들에게

1/NB10716113.0039.wav|위로 경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립니다

1/NB10716113.0040.wav|앞서 인조실록에서 요망한 틀라고 칭했던 담배 이요 초는

1/NB10716113.0041.wav|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

1/NB10716113.0042.wav|국어사전에 있는 요소의 뜻은

1/NB10716113.0043.wav|2하고 아리따운 풀렸습니다

1/NB10716113.0044.wav|아 그래도 많이 제가 여러분이라면

1/NB10716113.0045.wav|이 담배

1/NB10716113.0046.wav|뺐습니다

1/NB10721331.0000.wav|4시 저녁은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 해골은 단어는

1/NB10721331.0001.wav|승입니다

1/NB10721331.0002.wav|연초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해충을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

1/NB10721331.0003.wav|승리 무엇인가 중심이다

1/NB10721331.0004.wav|여러분 중한 일이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영광이

1/NB10721331.0005.wav|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이심

1/NB10721331.0006.wav|다른 마음을 품어서는

1/NB10721331.0007.wav|안 된다

1/NB10721331.0008.wav|비서실장에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의 개까지 알림 춤은 무엇인가

1/NB10721331.0009.wav|승 말 그대로 가운데 중 관마 음식물 합판 단어

1/NB10721331.0010.wav|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듯합니다

1/NB10721331.0011.wav|오늘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충심

1/NB10721331.0012.wav|국가를 위한 일의 41 같지 않은 이들과

1/NB10721331.0013.wav|26 다른 마음을 품은 이들을 구별 했습니다

1/NB10721331.0014.wav|새 피서 거는 다 뒤져봤지만

1/NB10721331.0015.wav|길이가 없다

1/NB10721331.0016.wav|교체할 이유가 없다

1/NB10721331.0017.wav|도 비서실장은 사심 없는 분이다

1/NB10721331.0018.wav|당면 현안들 수술이 끝나고 나서 결정을 문제다

1/NB10721331.0019.wav|사신도 비리도 없는 이들과는 반대로 정윤 회식 비선실세 논란을 가져온 이른바 20 물품은 이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

1/NB10721331.0020.wav|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어부지리를 노리는 것에 말려든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 논란이 된다는 것은

1/NB10721331.0021.wav|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한 것이다

1/NB10721331.0022.wav|사사로운 욕심의 한 개인 일탈을 꾸짖고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비서실장의 총과도

1/NB10721331.0023.wav|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

1/NB10721331.0024.wav|실제로 그동안에 청와대가 말한 불충

1/NB10721331.0025.wav|한 개인의 일탈

1/NB10721331.0026.wav|물론 한 개인의 일탈은 야

1/NB10721331.0027.wav|아니면

1/NB10721331.0028.wav|조직의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선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

1/NB10721331.0029.wav|청와대 행정관의 일탈행위가 있었고

1/NB10721331.0030.wav|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하라는 비서실장에 치실 여기는

1/NB10721331.0031.wav|초유의 항명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

1/NB10721331.0032.wav|이쯤에서 모두가 말하는

1/NB10721331.0033.wav|승이라는 것이

1/NB10721331.0034.wav|민주사회에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를

1/NB10721331.0035.wav|생각해 봤습니다

1/NB10721331.0036.wav|사실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

1/NB10721331.0037.wav|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

1/NB10721331.0038.wav|민주사회 기본이겠죠

1/NB10721331.0039.wav|근데 자꾸 요즘 얘기 저는 충이 그렇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거 있는가

1/NB10721331.0040.wav|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권력을 맡겨준

1/NB10721331.0041.wav|위정자를 향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은 아닌가

1/NB10721331.0042.wav|하는 것이죠

1/NB10721331.0043.wav|물론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말하는 중에 그런 오해가 있으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

1/NB10721331.0044.wav|자꾸 이렇게 충이 강조되다 보면

1/NB10721331.0045.wav|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

1/NB10721331.0046.wav|되는 것이죠

1/NB10721331.0047.wav|작년에 1,700만 명의의 관객을 먹으면서 흥행했던 영화 명량 있습니다 그중에 이순신 장군은

1/NB10721331.0048.wav|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보실까요

1/NB10721331.0049.wav|장수 된 자유인

1/NB10721331.0050.wav|우리도 자려고

1/NB10721331.0052.wav|성훈이 형에게 한다

1/NB10721331.0053.wav|이미 400여 년 전에 나온 말이었습니다

1/NB10723080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

1/NB10723080.0001.wav|구세주

1/NB10723080.0002.wav|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남긴 말입니다 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말이기도 하고요

1/NB10723080.0003.wav|나는 살리다 나는 4mm가 아니라

1/NB10723080.0004.wav|지난 11일 오후에 빨리 시내는 거리로 나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슬림과 같은

1/NB10723080.0005.wav|유대인이 서로 어깨를 걸고 한 목소리로

1/NB10723080.0006.wav|테러를 규탄했다

1/NB10723080.0007.wav|서로 다른 종교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리로 나선 모습

1/NB10723080.0008.wav|좀 낯설기도 했습니다

1/NB10723080.0009.wav|어떻게 살리고 또 살리가 아닌 정 반대의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또 연대 할 수 있는 것인가

1/NB10723080.0010.wav|나는 무엇을 아는가 몽테뉴가 했다는이 말은

1/NB10723080.0011.wav|나만이 옳고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

1/NB10723080.0012.wav|프랑스의 정신을 대표하는 똘레랑스 관용의 기반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죠

1/NB10723080.0013.wav|이번 테러로 사망한 편집장 스테판 살아보니 애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

1/NB10723080.0014.wav|무슬림들이 우리 만평에 대해서 시위 하는 것을 국가가 왜 금지 하냐

1/NB10723080.0015.wav|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

1/NB10723080.0016.wav|그들도 그들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

1/NB10723080.0017.wav|그러나 테러범들은 자신의 신념을 비판이 아닌 총으로 표현했습니다

1/NB10723080.0018.wav|패널 총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펜이 총보다 할 일은 없을 텐데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

1/NB10723080.0019.wav|사상과 신념

1/NB10723080.0020.wav|페니

1/NB10723080.0021.wav|무력을 상징하는 총보다 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지향점이 때문일 겁니다

1/NB10723080.0022.wav|종교적 이념적 극단주의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총을 택할 때

1/NB10723080.0023.wav|결국 그들의 신념은 팬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

1/NB10723080.0024.wav|스스로 입증한 것이 아닐까요

1/NB10723080.0025.wav|그러나 이정 60곡 집도 넘어가야만 합니다

1/NB10723080.0026.wav|4륜 앱으로 왜 풍자는

1/NB10723080.0027.wav|권위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이 될 수는 있겠지만

1/NB10723080.0028.wav|프랑스 사회 8% 가장

1/NB10723080.0029.wav|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500만 무슬림에게 있어서는

1/NB10723080.0030.wav|마지막 자존심인 종교마저 조롱하는

1/NB10723080.0031.wav|기득권의 5만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

1/NB10723080.0032.wav|빈곤으로 이민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이유로 해서 세상을 향해 말할 권리마저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노가

1/NB10723080.0033.wav|테러 혹은 또 다른 무언가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

1/NB10723080.0034.wav|우리 사회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170만명을

1/NB10723080.0035.wav|넘어졌습니다

1/NB10723080.0036.wav|사회적 갈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

1/NB10723080.0037.wav|조선족

1/NB10723080.0038.wav|탈북자

1/NB10723080.0039.wav|혼혈아

1/NB10723080.0040.wav|외국인 노동자

1/NB10723080.0041.wav|이런 단어들이 가져오는

1/NB10723080.0042.wav|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 역시

1/NB10723080.0043.wav|감출 수 없는 단면입니다

1/NB10723080.0044.wav|증오는 약자의 분노

1/NB10723080.0045.wav|알퐁스 도데 말입니다

1/NB10723080.0046.wav|그리고 똘레랑스의 기본이 된 몽테뉴

1/NB10723080.0047.wav|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리스 해주는

1/NB10723080.0048.wav|약자에 대한 관용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자는

1/NB10723080.0049.wav|함께 살자

1/NB10723080.0050.wav|다른 말이기도

1/NB10724707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말은

1/NB10724707.0001.wav|타초경사

1/NB10724707.0002.wav|동양의 병법 서인 36개 중에 13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

1/NB10724707.0003.wav|풀을 두드려서 뱀을 놀라게하다 이런 뜻인데요

1/NB10724707.0004.wav|뱀이 놀랄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튀어나온 발매 도리어 사람이 놀랄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인 것도 같습니다

1/NB10724707.0005.wav|무릎이 살짝 감춰져 있는 사실이 더 궁금하기 마련이죠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

1/NB10724707.0006.wav|톱스타 a 군 y 양과 열애중

1/NB10724707.0007.wav|연애 기사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 아마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마치 암호처럼 등장하는 이니셜 퀴즈는

1/NB10724707.0008.wav|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온갖 추측을

1/NB10724707.0009.wav|블루밍

1/NB10724707.0010.wav|만약 사실로 밝혀지면

1/NB10724707.0011.wav|거 봐라

1/NB10724707.0012.wav|아 이렇게 되지만

1/NB10724707.0013.wav|거짓일 경우에도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

1/NB10724707.0014.wav|보망 장치가 되어 버리네

1/NB10724707.0015.wav|정가에서도 이니셜은 자주 쓰입니다 Yes DJ PNB

1/NB10724707.0016.wav|이렇게 약자 만들고 누군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소희 건물 그룹이 되고 싶은 정치인들은 일부러 영문 약칭으로 불러 달라 이렇게 슬쩍 요거도 한다고 하는군요

1/NB10724707.0017.wav|반대로 절대 이니셜로 불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

1/NB10724707.0018.wav|문건 파동의 배후는 KY

1/NB10724707.0019.wav|요 며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수첩 속 메모가 이렇게 화제가 됐습니다

1/NB10724707.0020.wav|회의는 근데 김무성 대표를 친 한다고 하고요 와인은 유승민의원 의미한다는 그런 직원도 나왔죠

1/NB10724707.0021.wav|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모두 청와대와 껄끄러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

1/NB10724707.0022.wav|기가 막히다

1/NB10724707.0023.wav|은혜랑 하는 것도 기가 막히고 일부러 공개했다고 오해받는 거 또 기가 막히다

1/NB10724707.0024.wav|김무성 대표의 말입니다

1/NB10724707.0025.wav|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을 정혜 문건 파동 배후로 지목했다는 말을 얼마 전에 들었고

1/NB10724707.0026.wav|그 기가 막힌 내용을 수첩에 적어 줬는데

1/NB10724707.0027.wav|국회에서 수첩을 우연히 넘기다가

1/NB10724707.0028.wav|기자에게 그 장면을 지키게 됐다 이런 얘기죠

1/NB10724707.0029.wav|자 타초경사

1/NB10724707.0030.wav|풀을 두드려 뱀을 놀라게 한다는이 전략은

1/NB10724707.0031.wav|여러가지 의미를

1/NB10724707.0032.wav|하고 있습니다

1/NB10724707.0033.wav|먼저

1/NB10724707.0034.wav|서초경찰 첫 번째 의미는

1/NB10724707.0035.wav|견적을 올려서 적의 정체를 드러나게 한다

1/NB10724707.0036.wav|입니다

1/NB10724707.0037.wav|이번 수첩 사건 역시 변죽을 울려서

1/NB10724707.0038.wav|위도 와든 의도하지 않았든

1/NB10724707.0039.wav|수첩 내용이 공개됨으로써

1/NB10724707.0040.wav|청와대 호원당 내 친박계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

1/NB10724707.0041.wav|그리고 다 최경회 두 번째 의미는

1/NB10724707.0042.wav|다른게 있는데요

1/NB10724707.0043.wav|볼까

1/NB10724707.0044.wav|공연이 문제를 일으켜 화를 자초 한다

1/NB10724707.0046.wav|수첩에 내용도 사실이 아니고

1/NB10724707.0047.wav|일부러 보라고 캡처 나왔던 것도 아니고

1/NB10724707.0048.wav|정말이지 모두가

1/NB10724707.0049.wav|뽑아 시 아무것도 아니라면

1/NB10724707.0050.wav|김 대표의 수첩

1/NB10724707.0051.wav|공연이 문제지

1/NB10724707.0052.wav|배만 깨우는 셈이 되는 거겠죠

1/NB10724707.0053.wav|과연 풀숲에 도사리고 있던 뱀이 놀란 것인지 아니면 뱀을 떼어내는 사람이 더 놀랄 것인지는

1/NB10724707.0054.wav|글쎄 조금 더 두고 볼 일이지만

1/NB10724707.0055.wav|분명한 것은 갑자기 튀어 나온 뱀의

1/NB10724707.0056.wav|국민도 놀랐다는 사실

1/NB10726564.0000.wav|메시지 뉴스를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브리핑입니다

1/NB10726564.0001.wav|영화 국제시장에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

1/NB10726564.0002.wav|표준근로계약서

1/NB10726564.0003.wav|영화계에선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지요 4대보험

1/NB10726564.0004.wav|초과근무수당 주 1회 휴식 보장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

1/NB10726564.0005.wav|모든 제작진에 작성한 첫 사례가 바로

1/NB10726564.0006.wav|국제시장이 없다고 하는군요

1/NB10726564.0007.wav|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

1/NB10726564.0008.wav|열정페이

1/NB10726564.0009.wav|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앵커브리핑은 바로이 말은

1/NB10726564.0010.wav|먹겠습니다

1/NB10726564.0011.wav|아 맞아 열정페이라는 말 이런 생각에서 나왔을 겁니다

1/NB10726564.0012.wav|일자리를 찾는 젊은 애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

1/NB10726564.0013.wav|이들에게 적당한 급여를 주면 감사 할 뿐이고 또 안 줘도 어쩔 수 없네

1/NB10726564.0014.wav|지금이 순간도 한 줄에 스펙이 또 밥벌이가 절실한 젊은이들 앞에 닥친 현실이 바로 열정페이

1/NB10726564.0015.wav|저임금 일회용 노동이 되는 겁니다

1/NB10726564.0016.wav|인턴 한 달에 10에서 30만원을 받으면서 장시간이 됐다

1/NB10726564.0017.wav|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제 디자이너 이상봉 씨가 공식 사과문을 냈다고 하지

1/NB10726564.0018.wav|그러나 어찌

1/NB10726564.0019.wav|이것이 패션업계 뿐이겠습니까

1/NB10726564.0020.wav|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인턴 채용 기간을 1년 혹은 인형으로 늘리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

1/NB10726564.0021.wav|열심히 잘 하면 채용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딱 2주 동안 영업을 시킨뒤

1/NB10726564.0022.wav|이들을 전원해고 했다가 무리를 믿자 번복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

1/NB10726564.0023.wav|작년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 7% 600

1/NB10726564.0024.wav|취업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1년 이하의 계약직 이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

1/NB10726564.0025.wav|인서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어찌보면 현실이 됐는데 그 현실에

1/NB10726564.0026.wav|불암리 추석이니까

1/NB10726564.0027.wav|숙명처럼 부당함을 감내하는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무급 놈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

1/NB10726564.0028.wav|일본에서는 최근에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

1/NB10726564.0029.wav|사투리는

1/NB10726564.0030.wav|깨달았다 득도 했다 이름 뜻인데요

1/NB10726564.0031.wav|좋은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요즘 일본의 젊은 애들 집 사토리 세대

1/NB10726564.0032.wav|앞으로 저 더 잘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대신에 차라리

1/NB10726564.0033.wav|미래에 대한 기대감을

1/NB10726564.0034.wav|버린다

1/NB10726564.0035.wav|아 그렇게 하면

1/NB10726564.0036.wav|자기네 소소한 행복이 남아 찾을 수 있다

1/NB10726564.0037.wav|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

1/NB10726564.0038.wav|자 이거는 희망을 포기한 슬픈 이야기 해야 되는 거죠

1/NB10726564.0039.wav|우리 사회 역시

1/NB10726564.0040.wav|젊은이들의 열정을 이용 해서 비용을 줄이고

1/NB10726564.0041.wav|궁극적으로는

1/NB10726564.0042.wav|더 이상의 기대를 버리게 하였다

1/NB10726564.0043.wav|젊은 나이에 득도를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

1/NB10731346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브리핑입니다

1/NB10731346.0001.wav|예술적인 과제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

1/NB10731346.0002.wav|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무상은 콜베르 가했던 말입니다

1/NB10731346.0003.wav|거위는 국민을 그리고 깃털은 세금을 뜻합니다

1/NB10731346.0004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다 너 바로 거울입니다

1/NB10731346.0005.wav|17세기 프랑스에서 나온이 거위털 이론이 2015년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

1/NB10731346.0006.wav|세금 인상은 거 위에 털을 뽑는 것과 같다

1/NB10731346.0007.wav|2년 전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던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

1/NB10731346.0008.wav|아프지 않게 털을 뽑겠다 이렇게 공원 했던 것이다

1/NB10731346.0009.wav|그렇다면 털뽑힌 거위들

1/NB10731346.0010.wav|과연 고통은 없을까요

1/NB10731346.0011.wav|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울상인 직장인이 많습니다

1/NB10731346.0012.wav|예상 환급일 끌 따져 보니까

1/NB10731346.0013.wav|대폭 줄거나

1/NB10731346.0014.wav|오히려

1/NB10731346.0015.wav|송 말로 토해 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

1/NB10731346.0016.wav|정보는 연봉 5,5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손해 안 본다

1/NB10731346.0017.wav|적극 해명해라 섰지만

1/NB10731346.0018.wav|의료비 나 교육비 공제 등의 달라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지적입니다

1/NB10731346.0019.wav|물론 세액공제는 저소득자 보다는 고소득자가 더 많이내는 걸로 개편되었습니다 복지 재정을 늘였으니까

1/NB10731346.0020.wav|세금을 더내는 것은

1/NB10731346.0021.wav|냉정히 보면

1/NB10731346.0022.wav|순이 수도 있겠죠

1/NB10731346.0023.wav|근데

1/NB10731346.0024.wav|왜

1/NB10731346.0025.wav|오천만의 거위 아니 국민들은 털을 뽑는데 악 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요

1/NB10731346.0026.wav|정부의 작년 세수입 현황입니다

1/NB10731346.0027.wav|소득세는 3조 2천억 원이 더 거친 반면에

1/NB10731346.0028.wav|기업이내는 법인세는 7천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

1/NB10731346.0029.wav|심지어 작년부터는 소득세가 법인세 보다 더 많이 거침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

1/NB10731346.0030.wav|도원 정보 노래 세입

1/NB10731346.0031.wav|예산에서 담배세 수입을 작년보다 이적 8천억원 늘린

1/NB10731346.0032.wav|9조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

1/NB10731346.0033.wav|기억하시는지요

1/NB10731346.0034.wav|세금 폭탄이란 말을 만들어 내면서 그토록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

1/NB10731346.0035.wav|올해 예상 애기 1조 3천억 원

1/NB10731346.0036.wav|그러니까 담배세 예상 애기

1/NB10731346.0037.wav|동부 3보다 7배가량 많은 것이죠

1/NB10731346.0038.wav|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예정이고

1/NB10731346.0039.wav|교통범칙금 맞아 역대 최대 급으로 늘어났습니다

1/NB10731346.0040.wav|증세 없는 복지를 시험한다는 대통령 공약 일찍 들어가 보니까

1/NB10731346.0041.wav|직접 증세는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우울증세를

1/NB10731346.0042.wav|구멍난 재정을 외우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

1/NB10731346.0043.wav|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의 백성들의 고난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

1/NB10731346.0044.wav|거북이 등에서 털을 뽑고

1/NB10731346.0045.wav|토끼 머리에서 뿔이 뽑는가

1/NB10731346.0046.wav|오늘 본의 아니게

1/NB10731346.0047.wav|동물들이 출연했는데

1/NB10731346.0048.wav|마무리 역시 동물 이야기로 갈음하겠습니다

1/NB10731346.0049.wav|가정맹어호라

1/NB10731346.0050.wav|가혹한 정치 저 여기서

1/NB10731346.0051.wav|정치는 세금을 말합니다

1/NB10731346.0052.wav|집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입니다

1/NB10731346.0053.wav|청춘시대 공자가 한 말이었어

1/NB10731346.0054.wav|앵커

1/NB10732947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입니다

1/NB10732947.0001.wav|머리 위에서 불을 때고

1/NB10732947.0002.wav|그 머리 위에서 또 부를 때

1/NB10732947.0003.wav|오줌 똥을 싸고

1/NB10732947.0004.wav|그 아래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고

1/NB10732947.0005.wav|또 자식을 낳고

1/NB10732947.0006.wav|소설가 조정래 씨의 작품 중에 한 구절입니다

1/NB10732947.0007.wav|어딜 말하는 걸까요

1/NB10732947.0008.wav|바로

1/NB10732947.0009.wav|아파트입니다

1/NB10732947.0010.wav|오늘 앵커브리핑이 주목한 단어

1/NB10732947.0011.wav|성입니다

1/NB10732947.0012.wav|우리 손으로 지은 최초의 아파트는 1958년에 지어진 5층짜리 종합

1/NB10732947.0013.wav|종암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익숙한 공간이지만

1/NB10732947.0014.wav|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이 아파트는 그냥 말로 난생 처음 보는 별천지 였죠

1/NB10732947.0015.wav|당시 신문 만평을 보고 계신데요

1/NB10732947.0016.wav|저렇게 높은데

1/NB10732947.0017.wav|무서워서 잠을 어떻게 자나요

1/NB10732947.0018.wav|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

1/NB10732947.0019.wav|연탄보일러와 실내로 들어온 화장실

1/NB10732947.0020.wav|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러나

1/NB10732947.0021.wav|더불어 살던 풍속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대로였습니다

1/NB10732947.0022.wav|당시 아파트는 복도에 이불 널고 함께 김치를 담그던 모두의 공간이 줘

1/NB10732947.0023.wav|나만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

1/NB10732947.0024.wav|아파트가 이른바 성처럼 돼 버린 것은

1/NB10732947.0025.wav|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부터입니다

1/NB10732947.0026.wav|5층짜리 아파트가 현기증이 나서 그런 시대는 몇 마리 됐고 이제 아파트는

1/NB10732947.0027.wav|높을수록

1/NB10732947.0028.wav|인기도 없습니다

1/NB10732947.0029.wav|당신의 이름이 됩니다

1/NB10732947.0030.wav|이런 광고 문구 알고 계시죠

1/NB10732947.0031.wav|초고층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자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

1/NB10732947.0032.wav|5시 생활의 이상향이 됐습니다

1/NB10732947.0033.wav|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 하니까

1/NB10732947.0034.wav|나갈 필요도 없고

1/NB10732947.0035.wav|다른 사람과 섞일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철옹성의 돼 버린 것이다

1/NB10732947.0036.wav|며칠 전에 안동에 한 초등학교

1/NB10732947.0037.wav|예비 소집일에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

1/NB10732947.0038.wav|탄 이상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학생들이 분류했는데

1/NB10732947.0039.wav|소득 수준에 따라서 줄세우기 하지 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

1/NB10732947.0040.wav|유동이 고시문제 있었던 이유는

1/NB10732947.0041.wav|자그마한 지역에 얼마 전에 값비싼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이었어

1/NB10732947.0042.wav|세상이 아파트 이름과 평수로 등급을 나누고

1/NB10732947.0043.wav|또 비싼 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마주하고 있는 경우에는

1/NB10732947.0044.wav|출입구 마저 구경한다고 하지요

1/NB10732947.0045.wav|아파트가 아파트를 찾으라고 주민이 경비원을 차별하는

1/NB10732947.0046.wav|초고층에 현기증 나는 성을 쌓은 셈이다

1/NB10732947.0047.wav|거인의 성한 정원에는 꽃이 피지 않았다

1/NB10732947.0048.wav|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작품 중

1/NB10732947.0049.wav|한 구절이

1/NB10732947.0050.wav|앵커

1/NB10734573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시작은 역시 팀입니다

1/NB10734573.0001.wav|고자질

1/NB10734573.0002.wav|어떤 느낌이 드십니까

1/NB10734573.0003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단어입니다

1/NB10734573.0004.wav|고자질 하지 말아라

1/NB10734573.0005.wav|어렸을 친구나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지요

1/NB10734573.0006.wav|고자질의 사전적 의미 없이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

1/NB10734573.0007.wav|자 그렇다면

1/NB10734573.0008.wav|오바

1/NB10734573.0009.wav|이런 단어는 어떻습니까

1/NB10734573.0010.wav|고발 역시 남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긴 한데

1/NB10734573.0011.wav|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이죠

1/NB10734573.0012.wav|고발하는 공익을 위한다는 긍정의 의미도 들어있는 반면에

1/NB10734573.0013.wav|고자질하는

1/NB10734573.0014.wav|부정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

1/NB10734573.0015.wav|어떤 이유로든 고자질을 한 사람은 치사가 의미가 없다

1/NB10734573.0016.wav|배신자 다 이렇게 욕을 먹기가 십상입니다

1/NB10734573.0017.wav|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

1/NB10734573.0018.wav|초미의 관심사

1/NB10734573.0019.wav|어제는 우는 아이 입에 휴지를 잔뜩 물린 어린이집 원장이 긴급체포됐다

1/NB10734573.0020.wav|CCTV 설치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또 다른 생성도 불거졌습니다

1/NB10734573.0021.wav|가치는 선생 모두가 책임이다 감시 의무감을 갖고

1/NB10734573.0022.wav|동료 교사가 막아서 했다

1/NB10734573.0023.wav|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

1/NB10734573.0024.wav|쉬운 일일까요

1/NB10734573.0025.wav|아이가 맞을 동안의 공격에서는 뭘 했느냐는 지적인데

1/NB10734573.0026.wav|실제로 주목할만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동료교사 등 관계자가 신고했을 경우에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가능성이

1/NB10734573.0027.wav|부모 가시는 거 있을 때보다 4배가량 높습니다

1/NB10734573.0028.wav|곁에서 지켜본 교사의 신고내역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나

1/NB10734573.0029.wav|보육교사 등 관련자의 신고 비율은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되질 않습니다

1/NB10734573.0030.wav|웰가

1/NB10734573.0031.wav|자장면 대구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한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유해온 4시 알려졌습니다

1/NB10734573.0032.wav|이름

1/NB10734573.0033.wav|블랙드레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누가 고발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

1/NB10734573.0034.wav|정당한 고발을 고자 진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그리고 보육현장에서 어린아이와 학부모의 권익보호

1/NB10734573.0035.wav|원장의 사이 추가 우선시 되는 순간

1/NB10734573.0036.wav|어린아이를 돌보고 길러내야 하는 보육현장을

1/NB10734573.0037.wav|CCTV 의존해서

1/NB10734573.0038.wav|감시와 통제를 해야하는 우범지대로 연락할지도 모르겠어

1/NB10734573.0039.wav|나는 제국을 건설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어린이를 교육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

1/NB10734573.0040.wav|1960년대 미국 대통령 이름은 린든 비 존슨의 말입니다

1/NB10734573.0041.wav|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어린이가

1/NB10734573.0042.wav|미래의 제국 이거 영토였던 것이겠지

1/NB10734573.0043.wav|전화 우리에게는 조은성 보다도 30여년이 앞서서 이런 말을 남긴 분도 계십니다

1/NB10734573.0044.wav|어른이 어린이를 내리 누르지 말자

1/NB10734573.0045.wav|맑은 사람은 사람을 위하고 더 바쳐서

1/NB10734573.0046.wav|밝은 데로 나갈 수 있고

1/NB10734573.0047.wav|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

1/NB10734573.0048.wav|1930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남긴

1/NB10734573.0049.wav|마리아

1/NB10734573.0050.wav|이 말 신비 앞에서

1/NB10734573.0051.wav|고자질 너 고발을 얘기하는 거 좋지

1/NB10734573.0052.wav|부끄럽습니다

1/NB10734573.0053.wav|앵커

1/NB10736202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36202.0001.wav|늑대소년 오늘

1/NB10736202.0002.wav|앵커 브리핑 주목한다 너는 늑대소년

1/NB10736202.0003.wav|정글북이란 작품을 기억하시겠죠 영국인 키플링의 소설이 원작인데 여러 차례

1/NB10736202.0004.wav|만화 돈은 영화로 제작되어서

1/NB10736202.0005.wav|많은 사람들한테 친숙한 작품이 되었습니다

1/NB10736202.0006.wav|주인공은 정글에서 길을 잃은 아이 늑대 소년 모글리입니다

1/NB10736202.0007.wav|늑대들 사이에서 자란 아이는 동물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

1/NB10736202.0008.wav|외로움을 느낍니다

1/NB10736202.0010.wav|인간 여자아이를 만나서 다시 사람사는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지요

1/NB10736202.0011.wav|인간이 소년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

1/NB10736202.0012.wav|늑대소년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

1/NB10736202.0013.wav|이 나라와 가족을 떠나고 싶다 단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

1/NB10736202.0014.wav|이런 글을 남긴 채 사라진 김모군 때문입니다

1/NB10736202.0015.wav|은둔형 청소년으로 살아 왔던 김군은

1/NB10736202.0016.wav|부모와도 대면 하지 않고 쪽지 대화를 나눠 왔다고 하지

1/NB10736202.0017.wav|세상과 벽을 쌓아 왔던 소년의 손을 잡아 준 것은

1/NB10736202.0018.wav|누구도 아닌

1/NB10736202.0019.wav|테러 집단

1/NB10736202.0020.wav|isms

1/NB10736202.0021.wav|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

1/NB10736202.0022.wav|글쎄요 우리도 자칫

1/NB10736202.0023.wav|자생적 테러리스트를 만드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

1/NB10736202.0024.wav|걱정

1/NB10736202.0025.wav|앞선 담 분들이 많이

1/NB10736202.0026.wav|2억 달러 몸값을 내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차려야겠다

1/NB10736202.0027.wav|바로 옆 일본은 is 7시간 협상 시간이 내일 오후에 불과 몇 시간 뒤로 임박하면서

1/NB10736202.0028.wav|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음

1/NB10736202.0029.wav|9명 가장이 iss 활동 중이라고 알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

1/NB10736202.0030.wav|작년 10월에 홋카이도대 휴학생이 시리아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

1/NB10736202.0031.wav|정현아 뭐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일본에 있어 봐야 몇 년 안에 자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

1/NB10736202.0032.wav|일본의 전문가들은 현실에서 일자리를 잃은 선진국 젊은이들이

1/NB10736202.0033.wav|is를 좋은 도피처로 착각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

1/NB10736202.0034.wav|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세상이 싫다

1/NB10736202.0035.wav|IS가

1/NB10736202.0036.wav|is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 이런 문의가

1/NB10736202.0037.wav|SNS 상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

1/NB10736202.0038.wav|최근에 재미동포 신은미 씨 등이 진행한 토크 콘서트 장에 사제폭탄을 번졌던 고등학생 또한

1/NB10736202.0039.wav|드디어 인생의 목표 발견했다 이런 게시글을 올리면서

1/NB10736202.0040.wav|테러를 예고한 바가 있어서

1/NB10736202.0041.wav|불행한 청소년들은 사회와 차단된 채 테러단체의 접속에서 자존감을 얻고 있는 걸까요

1/NB10736202.0042.wav|암담한 현실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들이

1/NB10736202.0043.wav|일상의 탈출구

1/NB10736202.0044.wav|게임 같은 테러

1/NB10736202.0045.wav|이런 단어로 유혹하는

1/NB10736202.0046.wav|과격단체 버섯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

1/NB10736202.0047.wav|점점

1/NB10736202.0048.wav|확대되고 있는 것이죠

1/NB10736202.0049.wav|프랑스 에릭 배송 감독은

1/NB10736202.0050.wav|최근에 절망하는 무슬림 젊은이들을 향해서 공개 편지를 보냈어

1/NB10736202.0051.wav|내용은 이렇습니다

1/NB10736202.0052.wav|칼리니코프 소총은 260 250

1/NB10736202.0053.wav|해는 3유로도 안 된다

1/NB10736202.0054.wav|그리고 총보다

1/NB10736202.0055.wav|큰 배 더 큰 효과를 낸다

1/NB10740816.0000.wav|메시 승자 여러분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40816.0001.wav|부끄러움

1/NB10740816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오른 말입니다

1/NB10740816.0003.wav|새 해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가슴 쓸어 내리게 하는 사건들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안산인질극 있었고요

1/NB10740816.0004.wav|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어지고 있어

1/NB10740816.0005.wav|또 이윤석의 수면제를 먹이고 불을 질러 살해한 양양 방화범이 잡혔습니다

1/NB10740816.0006.wav|어지러운 이런 사건들이 마주 하다가

1/NB10740816.0007.wav|며칠 전에 읽었던 칼럼을

1/NB10740816.0008.wav|다시 한번 꺼내 봤습니다

1/NB10740816.0009.wav|글을 쓰는 사람은 중앙일보 권석천 사회 부장입니다

1/NB10740816.0010.wav|중앙일보칼럼이어서 고른게 아닙니다

1/NB10740816.0011.wav|저의 판단 얘기는 합니다만

1/NB10740816.0012.wav|근래 들어서 이런 칼럼 중에 가장 공감이 갔습니다

1/NB10740816.0013.wav|이를테면 오늘 앵커브리핑을 권석천 부장과 합작품 정도라고나 할까

1/NB10740816.0014.wav|사회 부장으로서 그가 접하는 사건에는 무언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

1/NB10740816.0015.wav|나도 피해자다 경찰이 나를 흥분시켰다

1/NB10740816.0016.wav|안산 인질범의 말입니다

1/NB10740816.0017.wav|아이들이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

1/NB10740816.0018.wav|폭행 어린이집 교사의 말이지

1/NB10740816.0019.wav|그리고 비 때문에 이웃을 죽인 양양 방화범은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 내 아들에게 욕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야

1/NB10740816.0020.wav|같이 뭔가 억울하다 한 변했다는 것인데

1/NB10740816.0021.wav|요즘처럼 범인들의 뒤틀린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내 놓은 적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

1/NB10740816.0022.wav|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

1/NB10740816.0023.wav|이 칼럼의 진단은

1/NB10740816.0024.wav|부끄러움이 사라진 사회에서라는 것입니다

1/NB10740816.0025.wav|항공기 회장 사건으로 구속된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실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

1/NB10740816.0026.wav|자기소개서는 내가 아닌 나를 거리낌없이 저건 할 줄 알아야이기는 게임이다

1/NB10740816.0027.wav|결국 자녀의 성공을 원하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능력이 아니냐

1/NB10740816.0028.wav|칼럼은 권력의 중심부에도 피해 가지 않습니다

1/NB10740816.0029.wav|나 뜨거운 권력투쟁이 벌어졌는데도

1/NB10740816.0030.wav|계속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공적 자산이 소모되고 말하는데도

1/NB10740816.0031.wav|책임 지은이 하나 없는 청와대까지

1/NB10740816.0032.wav|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 먹이사슬 위쪽에서 수 있다는 인식이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

1/NB10740816.0033.wav|만연에 있다는 겁니다

1/NB10740816.0034.wav|그리고 마침내 컬러는

1/NB10740816.0035.wav|눈앞에 이런 일들이

1/NB10740816.0036.wav|지랄하네 세월호 문제를 넘어 사진 못한 업보라고 말해

1/NB10740816.0037.wav|국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을 자각하고 반성하고

1/NB10740816.0038.wav|개혁할 기회를 놓쳐 버렸고

1/NB10740816.0039.wav|바닷속에 갇혔던 아이들을 사고 희생자라는 틀에 가도 돼

1/NB10740816.0040.wav|세월호

1/NB10740816.0041.wav|사회 갈등의 먹잇감으로 던져 버렸다는 것이다

1/NB10740816.0042.wav|부끄러움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세상을 보면서 세월호가 다시 겹쳐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

1/NB10740816.0043.wav|우리 산에 민낯을 들어왔던 세월호는

1/NB10740816.0044.wav|어른들 다툼에 휘말려서 어느새

1/NB10740816.0045.wav|부끄러워야 할 문제가 아닌

1/NB10740816.0046.wav|사회 갈등의 한 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

1/NB10740816.0047.wav|짜증나 주말에 세월호인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가 시작되었죠

1/NB10740816.0048.wav|세월호가 다시 바다 위로 떠오르는 순간

1/NB10740816.0049.wav|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되면 해야 할 것입니다

1/NB10740816.0050.wav|그때 또 다시 기회를 놓치는 우를

1/NB10740816.0051.wav|우리는 또 한 번 엄하게 될까요

1/NB10740816.0052.wav|컬러 맨 마지막 부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

1/NB10740816.0053.wav|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시를 쓸 수 있느냐는 철학자의 물음은

1/NB10740816.0054.wav|세월호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

1/NB10740816.0055.wav|유효하다

1/NB10740816.0056.wav|살아남은 자들은 하루하루 비관론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

1/NB10740816.0057.wav|세월호를 다시 대면하고

1/NB10740816.0058.wav|극복하지 못하는 한

1/NB10740816.0059.wav|우리는 어쩔 수 없이이 언저리를

1/NB10740816.0060.wav|맴돌 뿐이라고

1/NB10740816.0061.wav|나는 믿는다

1/NB10740816.0062.wav|앵커

1/NB10742819.0000.wav|jtbc 뉴스룸 알겠습니다 시작은 앵커브리핑입니다

1/NB10742819.0001.wav|십자가

1/NB10742819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부른답니다

1/NB10742819.0003.wav|요 며칠 장관 두 사람의 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

1/NB10742819.0004.wav|먼저 첫 번째 인물은

1/NB10742819.0005.wav|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

1/NB10742819.0006.wav|주민세는 모든 주민이내는 회비 다

1/NB10742819.0007.wav|서민 증세라고 할 수 없다

1/NB10742819.0008.wav|이런 말을 했습니다

1/NB10742819.0009.wav|장관 의지는 매우 결혼했습니까

1/NB10742819.0010.wav|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

1/NB10742819.0011.wav|이렇게 말했습니다

1/NB10742819.0012.wav|그러니까 그동안 표가 무서워서 지방세 인상은 말도 못 보냄

1/NB10742819.0013.wav|지방자치단체장 그 대신에

1/NB10742819.0014.wav|자신들이

1/NB10742819.0015.wav|자신이 십자가를 맺겠다는 것이죠

1/NB10742819.0016.wav|십자가를지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겠다는 장관의 발언에 여론은 부글부글 끊었습니다

1/NB10742819.0017.wav|지난 5년 동안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이 25% 만들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려

1/NB10742819.0018.wav|한사코 증세는 아니다 이렇게 고개를 젓는 정부를 보면서

1/NB10742819.0019.wav|지금 새 없는 복지가 아니라

1/NB10742819.0020.wav|증세

1/NB10742819.0021.wav|없는 복지 이런 비아냥 맞아 나왔습니다

1/NB10742819.0022.wav|증상은 있고

1/NB10742819.0023.wav|국전 점점 더 없어져 간다 이런 기판력 이와중에

1/NB10742819.0024.wav|장관이 눈치 없이 부채질 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 겁니다

1/NB10742819.0025.wav|결국 정상 가는 하루 만에

1/NB10742819.0026.wav|입장을 바꿨습니다

1/NB10742819.0027.wav|그러니까 이게 답은 십자가를 하루만에 내던진 것이다

1/NB10742819.0028.wav|또 다른 십자가를지는 사람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 보육시설 관리부실 회사에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

1/NB10742819.0029.wav|주무부처 장관이었습니다

1/NB10742819.0030.wav|그러나

1/NB10742819.0031.wav|문 장관 역시

1/NB10742819.0032.wav|사과 대신 어찌보면 십자가를 자청한 섬이 되었습니다

1/NB10742819.0033.wav|전업주부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비용을 줄이겠다

1/NB10742819.0034.wav|전업 주부 들까지 종일반의 아이를 맡기는 통해 예산도 부족하고 어린이집도 모자라니까

1/NB10742819.0035.wav|시간제보육을 활성화 하겠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

1/NB10742819.0036.wav|이번에는 부모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

1/NB10742819.0037.wav|전업주부는 어린이집도 눈치 봐야 하나

1/NB10742819.0038.wav|전업주부 직장맘 편가르기 하지 마라

1/NB10742819.0039.wav|또 취업 준비 중인데 아이는 어디다 맡겨 놔

1/NB10742819.0040.wav|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를 많이 나 오라고 하는 정부가

1/NB10742819.0041.wav|곤지름 놔둔채

1/NB10742819.0042.wav|고육 문제를 전업주부 탓으로 돌렸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갑니다

1/NB10742819.0043.wav|모든 사람은 스스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힌

1/NB10742819.0044.wav|미국 작가 휘태커 챔버스의 말이야

1/NB10742819.0045.wav|오늘의 키워드 십자가

1/NB10742819.0046.wav|아무나 칠 수도 없고

1/NB10742819.0047.wav|함부로 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

1/NB10742819.0048.wav|앵커브리핑

1/NB10744562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앵커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44562.0001.wav|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마라

1/NB10744562.0002.wav|아프고 괴롭겠지만

1/NB10744562.0003.wav|가서 대통령 보다도 국회의원 보다

1/NB10744562.0004.wav|그리고

1/NB10744562.0005.wav|Google 말하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보다도

1/NB10744562.0006.wav|더 진짜

1/NB10744562.0007.wav|병장이 됨

1/NB10744562.0008.wav|소설가 김훈식 아 지난 2002년 언론 의견 그림

1/NB10744562.0009.wav|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마라

1/NB10744562.0010.wav|한 구절을 읽어 줬습니다

1/NB10744562.0011.wav|오늘 앵커브리핑 오른 단어 바로 평발이 뭐야

1/NB10744562.0012.wav|작가에게도 아들의 군입대는 피할 수 없는 고민거리 하나 봅니다

1/NB10744562.0013.wav|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아도 나들이 평발을 내밀면서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느냐고 묻자

1/NB10744562.0014.wav|머뭇거리던 아버지는

1/NB10744562.0015.wav|대답 대신 이렇게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딴 것입니다

1/NB10744562.0016.wav|그런 권력자의 아들들이 각종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

1/NB10744562.0017.wav|끝까지 그 문제를 자신에게 묻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합니다

1/NB10744562.0018.wav|그리고 참담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

1/NB10744562.0019.wav|이 나라의 무수한 힘없는 아버지들의 참가

1/NB10744562.0020.wav|박가 김훈은 이렇게 말합니다

1/NB10744562.0021.wav|어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군대라는 것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

1/NB10744562.0022.wav|국민의 의무 의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744562.0023.wav|당장 군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소식은

1/NB10744562.0024.wav|보내자 11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좁아 신체 만듭니다

1/NB10744562.0025.wav|글램 안 해도 해야 내과에서 고추를 사다가 신청을 해서 결국 차가운 바닷속에 시신으로 발견된

1/NB10744562.0026.wav|육군 일병 이석봉

1/NB10744562.0027.wav|코 훈련도 중에 머리를 맞은 해병대 일병에 죽음이 전해졌습니다

1/NB10744562.0028.wav|영혼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성추행 사건이 알려줬고

1/NB10744562.0029.wav|무엇보다도 작년에는

1/NB10744562.0030.wav|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혹한 사건들이

1/NB10744562.0031.wav|군대에서 연이어 벌어졌습니다

1/NB10744562.0032.wav|모든 증빙자료를

1/NB10744562.0033.wav|다 공개하겠다

1/NB10744562.0034.wav|신임 총리 후보 자는 사람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

1/NB10744562.0035.wav|설명하겠다고 말합니다

1/NB10744562.0036.wav|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

1/NB10744562.0037.wav|다만 국민에 의한 것은

1/NB10744562.0038.wav|분필이 공직 검증의 훈장 혹은 자랑이 들만큼

1/NB10744562.0039.wav|정치인과 그 가족의 군면제가 너무나 흔하다는 겁니다

1/NB10744562.0040.wav|현정부 장관의 현역 복무 비율이 2명중 1명꼴인 50%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

1/NB10744562.0041.wav|그 자녀들 또한 각종 군색한 이유로

1/NB10744562.0042.wav|병역 면제가 너무나도

1/NB10744562.0043.wav|자주 발견됩니다

1/NB10744562.0044.wav|현역판정비율 91% 이른바 국민개병 시대의 힘도 권력도 없는이 부모의 절망과 무기력함을

1/NB10744562.0045.wav|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

1/NB10744562.0046.wav|남의 귀한 아들을 총알받이로 전설의 보내고 내 아들만 안 보낼 수 있는가

1/NB10744562.0047.wav|1960년대 국회의원을 지난고 장준하 선생이 한 말입니다

1/NB10744562.0048.wav|선생은

1/NB10744562.0049.wav|베트남전 파병을 적극 반대했지만

1/NB10744562.0050.wav|정부가 파병을 결정하자 당시 국회의원 중에

1/NB10744562.0051.wav|유일하게

1/NB10744562.0052.wav|자신의 맛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

1/NB10744562.0053.wav|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작가 김훈 평발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

1/NB10744562.0054.wav|그 역시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

1/NB10746350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46350.0001.wav|파이프

1/NB10746350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고른 단어입니다

1/NB10746350.0003.wav|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이미지의 배반을 지금

1/NB10746350.0004.wav|보겠습니다

1/NB10746350.0005.wav|파이프를 그리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

1/NB10746350.0006.wav|이유는 무엇일까요

1/NB10746350.0007.wav|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의 내용이 미리 공개 되었습니다

1/NB10746350.0008.wav|800 페이지에 가까운 불양의 회고록은 2달 뒤부터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지요

1/NB10746350.0009.wav|태국 대통령 취임 23개월 만에

1/NB10746350.0010.wav|마치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회고록

1/NB10746350.0011.wav|대중 앞에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

1/NB10746350.0012.wav|4대강 자원외교

1/NB10746350.0013.wav|청계천 심지어 국보 1호 숭례문 사건까지 초스피드로 밀어붙이는 불도저 대통령

1/NB10746350.0014.wav|그 때문에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

1/NB10746350.0015.wav|최고로까지 초스피드로 내놓은 셈입니다

1/NB10746350.0016.wav|그러나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 실제 파이프가 아니다

1/NB10746350.0017.wav|결론부터 말하자면

1/NB10746350.0018.wav|이것은

1/NB10746350.0019.wav|회고록이지만

1/NB10746350.0020.wav|회복이 아니라

1/NB10746350.0021.wav|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

1/NB10746350.0022.wav|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에 회고록 my life 출근했을 때

1/NB10746350.0023.wav|뉴욕타임즈는

1/NB10746350.0024.wav|서평단에 이런 평을 내놨습니다

1/NB10746350.0025.wav|독자가 아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어여삐 도와줄 먼 훗날 역사기록 자를 위해 주절대는

1/NB10746350.0026.wav|한남자의 소리일 뿐이다

1/NB10746350.0027.wav|최고로 운전직 대통령이라면 대부분 써왔습니다

1/NB10746350.0028.wav|한국의 전직 대통령도 한 10명 중에 여섯 명이 회고록을 출발했죠

1/NB10746350.0029.wav|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변명과 자기 미화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

1/NB10746350.0030.wav|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 회고록 제 2차 세계 대전은 1948년부터 장장 6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

1/NB10746350.0031.wav|본인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각종 문서 또 사설을 접목시켜서 소수란

1/NB10746350.0032.wav|이 회고록

1/NB10746350.0033.wav|노벨문학상을 받았을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

1/NB10746350.0034.wav|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회고록 중에 고전 트럼 일으키는 회고록이 있었던가

1/NB10746350.0035.wav|진정한 회고록은 무엇인가

1/NB10746350.0036.wav|우리 애기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역사에 사회적 가치를 양심적으로 부여하는 회고록은

1/NB10746350.0037.wav|존재할 수 없는가

1/NB10746350.0038.wav|이명박 전 대통령의

1/NB10746350.0039.wav|지금 나오는 그 회고록은 자기 방어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

1/NB10746350.0040.wav|4대강과 자원외교

1/NB10746350.0041.wav|전임 정부의 이른바 취득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빗발쳤으나 결국

1/NB10746350.0042.wav|국회 자원외교 특기가 가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순간에 책이 나왔다면 그것은

1/NB10746350.0043.wav|운전하는 회고록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겠죠

1/NB10746350.0044.wav|자서전은 수치스러운 점을 밝힐 때 많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

1/NB10746350.0045.wav|스스로

1/NB10746350.0046.wav|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거짓말을 하고 있다

1/NB10746350.0047.wav|동물 농장의 작가 조지 오래 말입니다

1/NB10746350.0048.wav|진솔한 회고록을 낼 수 없는

1/NB10746350.0049.wav|어쩌면 내서도 안 되는

1/NB10746350.0050.wav|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선언 르네 마그리트는 이미지 허상에 속지 말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

1/NB10746350.0051.wav|에코프로

1/NB10752960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52960.0001.wav|불

1/NB10752960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이 고른 단어입니다

1/NB10752960.0003.wav|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여당 내부에서는

1/NB10752960.0004.wav|계파 갈등이 치열했습니다

1/NB10752960.0005.wav|친박

1/NB10752960.0007.wav|심정 짧아 등등

1/NB10752960.0008.wav|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으로 나뉘는 집권 여당 내부의 계파갈등

1/NB10752960.0009.wav|당내 경선이 나 묵직하니 술도

1/NB10752960.0010.wav|매우 치열하게 전개될

1/NB10752960.0011.wav|때로는 혁신 경쟁도 이슈 경쟁으로 번져서 대중에게 방에 변화와 역동성을 선보이기도 하지요

1/NB10752960.0012.wav|그리고 과외가 불가능할 것처럼 서로 으르렁대던 이들은 공동의 목표가 외부를 향할 때

1/NB10752960.0013.wav|180도 달라집니다

1/NB10752960.0014.wav|바닷가 닭 나누어져 있던 줄들이 한 줄로 모여서

1/NB10752960.0015.wav|굵은 동아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

1/NB10752960.0016.wav|우리가 남이가

1/NB10752960.0017.wav|김기춘 비서실장의 과거에 했더니 유명한 말은

1/NB10752960.0018.wav|당내 계파 갈등을 하나로 묶어 내는데도 유효 합니다

1/NB10752960.0019.wav|이른바 소장파라고 해서 당내 주류에 반기를 드는 세력도 있지만 이들 역시

1/NB10752960.0020.wav|결정적일 때는 주류에 협력 했습니다

1/NB10752960.0021.wav|여당의 반응 결과적으로는 순기능을 해 왔고 그래서 여당은

1/NB10752960.0022.wav|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적화된 정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

1/NB10752960.0023.wav|야당 역시 친노 아비노

1/NB10752960.0024.wav|이렇게 팔아 존재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화 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야당에게 보는

1/NB10752960.0025.wav|역사적으로도 좀 복잡합니다 많은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둘로 나누곤 합니다

1/NB10752960.0026.wav|그러나 이들의 싸움은

1/NB10752960.0027.wav|허리 좀 다르다는 평입니다

1/NB10752960.0028.wav|여당에게 팔을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이라고 부르는 호칭 자체가 직권 연장에 프레임이라고 본다면

1/NB10752960.0029.wav|저도 지금 보기에 야당의 추가는 미래 권력을

1/NB10752960.0030.wav|단군

1/NB10752960.0031.wav|강내 권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

1/NB10752960.0032.wav|시 하기가 어렵습니다

1/NB10752960.0033.wav|과거의 권력과

1/NB10752960.0034.wav|불투명한 미래 권력

1/NB10752960.0035.wav|그래서 이들에게 파 싸우면

1/NB10752960.0036.wav|자기 파괴적이고 내 상도 깊습니다

1/NB10752960.0037.wav|가닥가닥 나누어진 줄은

1/NB10752960.0038.wav|합 찾아서 동아줄이 되는게 아니라 마치

1/NB10752960.0039.wav|연 싸움을 하듯이

1/NB10752960.0040.wav|불과 줄이 서로를 끊어냅니다

1/NB10752960.0041.wav|우리가남이가 아니야

1/NB10752960.0042.wav|우리는 남이다

1/NB10752960.0043.wav|선거에서 패배하기에 최적화된 성당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겠죠

1/NB10752960.0044.wav|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표 경선 후보 토론은 이러한 점을 매우 극명하게 내 보여준 토론였습니다

1/NB10752960.0045.wav|오늘은 블랙데이로 기억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유승민을 선택해서 놀라운 갱생 능력을 보여준 반면에

1/NB10752960.0046.wav|새 정치는 보잘 것 없는 민낯을 드러냈다

1/NB10752960.0047.wav|이렇게 심지어 당내에서 맞아

1/NB10752960.0048.wav|비판이 나왔을 정도 있습니다

1/NB10752960.0049.wav|야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은 힘 있고 합리적인 야당을 원합니다

1/NB10752960.0050.wav|건강한 대한 세력이 있어요

1/NB10752960.0051.wav|정치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

1/NB10752960.0052.wav|그러나 대한이는

1/NB10752960.0053.wav|신비는 야당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제일 야당을

1/NB10752960.0054.wav|바꾸고 개혁되어야 할 것이

1/NB10752960.0055.wav|너무나도 많습니다

1/NB10752960.0056.wav|야당

1/NB10752960.0057.wav|할 말 있으니까

1/NB10752960.0058.wav|어제 뉴스룸 있으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 후보자토론회

1/NB10752960.0059.wav|제목이었습니다

1/NB10754657.0000.wav|배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

1/NB10754657.0001.wav|카

1/NB10754657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주목한다 너는 합니다

1/NB10754657.0003.wav|1774년에 일어난 보스턴차사건

1/NB10754657.0004.wav|기억하시겠죠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위장을 하고 보스턴 황해 정박한 배에 실려 있는

1/NB10754657.0005.wav|홍차 상자를 몽땅

1/NB10754657.0006.wav|바다에 던져 버린 사건이었습니다

1/NB10754657.0007.wav|문제는 세금이 없습니다

1/NB10754657.0008.wav|영국의 차에 부과하는 세금을 지나치게 올렸던 겁니다

1/NB10754657.0009.wav|이 사건은

1/NB10754657.0010.wav|독립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으니까 어찌 보면

1/NB10754657.0011.wav|미국은 과도한 세금이 원인에 대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되겠지

1/NB10754657.0012.wav|이 태생적 기억때문인지 미국은 세금 관련 모든 정책에 있어서

1/NB10754657.0013.wav|어마어마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

1/NB10754657.0014.wav|세금에 대한 논쟁

1/NB10754657.0015.wav|우리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

1/NB10754657.0016.wav|증세 없는 복지는

1/NB10754657.0017.wav|거짓말

1/NB10754657.0018.wav|어저께 많이 나왔던 얘기

1/NB10754657.0019.wav|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

1/NB10754657.0020.wav|복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늘리거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

1/NB10754657.0021.wav|앞서 일본에 전해드린 JTBC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

1/NB10754657.0022.wav|사람들은 증세 보다는 복지를 줄이는 것을 더 많이 살겠습니다

1/NB10754657.0023.wav|세금을 더 내느니 차라리 복지 혜택을 덜 받겠다 이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

1/NB10754657.0024.wav|이런 결과에 대해서

1/NB10754657.0025.wav|속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

1/NB10754657.0026.wav|여론의 심리는

1/NB10754657.0027.wav|복지를 줄이자는 것이라기보다는 돈을 더 내기 싫다는 것

1/NB10754657.0028.wav|즙

1/NB10754657.0029.wav|담배세 인상 또 연말정산 사태 등을 경험한 사람들이

1/NB10754657.0030.wav|지금 뭐가 필요 없다 내 호주머니가 더 들어가지 마라

1/NB10754657.0031.wav|뭐 하는

1/NB10754657.0032.wav|조세저항에 심리가

1/NB10754657.0033.wav|널리 퍼져 있다는 걸

1/NB10754657.0034.wav|담배 3월 연말정산 파동이 전이었던 작년 11월에 66%의 사람들이

1/NB10754657.0035.wav|복지를 위해서 내 세금을 더 내 의견이 있다고 답했던 다른 여론조사 결과 박현조 봐도

1/NB10754657.0036.wav|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세저항이 10리는 훨씬 더 선명하고 또렷한 보입니다

1/NB10754657.0037.wav|석달전 조사와 오늘의 여론조사의 차이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는 겁니다

1/NB10754657.0038.wav|자 그렇다면 이런 조세저항 심리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

1/NB10754657.0039.wav|바로

1/NB10754657.0040.wav|도 세정이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

1/NB10754657.0041.wav|개인의 소득세가 법인세를 앞세우고 또 그 소득세도

1/NB10754657.0042.wav|부자감세 때문에 없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본다고 믿고 있는데

1/NB10754657.0043.wav|정부가 내놓은 것은

1/NB10754657.0044.wav|없는 사람이 더 손해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

1/NB10754657.0045.wav|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이었습니다

1/NB10754657.0046.wav|증세를 하려면 법인세를 올려라

1/NB10754657.0047.wav|일어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 역시

1/NB10754657.0048.wav|대중들의 생각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

1/NB10754657.0049.wav|대표 없는 것은 무효다

1/NB10754657.0050.wav|너무나 유명한 말이죠

1/NB10754657.0051.wav|보스턴 차사건을 주로 했던 새뮤얼 아담스가 남긴 말입니다

1/NB10754657.0052.wav|여기서 발표는

1/NB10754657.0053.wav|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

1/NB10754657.0054.wav|미국의 대표를 말합니다

1/NB10754657.0055.wav|주민들의 동의 없는 과제를 타는 것이

1/NB10754657.0056.wav|보스턴 차사건

1/NB10754657.0057.wav|대부분의 혁명은

1/NB10754657.0058.wav|조세저항에서 유래됐다는

1/NB10754657.0059.wav|그러나

1/NB10754657.0060.wav|도 세정이가 시장 되는 한

1/NB10754657.0061.wav|조세 저항도 그만큼

1/NB10754657.0062.wav|줄어들 수 있다는 것

1/NB10754657.0063.wav|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

1/NB10754657.0064.wav|앵커브리핑

1/NB10756500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를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56500.0001.wav|물론 진짜 사나이라는이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에서

1/NB10756500.0002.wav|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

1/NB10756500.0003.wav|마지막 금요일 구역이 어떤 육군 3사관학교 서로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하는데

1/NB10756500.0004.wav|여군 만명 시대에 발맞춰 가겠다는 구내 좋습니다

1/NB10756500.0005.wav|더 이상 부는 사나이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의미

1/NB10756500.0006.wav|실제로 미군도

1/NB10756500.0007.wav|지난 2008년에

1/NB10756500.0008.wav|100년 역사의 육군사관학교 교과에서

1/NB10756500.0009.wav|남성들이 란 단어를 장병들로 바꿨고

1/NB10756500.0010.wav|우리 아들들 잔다 너도

1/NB10756500.0011.wav|부대로 바꿨습니다

1/NB10756500.0012.wav|그러나 사나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난데없이 등장한다 나도 하나 있습니다

1/NB10756500.0013.wav|아가씨

1/NB10756500.0014.wav|군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얼마 전에 6분 장성출신 현역 국회의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

1/NB10756500.0015.wav|가사 아가씨

1/NB10756500.0016.wav|논란 끝에 해당 위원은 아가씨 발언을 사고 있습니다

1/NB10756500.0017.wav|그런가하면 6분 주요지휘관 회의에서

1/NB10756500.0018.wav|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

1/NB10756500.0019.wav|이런 말이 나왔다는 인권 인권단체의 주장도 있었습니다

1/NB10756500.0020.wav|이에 대해서 군은 여군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

1/NB10756500.0021.wav|교육 시켜야 한다

1/NB10756500.0022.wav|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근데 그게 잘 될까요

1/NB10756500.0023.wav|이런 논란을 지켜보는 마음 씁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

1/NB10756500.0024.wav|작년에 여군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

1/NB10756500.0025.wav|열 명 중에 아홉 명이

1/NB10756500.0026.wav|성 관련 피해를 당해도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

1/NB10756500.0027.wav|대흥 해도 소용이 없어서

1/NB10756500.0028.wav|또 불이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

1/NB10756500.0029.wav|여군의 주적은 남자 군인이다

1/NB10756500.0030.wav|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고 하니까

1/NB10756500.0031.wav|상명하복의 군대 문화에서 여군이 처한 현실을

1/NB10756500.0032.wav|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

1/NB10756500.0033.wav|쏟아지는 비난 탓인지 여군이 성분 6분이 성분비 관련 행동수칙을 검토 중이다

1/NB10756500.0034.wav|얘기도 나왔습니다

1/NB10756500.0035.wav|남녀 군인 단 둘이 차량 이동 금지

1/NB10756500.0036.wav|이성구 님과는

1/NB10756500.0037.wav|한손 악수만 허용한다

1/NB10756500.0038.wav|남자 군인 혼자서 이성 관사 출입 금지

1/NB10756500.0039.wav|남녀가 단 둘이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

1/NB10756500.0040.wav|출입문을 열어 놓고

1/NB10756500.0041.wav|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

1/NB10756500.0042.wav|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

1/NB10756500.0043.wav|위에 말한 대책은 100가지를 내놔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

1/NB10756500.0044.wav|보내서 점차 사용을 줄여 나가겠다는 사나이라는 단어

1/NB10756500.0045.wav|그러나 우리 군은 여성 동요를 대한민국 군인이 아닌 군인 아가씨로 만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

1/NB10756500.0046.wav|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

1/NB10756500.0047.wav|여분의 인권이 현실을 해서 지적해온 대한민국 1호 여군 헬기 조종 사인 피우진 예비역 중량이 한 말입니다

1/NB10756500.0048.wav|저도 군대 있을 때 여군들 많이 봤습니다

1/NB10756500.0049.wav|제가 아는한 여군들은

1/NB10756500.0050.wav|남군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

1/NB10756500.0051.wav|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

1/NB10756500.0052.wav|방금 말씀드린 휴진 예비역 증명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고요

1/NB10761195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61195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 고른다는

1/NB10761195.0003.wav|위스키입니다

1/NB10761195.0004.wav|위스키 앤 캐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

1/NB10761195.0005.wav|DJ 정부 시절에

1/NB10761195.0006.wav|한 정권 시세가 언론인들을 대운 방식을 말합니다

1/NB10761195.0007.wav|위스키

1/NB10761195.0008.wav|기자와 술자리를 함께하고 다시

1/NB10761195.0009.wav|용돈을 죽여 주면서 구슬려 왔다는 얘기

1/NB10761195.0010.wav|또 다른 위기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

1/NB10761195.0011.wav|초원복집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법무장관

1/NB10761195.0012.wav|93년에 재판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고급 양주를 돌렸다는 의혹이 보도되는 것이

1/NB10761195.0013.wav|그것도 언론사 등급별로

1/NB10761195.0014.wav|등급이 다른 길을 보냈다는 주인 얘기 마저 나와서

1/NB10761195.0015.wav|두고두고 구설에 올랐다

1/NB10761195.0016.wav|부개 위스키 이야기는

1/NB10761195.0017.wav|정권이 그리고 권력

1/NB10761195.0018.wav|언론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

1/NB10761195.0019.wav|권력이 언론을 다루는 방식은

1/NB10761195.0020.wav|그때는 두가지였습니다

1/NB10761195.0021.wav|공시체 만들기

1/NB10761195.0022.wav|비판적인 언론인을 하직하는 등 엄혹한 탄압을 가은

1/NB10761195.0023.wav|위스키 앤 캐쉬

1/NB10761195.0024.wav|입맛에 맞는 기작을 장 학생처럼 키우며 회화 거

1/NB10761195.0025.wav|그러나 지금은 다르다

1/NB10761195.0026.wav|혹시 옛날 얘기 같습니다

1/NB10761195.0027.wav|방금 한 얘기들은 오늘날도 현재진행형인 것 같습니다

1/NB10761195.0028.wav|적어도 권력자들의 인식 속에서는

1/NB10761195.0029.wav|일성 기자들 모아놓고 자신이 언론 보도와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일정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

1/NB10761195.0030.wav|만약 사실이어도 큰일이 문제이고 아니라고 해도

1/NB10761195.0031.wav|언론에 대한 그의 인식이 이렇다면 더더욱 큰일 날 노래

1/NB10761195.0032.wav|히틀러의 최측근이었던 요제프 괴벨스

1/NB10761195.0033.wav|언론은 정부가 연주하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

1/NB10761195.0034.wav|이렇게 말 안 받아 있음

1/NB10761195.0035.wav|만약 지금의 세상이 없이 올라오는 정부의 피아노 다 이렇게 여기는 권력이 라면

1/NB10761195.0036.wav|언론

1/NB10761195.0037.wav|그리고 기자들은

1/NB10761195.0038.wav|여기 어떻게

1/NB10761195.0039.wav|닥터스 겁니까

1/NB10761195.0040.wav|이완구 후보자가 원내대표 시절에

1/NB10761195.0041.wav|김영란법

1/NB10761195.0042.wav|누군가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청탁 받으면 처벌 받게 되는 김영란법에

1/NB10761195.0043.wav|언론을 빼야 한다고 제안했다

1/NB10761195.0044.wav|언론의 자유를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답니다

1/NB10761195.0045.wav|그러나

1/NB10761195.0046.wav|언론인

1/NB10761195.0047.wav|꼭 넣어 주시길

1/NB10761195.0048.wav|우려도 되고 자존심도 사람이라

1/NB10761195.0049.wav|언론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십시오

1/NB10761195.0050.wav|대신 2월에는이 김영란법을 꼭 처리하라는 요구

1/NB10761195.0051.wav|중앙일보의 이규연 논설위원이 이미 지난 1월 30일 자외선 카카오내비

1/NB10761195.0052.wav|이번에도

1/NB10761195.0053.wav|중앙일보라서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

1/NB10761195.0054.wav|이규현 논설위원의 생각이 많은 언론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

1/NB10761195.0055.wav|나는 생각에서 골라

1/NB10761195.0056.wav|이 스케치한 언론이 아닌 투명한 권력과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지키고 싶은 언론인들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

1/NB10761195.0057.wav|앵커브리핑

1/NB10762950.0000.wav|매실청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역시 앵커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62950.0001.wav|꽃이진다

1/NB10762950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선택한 말입니다

1/NB10762950.0003.wav|어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

1/NB10762950.0004.wav|처음엔 당당해 보였습니다

1/NB10762950.0005.wav|빨간 모자를 쓴 보수단체 회원들이

1/NB10762950.0006.wav|전임 국정원장을 어 뭐 했지

1/NB10762950.0007.wav|원 전 원장은 아마도 이들의 경호를 받아서 집까지 돌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

1/NB10762950.0008.wav|그러나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 가지 못했습니다

1/NB10762950.0009.wav|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

1/NB10762950.0010.wav|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일에 대한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

1/NB10762950.0011.wav|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그것이 민주국가로 하면

1/NB10762950.0012.wav|국가의 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

1/NB10762950.0013.wav|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

1/NB10762950.0014.wav|자장면 8월에는 국회 청문회 출석해서 증인선서를 거부 했었고

1/NB10762950.0015.wav|불과 몇 달 전 1층에서 보였던 곳 한 태도와는 상반된 모습을 바라보면서

1/NB10762950.0016.wav|화무십일홍 흔한 말입니다

1/NB10762950.0017.wav|붉은 꽃은 참여를 가지 못한다는 말을

1/NB10762950.0018.wav|아 지금부터 올렸습니다

1/NB10762950.0019.wav|그는 지난 정권을 주름잡은 대표적인 MB 맨으로 꼽힙니다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 돼서 정권 실제로 떠올랐고

1/NB10762950.0020.wav|바로 다음에는 국정원 수장 자리에 올라서

1/NB10762950.0021.wav|긴 4년을 잘 듣겠습니다

1/NB10762950.0022.wav|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하는 국가 정보 권력기관의 최고 수장이 없죠

1/NB10762950.0023.wav|그러나 권불 10년 아니 10년도 아니고 그 유효 기간이 전번 짧아져서 건물 5년이라고 불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

1/NB10762950.0024.wav|권력의 유효기간은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

1/NB10762950.0025.wav|국정원 장에서 문어단지 딱 111일 되는 날

1/NB10762950.0026.wav|각종 청탁과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

1/NB10762950.0027.wav|수정을 살았고

1/NB10762950.0028.wav|풀소 다섯 달 만인 어제 또 다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

1/NB10762950.0029.wav|떨어진 꽃에 효소가 아름답지 못한

1/NB10762950.0030.wav|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대통령을 보조 회원 그야말로 역시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셈입니다

1/NB10762950.0031.wav|이런 공식은 비단 원세훈 전 원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

1/NB10762950.0032.wav|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

1/NB10762950.0033.wav|방통대 군이라고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

1/NB10762950.0034.wav|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

1/NB10762950.0035.wav|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까지

1/NB10762950.0036.wav|권력의 무상함을 알면서도 문제가 끊임없이 제품이 되는 이유는

1/NB10762950.0037.wav|권력이란 더 치크만큼

1/NB10762950.0038.wav|무섭기 때문이겠죠

1/NB10762950.0039.wav|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지는 건 잠깐이더군

1/NB10762950.0040.wav|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 중에 한 구절입니다

1/NB10762950.0041.wav|달이 차면 기울고 꽃이 피면 지금 하는 것은 간단한 위치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762950.0042.wav|그래서 남은 시간을 경계하면서 손가락을 뽑아야 할 사람들은

1/NB10762950.0043.wav|권력자들 자신이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버릴 수가 없군요

1/NB10762950.0044.wav|자 입춘도 지나고

1/NB10762950.0045.wav|봄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즈음에

1/NB10762950.0046.wav|지는 꽃을 이야기하는 이유

1/NB10764789.0000.wav|헬스장으로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브리핑 오늘 고른 단어는

1/NB10764789.0001.wav|커튼입니다

1/NB10764789.0002.wav|예 제가

1/NB10764789.0003.wav|과거의 100분토론을 진행하던 시절에

1/NB10764789.0004.wav|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처음으로 출연한 노회찬 전 의원

1/NB10764789.0005.wav|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

1/NB10764789.0006.wav|정말 놀랐다

1/NB10764789.0007.wav|국회의장 회선 서로 물고 뜯고 으르렁대는 사람들이

1/NB10764789.0008.wav|휴게실에서 아는 형님하고 가면서 뻘뻘 붙어라

1/NB10764789.0009.wav|아스트로 토론이 끝난 뒤에 아까는 당해 입장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 의견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도 있었고

1/NB10764789.0010.wav|김희원 아까 나한테 너무 했어 이렇게 농담을 건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

1/NB10764789.0011.wav|북에서 이런 장면들은 자주 발견되기도 합니다

1/NB10764789.0012.wav|방송사 카메라를 앞에 두고는 호통을 치던 정치인들이

1/NB10764789.0013.wav|입원실로 돌아가서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하고

1/NB10764789.0014.wav|지금은 사라진 국회 몸싸움을 거리데도 목소리 큰 사람은 비난 줘

1/NB10764789.0015.wav|제가 자꾸 재빠른 사람은 의장석 정보

1/NB10764789.0016.wav|이른바 이제 몸싸움 포지션까지 미리 정해 놓는다는 현재 의원의 후일담도 나왔습니다

1/NB10764789.0017.wav|물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은 엄연히 다르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

1/NB10764789.0018.wav|신사답게 굴 파는 곳

1/NB10764789.0019.wav|어찌 보면 더 성숙한 정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

1/NB10764789.0020.wav|그러나 공과 사를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빠지가 다르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

1/NB10764789.0021.wav|백봉신사상

1/NB10764789.0022.wav|혹시 들어 보셨는지요

1/NB10764789.0023.wav|독립운동가인 백봉

1/NB10764789.0024.wav|나 윤균 전 국회부의장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

1/NB10764789.0025.wav|상입니다

1/NB10764789.0026.wav|정치부 기자들이 매년

1/NB10764789.0027.wav|10명의 가장 신사답게

1/NB10764789.0028.wav|홍삼이 입원을 골라 낸다고 합니다

1/NB10764789.0029.wav|작년도 수상자 명단입니다

1/NB10764789.0030.wav|예

1/NB10764789.0031.wav|공교롭게도 이완구 총리 후자를 비롯해서 현재

1/NB10764789.0032.wav|여야 주요 인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

1/NB10764789.0033.wav|그러니까 여유도 최고의 신사들이

1/NB10764789.0034.wav|국회의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

1/NB10764789.0035.wav|보는 거지

1/NB10764789.0036.wav|스토리 이완구 총리 후보는 세련되고 깔끔한 매너로 유명했습니다

1/NB10764789.0037.wav|문제가 된 것은 며칠 전에 사상에서 나온 바로 입금

1/NB10764789.0038.wav|일산 기자들과 편안하게 김치찌개를 먹는 자리에서 나오는 말이 화근이 되었습니다

1/NB10764789.0039.wav|그 자리에서 있었던 말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더 옮기진 않겠소

1/NB10764789.0040.wav|차 있으면 좀 헷갈립니다

1/NB10764789.0041.wav|커튼이 올라간 정치라는 무대 위에서 내 보인

1/NB10764789.0042.wav|후보자의 모습과

1/NB10764789.0043.wav|커튼이 내려진 무대 뒤에서

1/NB10764789.0044.wav|언론을 쥐락펴락 하듯이 말한 후보자는 서로

1/NB10764789.0045.wav|다른 사람일까요

1/NB10764789.0046.wav|그게 아니면

1/NB10764789.0047.wav|무더위에이 왕국 후보자를 만난 기자들과

1/NB10764789.0048.wav|무대뒤에 후보자를 만난 기자들이

1/NB10764789.0049.wav|서로 다른 사람일까

1/NB10764789.0050.wav|앵커브리핑

1/NB10766785.0000.wav|메시지 여러분 jtbc 뉴스룸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766785.0001.wav|앵커브리핑을

1/NB10766785.0002.wav|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66785.0003.wav|내가 누군지 아느냐

1/NB10766785.0004.wav|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

1/NB10766785.0005.wav|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어제 면직 처리됐습니다

1/NB10766785.0006.wav|그러고 보니까 참 많이도 들어보는 말이네요

1/NB10766785.0007.wav|오늘 1심에서 징역 1년 수정을 받고 선고를 받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또한

1/NB10766785.0008.wav|내가 누군지 아느냐 시계 갑질로 처벌을 받게 됐고

1/NB10766785.0009.wav|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들을 앉혀 놓고 했던 말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

1/NB10766785.0010.wav|내가 누군지 아느냐 와 다름이 없었어

1/NB10766785.0011.wav|보도내용과 언론사 인사 학교 인사 법원까지 총 많은 말을 했죠

1/NB10766785.0012.wav|남은 누르는 고압적인 질문

1/NB10766785.0013.wav|내가 누군지 아니

1/NB10766785.0014.wav|시대를 막론하고 부와 권력을 주는 사람들의 상징어가 돼서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다

1/NB10766785.0015.wav|내가 누군지 아느냐 여기선 내가 왕이다

1/NB10766785.0016.wav|내가 시의회 의장이 다 의장도 몰라 보냐

1/NB10766785.0017.wav|네가 뭔데 나에게 차를 빼라 하는 거야

1/NB10766785.0018.wav|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남에게 물어보는 걸까요

1/NB10766785.0019.wav|자신이 누구인지를 남에게 확인 받아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자기과시 의미

1/NB10766785.0020.wav|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온전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766785.0021.wav|그래서일까요

1/NB10766785.0022.wav|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왜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맞아 쓰는 거야

1/NB10766785.0023.wav|그래서 오늘 앵커브리핑이 부른다

1/NB10766785.0024.wav|후아유

1/NB10766785.0025.wav|당신은 대체 누구시길래

1/NB10766785.0026.wav|내가 누구인지 아니냐고 묻기 전에

1/NB10766785.0027.wav|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묻고 대답해 보면

1/NB10766785.0028.wav|밥은 나오리라 믿습니다

1/NB10766785.0029.wav|그리고 대답을

1/NB10766785.0030.wav|영화 카메라

1/NB10766785.0031.wav|민주 사회지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

1/NB10766785.0032.wav|권력층도 존재하지 않는다

1/NB10766785.0033.wav|모두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가는 평등한 시민이라는 것이죠

1/NB10766785.0034.wav|권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

1/NB10766785.0035.wav|그걸 운 좋게 조금 더 갖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는 것은

1/NB10766785.0036.wav|동서 고금에서 이미 다 배운 바가 있습니다

1/NB10766785.0037.wav|그래서

1/NB10766785.0038.wav|이번 항공기 회항 사건 재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

1/NB10766785.0039.wav|도한

1/NB10766785.0040.wav|종이 인증을 둘러싼 무성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

1/NB10766785.0041.wav|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

1/NB10766785.0042.wav|돌려드릴 대답은

1/NB10766785.0043.wav|딱 하나밖에 없습니다

1/NB10766785.0044.wav|후아유

1/NB10766785.0045.wav|당신은 대체 누구시길래

1/NB10766785.0046.wav|앵커

1/NB10771817.0000.wav|플래시 찾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771817.0001.wav|오늘도 시작은 앵커브리핑입니다

1/NB10771817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고른다는

1/NB10771817.0003.wav|수민

1/NB10771817.0004.wav|예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만 모리수 경우의 수를 수

1/NB10771817.0005.wav|악수

1/NB10771817.0006.wav|자충수처럼 바둑이나 장기 기술을 말하기도 하지요

1/NB10771817.0007.wav|총리지명부터 인증까지 지난 25일 동안은

1/NB10771817.0008.wav|이완구 총리의 있어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아이들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771817.0009.wav|첫 등장은 2pm이라는 별명답게

1/NB10771817.0010.wav|준비된 총리의 이미지를 성공했습니다

1/NB10771817.0011.wav|그러나

1/NB10771817.0012.wav|청문회가 시작되자

1/NB10771817.0013.wav|21살 첫 신검 때 찍은 엑스레이 사진부터 첫 월급 봉투까지 보관해 왔던

1/NB10771817.0014.wav|괴사 10원이 담긴 검정색 비밀

1/NB10771817.0015.wav|가방까지

1/NB10771817.0016.wav|이 모든 것이 무색해진

1/NB10771817.0017.wav|25일 가냐

1/NB10771817.0018.wav|천신만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이완구 총리 보면서

1/NB10771817.0019.wav|공직자란 무엇이고 정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

1/NB10771817.0020.wav|우선 월드컵 예선 때나 등장하던 경우의 수가 이번 총리인 주니어 야생 법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

1/NB10771817.0021.wav|야당은 전원 반대의 여당 이탈 표까지 합쳐야 부결 시킬 수 있는 무리수를 피해 보려다가

1/NB10771817.0022.wav|총리 후보 여론조사라는 또다른 무리수 논란까지 불러 왔습니다

1/NB10771817.0023.wav|여당 역시 단독 철이라는 무리수는 피했지만

1/NB10771817.0024.wav|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총리 후보자를 건져 내기 위해서 또 다시

1/NB10771817.0025.wav|지역 감정의 기대는 또 다른 무리수 논란을 가져왔습니다

1/NB10771817.0026.wav|박근혜 정부는 유달리 총리인 선에선 논란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

1/NB10771817.0027.wav|이완구 총리 인준을 놓고 청와대 관계자는

1/NB10771817.0028.wav|여기서 막히면 줄줄이 막힌다

1/NB10771817.0029.wav|이렇게 언론에 푸념했다

1/NB10771817.0030.wav|묘수라고 내놓은 정치인 출신 총리 카드가

1/NB10771817.0031.wav|사실상 청와대로 더 물러날 곳이 없는

1/NB10771817.0032.wav|외통수 였다는 고백이 아니어서 그런가

1/NB10771817.0033.wav|국민 눈높이에 맞는 총리 한 명을 내놓는 일이

1/NB10771817.0034.wav|이렇게 어려운가

1/NB10771817.0035.wav|이완구 총리는 청문회장에서 청와대 쓴 서류 하겠다 이렇게 호원 한 바가 있습니다

1/NB10771817.0036.wav|하지 마

1/NB10771817.0037.wav|과연

1/NB10771817.0038.wav|그럴 수 있을까

1/NB10771817.0039.wav|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억하는 가지가 있습니다

1/NB10771817.0040.wav|정홍원 총리는 왜 사임을 했었는가 하는 것이죠

1/NB10771817.0041.wav|세월호 참사의 책임을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던 송이 없습니다

1/NB10771817.0042.wav|찢기고 갈라진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정홍원 총리 다음 총리

1/NB10771817.0043.wav|가장 중요한 임무 였다는 것을 혹시 혹시 정부와 정치권은

1/NB10771817.0044.wav|기억하고 있는 것인가

1/NB10771817.0045.wav|독일에서는 이겼지만 국민한테 졌다

1/NB10771817.0046.wav|야당이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서 내놓은 반응입니다

1/NB10771817.0047.wav|정치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

1/NB10771817.0048.wav|국민을 이길 수는 없겠지

1/NB10771817.0049.wav|이완구 총리가 정치적 술을 이렇게 보다

1/NB10771817.0050.wav|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

1/NB10771817.0051.wav|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수혜 정치

1/NB10771817.0052.wav|약삭빠른 개선을 뜻하는 수의 정치가

1/NB10771817.0053.wav|빼어날 수에 정치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

1/NB10771817.0054.wav|오늘 앵커브리핑

1/NB10773541.0000.wav|대체적으로 jtbc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앵커브리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773541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다 너는

1/NB10773541.0002.wav|최고입니다

1/NB10773541.0003.wav|하늘에 머물러 있는 여성 최고

1/NB10773541.0004.wav|지금 사람들에게는 매우 듣기 낯선이 단어는

1/NB10773541.0005.wav|1931년에 언론이 대서특필 하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

1/NB10773541.0006.wav|평양 대동강변 을밀대 지붕에 올라간 여성은

1/NB10773541.0007.wav|병원 고무 공장에서 일하던

1/NB10773541.0008.wav|허난설 강주룡이었습니다

1/NB10773541.0009.wav|힘든 노동에 낮은 임금을 견디면서 일하던 와중에

1/NB10773541.0010.wav|회사가 임금을 더 깎았다고 하자

1/NB10773541.0011.wav|억울함을 호소할 장소로 택한 것이

1/NB10773541.0012.wav|40

1/NB10773541.0013.wav|12미터의 밀대 지붕 위에 있습니다

1/NB10773541.0014.wav|다시 신문은 그녀가 새벽 1시 올라가서 아침 8시 40분까지 머물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

1/NB10773541.0015.wav|이렇게 강주룡

1/NB10773541.0016.wav|우리나라 첫 공룡 성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

1/NB10773541.0017.wav|개 공인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

1/NB10773541.0018.wav|서울 한복판 20m 광고탑 위치

1/NB10773541.0019.wav|또

1/NB10773541.0020.wav|평택 쌍용차 공장 70m 굴뚝

1/NB10773541.0021.wav|그런 가면 저 멀리 구미 스타케미칼 공장에도 있습니다

1/NB10773541.0022.wav|82년 전이나 지금이나

1/NB10773541.0023.wav|하늘은

1/NB10773541.0024.wav|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법도 더 이상 내 편이 안 된다고 여기를 때 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할 일이 없어서 찾는

1/NB10773541.0025.wav|마지막 공간이 되고 있어

1/NB10773541.0026.wav|다 내일부터 우리는 다 쓸 동안에 긴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

1/NB10773541.0027.wav|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

1/NB10773541.0028.wav|홍빈 도시

1/NB10773541.0029.wav|공장

1/NB10773541.0030.wav|그 하늘에서 보내는 고공농성 제자들의 시간은

1/NB10773541.0031.wav|어느 때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

1/NB10773541.0032.wav|굴뚝 농성 하는 아빠들 앞으로 아이들이 보낸 그림과

1/NB10773541.0033.wav|꼭꼭 손으로 눌러 쓰는 편지

1/NB10773541.0034.wav|아이들의

1/NB10773541.0035.wav|천진암

1/NB10773541.0036.wav|안타까운 이것을 제 목소리로는 전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읽어 드리진 않겠습니다

1/NB10773541.0037.wav|아빠들 마음이야 한 걸음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펜싱장 이겠지

1/NB10773541.0038.wav|그렇다고 해서 이번 서울 고향으로 향하는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이 마냥 가벼운가 하면

1/NB10773541.0039.wav|꼭 그렇지도 않던 뉴스를 바로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

1/NB10773541.0040.wav|보너스는 그냥 월급 쫓아 못 받은 노동자들이

1/NB10773541.0041.wav|작년에 신고한 일들만 29만명이 라지요

1/NB10773541.0042.wav|기나긴 프랑스계 마음마저 움추려 들어서 고향가는 걸음이 더 무거워 질지도 모르겠어

1/NB10773541.0043.wav|밥상 1편에 들어가는 떡국 한 그릇

1/NB10773541.0044.wav|어머니는 설날 아침 떡국을 뜨다 목이 메인다

1/NB10773541.0045.wav|박남준 시인의 시 떡국 한 그릇 씁니다

1/NB10773541.0046.wav|한 손 가득 선물이 없어도

1/NB10773541.0047.wav|두둑이 찔러준 세뱃돈이 없어도

1/NB10773541.0048.wav|가족끼리 둘러 앉아서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한

1/NB10773541.0049.wav|그런 소리

1/NB10773541.0050.wav|모두에게 되었으면 하는

1/NB10773541.0051.wav|바람입니다

1/NB10773541.0052.wav|물론

1/NB10773541.0053.wav|지금 하늘에 위탁한 공동성장

1/NB10773541.0054.wav|최고긴들에게도

1/NB10773541.0055.wav|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

1/NB10773541.0056.wav|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소원

1/NB10777471.0000.wav|메신저로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77471.0001.wav|요즘 유행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호갱

1/NB10777471.0002.wav|호구와 고객님의 합성어라고 하지

1/NB10777471.0003.wav|프리 하자면 수록하여 이용해 먹기 쉬운 손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

1/NB10777471.0004.wav|오늘 안 커 브리핑이 고른 단어 바로 이호경입니다

1/NB10777471.0005.wav|잔소리 연휴에 담배 이야기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

1/NB10777471.0006.wav|끊었나 못 끊었나에서 시작해서

1/NB10777471.0007.wav|연휴 직전에 정치권의 불붙인 저가 담배 논란까지

1/NB10777471.0008.wav|담배는 처음 두고두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어 태웁니다

1/NB10777471.0009.wav|발화점은 새누리당이 없습니다

1/NB10777471.0010.wav|저가 담배에 대한 요구가 있는만큼 정책이 해서 검색해 달라고

1/NB10777471.0011.wav|여기에 7살 야당도 나섰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담배 등 저가 담배 활성화 입법을 추진하겠다

1/NB10777471.0012.wav|저가 담배 노니까 서울 서울 피어 오르면서 지난 2005년에 단종된 솔담배가격 해 놨습니다

1/NB10777471.0013.wav|1980년 450 원짜리 고급 담배로 출시된 서울 담배는

1/NB10777471.0014.wav|94년부터 오히려 한 갑당 200원으로

1/NB10777471.0015.wav|가격이 떨어졌습니다

1/NB10777471.0016.wav|1시 담뱃값을 200원 올린 정보가

1/NB10777471.0017.wav|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담배로 서울 담배 가격을 맞췄던 겁니다

1/NB10777471.0018.wav|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세금도 아니고

1/NB10777471.0019.wav|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렸다는 정부가 아니었는지

1/NB10777471.0020.wav|악 소리 나올 정도로 가격을 올려놓고 이제와서 흡연자들 주머니 사정을 걱정한다는

1/NB10777471.0021.wav|중요한 민심과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속이 빤하게 보인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

1/NB10777471.0022.wav|그러자 담배 탔어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

1/NB10777471.0023.wav|30번은 베트남 어떤 말을 서둘러 걷어 드렸습니다

1/NB10777471.0024.wav|아이디어 차원이었다 당장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

1/NB10777471.0025.wav|포퓰리즘에 전형이다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

1/NB10777471.0026.wav|그러나 올린 담뱃값을 마치 내려 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말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더군요

1/NB10777471.0027.wav|담배세 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

1/NB10777471.0028.wav|또 내 생각은 원래 천원 인상이었다

1/NB10777471.0029.wav|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

1/NB10777471.0030.wav|잘 있음 되면

1/NB10777471.0031.wav|국민을 바보로 아는 야 이런 말들이

1/NB10777471.0032.wav|저절로 나오게 됩니다

1/NB10777471.0033.wav|담뱃값을 일방적으로 올렸을때 흡연자들은 세금 내주는

1/NB10777471.0034.wav|외상 말로

1/NB10777471.0035.wav|호경이 되는 셈이었죠

1/NB10777471.0036.wav|이젠 담뱃값을 내려주면 초까지 내주는 고객님으로 여겨지는 걸까

1/NB10777471.0037.wav|서럽고

1/NB10777471.0038.wav|처량하고

1/NB10777471.0039.wav|치사해서 끄는 것이다

1/NB10777471.0040.wav|잘 가라 담배

1/NB10777471.0041.wav|나의 연차

1/NB10777471.0042.wav|양말 전세 한창 담뱃값이 논란이 없을 때

1/NB10777471.0043.wav|45년동안 P1 담배를 이천에 끊었다는 유홍준 교수의 말이었어

1/NB10777471.0044.wav|오늘 전국 황사 흙먼지로 뿌옇게 뒤덮였습니다

1/NB10777471.0045.wav|서럽고 차량 하고

1/NB10777471.0046.wav|치사해서 거는 고객님들의 가슴에

1/NB10777471.0047.wav|담배 연기 대승 황사 먼지가 드론

1/NB10777471.0048.wav|하루였습니다

1/NB10779376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시작은 앵커 브리핑입니다

1/NB10779376.0001.wav|조선시대 궁으로 가보겠습니다

1/NB10779376.0002.wav|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받은 승정원

1/NB10779376.0003.wav|왕의 비서실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

1/NB10779376.0004.wav|모두 여섯 명의 승지가 있었고 그 중에 으뜸은 도승지였습니다

1/NB10779376.0005.wav|지금으로 시작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쯤 되겠지

1/NB10779376.0006.wav|왕을 지근 거리에서 모시는 도승지 위상이 어떠했는지는

1/NB10779376.0007.wav|거쳐 간 인물들 보면

1/NB10779376.0008.wav|짐작할 수가 있습니다

1/NB10779376.0009.wav|명재상 황희는 물론이고 유성룡이 양복점

1/NB10779376.0010.wav|당대 최고의 애견과 권세를 지닌 이들이

1/NB10779376.0011.wav|이 자리를 거쳐 봤습니다

1/NB10779376.0012.wav|조선전기에 나온 책 용재총화에는 도승지가 책임지는 승정원을 후 설치

1/NB10779376.0014.wav|임금의 목구멍과 혀

1/NB10779376.0015.wav|이불 대신하는 곳이라고 쓰여 있습니다

1/NB10779376.0016.wav|오늘 앵커브리핑 보름달

1/NB10779376.0017.wav|후 설치 집

1/NB10779376.0018.wav|그러나 왕의 입을 대신하는 도승지는 결코 왕의 입속에 차처럼 굴지마는 알았습니다

1/NB10779376.0019.wav|역사학자 이덕 일에 따르면

1/NB10779376.0020.wav|당신은 부당한 왕명을 승지가 다시 봉해서 반납하고

1/NB10779376.0021.wav|봉환이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

1/NB10779376.0022.wav|임금에게 안된다라고 말할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다

1/NB10779376.0023.wav|또한 선조시대 승지 윤국형 응

1/NB10779376.0024.wav|선조의 아들 임해군 횡포를 지원했다가

1/NB10779376.0025.wav|왕의 노여움을 사서 좌천된 일까지 있었습니다

1/NB10779376.0026.wav|오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2

1/NB10779376.0027.wav|청와대 출근 아직 안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

1/NB10779376.0028.wav|이미 출입증까지 반납 했다고 하지요

1/NB10779376.0029.wav|김기춘 실장은 자장면 8월의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

1/NB10779376.0030.wav|나는 대통령 뜻을 밖에 전화하고

1/NB10779376.0031.wav|바깥 이야기를 대통령께 정할뿐

1/NB10779376.0032.wav|옛날 말로 승진

1/NB10779376.0033.wav|그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을까요

1/NB10779376.0034.wav|평가는

1/NB10779376.0035.wav|세상에 맡기겠습니다

1/NB10779376.0036.wav|이제 통화되는 새로운 도승지 아니 신임 비서실장을 찾고 있습니다

1/NB10779376.0037.wav|후설 지직이라는 말

1/NB10779376.0038.wav|다시 한번 더 올립니다

1/NB10779376.0039.wav|임금에 목구멍과 혀 이불 대신하는

1/NB10779376.0040.wav|결코 쉽지 않은 사랑

1/NB10779376.0041.wav|왕의 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

1/NB10779376.0042.wav|민심을 들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

1/NB10779376.0043.wav|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

1/NB10779376.0044.wav|삼가

1/NB10779376.0045.wav|바라건데 전화께서는 널리 물으시며 꼭 합당한 사람을 어떻게 하소서

1/NB10779376.0046.wav|대신 반드시 들어와서 직접 아뢰게 하소서

1/NB10779376.0047.wav|3조 7연승 지이가 올렸던 만원 봉사

1/NB10779376.0048.wav|상소문의 한 구절이 뭐야

1/NB10779376.0049.wav|불통이 아니라 소통으로 가는 열쇠

1/NB10779376.0050.wav|사모님 아 지금은 왕 정도 아니고

1/NB10779376.0051.wav|국민이 만들어준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

1/NB10779376.0052.wav|민주주의 공화국

1/NB10779376.0053.wav|앵커

1/NB10780983.0000.wav|배신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80983.0001.wav|2월 25일

1/NB10780983.0002.wav|오늘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있습니다

1/NB10780983.0003.wav|출범 2 돌을 맞은 박근혜 정부

1/NB10780983.0004.wav|별도의 기념행사는 없었다고 하지요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직원 조회 참석해서

1/NB10780983.0005.wav|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

1/NB10780983.0006.wav|낮아진 지지율과 비서실장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안 탓인지

1/NB10780983.0007.wav|조용한 생일을 보내는 것이라고 얼른 정했습니다

1/NB10780983.0008.wav|그래도 생일은 생일

1/NB10780983.0009.wav|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생일날 국수를 먹어 봤습니다

1/NB10780983.0010.wav|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다 국수 빨리 길이니까요

1/NB10780983.0011.wav|2월 2일이 생일이었던 박 대통령이 없이 조절하는 국수 상을 받았다고 하지요

1/NB10780983.0012.wav|공교롭게도 이번 정부의 두들 생일에도 여론의 밥상에는 국수가 올랐습니다

1/NB10780983.0013.wav|얼마 전에 대통령 급한 쿵쿵 부른 국술원이 논란이 되는 것이죠

1/NB10780983.0014.wav|이래저래 이번 두 돌 생일과 국수는 떼어 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

1/NB10780983.0015.wav|그러나 퉁퉁 불은 국수 좀 면발이 선 국수 등

1/NB10780983.0016.wav|한 책상에 올려 놓고 축하 하기에는 함께 산 위에 펼쳐진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

1/NB10780983.0017.wav|역대 대통령들의 3년차 1분기 지지율을 정리해 봤습니다

1/NB10780983.0018.wav|5년 단임제 변환 점을 반환점을 맞은 이번 정부의 지지율은

1/NB10780983.0019.wav|역대 정부와 비교해 봐도

1/NB10780983.0020.wav|가장 낮은 수치입니다

1/NB10780983.0021.wav|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

1/NB10780983.0022.wav|그러나 역설적으로 본다면

1/NB10780983.0023.wav|지금은

1/NB10780983.0024.wav|소신대로

1/NB10780983.0025.wav|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

1/NB10780983.0026.wav|기회일 수도 있습니다

1/NB10780983.0027.wav|앞서 1 2회는 그렇다 쳐도

1/NB10780983.0028.wav|3년 사천 되면 국정 운영에 익숙해질 시기가 됐다는 것이겠죠

1/NB10780983.0029.wav|역대 정권 역시 3년차를 전화해서

1/NB10780983.0030.wav|중소 수교

1/NB10780983.0031.wav|첫 전국동시지방선거

1/NB10780983.0032.wav|행정수도 건설 이렇게 중요한 승부수를 던진 전례가 있었습니다

1/NB10780983.0033.wav|나는 더 이상 출마할 성도가 없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

1/NB10780983.0034.wav|수영 하겠다

1/NB10780983.0035.wav|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올해 첫 국정 연설 한 대목입니다

1/NB10780983.0036.wav|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

1/NB10780983.0037.wav|5년 단임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

1/NB10780983.0038.wav|닭

1/NB10780983.0039.wav|3년이 남아 있습니다

1/NB10780983.0040.wav|그런 의미에서 오늘 뉴스룸이 준비한 생일 밥상

1/NB10780983.0041.wav|지난 인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분들 두 분과 함께

1/NB10782890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82890.0001.wav|팔조법금

1/NB10782890.0002.wav|오늘의 단어 및

1/NB10782890.0003.wav|후한시대 역사서인 한서에 따르면

1/NB10782890.0004.wav|고조선은 8점의 법률 8조법금 있었습니다 여기

1/NB10782890.0005.wav|간통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하더군

1/NB10782890.0006.wav|독이 완전 1750년 경의 고대바빌로니아 함무라비법전 해도 간통죄 규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알고 보면

1/NB10782890.0007.wav|가성비 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이어져

1/NB10782890.0008.wav|그야말로 반 만년 정조 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

1/NB10782890.0009.wav|간통 오래된만큼 논란의 역사도 깊습니다

1/NB10782890.0010.wav|1926년 12월 23일자 신문기사 잠깐 보실까요

1/NB10782890.0011.wav|가볼 돈 남편 혼내 달라면서 발악을 하여 법관을 웃기는 중

1/NB10782890.0012.wav|간통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여성이 총을든 남편도 함께 혼내 달라고 주장했는데 법관들이 웃었던 얘기입니다

1/NB10782890.0013.wav|과거형 간통죄가 분 여자만 처벌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

1/NB10782890.0014.wav|이런 상황이 이어져 왔으니까

1/NB10782890.0015.wav|그리고 또 한참 주인 1954년 소설가 정비석의 쓴 소설

1/NB10782890.0016.wav|자유 부인이 던진 파장은

1/NB10782890.0017.wav|한국 논쟁사의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

1/NB10782890.0018.wav|금지와 위반 사유와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지속되는 사이에 법에 대한 논란은 이어졌고 오늘 드디어

1/NB10782890.0019.wav|반만 년 만에 일단락이 지워졌어

1/NB10782890.0020.wav|법은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1973년에 나온 개정 경범죄처벌법을 기억하시는지요

1/NB10782890.0021.wav|미니스커트와 장발 불경한 사진을 단속했더니

1/NB10782890.0022.wav|물론 미니스커트와 장발은 그 전부터 단속해 왔습니다만 아무튼

1/NB10782890.0023.wav|이 법은 지금 눈으로 본다면 시대착오

1/NB10782890.0024.wav|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

1/NB10782890.0025.wav|이 법은

1/NB10782890.0026.wav|올림픽 열렸던 1988년까지 동석 했다고 하는군요

1/NB10782890.0027.wav|최근에 논란이 된 이른바 장발장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파서 분식집에서 현금 2만 원과 라면 10번길 훔친 사람

1/NB10782890.0028.wav|징역 3년 6개월을 받았고

1/NB10782890.0029.wav|남해 밭에서 배추 불고기를 뽑아서 도망가다가 마을 주민을 때렸던 사람은

1/NB10782890.0030.wav|역시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고 하는군요

1/NB10782890.0031.wav|가난한 농경사회의 어떤 60년전의 제정된 형법이 한 번 한 번도 정비 되지 않았던 까닭에 삽니다

1/NB10782890.0032.wav|중공군 50만명에 해당하는 이적합니다

1/NB10782890.0033.wav|1950년대 소설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부인의 신문 연재를 비판하던 황산덕 단식 서울법대 교수의 말입니다

1/NB10782890.0034.wav|심지어는

1/NB10782890.0035.wav|국회의 사주를 받은 이적 소설이란 말까지 나왔고 급기야 자가정비 썩은 시 한국 특무부대장

1/NB10782890.0036.wav|고발과 투서가 들어가는 곳마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

1/NB10782890.0037.wav|그때나 지금이나

1/NB10782890.0038.wav|색깔론은 여전합니다

1/NB10782890.0039.wav|자 이젠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으니 이런 논쟁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는지도 모릅니다

1/NB10782890.0040.wav|다만 한 가지 멈춰서 생각할 것은 물론 있습니다

1/NB10782890.0041.wav|이 법의 필드는 과연

1/NB10782890.0042.wav|소설 제목처럼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

1/NB10782890.0043.wav|벌써부터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뛰어올라 났다는데

1/NB10782890.0044.wav|주로 불륜을 소재로 했던 어떤 드라마는 막을 내릴 것이라는

1/NB10782890.0045.wav|우스개 소리가 들리는 지금

1/NB10782890.0046.wav|간통죄 폐지

1/NB10782890.0047.wav|우리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하고 지켜내야 할 가치를

1/NB10782890.0048.wav|마냥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한다는 뜻은

1/NB10782890.0049.wav|물론 아니겠죠

1/NB10782890.0050.wav|앵커브리핑

1/NB10787538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브리핑

1/NB10787538.0001.wav|1950년 작 영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을 기억하시는지요

1/NB10787538.0002.wav|한 남자의 죽음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증언이 작품의 주요 내용입니다

1/NB10787538.0003.wav|같은 사건이었지만 관련자들의 주장은 제각기 달랐습니다

1/NB10787538.0004.wav|자신의 입장에서

1/NB10787538.0005.wav|기억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했다 그냥

1/NB10787538.0006.wav|현재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잘 구성하는 거

1/NB10787538.0007.wav|학교에서는 이것을

1/NB10787538.0008.wav|라쇼몽 효과라고 불더군요

1/NB10787538.0009.wav|오늘 앵커브리핑 고른 단어 바로 라쇼몽

1/NB10787538.0010.wav|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혹시 침해 하는 것은 없는지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

1/NB10787538.0011.wav|독립군가

1/NB10787538.0012.wav|그런데 주어진 임무를 거꾸로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

1/NB10787538.0013.wav|인권위가 유엔에 제출하는 인권규약 비행자료 세종 아니 나왔는데

1/NB10787538.0014.wav|통 안에 담겼던 장천 가운데 정부의 민감한 내용들이 삭제됐다는 겁니다

1/NB10787538.0015.wav|불량이 많다

1/NB10787538.0016.wav|인권이 관여 사랑이 아니다

1/NB10787538.0017.wav|이런 이유로 사라지는 항목은

1/NB10787538.0018.wav|총 65번 가운데 30대 건

1/NB10787538.0019.wav|절반 이상입니다

1/NB10787538.0020.wav|세월호 참사

1/NB10787538.0021.wav|통합진보당 해산 군견은 물론이고 언론의 독립성 또

1/NB10787538.0022.wav|집회 현장에서 경찰에 체증 문제 등

1/NB10787538.0023.wav|민감한 인권 사항들이 전부 수정 과정에서 지워진 겁니다

1/NB10787538.0024.wav|마치

1/NB10787538.0025.wav|라쇼몽

1/NB10787538.0026.wav|인권위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계약을 삭제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

1/NB10787538.0027.wav|다음 거 같습니다 이번 보고서는

1/NB10787538.0028.wav|200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UN 국제 인권 규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잣대가 된다고 하더군요

1/NB10787538.0029.wav|이번에 받는 성적표는 어찌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고수 정권이 받는 인권 성적표 의자

1/NB10787538.0030.wav|논란 속에 출발했더니 현경철 인권위 성적표가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

1/NB10787538.0031.wav|물론

1/NB10787538.0032.wav|코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장점을 최종 보고서 100까지 다 넣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

1/NB10787538.0033.wav|전화 무언가를 삭제하기 위해서는

1/NB10787538.0034.wav|합당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죠

1/NB10787538.0035.wav|앞서 일부 리포트에서 전해 드렸듯이

1/NB10787538.0036.wav|인권이 내부에서 도착

1/NB10787538.0037.wav|여당 출신 상임위원이 민감한 쟁점에 취사선택을 지시했다는 지금 하는 말도 나온다

1/NB10787538.0038.wav|역사란 취사선택해서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

1/NB10787538.0039.wav|어제 삼일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

1/NB10787538.0040.wav|미국 역사학자의 말을 인용해

1/NB10787538.0041.wav|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비판했다

1/NB10787538.0042.wav|시간 내용만 골라서 기억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는 의미

1/NB10787538.0043.wav|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굿바이 인권위원장 하시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퇴임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

1/NB10787538.0044.wav|정권을 잡고 인권

1/NB10787538.0045.wav|영원하다

1/NB10789228.0000.wav|4시 저녁으로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89228.0001.wav|꾹돈

1/NB10789228.0002.wav|말만 들어도 행동이 짐작되는 단어장

1/NB10789228.0003.wav|은밀한 목적을 위해서 남 몰래 국 찔러주는 돈

1/NB10789228.0004.wav|뇌물을 뜻하는 우리말 정도가 될 겁니다

1/NB10789228.0005.wav|오늘 앵커브리핑 오른 단어 바로 입국 돈입니다

1/NB10789228.0006.wav|내일모레 음향 하면

1/NB10789228.0007.wav|아주 오래 전부터 조정해 골칫거리 왔나 봅니다

1/NB10789228.0008.wav|벼슬도 뇌물이 아니면 승진 되지 않고 방송도 뇌물이 아니면 판결 나지 않으며

1/NB10789228.0009.wav|제인도 뇌물이 아니면 방면 되지 않는다

1/NB10789228.0010.wav|율곡 이이가 이렇게 탄식 했을정도였습니다

1/NB10789228.0011.wav|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위로는 정상에서부터 아래로는 내쉬와 아 전 노비까지

1/NB10789228.0012.wav|뒷돈을 챙겨 왔다는 이야기가 무려 3,500 원 넘게 발견됩니다

1/NB10789228.0013.wav|뇌물로 가는 흐릿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였을까요

1/NB10789228.0014.wav|조선은 뇌물 청하였다라는 책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조정 관리가 뇌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말하자면

1/NB10789228.0015.wav|김영란 법에 조선시대 버전 짐이 될 텐데

1/NB10789228.0016.wav|당시에도 피서 논란이 나왔더군요

1/NB10789228.0017.wav|나같이 늙은 자가 음식물을 받는 것이 무엇이 해롭게 하는가

1/NB10789228.0018.wav|음식을 주고 받는 것은 해 놓을게 없는데 왜 하필 그 많은가

1/NB10789228.0019.wav|조선시대 김영란법은

1/NB10789228.0020.wav|흐지부지 드렸습니다

1/NB10789228.0021.wav|시대가 변하면서 뇌물의 종류와 청탁의 성격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

1/NB10789228.0022.wav|언젠가 유행했던

1/NB10789228.0023.wav|화문석이나 금송아지 금거북은

1/NB10789228.0024.wav|이젠 좀 촌스러운데 머리 됐고 물론 지금도 주고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

1/NB10789228.0025.wav|그거 유명 디자이너의 옷이나 골프채 값비싼 양주가 유행하던 시절을 지나서

1/NB10789228.0026.wav|최근에는 내용을 역시 슬림화 맞춤화 되고 있다고 하지요

1/NB10789228.0027.wav|김영란법이 어렵게 부케를 통과했습니다

1/NB10789228.0028.wav|언론인과 사립학교교직원 모두가 포함됐습니다

1/NB10789228.0029.wav|이뻐 중에서 자존심 같이 니들 많았을 겁니다

1/NB10789228.0030.wav|더구나 과잉입법

1/NB10789228.0031.wav|다치 비법을 잘못 휘두른다면

1/NB10789228.0032.wav|꼭 돈을 빌미로 해서 수사당국이 아무나

1/NB10789228.0033.wav|후훗 집에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

1/NB10789228.0034.wav|전화가 이것저것 빠져나가고 얼른 있는 거야 교직원들은 물타기 용으로 집어넣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

1/NB10789228.0035.wav|심지어는

1/NB10789228.0036.wav|선출직 국회의원들은 공익을 이유로 빠져나가는 조항까지 만들었다는 얘기 마저 들려 줘 제가 일부에서 보드 애들이 막아 있습니다

1/NB10789228.0037.wav|제가 전화번호 김영란법을 거론하면서 언급했던 중앙일보의 이규연 논설위원 역시 걱정은 많습니다

1/NB10789228.0038.wav|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서 출연했습니다

1/NB10789228.0039.wav|그 적용 범위를 민간 직전까지 넓히면

1/NB10789228.0040.wav|검찰이 민간 영역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

1/NB10789228.0041.wav|그렇지만

1/NB10789228.0042.wav|언론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

1/NB10789228.0043.wav|우리는 마치 숲과 같이 무성하지만

1/NB10789228.0044.wav|법에 순기능과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을 믿고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가 되겠죠

1/NB10789228.0045.wav|그래요

1/NB10789228.0046.wav|국도의 부끄러운 역사가 매듭 지어질 것이란 의미입니다

1/NB10789228.0047.wav|수없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번쯤이라도

1/NB10789228.0048.wav|걱정 투성이 법이라도 지켜보자는

1/NB10789228.0049.wav|가져보자는

1/NB10789228.0050.wav|그런 것이겠죠

1/NB10789228.0051.wav|그리고 이규현 논설위원은 이런 말로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

1/NB10789228.0052.wav|김치찌개

1/NB10789228.0053.wav|내 돈으로

1/NB10789228.0054.wav|먹어도 됩니다

1/NB10789228.0055.wav|여기서 김치찌개랑

1/NB10789228.0056.wav|기억 하시겠습니다 많은 이완구 총리 후보 시절

1/NB10789228.0057.wav|김영란법을 막아 주겠다고 소원하면서 기자들에게 샀던

1/NB10789228.0058.wav|바로 그 김치찌개

1/NB10789228.0059.wav|앵커

1/NB10791143.0000.wav|메시지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음

1/NB10791143.0001.wav|커튼

1/NB10791143.0002.wav|후

1/NB10791143.0004.wav|겉은 속편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단어

1/NB10791143.0005.wav|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무성했던 논란을 상징하듯이

1/NB10791143.0006.wav|재적의원 200 95명 가운데

1/NB10791143.0007.wav|무료 200 47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

1/NB10791143.0008.wav|그만큼 위원들의 달달한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

1/NB10791143.0009.wav|물론 예외도 한과 시행 유예 등으로 인해서

1/NB10791143.0010.wav|의원들이 법원에서 쏙쏙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만들어 놨다는 비판을

1/NB10791143.0011.wav|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

1/NB10791143.0012.wav|김영란 법은 통과됐지만 국회 문턱에 걸리거나 아예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

1/NB10791143.0013.wav|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

1/NB10791143.0014.wav|그리고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

1/NB10791143.0015.wav|어반드림

1/NB10791143.0016.wav|어제 흥미로운 장면 하나 발견했습니다

1/NB10791143.0017.wav|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란법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 수

1/NB10791143.0018.wav|송이

1/NB10791143.0019.wav|47명

1/NB10791143.0020.wav|그런데 1시간 반이 지난 뒤에

1/NB10791143.0021.wav|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

1/NB10791143.0022.wav|동백 일은 한명이었습니다

1/NB10791143.0023.wav|그러니까 1시간 반 사이에 무료

1/NB10791143.0024.wav|일은 6명 의원들이

1/NB10791143.0025.wav|어디로 오는가

1/NB10791143.0026.wav|슬그머니 사라진 겁니다

1/NB10791143.0027.wav|심지어 본회의가 마무리될 시점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의원들은 고작 51명의 불과했습니다

1/NB10791143.0028.wav|다 어디로 가셨던 건지

1/NB10791143.0029.wav|들끓었던 여론 때문이었는지 그동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큰소리를 쳐 왔던 것에 비한다면

1/NB10791143.0030.wav|정작 법안 처리 의견은 설렁설렁 했던 셈입니다

1/NB10791143.0031.wav|그런 가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방아는 법안은 아예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

1/NB10791143.0032.wav|담배를 피울 때마다 끔찍한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다

1/NB10791143.0033.wav|사실 복지가 이민 오늘을 맞추는 법 안에 두고 없어 기가 월권 논란까지 불러오면서 이렇게 흡연권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겁니다

1/NB10791143.0034.wav|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인들이 관련된 김영란법 같은 법원에는기를 쓰고 덤비던 의원들이 정작 달은 법안은 선거 때 이익집단의 표를 의식해서인지

1/NB10791143.0035.wav|설렁설렁 넘기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

1/NB10791143.0036.wav|국회 파행은 몸싸움으로 만드는게 아닙니다

1/NB10791143.0037.wav|무 책임도 국회 파행이 아닐까요

1/NB10791143.0038.wav|여당에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

1/NB10791143.0039.wav|야당 원내대표도 사과했어

1/NB10791143.0040.wav|그러나 미안하다는 말이 미안하다고 들리지 않는 이유

1/NB10791143.0041.wav|그건 왜일까요

1/NB10791143.0042.wav|저는 얼마 전 앵커 브리핑 해서 버튼을 주제로 해서

1/NB10791143.0043.wav|무대 위에 커튼이 열렸을 때 와 다쳤을 때

1/NB10791143.0044.wav|정치인들의 상반된 모습

1/NB10791143.0045.wav|지적해 드린바가 있습니다

1/NB10791143.0046.wav|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은 무대 위에 커튼이 열리면 국민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791143.0047.wav|싸우고 윽박지르는 것까지 모두 말입니다

1/NB10791143.0048.wav|그리고 커튼이

1/NB10791143.0049.wav|마치면

1/NB10791143.0050.wav|언제 그랬냐

1/NB10791143.0051.wav|서로 농담을 주고 받는 풍경이 생경하다는 어느 위원의 경험담을 전해 드렸었죠

1/NB10791143.0052.wav|혹시 76명 의원들은

1/NB10791143.0053.wav|김영란법 투표가 끝난후에 이자는

1/NB10791143.0054.wav|무대 위에 커튼이 다쳤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요

1/NB10791143.0055.wav|그렇게 생각해 등 아니면 선거 때 표고 생각해서 짐짓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

1/NB10791143.0056.wav|일은 여섯 명이나 되는 위원님들

1/NB10791143.0057.wav|대체 어디 계셔

1/NB10791143.0058.wav|앵커브리핑

1/NB10792712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792712.0001.wav|앵커브리핑

1/NB10792712.0002.wav|시작하겠습니다

1/NB10792712.0003.wav|미안하지만

1/NB10792712.0004.wav|오늘 앵커브리핑 주목한 말이

1/NB10792712.0005.wav|혼밥족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하죠

1/NB10792712.0006.wav|혼자서 15분도 안 되는 빠른 시간 동안에 밥을 먹는다는이 혼밥족

1/NB10792712.0007.wav|드로 20대 30대 젊은 층이 대부분입니다

1/NB10792712.0008.wav|독감

1/NB10792712.0009.wav|혼자 강의를 듣는 대학생이 없이 늘고 있다고 하는군요

1/NB10792712.0010.wav|심정 언제부턴가는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

1/NB10792712.0011.wav|2인 1박

1/NB10792712.0012.wav|치킨 시켜도 혼자 산다 먹기 힘든 싱글족들이

1/NB10792712.0013.wav|치킨을 같이 시킬 사람을 모집한다

1/NB10792712.0014.wav|2인 1실

1/NB10792712.0015.wav|즉 사이좋게

1/NB10792712.0016.wav|반반씩 나눠 간다는 겁니다

1/NB10792712.0017.wav|물론

1/NB10792712.0018.wav|같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

1/NB10792712.0019.wav|반반씩 나눔 뒤에

1/NB10792712.0020.wav|그냥 쿨하게 헤어진다는 거

1/NB10792712.0021.wav|개인화 파편화가 일상화된 요즘 젊은이들 답다

1/NB10792712.0022.wav|이렇게 여기 수도 있겠지만

1/NB10792712.0023.wav|차라리 혼자가 편한 이유는 무엇일까

1/NB10792712.0024.wav|자세히 들여다보면

1/NB10792712.0025.wav|마음은 안 해줍니다

1/NB10792712.0026.wav|한 취업포털 업체가 2030 세대에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

1/NB10792712.0027.wav|연애 결혼 출산

1/NB10792712.0028.wav|대인 관계

1/NB10792712.0029.wav|내 집 마련 응 가운데

1/NB10792712.0030.wav|포기하는 것이 있는가

1/NB10792712.0031.wav|10명중에 6명의 젊은이

1/NB10792712.0032.wav|고개를 끄덕였습니다

1/NB10792712.0033.wav|이 중에 절반은 결혼을 포기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

1/NB10792712.0034.wav|이 드래곤 공안 생활은 공식통계에서도 엿보입니다

1/NB10792712.0035.wav|젊은층의 가계부채증가율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

1/NB10792712.0036.wav|화면에 2 30대 2인 이상 가구의 작년도 소득 증가율은 0.7% 계속 떨어지지

1/NB10792712.0037.wav|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

1/NB10792712.0038.wav|사실상 제자리 9분 -

1/NB10792712.0039.wav|청년 실업률은 9%

1/NB10792712.0040.wav|임시직 일용직으로 취업 준비생

1/NB10792712.0041.wav|그리고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을 포함시키면

1/NB10792712.0042.wav|체감실업률

1/NB10792712.0043.wav|무료 21.8%

1/NB10792712.0044.wav|청년 5명 가운데 1명꼴인

1/NB10792712.0045.wav|다이어트 젊은층은 여기저기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

1/NB10792712.0046.wav|그저

1/NB10792712.0047.wav|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위로 하면 되는 걸까

1/NB10792712.0048.wav|미안하지만

1/NB10792712.0049.wav|나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련다

1/NB10792712.0050.wav|기형도 시인

1/NB10792712.0051.wav|시 중에 한 구절이

1/NB10792712.0052.wav|어렸을 가만히 상처 했던 시인은

1/NB10792712.0053.wav|미안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여 가면서

1/NB10792712.0054.wav|희망을 노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

1/NB10792712.0055.wav|그리고 지금 시대 역시

1/NB10792712.0056.wav|희망을 말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

1/NB10792712.0057.wav|미안하다는 말을 앞에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

1/NB10792712.0058.wav|이틀 뒤면이 젊은 신이 세상을 떠난지

1/NB10792712.0059.wav|옥이 16 주기가 됩니다

1/NB10792712.0060.wav|살아 있었다 해도 그는

1/NB10792712.0061.wav|자신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

1/NB10792712.0062.wav|자신의 다음 세대에게도

1/NB10792712.0064.wav|미안해 했을 것 같습니다

1/NB10792712.0065.wav|앵커

1/NB10797792.0000.wav|배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797792.0002.wav|장미

1/NB10797792.0003.wav|오늘 앵커브리핑

1/NB10797792.0004.wav|고른 사람이

1/NB10797792.0005.wav|작년에 개봉한 영화 카트는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질문을 던져 줬습니다

1/NB10797792.0006.wav|지금 보실이 장면 역시

1/NB10797792.0007.wav|마찬가지

1/NB10797792.0008.wav|내일 반찬 값이나 벌자고 나온 여사님들

1/NB10797792.0009.wav|누가 꼬셔 가지고

1/NB10797792.0010.wav|저 상황이 별로 나와요 반찬값 아니고

1/NB10797792.0011.wav|내 남매를 키우면서 생활비를 버는 극중 선희 씨의 대사입니다

1/NB10797792.0012.wav|반창고

1/NB10797792.0013.wav|회사가 일하는 여성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

1/NB10797792.0014.wav|그리고 생활비

1/NB10797792.0015.wav|여성노동자들이 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

1/NB10797792.0016.wav|단어 드리죠

1/NB10797792.0017.wav|박홍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곤 합니다

1/NB10797792.0018.wav|일하는 여성들의 삶을 조금만 더 들여다 볼까요

1/NB10797792.0019.wav|서울시 작년 통계를 보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서

1/NB10797792.0020.wav|경력이 단절된

1/NB10797792.0021.wav|여성의 비율은 34.2% 3명중에 한명꼴이었다

1/NB10797792.0022.wav|또 여성취업자 가운데 45.2%

1/NB10797792.0023.wav|비정규직이 없습니다

1/NB10797792.0024.wav|다른 조사 결과 보면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의 비율은 16.9%

1/NB10797792.0025.wav|남성의 두 배가 넘었고요

1/NB10797792.0026.wav|남녀간의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

1/NB10797792.0027.wav|그럼에도 불구하고

1/NB10797792.0028.wav|창업을 위해서 직장이란 전쟁터에 뛰어든 여성이

1/NB10797792.0029.wav|반찬값 즉 부업으로 나온 아줌마로 격화되고 있는 격화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

1/NB10797792.0030.wav|1930년대 나치독일의 남성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여성의 일자리를 줄이는 일종의 편법을 사용했음

1/NB10797792.0031.wav|가정으로 돌아가라

1/NB10797792.0032.wav|일자리에서 여성을 내몰았던 얘깁니다 독일이 전통적으로 규정해 온

1/NB10797792.0033.wav|세 가지의 k3 k5

1/NB10797792.0034.wav|신도

1/NB10797792.0035.wav|퀴즈

1/NB10797792.0036.wav|실행해

1/NB10797792.0037.wav|다녀 부업 교회에

1/NB10797792.0038.wav|이 세 가지 여성의 역할이 재차 강조된 것

1/NB10797792.0039.wav|이런 공식은 지금 시대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취업과 직장에서의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

1/NB10797792.0040.wav|무한 경쟁 시대에서 여성의 반찬값

1/NB10797792.0041.wav|저임금 노동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

1/NB10797792.0042.wav|그것은 남성의 영역을 침해 해서는 안된다는 이중적인 잣대가

1/NB10797792.0043.wav|생활비를 벌러 나온 여성에게

1/NB10797792.0044.wav|반창 떡 몇 분 지워 주면 되지 하는 잘못된 인식으로

1/NB10797792.0045.wav|나타나고 있다는 것이

1/NB10797792.0046.wav|자 지금쯤 뉴스룸을 보고 계시는 남성분들 가운데는

1/NB10797792.0047.wav|조금씩 반감이 저장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

1/NB10797792.0048.wav|어쩌다가 세상에 이렇게 여성만 생각해 주는 사회가 되었느냐

1/NB10797792.0049.wav|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닙니다

1/NB10797792.0050.wav|그래서 사실 이번에 앵커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도 많이 했어

1/NB10797792.0051.wav|그러나 조금만 더 냉정하게 들여다본다면 아직 우리 사회가

1/NB10797792.0052.wav|남성들의 그런 반감에 대한 여성들의 반론이 더 크게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

1/NB10797792.0053.wav|어제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

1/NB10797792.0054.wav|1908년

1/NB10797792.0055.wav|3월 8일

1/NB10797792.0056.wav|미국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

1/NB10797792.0057.wav|19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로렌스 식물공장 여성들의 파업에는

1/NB10797792.0058.wav|이런 내용의 송편 말이 등장했습니다

1/NB10797792.0059.wav|우리는 빵을 원한다

1/NB10797792.0060.wav|그리고 장미

1/NB10799837.0000.wav|시승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799837.0001.wav|과공비례

1/NB10799837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오른 단어입니다

1/NB10799837.0003.wav|지나친 공소는 측과 공은 오히려 예 어긋난다는 의미입니다

1/NB10799837.0004.wav|1년 전인 지난 2007년 4월에 저는 당시 주미 대사였던 이태식 대사와 방송에서 잠시 논쟁하는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

1/NB10799837.0005.wav|한국 정부가 국민을 대표해 사제를 표한다 슬픔을 나누고 사서 하는 듯해서 30일 동안 금식을 하자

1/NB10799837.0006.wav|기억하시죠 한국계 조승희가 저지른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 그 때 얘깁니다

1/NB10799837.0007.wav|한인회 주최 희생자 추모 예배 참석한 주미대사가 아폴로지 그리고 험블

1/NB10799837.0008.wav|이렇게 한국을 대표해서 사과를

1/NB10799837.0009.wav|물론

1/NB10799837.0010.wav|지도 회사에 바로 니었지만 놀라는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

1/NB10799837.0011.wav|도승현 오면 오면 미국인인데 나가

1/NB10799837.0012.wav|당시 우리 정부도 위로와 애도는 했지만

1/NB10799837.0013.wav|사제는 하지 않았던 것을 견주어 볼 때

1/NB10799837.0014.wav|주미 대사관은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이 나왔다

1/NB10799837.0015.wav|미국 내에서도 왜 한국에 사고를 하느냐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

1/NB10799837.0016.wav|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 국적을 가진 조승희가 저지른 범죄를 왜

1/NB10799837.0017.wav|한국이 사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없겠지요

1/NB10799837.0018.wav|관련되며 논쟁을 다시 떠올리는 이유

1/NB10799837.0019.wav|오늘 퇴원한다

1/NB10799837.0020.wav|리퍼트 중앙 밑에서를 둘러싼 과공 논란 때문입니다

1/NB10799837.0021.wav|미안한 마음이 급해서 였을까요

1/NB10799837.0022.wav|요 며칠 서울 도심은

1/NB10799837.0023.wav|I love 아메리카라는 구호가 넘쳐났습니다

1/NB10799837.0024.wav|리퍼트 대사 쾌유 기원 촛불문화제가 등장했고 부채춤과 난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

1/NB10799837.0025.wav|대통령의 제부가 직접 나서서 단식과 석고대죄까지 하면서 소 소리 너무나 미안하다 하고 있습니다

1/NB10799837.0026.wav|2분은 지금이 시간에도 석고대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

1/NB10799837.0027.wav|2015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때가 아닌 진풍경을 외신들도 못 치지 않았습니다 ap 통신 뉴욕 데일리 폭스 뉴스 등

1/NB10799837.0028.wav|귀신과 외국 방송들이 앞다투어이 장면을 소개했다

1/NB10799837.0029.wav|키키 뉴욕타임즈의 기사는

1/NB10799837.0030.wav|미국을 달 동안 우방으로 두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에게 당혹감을 안겨 줍니다

1/NB10799837.0031.wav|20만 원 한국 내일은 여러 시민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

1/NB10799837.0032.wav|숭배 가까운 이런 과한 행동들이 되게 역풍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전하고 있습니다

1/NB10799837.0033.wav|한국 정보화 지들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

1/NB10799837.0034.wav|당시 발언에 대해서 부정확한 기억으로 청취자를 옷도 한 점 사과드립니다

1/NB10799837.0035.wav|다시 확인해 보니 사과의 뜻을 포함한 표현을 했다

1/NB10799837.0036.wav|8년 전에 조승희 사건 당시

1/NB10799837.0037.wav|미국의 대리 사과를 한 것이냐 아니냐로 논란을 낳았다

1/NB10799837.0038.wav|이태식 당시 주미대사관

1/NB10799837.0039.wav|제가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논쟁하는 논쟁을 벌인 후에

1/NB10799837.0040.wav|며칠 지나지 않아서

1/NB10799837.0041.wav|청취자들에게 보내왔던 말입니다

1/NB10799837.0042.wav|그는 이렇게 깨끗하게

1/NB10799837.0043.wav|정리했던 것이

1/NB10799837.0044.wav|아마 지금쯤 이태식 전주 일에서는 좀 억울하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799837.0045.wav|최근에 벌어진 이른바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 그가 했던 말은 그야말로

1/NB10799837.0046.wav|예의 차리게 정도 있을 테니까요

1/NB10801824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01824.0001.wav|산에는 꽃이 피네

1/NB10801824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이 주목한 말입니다

1/NB10801824.0003.wav|김소월 시인의 작품 사유화의 한 구절로 알려져 있다

1/NB10801824.0004.wav|도한 법정 스님이 지난 1990년대

1/NB10801824.0005.wav|2년 동안 한 신문에 연재 회원 제목입니다

1/NB10801824.0006.wav|3월 11일 오늘은 법정 스님의 오 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많은 스님이 남긴 장면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한 우리 주고 있습니다

1/NB10801824.0007.wav|경제가 어려운 어려운 것은 큰 그릇은 만들어 놓지 않고 욕심껏 담기만 하려한 결과이다

1/NB10801824.0008.wav|입으로 하는 우리들 마음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증거이다 개체를 넘어서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

1/NB10801824.0009.wav|그래야 넉넉해진다

1/NB10801824.0010.wav|스님이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무소유 연습

1/NB10801824.0011.wav|가지는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넉넉해 준다는 것이죠

1/NB10801824.0012.wav|그러나 세상이

1/NB10801824.0013.wav|손의 주인이 욕심들을

1/NB10801824.0014.wav|요즘 들어서 더 부드러워 저만 보입니다

1/NB10801824.0015.wav|장관 집과 국회의원 집

1/NB10801824.0016.wav|양손에 떡을 신체 어느 것도 놓고 싶어하지 않는 후보자들

1/NB10801824.0017.wav|또 접대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김영란법 역시 법안을 조율 한정식 거는

1/NB10801824.0018.wav|여기저기 빠져 나올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

1/NB10801824.0019.wav|기존에 누리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 였겠죠

1/NB10801824.0020.wav|올해 임금은 1.6% 이상 올리지 말라

1/NB10801824.0021.wav|회원사의 이런 지침을 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

1/NB10801824.0022.wav|갈수록 팍팍해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은 아랑곳 않고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

1/NB10801824.0023.wav|빈손 그리고 빈 마음이 그리운 4시

1/NB10801824.0024.wav|어찌보면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

1/NB10801824.0025.wav|법정스님이 남긴 이야기들

1/NB10801824.0026.wav|다시 한번 꺼내봅니다

1/NB10801824.0027.wav|가진 것이 없으면은

1/NB10801824.0028.wav|내일이 없습니다

1/NB10801824.0029.wav|텅 빈 상태에서도 충만감 느끼는 거예요

1/NB10801824.0030.wav|예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

1/NB10801824.0031.wav|성규 보고 있어요

1/NB10801824.0032.wav|거기 울림이 있다

1/NB10801824.0033.wav|오늘 낮부터 꽃을 시스템 한다는 마지막 추위가 올라갔습니다

1/NB10801824.0034.wav|겨울이 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겠죠

1/NB10801824.0035.wav|그렇다면 이제 산에는 꽃이 피고 오면 시작되는 것일까요

1/NB10801824.0036.wav|잎을 다 떨치고 빈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보면서 생각합니다

1/NB10801824.0037.wav|다 털어 버려야만 사입 새싹이 나옵니다

1/NB10801824.0038.wav|겨울산에서 경쟁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걸 많이 배우고

1/NB10801824.0039.wav|낡은 집 떨어뜨리고 빈 몸이 됐을 때 비로소 사이판 보다 나고 꽃이 피게 되는 위치

1/NB10801824.0040.wav|자연이 가르쳐 주는 빈 손 빈 마음 h

1/NB10801824.0041.wav|어리석은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

1/NB10801824.0042.wav|아 오늘 앵커브리핑 응

1/NB10801824.0043.wav|덕분에

1/NB10801824.0044.wav|말도 세우지 않고

1/NB10801824.0045.wav|마음이 편한 거 같습니다

1/NB10801824.0046.wav|법정스님 덕분이겠죠

1/NB10801824.0047.wav|앵커브리핑

1/NB10803564.0000.wav|뉴스는 2부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03564.0001.wav|부끄러움 오늘 앵커브리핑 애정한다 넘겨

1/NB10803564.0002.wav|오늘은 부끄러운 거 두 번째 이야기 해 드리죠

1/NB10803564.0003.wav|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첫날 가능한 큰 글씨 친필 서명을 받기 위해서 주교단

1/NB10803564.0004.wav|큰 종이를 교황에게 내밀었다

1/NB10803564.0005.wav|교황은 돋보기로 봐야 할 정도의 작은 글씨로 프란치스코라고 썼다

1/NB10803564.0006.wav|모두 함께 웃었다

1/NB10803564.0007.wav|주교동

1/NB10803564.0008.wav|깨알같은 이름 때문에 웃었어

1/NB10803564.0009.wav|교황은 여백이 커서 웃었다

1/NB10803564.0010.wav|여백의 몫이란 제목의 시를 읽어 드렸습니다

1/NB10803564.0011.wav|모두 함께 웃었다 집안

1/NB10803564.0012.wav|웃음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달랐을 겁니다

1/NB10803564.0013.wav|커다란 종이를 내밀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부끄러운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테지요

1/NB10803564.0014.wav|교황의 깨어날 소명이 남긴 커다란 가르침 있습니다

1/NB10803564.0015.wav|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

1/NB10803564.0016.wav|로마 교황청을 방문하는 한국 주교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먼저 물었다는

1/NB10803564.0017.wav|질문입니다

1/NB10803564.0018.wav|고통 앞에 중립 없다는 말을 남기면서 세월호의 아픔을 보듬 어떤 표현이었습니다

1/NB10803564.0019.wav|어떤 답변을 되돌려 드려야 하는가

1/NB10803564.0020.wav|머뭇거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

1/NB10803564.0021.wav|바다 건너 먼 곳에 있었던 교황은 세월호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

1/NB10803564.0022.wav|지금이 땅에서 세월호는

1/NB10803564.0023.wav|희미한 기억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

1/NB10803564.0024.wav|공교롭게도 교황이 세월호를 언급했던 지난 9일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후 첫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

1/NB10803564.0025.wav|그러나 인력과 예산에 담긴 시행령에 대한 정보 승현이 승현이 늦춰지면서

1/NB10803564.0026.wav|규현 아직 실무진 도착 구성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

1/NB10803564.0027.wav|심지어 당내에서는 세금도

1/NB10803564.0028.wav|탐욕의 결정체라는 비난 맞아 나왔습니다

1/NB10803564.0029.wav|앞으로의 활동 역시 간단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

1/NB10803564.0030.wav|유족들이 바라고 있는 선체인양 역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죠

1/NB10803564.0031.wav|정부가 국민적 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사이에 바다 속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홉명의 실종자가 가족들을 애타게 합니다

1/NB10803564.0032.wav|아마도이 모든 이유는

1/NB10803564.0033.wav|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귀엽거든 우리가 어느결에

1/NB10803564.0034.wav|그 날을 잊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

1/NB10803564.0035.wav|1년 전 그날 차가운 4월은 다시 다가오지만

1/NB10803564.0036.wav|우리는 혹시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

1/NB10803564.0037.wav|불편하고 부끄러운 기억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은 아니니까

1/NB10803564.0038.wav|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려고 했을 때이 우주는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까

1/NB10803564.0039.wav|작가 김연수는 그날의 그 날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 속에서 이렇게

1/NB10803564.0040.wav|말하고 있습니다

1/NB10803564.0041.wav|그리고 참사 일주일을 35일 앞둔 오늘

1/NB10803564.0042.wav|세월호는 어떻게 되었나요

1/NB10803564.0043.wav|교황의 물음을 앞에 두고

1/NB10803564.0044.wav|부끄러움이라는 글자를

1/NB10803564.0045.wav|다시 한번 꺼내 들여다 봅니다

1/NB10808324.0000.wav|10시 제대로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08324.0001.wav|사우동

1/NB10808324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부른 다음에

1/NB10808324.0003.wav|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지금 한국을 가운데 놓고

1/NB10808324.0004.wav|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우선 미국은

1/NB10808324.0005.wav|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

1/NB10808324.0006.wav|벌써 부지까지 받았다면서 이름 봐서 동해로 울고 있죠

1/NB10808324.0007.wav|중국은 강력 반대하는 중입니다 보이는 레이더 체계 때문에 중국에 안방까지 다 틀린다 하는 건데

1/NB10808324.0008.wav|반대로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유 중입니다

1/NB10808324.0009.wav|미국 입장에서야 세계 경제질서가 소수의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 같으니까 환경관리가 없습니다

1/NB10808324.0010.wav|이런 두가지 사안을 놓고 양대 강국이 부딪히는 와중에

1/NB10808324.0011.wav|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

1/NB10808324.0012.wav|낙원 할까요 우리 정부는

1/NB10808324.0013.wav|이래저래 양쪽 눈치를 다 봐야 하는 그런 상황

1/NB10808324.0014.wav|기존의 제국이 쇠퇴하고 새로운 제국의 떠오르는 전환 게임하다 한반도는 늘 위기를 맞았다

1/NB10808324.0015.wav|역사학자 한 명 기씨 말입니다

1/NB10808324.0016.wav|병자호란이 일어난 1600년대 조선시대 왕

1/NB10808324.0017.wav|미국과 중국이 등받이 투가 할 거 하는 지금이

1/NB10808324.0018.wav|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

1/NB10808324.0019.wav|재조지은

1/NB10808324.0020.wav|거위 망하게 되는 것을 도와주는 은혜라는 뜻인데요

1/NB10808324.0021.wav|임진왜란 때

1/NB10808324.0022.wav|조선이 명나라의 도움 즉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

1/NB10808324.0023.wav|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펼쳤던 광해군과는 달리

1/NB10808324.0024.wav|바로 뒤를이어서 직위 한 인조 임금은 이재조 지윤을 받들면서

1/NB10808324.0025.wav|설정 안 친명배금 그러니까

1/NB10808324.0026.wav|명나라와 만치 난

1/NB10808324.0027.wav|선명한 외교노선을 정했습니다

1/NB10808324.0028.wav|후궁

1/NB10808324.0029.wav|청나라가 새로운 공부가 강제로 부상 하고 있었던 당시 정세를

1/NB10808324.0030.wav|철저히 무시한 그런 결정이었다

1/NB10808324.0031.wav|물론 지금의 미국을 당시의 명과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분명히 초강대국이

1/NB10808324.0032.wav|우리의 삶을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는

1/NB10808324.0033.wav|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

1/NB10808324.0034.wav|그렇다면 중국은

1/NB10808324.0035.wav|그렇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

1/NB10808324.0036.wav|우리나라 사람들이 끝내는

1/NB10808324.0037.wav|반드시

1/NB10808324.0038.wav|큰 소리 때문에

1/NB10808324.0039.wav|나라 일을 망치 것이다

1/NB10808324.0040.wav|1621년에 광해군이 했던 말입니다 광해군은 훗날 역사에서 왕으로 대접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긴 했지만

1/NB10808324.0041.wav|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등거리 외교 있어서만큼은

1/NB10808324.0042.wav|후세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

1/NB10808324.0043.wav|광해군이이 말을 남기고 난 후에 불과 6년 뒤에 일어나는 것이 정묘호란 이였습니다 그 뒤에는 병자호란으로 이어졌죠

1/NB10808324.0044.wav|큰 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실리를 찾으라는 얘기

1/NB10808324.0045.wav|역사에서 또 한 수 배웁니다

1/NB10810019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10019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이 고르는 말은 카타르시스 커뮤니케이션

1/NB10810019.0002.wav|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

1/NB10810019.0003.wav|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났습니다

1/NB10810019.0004.wav|3자회동 형식을 빌었지만

1/NB10810019.0005.wav|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였습니다

1/NB10810019.0006.wav|대통령의 신년 회관에서 말한 것처럼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더 원한다면 언제라도 소통가능한 시대 임에도 불구하고

1/NB10810019.0007.wav|이들의 만남에 주목받았던 이유는

1/NB10810019.0008.wav|무엇이었을까요

1/NB10810019.0009.wav|아마도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났을 때 전해지는

1/NB10810019.0010.wav|짐승과의 공간

1/NB10810019.0011.wav|이런 것들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

1/NB10810019.0012.wav|믿음 때문이었겠지요

1/NB10810019.0013.wav|그러나 만남의 명칭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여야는 결을 달리했습니다

1/NB10810019.0014.wav|통화 되는 간담회

1/NB10810019.0015.wav|야당은 영수 회담이라고 서로 못 나갔습니다

1/NB10810019.0016.wav|간담회는 대화역 구속이 없는 정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말아야 되고 야당으로서는 모처럼 만에 주어진 대통령과의 자리를 그렇게 보내고 싶지 남았겠죠

1/NB10810019.0017.wav|그렇다면 영수회담은 뭘까요

1/NB10810019.0018.wav|한자로 영은 옷깃

1/NB10810019.0019.wav|수능 속내를 말한다고 하자

1/NB10810019.0020.wav|오셔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

1/NB10810019.0021.wav|다른 뜻으로는 우두머리를 뜻한다고 합니다

1/NB10810019.0022.wav|사실 요즘은 이게 정권이 적이라고 해서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

1/NB10810019.0023.wav|차간단 회전 영수회담 2등 명칭부터 서로 올라가는 걸 보면

1/NB10810019.0024.wav|결론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

1/NB10810019.0025.wav|김현미 야당 대표 비서실장이

1/NB10810019.0026.wav|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말한 대로

1/NB10810019.0027.wav|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

1/NB10810019.0028.wav|이렇게 됐단 얘기

1/NB10810019.0029.wav|연극으로 따진다면

1/NB10810019.0030.wav|방백

1/NB10810019.0031.wav|집 무더위에 놀랐지만

1/NB10810019.0032.wav|상대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객석을 향해서 그죠

1/NB10810019.0033.wav|하고 싶은 말만 하냐

1/NB10810019.0034.wav|독백 또한 현방 101 한 겁니다

1/NB10810019.0035.wav|근데 우리에게 이런 정치인들의 방 100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

1/NB10810019.0036.wav|오히려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

1/NB10810019.0037.wav|자 이쯤에서 다시 꺼냅니다 카타르시스 커뮤니케이션

1/NB10810019.0038.wav|3시 드립니다 너와 함께 오늘 앵커브리핑의 결론으로 들어가 보자

1/NB10810019.0039.wav|우리 정치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

1/NB10810019.0040.wav|정말 진심으로

1/NB10810019.0041.wav|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있어왔던 것인가

1/NB10810019.0042.wav|그게 아니라 단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

1/NB10810019.0043.wav|지지를 더 결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만

1/NB10810019.0044.wav|사용해왔던 것은 아닌가

1/NB10810019.0045.wav|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의 소통은

1/NB10810019.0046.wav|앞에 있는 상대가 아니야

1/NB10810019.0047.wav|자신의 주위에 있는 지지자들 만향

1/NB10810019.0048.wav|역방향의 커뮤니케이션

1/NB10810019.0049.wav|아니었던가

1/NB10810019.0050.wav|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

1/NB10810019.0051.wav|대표회담 일하는 거 찾는 정치적 합의는

1/NB10810019.0052.wav|반대자들을 향한 선택이 아닌 단지

1/NB10810019.0053.wav|지지자들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

1/NB10810019.0054.wav|우리의 정치를 너무 착하게만 들여다보는 걸까

1/NB10810019.0055.wav|앵커

1/NB10811862.0000.wav|배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11862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을 부르는 말은

1/NB10811862.0002.wav|5달러의 날입니다

1/NB10811862.0003.wav|반가운 봄비가 마른 흙의 갈증을 풀어 주는 날입니다 답답한 경기 상황 역시 이렇게 봄비를 하듯이 풀어야 하는데

1/NB10811862.0004.wav|마음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

1/NB10811862.0005.wav|경기가 가물어서일까요 업무를 의미하는 경제 용어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

1/NB10811862.0006.wav|낙수효과 그리고 분수효과

1/NB10811862.0007.wav|영어식 표현 만 봐도

1/NB10811862.0008.wav|다음과 이렇게 정반대 단어가 눈에 띄는군요

1/NB10811862.0009.wav|먼저 낚시 효과는 매우 익숙한 말이지요 전화는 정보가 마치 유행어처럼 사용했습니다 기업이 잘 돌아가면

1/NB10811862.0010.wav|그 과실이 물방울 떨어지듯이 아래로 뚝뚝 떨어져서

1/NB10811862.0011.wav|서민경제를 풍요롭게 적셔준 다하는 것이 낙수효과의 놀립니다

1/NB10811862.0012.wav|그러나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듯이 낚시 효과는 없었습니다

1/NB10811862.0013.wav|물이 넘치면 아래로 흘러야 하는데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려해서 사내유보금을 담은 물 그릇만 더 크게 만들었던 것이죠

1/NB10811862.0014.wav|그래서 나온 것이

1/NB10811862.0015.wav|분수효과 및

1/NB10811862.0016.wav|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14년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는

1/NB10811862.0017.wav|노동자의 1급을 2.3 달러에서 5달러로 두 배 이상 파격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

1/NB10811862.0018.wav|놀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급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한다는

1/NB10811862.0019.wav|그래야 기억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

1/NB10811862.0020.wav|우리 정부 역시 연일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라고 요청중입니다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

1/NB10811862.0021.wav|모두 분수효과

1/NB10811862.0022.wav|기대하는 놀릴 겁니다

1/NB10811862.0023.wav|그러나 기업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더 꺼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데다가 우리 인구 5000만 명으로는 내수가 아무리

1/NB10811862.0024.wav|활성화된다 해도

1/NB10811862.0025.wav|크게 차감이 되지 않는다

1/NB10811862.0026.wav|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

1/NB10811862.0027.wav|물론 이건 따져봐야 할 그런 주장 얘기는 합니다만

1/NB10811862.0028.wav|그러나 임금 문제 예민한

1/NB10811862.0029.wav|유난히 재미나죠 어 그런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살펴보면

1/NB10811862.0030.wav|기업의 고충 표적 핑계라고 뭐라 붙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

1/NB10811862.0031.wav|하지만

1/NB10811862.0032.wav|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

1/NB10811862.0033.wav|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덧붙여 볼까 합니다

1/NB10811862.0034.wav|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에 월마트의 임금인상 결정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

1/NB10811862.0035.wav|월마트 앱 보이는 손이

1/NB10811862.0037.wav|월마트 보이는 손 이제 목에 칼럼에서 말한 것은

1/NB10811862.0038.wav|월마트 임금인상이 우리가 달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

1/NB10811862.0040.wav|월마트가 직접

1/NB10811862.0041.wav|자신의 보이는 손으로

1/NB10811862.0042.wav|임금을 올렸다는 거죠

1/NB10811862.0043.wav|이것은 크게 옛날 1914년 1월 5일에 헨리 포드가 5달러에 날이 선포하면서 노동자의 봉급을 두 배로 늘린 사건

1/NB10811862.0044.wav|어찌 보면 그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

1/NB10811862.0045.wav|Bob

1/NB10811862.0046.wav|자신들의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

1/NB10811862.0047.wav|노동자들의 봉급이 뭔지 올리는

1/NB10811862.0048.wav|고이는 손이 되는 것 말입니다

1/NB10811862.0049.wav|물론

1/NB10811862.0050.wav|조심스럽게 너프 쉰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

1/NB10811862.0051.wav|겨우겨우 지혜라는 중소기업인

1/NB10811862.0052.wav|아니면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

1/NB10811862.0053.wav|이건 정말 남의 얘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

1/NB10811862.0054.wav|앵커브리핑 오늘 그런 고민

1/NB10813663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었습니다

1/NB10813663.0001.wav|토미 크롱과

1/NB10813663.0002.wav|글동무

1/NB10813663.0003.wav|유럽 최대 대중음악 경연대회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오래 스웨덴 예선에서 의외의 인물이 화제가 됐습니다

1/NB10813663.0004.wav|이 사람 이름은

1/NB10813663.0005.wav|코믹 크롱이

1/NB10813663.0006.wav|이른바 훈남도 아닌 것 같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데

1/NB10813663.0007.wav|크롱 신드롬이란 말이 나왔을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

1/NB10813663.0008.wav|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

1/NB10813663.0009.wav|잠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

1/NB10813663.0011.wav|크롱의 직업은 수화 통역사였습니다 대회에 나온 가수의 노래를 수화로 통역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

1/NB10813663.0012.wav|크롱은 가수보다 더 풍부한 표정과 몸짓으로 열심히

1/NB10813663.0013.wav|노래를 표현했습니다

1/NB10813663.0014.wav|노래를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노래의 느낌까지 전하고 싶었다

1/NB10813663.0015.wav|그러게 들리지 않은 노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

1/NB10813663.0016.wav|박수를 보냈습니다

1/NB10813663.0017.wav|또 다른 통역 아닌 통역도 있습니다 한 광고 기획사가 탈북 학생들을 위해서

1/NB10813663.0018.wav|글동무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

1/NB10813663.0019.wav|남한 말을 북한 말로 바꿔 주는 프로그램인데

1/NB10813663.0020.wav|요즘 이런 겁니다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

1/NB10813663.0021.wav|개구쟁이는 발견

1/NB10813663.0022.wav|햄버거는

1/NB10813663.0023.wav|고기겹빵

1/NB10813663.0024.wav|이런 식으로

1/NB10813663.0025.wav|북한 식의 단어와 뜻풀이를 알려 주는 겁니다

1/NB10813663.0026.wav|거짓말은 낯설어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기분 좋은 배려입니다

1/NB10813663.0027.wav|지금 설명해 드린

1/NB10813663.0028.wav|이 두가지 의사를 놓고 본다면 통역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

1/NB10813663.0029.wav|마음을 옮겨서

1/NB10813663.0030.wav|공감을 전하는 작업일 수도 있어

1/NB10813663.0031.wav|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도 같은 오늘을 쓰지만 통역이 필요한 일이

1/NB10813663.0032.wav|너무나 많습니다

1/NB10813663.0033.wav|오늘 경남도지사가 표제를 통해서 학교무상급식 중단을 결정했죠

1/NB10813663.0034.wav|물론 논란이 커집니다

1/NB10813663.0035.wav|학교 급식을 두고 1편에서는 공짜다

1/NB10813663.0036.wav|다른 한편에서는

1/NB10813663.0037.wav|권리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

1/NB10813663.0038.wav|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나던 2명의 정신 역시 같은 언어로 대화였지만

1/NB10813663.0039.wav|얼굴 보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

1/NB10813663.0040.wav|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3자회동 역시 만남은 만남이 돼 서로간에 해석은 달랐습니다 명칭부터 달라지니까요

1/NB10813663.0041.wav|손바닥이 앞과 뒤는

1/NB10813663.0042.wav|한 몸이지만

1/NB10813663.0043.wav|뒤집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가장 먼 사이

1/NB10813663.0044.wav|뒤집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걸 싶지만

1/NB10813663.0045.wav|뒤집기 전에는 구하는게 멀기만 하다

1/NB10813663.0046.wav|소설가박완서 선생이 남긴 말입니다

1/NB10813663.0047.wav|한국사회는 한 몸이면서도 뒤집지 않고는 볼 수 없는

1/NB10813663.0048.wav|뭔 소리

1/NB10813663.0049.wav|심정은 뒤집어버려 보도하지 않는

1/NB10813663.0050.wav|멀고 먼 산

1/NB10813663.0051.wav|따지고 보면 정치인들 만 그런 것도 아니고

1/NB10813663.0052.wav|세대 간에도 계층 간의

1/NB10813663.0053.wav|지역 간의

1/NB10813663.0054.wav|그렇게 돼 가는 것은 아닙니다

1/NB10813663.0055.wav|우리에게 도움이 크롱 그리고 그 동무와 같은 존재는 없는가를

1/NB10813663.0056.wav|간절히 생각하게 하는 오늘입니다

1/NB10818396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18396.0001.wav|2명의 아빠와 3명의 아이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

1/NB10818396.0002.wav|안전 시설도 관리도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시설

1/NB10818396.0003.wav|자 그렇다면 그 죽음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

1/NB10818396.0004.wav|주말 사이에 모두들 참담했습니다

1/NB10818396.0005.wav|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또이 사건을 기억할까요

1/NB10818396.0006.wav|얼마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

1/NB10818396.0007.wav|지금부터 증명해 드리고

1/NB10818396.0008.wav|작년 11월에 열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펜션 바베큐장이 화재사고

1/NB10818396.0009.wav|정보는

1/NB10818396.0010.wav|전국 숙박 시설을 일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

1/NB10818396.0011.wav|이렇게 일만 터지면 모조리 조사한다고

1/NB10818396.0012.wav|우현

1/NB10818396.0013.wav|이렇게 모아니면도인 것 같습니다

1/NB10818396.0014.wav|화분이 잊지 않고 하나 하나 개설해 나가고 그걸 다시 점검 하는 것이 아니라

1/NB10818396.0015.wav|일단 모조리 조사하고 처벌한다고 함

1/NB10818396.0016.wav|법을 만든다고 온통 시끄럽게 한 다음에

1/NB10818396.0017.wav|다시 잊어버림

1/NB10818396.0018.wav|열고 해 볼까요

1/NB10818396.0019.wav|어린이집 확대가 문제가 되니까

1/NB10818396.0020.wav|어린이집을 모조리 조사한다고

1/NB10818396.0021.wav|매 학기 초과되면 학교 폭력 전수조사가 이루어져

1/NB10818396.0022.wav|어린이 통학 차량 이사하고 가니까 통합 차량을 모조리 조사했습니다

1/NB10818396.0023.wav|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

1/NB10818396.0024.wav|고령 선박을 모조리 조사한다

1/NB10818396.0025.wav|그렇게 해서 전부 뜯어 고치고 이제 했지만

1/NB10818396.0026.wav|그 결과는 어떨까요

1/NB10818396.0027.wav|어린이집 확대는 여전히 뉴스가 되고 있고

1/NB10818396.0028.wav|통학버스 로세릴 코난 뒤에 세림이법 바지 만들었지만

1/NB10818396.0029.wav|우리는 얼마 전에 또 다른 세림이를 잃었다

1/NB10818396.0030.wav|세월호 이후에도 노후 선박은 여전해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 드렸습니다

1/NB10818396.0031.wav|변죽만 요란하게 올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많은 사례 드립니다

1/NB10818396.0032.wav|이번에도 전국의 야영시설

1/NB10818396.0033.wav|모조리 조사한다고 했습니다

1/NB10818396.0034.wav|그런데 전국 야영장 수가 몇 개인지 정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

1/NB10818396.0035.wav|반지 1,800여개 쯤 된다고 추정할뿐입니다

1/NB10818396.0036.wav|그나마 법적으로 등록되서 관리되고 있는 곳은 230여 곳에 불과합니다

1/NB10818396.0037.wav|산과들로 500만 캠핑 인구가 붐비기 시작한지 오래됐고

1/NB10818396.0038.wav|국립재난연구원이 430개 캠핑장을 점검 했더니 꼴찌 등급을 받은 것이 무료 341

1/NB10818396.0040.wav|위험한 곳이 80%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

1/NB10818396.0041.wav|2년 전에 이름이

1/NB10818396.0043.wav|오늘 국민안전처는 또다시 야영장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

1/NB10818396.0044.wav|어떤 결과가 나올지

1/NB10818396.0045.wav|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

1/NB10818396.0046.wav|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사건이 지나면 이런 걱정도 기대도 또 잊혀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

1/NB10818396.0047.wav|가장 잘 안다는 것

1/NB10818396.0048.wav|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 코너가 하나 있었습니다

1/NB10818396.0049.wav|변방의 북소리 란 것이 있어

1/NB10818396.0050.wav|국경인 저 멀리 변방으로부터 들려오는 북소리는 날아갈 위기에서 했으니까 대비하라는 뜻이지

1/NB10818396.0051.wav|이 코너로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심형래 쓰는

1/NB10818396.0052.wav|위급한 상황에서도 뒤 북과 엉뚱한 대응으로 폭소를 자아냈다

1/NB10818396.0053.wav|심형래 쓰는 지워 보다도 변방의 북소리로 한국사회의 기회였다 이름 평가도 일부에선 하더군요

1/NB10818396.0054.wav|이 코너의 주장은 아마도

1/NB10818396.0055.wav|뒷북 치지 말자 아는 것이 아니었을까

1/NB10818396.0056.wav|또한 시끌벅적하게 뒤집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

1/NB10818396.0057.wav|조용 하더라도 확실하게 점검하고 또

1/NB10818396.0058.wav|무엇보다도

1/NB10818396.0059.wav|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었을까

1/NB10818396.0060.wav|생각해 봅니다

1/NB10820329.0000.wav|내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20329.0001.wav|오늘 앵커브리핑은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

1/NB10820329.0002.wav|오늘 하루 많이 웃으셨습니다

1/NB10820329.0003.wav|직장상사에게 너 가족에게 존중 받으면서 지내셨는지요

1/NB10820329.0004.wav|그리고

1/NB10820329.0005.wav|내일이 기다려 질만큼 오늘 하루는 즐거우셨습니까

1/NB10820329.0006.wav|며칠 전에 3월 21일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었습니다이 날을 맞아서 한 여론조사기관인

1/NB10820329.0007.wav|세계 143 개국의 사람들에게

1/NB10820329.0008.wav|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

1/NB10820329.0009.wav|얼마나

1/NB10820329.0010.wav|행복한

1/NB10820329.0011.wav|결과는 어땠을까요

1/NB10820329.0012.wav|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

1/NB10820329.0013.wav|100점 만점에

1/NB10820329.0014.wav|59 점이었습니다

1/NB10820329.0015.wav|6시 정도 안 되는 거지

1/NB10820329.0016.wav|세계 평균점수가 71점이라고 하니까

1/NB10820329.0017.wav|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데다가

1/NB10820329.0018.wav|행복 순위는 143개 나라 가운데 118

1/NB10820329.0019.wav|그러니까 뒤에서 새는게 훨씬 더 빠른 수준이었습니다

1/NB10820329.0020.wav|가장 행복감이 높았던 나라는 파라과이 에콰도르 과테말라 이런 중남미 국가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

1/NB10820329.0021.wav|그닥 잘사는 나라들은 아닐텐데

1/NB10820329.0022.wav|왜일까요

1/NB10820329.0023.wav|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이 행복감 조선은 GDP 나라가 얼마나 부자 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게 아니라

1/NB10820329.0024.wav|하루하루 사는 재미가 있는가

1/NB10820329.0025.wav|사람들의 일상의 행복도를 조사 했기 때문이었다

1/NB10820329.0026.wav|화면에 이름

1/NB10820329.0027.wav|국민행복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행복감은

1/NB10820329.0028.wav|세계 바닥 번인 셈입니다

1/NB10820329.0029.wav|그렇다면 행복한 마음이 보통 들지 않는다는 사람들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

1/NB10820329.0030.wav|경제학자인

1/NB10820329.0031.wav|경북대 이정우 교수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

1/NB10820329.0032.wav|우리 형제

1/NB10820329.0033.wav|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

1/NB10820329.0035.wav|이정우 교수는 옳지 않은 경제구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

1/NB10820329.0036.wav|국가가 부자가 되더라도 또 기업이

1/NB10820329.0037.wav|오늘 많이 벌더라도

1/NB10820329.0038.wav|열심히 일한만큼 혹은 노력한만큼

1/NB10820329.0039.wav|공정하게 나눠지지 않는 사회

1/NB10820329.0040.wav|회사를 위해서 가족의 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카페 사회

1/NB10820329.0041.wav|경쟁과이기 십만을 강조하는 오른쪽에 경제학의 아니

1/NB10820329.0042.wav|옳은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얘기야

1/NB10820329.0043.wav|아마도 이것이

1/NB10820329.0044.wav|결과

1/NB10820329.0045.wav|곰이 공존하는 지금의 계절

1/NB10820329.0046.wav|좀처럼 따뜻한 봄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820329.0047.wav|행복함에 대한 얘기 하다가 결국 이렇게 우울한 매듭이 된다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군요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마무리

1/NB10820329.0048.wav|올해 유현이 정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래 여섯 곡 중에 한 곡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5시간 만든다면 약속을 다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한 곡만 리틀버드라는 곡인데 1977년에 나온 밥 말리의 노래가 잠깐만 좀 들어 볼까요 예 그리고 내일 하루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커브리핑

1/NB10821986.0000.wav|메시지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알바

1/NB10821986.0001.wav|정신이 아득할만큼 힘든 노동이 아니라 쉽게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

1/NB10821986.0002.wav|그야말로 꿀같은 아르바이트 방법을 말한다고 하는군요 요즘 신조어 옵니다 그런데

1/NB10821986.0003.wav|말이 쉽게이지

1/NB10821986.0004.wav|자칫 몸을 축낼 수도 있는 알바가 있습니다

1/NB10821986.0005.wav|매혈

1/NB10821986.0006.wav|임상시험을 왜 필요 뽑는다고 하는군요

1/NB10821986.0007.wav|아르바이트 거리를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거리 하나로는 견뎌내기 힘든 학생들

1/NB10821986.0008.wav|이런 식의 꿀 알바를 찾는다고 합니다

1/NB10821986.0009.wav|그리고 이건 비단 요즘에 얘기는 아닙니다

1/NB10821986.0010.wav|지난 1955년

1/NB10821986.0011.wav|60년 전이죠 영등포공고 야간 학교에 다니는 신동균이란 학생이 있었습니다

1/NB10821986.0012.wav|고 학생이었던 친구는 아버지의 제사 비를 마련 하기 위해서 이른바

1/NB10821986.0013.wav|메이저를 결정합니다

1/NB10821986.0014.wav|401g에 18자리

1/NB10821986.0015.wav|은행의 피리 파는 행렬에 동참한 것이죠

1/NB10821986.0016.wav|그거 피를 팔아서 돈을 주인은 친구는 결국 고향에 가지는 못 했습니다

1/NB10821986.0017.wav|사고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제 끝내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

1/NB10821986.0018.wav|당시의 어려운 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여서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혈액 은행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정도였다고 하지

1/NB10821986.0019.wav|자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쪽으로뿐입니다

1/NB10821986.0020.wav|메일을 일삼는 사람을 쪼로 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군요

1/NB10821986.0021.wav|유리병 속에 피가 들어갔다 나는 그 소리 그 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

1/NB10821986.0022.wav|그쪽으로 일한 의성은 얼마나

1/NB10821986.0023.wav|가슴이 짠하네 소리 없을까요

1/NB10821986.0024.wav|중국작가 위화의 작품 허삼관 매혈기 속에도 상관이라는 가난한 노동자가 가족을 위해서 매혈

1/NB10821986.0025.wav|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

1/NB10821986.0026.wav|tv 팟 날 화성 가는 식당을 찾아 가서 이렇게 주문합니다

1/NB10821986.0027.wav|볶은 돼지 간 한접시와 황주 2년

1/NB10821986.0029.wav|광주는 따뜻하게 데워서

1/NB10821986.0030.wav|가난한 시대를 현재 내가 했던 이들이 갖고 있는 비릿하고 아픈 추억이 될 겁니다

1/NB10821986.0031.wav|앞서 일부 리포트에서 임상시험을 위해서 피를 뽑는 학생들의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

1/NB10821986.0032.wav|이들의 모습에서 그 시절 비슷한 냄새를 맡았다고 한다면 글쎄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되는 걸까요

1/NB10821986.0033.wav|후 잡이 가능한데다가 보수가 높아서 돈이급할때 한다는 학생들의 얘기는

1/NB10821986.0034.wav|나이 많은 세대의 마음을

1/NB10821986.0035.wav|부끄럽고 또 미안하게 합니다

1/NB10821986.0036.wav|밤 기차를 탄다

1/NB10821986.0037.wav|피를 팔아서

1/NB10821986.0038.wav|함박눈 내리는데 피를 팔아서

1/NB10821986.0039.wav|뚝배기에 담긴 순두부를 사 먹고

1/NB10821986.0040.wav|어머님께 팥죽 한 그릇 수 올림

1/NB10821986.0041.wav|동짓날 밤 기차를 탄다

1/NB10821986.0042.wav|눈이 내린다

1/NB10821986.0043.wav|시인 정호승의 내 혈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

1/NB10821986.0044.wav|물론 지금의 이름 바꿀 알바와 그 옛날 처절했던 혈기를 갔다고 얘기할 순 없을 겁니다 또

1/NB10821986.0045.wav|임상시험을 위해서 필요 뽑는다는 요즘에 많이 허리

1/NB10821986.0046.wav|예전에 그 매실과 같을 순 없겠죠

1/NB10821986.0047.wav|그러나

1/NB10821986.0048.wav|시대가 다르고

1/NB10821986.0049.wav|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한다

1/NB10821986.0050.wav|자신의 피를

1/NB10821986.0051.wav|돈과 바꿔야 하는 그 짠 하면

1/NB10821986.0052.wav|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

1/NB10821986.0053.wav|어찌 보면

1/NB10821986.0054.wav|모두가 비슷하게 못 살던 시대의 맥을 보다는

1/NB10821986.0055.wav|이렇게 100층이 상해 빌딩이 올라가는 시대 의리

1/NB10821986.0056.wav|한결 더 애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821986.0057.wav|신정호 생일 탔던 동짓날 밤에 기차

1/NB10821986.0058.wav|아직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

1/NB10821986.0059.wav|앵커브리핑

1/NB10823695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23695.0001.wav|오 나의 선재

1/NB10823695.0002.wav|오늘의 단어

1/NB10823695.0003.wav|예 조선 순조 시기에 효명세자의 입학식을 기록한 왕세자입학도첩을 보고 계십니다

1/NB10823695.0004.wav|당신은 상차 왕위에 오를 왕세자도 스승 앞에서는 예의를 지켜야만 했습니다

1/NB10823695.0005.wav|저 낮은 서쪽 계단을 이용해서

1/NB10823695.0006.wav|책상도 사용하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서

1/NB10823695.0007.wav|책을 읽었다고 합니다

1/NB10823695.0008.wav|스승을 그만큼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의미의 배치

1/NB10823695.0009.wav|얼마 전에 한 교수가 쓴 칼럼에 나온 문장을 볼까요

1/NB10823695.0010.wav|교수와 학생은

1/NB10823695.0011.wav|갑을 관계가 아니라 사제지간입니다

1/NB10823695.0012.wav|물론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교수와 학생은

1/NB10823695.0013.wav|스승과 제자 사이라는

1/NB10823695.0014.wav|모르는 사람이 없는

1/NB10823695.0015.wav|매우 당연한 말이지요

1/NB10823695.0016.wav|그럼에도 불구하고이 교수가이 말을 강조한 이유

1/NB10823695.0017.wav|무엇이었을까요

1/NB10823695.0018.wav|요즘 대학에서는

1/NB10823695.0019.wav|스승이란 말 너 존경이란 단어 함부로 꺼내기가 참 민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

1/NB10823695.0020.wav|제자를 성추행하는 교수와

1/NB10823695.0021.wav|쉬쉬하며 덮으려는 학교

1/NB10823695.0022.wav|또 불이익을 위해서 침묵해야만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

1/NB10823695.0023.wav|JTBC 보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

1/NB10823695.0024.wav|GB를 이용한 대학내 교수들의 이런 갑질은

1/NB10823695.0025.wav|다른 교수들의 얼굴마저 화끈거리게 만들어

1/NB10823695.0026.wav|또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가 선정한 이달의 스승을 둘러싼 논란

1/NB10823695.0027.wav|3월에 수송으로 선정된

1/NB10823695.0028.wav|최규동 전 서울대 총장의 친일 논란이 붉어져서 황급히 선정에 취소됐습니다

1/NB10823695.0029.wav|국사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검진 결과

1/NB10823695.0030.wav|교육부가 손정한 이달의 스승 그러니깐 3 4 5 6

1/NB10823695.0031.wav|매달 1명씩 지명을 해서 1년 동안 12명이 되는 겁니다

1/NB10823695.0032.wav|그 12명 가운데 무려 여덟 명

1/NB10823695.0033.wav|친일 논란에 휩싸였다

1/NB10823695.0034.wav|아 이렇게 보면

1/NB10823695.0035.wav|왜 이렇게 스승이 없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죠

1/NB10823695.0036.wav|근데 한편 이런 바로 나오더군요

1/NB10823695.0037.wav|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도 일본군 정령 당시 통역을 했듯이

1/NB10823695.0038.wav|상규 형 친일인지 여부를 고려해봐야 한다

1/NB10823695.0039.wav|리콴유

1/NB10823695.0040.wav|네가 여기서 무슨 상관 있는지

1/NB10823695.0041.wav|5분 또 이런 놀이라면

1/NB10823695.0042.wav|실로 비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지적도 나왔다

1/NB10823695.0043.wav|교육부는 야당에서 맞더라도 사업은 계속 하겠다라고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어

1/NB10823695.0046.wav|영훈아 유명한 장면이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

1/NB10823695.0047.wav|클라이맥스 장면

1/NB10823695.0048.wav|학생들은 학교를 떠나는 키팅선생을 당해서 오캡틴마이캡틴

1/NB10823695.0049.wav|오 나의 영혼의 선장

1/NB10823695.0050.wav|이렇게 진짜

1/NB10823695.0051.wav|많은 사람들이 영화 속에 키팅의 모습에 감동을 했고

1/NB10823695.0052.wav|작년에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

1/NB10823695.0053.wav|모두 함께 안타까워요

1/NB10823695.0054.wav|교육부 가정 아니 달에 스솔 보면서 남의 나라 영화 속에 나오는 스승을 생각해야 하는 심정

1/NB10823695.0055.wav|착잡함

1/NB10828567.0000.wav|메시지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28567.0002.wav|호모욕쿠스

1/NB10828567.0003.wav|오늘 저희들이 주목한다

1/NB10828567.0004.wav|지난 주말에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

1/NB10828567.0005.wav|사드 배치 논란 아니면

1/NB10828567.0006.wav|방위사업청

1/NB10828567.0007.wav|글쎄요

1/NB10828567.0008.wav|그렇다면 신청자가 복귀했던 안심전환대출

1/NB10828567.0009.wav|모두 아니었습니다

1/NB10828567.0010.wav|다름 아닌 두 여성 연예인의

1/NB10828567.0011.wav|욕 댓거리 한 판이 아니었을까요

1/NB10828567.0012.wav|실시간 검색어에서 내려온 줄 몰랐던 두 사람의 소동은 먼저 욕을 했다는 여배우의 사과로 한동안 잠잠해졌다

1/NB10828567.0013.wav|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

1/NB10828567.0014.wav|누가 먼저 도발 했나 또 누가 더 잘못했나로드고 수도 없는 기사와 댓글이 이어졌죠

1/NB10828567.0015.wav|이 댓거리 한 판을 보면서

1/NB10828567.0016.wav|얼마 전 한 시청자가 보내주신 문자를 떠올렸습니다

1/NB10828567.0017.wav|3학년 딸아이의 반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 보내신 문자 했습니다

1/NB10828567.0018.wav|이 꼬마 우리는

1/NB10828567.0019.wav|나이에 걸맞지 않게

1/NB10828567.0020.wav|저희 앵커브리핑을 자주 봐서인지

1/NB10828567.0021.wav|반장 선거 출마 연설을

1/NB10828567.0022.wav|오늘 제가 주목한다 너는 이렇게 시작했다고

1/NB10828567.0023.wav|그 어머님께서는 대견해 하셨습니다

1/NB10828567.0024.wav|자 내용을 좀 보실까요

1/NB10828567.0025.wav|반장 선거에 나온 이라희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한다 너는 욕입니다

1/NB10828567.0026.wav|5 6학년 언니 오빠들 보면 욕을 정말 많이 합니다

1/NB10828567.0027.wav|아마도 3 4학년 때가

1/NB10828567.0028.wav|욕을 배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

1/NB10828567.0029.wav|욕을 쓰지 않고

1/NB10828567.0030.wav|노력합시다

1/NB10828567.0031.wav|노력합니다라고 오타가 나왔습니다이 와중에 오타가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

1/NB10828567.0032.wav|아

1/NB10828567.0033.wav|자국이 이다희 어린이는

1/NB10828567.0034.wav|반장에 당선됐다고 함

1/NB10828567.0035.wav|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강해 보이려고

1/NB10828567.0036.wav|요것은라고 말을 합니다

1/NB10828567.0037.wav|어린 시절부터

1/NB10828567.0038.wav|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세상에서의 언어는

1/NB10828567.0039.wav|더욱 살벌해지고 첫 박해진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828567.0040.wav|그렇게 우리는 요구르트는 것에 익숙해졌고

1/NB10828567.0041.wav|자신의 지각으로 언어를 통제해야 하는 나이가 돼서

1/NB10828567.0042.wav|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어

1/NB10828567.0043.wav|이번에 화제가 된 욕 달거리가 비단풀 여성의 댓거리 정도로 끝나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

1/NB10828567.0044.wav|그리고 또 하나

1/NB10828567.0045.wav|부여성 의욕 댓거리에서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의 축소판을 발견했다면

1/NB10828567.0046.wav|지나친 걸까

1/NB10828567.0047.wav|더 맘에 안 드시죠

1/NB10828567.0048.wav|와

1/NB10828567.0049.wav|너 어디서 반말이니

1/NB10828567.0050.wav|나는 마리

1/NB10828567.0051.wav|주말사이에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

1/NB10828567.0052.wav|며칠 사이에

1/NB10828567.0053.wav|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패러디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다 알아

1/NB10828567.0054.wav|반응도 한 켠에 있었지만

1/NB10828567.0055.wav|그래서 뭔가 씁쓸하다는 느낌이 다른 한편에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

1/NB10828567.0056.wav|역지사지가 없는 자기 중심적 사고 권위주의

1/NB10828567.0057.wav|또 비아냥

1/NB10828567.0058.wav|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속성들이 아니었던가

1/NB10828567.0059.wav|물론 욕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

1/NB10828567.0060.wav|요기에 층이나 몸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

1/NB10828567.0061.wav|그러나 그것이 목회와 불통 해산물이 돼

1/NB10828567.0062.wav|용이라는 사회학적 의미는

1/NB10828567.0063.wav|전혀 달라집니다

1/NB10828567.0064.wav|호모욕쿠스

1/NB10828567.0065.wav|욕해야 사는 인구

1/NB10828567.0066.wav|욕 확정되는 이런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

1/NB10828567.0067.wav|욕에 대해서 고민한 저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

1/NB10828567.0068.wav|욕해야 사는 인간이라면

1/NB10828567.0069.wav|제때

1/NB10828567.0070.wav|제대로 합시다

1/NB10828567.0071.wav|호모욕쿠스

1/NB10828567.0072.wav|욕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

1/NB10828567.0073.wav|욕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

1/NB10828567.0074.wav|제때 제대로

1/NB10828567.0075.wav|앵커브리핑

1/NB10830166.0000.wav|칫솔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30166.0001.wav|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

1/NB10830166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말입니다

1/NB10830166.0003.wav|사람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

1/NB10830166.0004.wav|지난 2010년에 영국 런던 과학 박물관이 조서를 해 봤더니

1/NB10830166.0005.wav|영국의 남성들은 하루에 세 번 꼴

1/NB10830166.0006.wav|여성은 하루에 두 번 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

1/NB10830166.0007.wav|한해로 따져 보면

1/NB10830166.0008.wav|남자는 1년에

1/NB10830166.0009.wav|1092

1/NB10830166.0010.wav|여성은

1/NB10830166.0011.wav|728 번이라고 하는구나

1/NB10830166.0012.wav|차가버섯 오라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

1/NB10830166.0013.wav|사실 거짓말은 때로는 삶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예를 들어 드릴까요

1/NB10830166.0014.wav|독일의 위르겐 슈미더라는 기자는

1/NB10830166.0015.wav|40일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

1/NB10830166.0016.wav|그 경험담을 책으로 냈는데

1/NB10830166.0017.wav|거짓말 없이 산 41은 그야말로 좌충우돌이었습니다

1/NB10830166.0018.wav|친구가 바람피운 이야기를 폭로해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

1/NB10830166.0019.wav|아 내가 해준 음식을 맛 없다고 했다가 이혼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

1/NB10830166.0020.wav|거짓말 없이 산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

1/NB10830166.0021.wav|몸으로 증명한 셈이죠

1/NB10830166.0022.wav|글쎄요 왜 40일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100일 정도로 했다며

1/NB10830166.0023.wav|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 파탄 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

1/NB10830166.0024.wav|어제 앵커브리핑 해서 욕도 사람 사는 데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

1/NB10830166.0025.wav|그러나 제때에 제대로 해야 한다

1/NB10830166.0026.wav|이렇게 주장한 책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

1/NB10830166.0027.wav|거짓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

1/NB10830166.0028.wav|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드리죠

1/NB10830166.0029.wav|지난 2003년 작 굿바이 레닌이라는 독일 영화가 있습니다

1/NB10830166.0030.wav|동독의 열성당원이 어떤 주인공의 어머니는

1/NB10830166.0031.wav|독일 통일 직전에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몇 달 뒤에 깨워 났을 때는 동서도기 이미 통일된 상태였습니다

1/NB10830166.0032.wav|그러나

1/NB10830166.0033.wav|여성 당원이 어떤 어머니가 받을 충격을 걱정하는 가족들은

1/NB10830166.0034.wav|참아 독일이 통해 졌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

1/NB10830166.0035.wav|생산이 중단된 봉독 제품들을 찾느라고 쓰레기통을 뒤지고

1/NB10830166.0036.wav|또 동덕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는 가짜 영상까지 제작을 하지요

1/NB10830166.0037.wav|어머니는 결국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

1/NB10830166.0038.wav|거짓말로 어머니를 속이나들은 영화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하죠

1/NB10830166.0039.wav|나는 진실을 숨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

1/NB10830166.0040.wav|자 내일은 만우절입니다 혹시 준비해 주신 비장의 거짓말이야

1/NB10830166.0041.wav|있으신지요

1/NB10830166.0042.wav|그러나 내일 하실 거짓말은 제때에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

1/NB10830166.0043.wav|만우절 다운 거짓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

1/NB10830166.0044.wav|이걸 지키지 못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

1/NB10830166.0045.wav|공공기관의 장난전화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는 엄포가

1/NB10830166.0046.wav|이미 나왔습니다

1/NB10830166.0047.wav|어찌 보면

1/NB10830166.0048.wav|각박 하지요

1/NB10830166.0049.wav|만우절 거짓말이 점점 더 정교해 지니까 이런 얘기 맞아 나오는 모양입니다

1/NB10830166.0050.wav|그나저나 남북한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

1/NB10830166.0051.wav|이 말을 거짓말로 할 수 있을 때는 언제쯤 오게 될까

1/NB10831575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31575.0001.wav|지우개입니다

1/NB10831575.0002.wav|아아

1/NB10831575.0003.wav|지우개 누님이 아직 안 나왔고

1/NB10831575.0004.wav|어제 주먹 한 마리 건데요

1/NB10831575.0005.wav|지우개

1/NB10831575.0006.wav|가격은

1/NB10831575.0007.wav|얼마처럼 보이십니까

1/NB10831575.0008.wav|14만 원입니다

1/NB10831575.0009.wav|만우절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14만 원입니다

1/NB10831575.0010.wav|해외배송을 받아야하는 귀하신 몸이라고 합니다

1/NB10831575.0011.wav|지우개 가루로 차 아까 얼만큼 이렇게 비싼 걸

1/NB10831575.0012.wav|누가 사서 쓰나 싶었는데

1/NB10831575.0013.wav|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도 쓰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군요

1/NB10831575.0014.wav|자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안 명품 지우개 걸 맞는 짝이 있어야 되겠죠

1/NB10831575.0015.wav|30만원대 명품 필통에 넣어서

1/NB10831575.0016.wav|예

1/NB10831575.0017.wav|70만 원 가까운

1/NB10831575.0018.wav|일제 명품 책가방에 넣었습니다

1/NB10831575.0019.wav|갈수록 태산 말 그대로 점입가경입니다 일단 만일 초등학생이 걸 가지고 다닌다면이 안에 등급까지 합치면

1/NB10831575.0020.wav|먹거리

1/NB10831575.0021.wav|100만 원이 넘는 그런 가격이 되는 거겠지

1/NB10831575.0022.wav|한 단체가 초등학생 용 브랜드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초등학생책가방에 최고 가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

1/NB10831575.0023.wav|얼마전엔 품귀 현상마저 삐졌다고 하는구나

1/NB10831575.0024.wav|명품 지우개와 명품 책가방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몇 년 전이라고 하니까

1/NB10831575.0025.wav|어찌 보면 제가 이미 오래된 이야기를 들어 놓은 건 아닌가 싶을 정도

1/NB10831575.0026.wav|한편에서는 아이들 급식비를 놓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 또 다른 세상에서는 만우절 거짓말같은 얘기를 이렇게 오갑니다

1/NB10831575.0027.wav|자궁 이것도 내보이기 위한

1/NB10831575.0028.wav|과시욕 이겠죠

1/NB10831575.0029.wav|돈으로

1/NB10831575.0030.wav|개그 비 나머지는

1/NB10831575.0031.wav|이런 사회에서

1/NB10831575.0032.wav|아이들이 통해서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은

1/NB10831575.0033.wav|부모들의 허위의식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

1/NB10831575.0034.wav|남들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꾸미는

1/NB10831575.0036.wav|아프게 느끼는 우리의 부탁합니다

1/NB10831575.0037.wav|겉만 번지르르한게 꾸미고 속은 엉망인 얘는 사실 너무나 많아서

1/NB10831575.0038.wav|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

1/NB10831575.0039.wav|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본질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

1/NB10831575.0040.wav|어제 정부가 세월호 1주기 때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열 계획이란 소식을 전해 드렸죠

1/NB10831575.0041.wav|가슴 대회

1/NB10831575.0042.wav|무엇을 느끼셨는지

1/NB10831575.0043.wav|저 먼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

1/NB10831575.0044.wav|하지만 생각을 해보면

1/NB10831575.0045.wav|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늘 이렇게 내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

1/NB10831575.0046.wav|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

1/NB10831575.0047.wav|14만 원짜리 지우개 와

1/NB10831575.0048.wav|30만 원짜리 필통이 아이유의 공부에 대한 자세를 좌우하지 않은 것처럼

1/NB10831575.0049.wav|안전을 다짐하는 대회에 온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

1/NB10831575.0050.wav|차라리 100원짜리 지우개와 천 원짜리 필통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 같아

1/NB10831575.0051.wav|예쁘고 소중한 것처럼

1/NB10831575.0052.wav|묵묵히 안전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고 점검 하는 정부가 더

1/NB10831575.0053.wav|믿음직스럽습니다

1/NB10831575.0054.wav|고등학생용 브랜드 발표 내용을 보면서

1/NB10831575.0055.wav|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걸까요

1/NB10831575.0056.wav|앵커

1/NB10833627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33627.0001.wav|밤에 당장

1/NB10833627.0002.wav|사람이 많다

1/NB10833627.0003.wav|아빠가 운다

1/NB10833627.0004.wav|예

1/NB10833627.0005.wav|경기도에서는 8살 지호는 어린이가 쓰는 두 줄짜리 쉽니다

1/NB10833627.0007.wav|한 인터넷 언론에 올라와있던 글인데요

1/NB10833627.0008.wav|다른 어린이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

1/NB10833627.0009.wav|맞춤법까지 그대로 옮겨서 전해졌습니다 함의 장점인데

1/NB10833627.0010.wav|열이는 귀엽게도 밤에 장점이라고 쓰는군요

1/NB10833627.0011.wav|밤에는 아빠가 온다

1/NB10833627.0012.wav|아마도 아빠가 늦은 밤에 퇴근을 하는 모양입니다

1/NB10833627.0013.wav|그러니까

1/NB10833627.0014.wav|뭔가 바스락대는 비닐 봉지를 전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

1/NB10833627.0015.wav|밤이 좋은 것이겠죠

1/NB10833627.0016.wav|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하루는 어떨까요

1/NB10833627.0017.wav|한 취업포털 직장인의 하루 조사해 봤습니다

1/NB10833627.0018.wav|오전 6시 반쯤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4분 쯤 됩니다

1/NB10833627.0019.wav|보통 5,300원짜리

1/NB10833627.0020.wav|점심을 먹고

1/NB10833627.0021.wav|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

1/NB10833627.0022.wav|11시간 쯤 됩니다

1/NB10833627.0023.wav|그리고 직장인의 절반 가량이 7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한다는군요

1/NB10833627.0024.wav|이중의 30%는

1/NB10833627.0025.wav|밤 9시를 넘겨서 집에 간다고 답했습니다

1/NB10833627.0026.wav|뉴스룸 5시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

1/NB10833627.0027.wav|자 잠든 자식들 얼굴을 보고 출근하고 퇴근해서도 또다시 잠든 가족의 얼굴을 봐야 하는 우리네 직장인들의 모습

1/NB10833627.0028.wav|눈 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

1/NB10833627.0029.wav|당연한 결과겠지만 가족과 함께 저녁 밥을 먹는 사람들 역시 갈수록

1/NB10833627.0030.wav|출고 있습니다

1/NB10833627.0031.wav|지난 2005년 만 해도 열 명 중에 여덟 명이 그래도 한 주 중에 평일에 이틀 이상

1/NB10833627.0032.wav|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고 했는데

1/NB10833627.0033.wav|작년 조사에서는

1/NB10833627.0034.wav|그 중에 두 명이 줄었습니다 6명이 됐습니다

1/NB10833627.0035.wav|지역별로 보면 시골 보다는 도시가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가족과 저녁 식사를 같이 못 한다고 답했습니다

1/NB10833627.0036.wav|기억하시는지요 저녁이 있는 삶

1/NB10833627.0037.wav|지난 대선 때 등장했던 슬로건 였죠

1/NB10833627.0038.wav|생각만 해도 눈물 난다 하면 반응이 무척 많았습니다

1/NB10833627.0039.wav|이 슬로건을 내건 어떤 사람은 결국 출마하지 못했지만

1/NB10833627.0040.wav|정선 상백 가지도 이마를 가져다 쓰고 싶다고 탐냈던 이유는

1/NB10833627.0041.wav|그만큼 저녁이 있는 삶이 고픈 사람들이 많다는 일 겁니다

1/NB10833627.0042.wav|삼성전자가 자율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지요

1/NB10833627.0043.wav|다른 날에 평소보다 더 오래 일하면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쭉이어서 쉴 수 있는

1/NB10833627.0044.wav|꿈같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꿀같은 휴식일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

1/NB10833627.0045.wav|글쎄요 약은 거 잡고 또 업무강도가 높았던 회사에서 과연 눈치 보지 않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더군요

1/NB10833627.0046.wav|일찍 퇴근하라고 불까지 꺼 버리면

1/NB10833627.0047.wav|커피라도 켜 놓고 이래야 한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습니다

1/NB10833627.0048.wav|일거리 잔뜩 던져 주면서 퇴근 말하라고 하면 다냐 하는 얘기입니다

1/NB10833627.0049.wav|부디 이번 자율출퇴근 제는 좋은 모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

1/NB10833627.0050.wav|눈물 나는 단어

1/NB10833627.0051.wav|저녁이 있는 삶

1/NB10833627.0052.wav|여전히 멀고 먼 이상인데

1/NB10833627.0053.wav|언제가 되면

1/NB10833627.0054.wav|밤에 장점 일하는 꼬마숙녀의 시 제목

1/NB10833627.0055.wav|밤에 장점이 아니라 저녁에 장점으로 바뀌게 되지요

1/NB10833627.0056.wav|아 저녁에 없는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일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

1/NB10833627.0057.wav|생각하는

1/NB10833627.0058.wav|구직자들도 우리 사회에는 10명 중 한 명이 넓습니다

1/NB10833627.0059.wav|너무 사치스러운 얘기 없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

1/NB10838433.0000.wav|지성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38433.0001.wav|우주의 중심은 어디

1/NB10838433.0002.wav|배경화면이 좀 거창 하긴 합니다만

1/NB10838433.0003.wav|오늘 앵커브리핑 오른 말입니다

1/NB10838433.0004.wav|저녁밥

1/NB10838433.0005.wav|잘 드셨습니까

1/NB10838433.0006.wav|한국인에게 유독 중요한

1/NB10838433.0007.wav|바비

1/NB10838433.0008.wav|밥은 사람의 마음을 대신하기로 하지요

1/NB10838433.0009.wav|밥 먹었냐

1/NB10838433.0010.wav|인사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요

1/NB10838433.0011.wav|밥 한번 먹자

1/NB10838433.0012.wav|자주 거는이 말은 신규 의미로 쓰입니다

1/NB10838433.0013.wav|누군가를 걱정할 때는 이렇게 말 하기도 하지요 밥은 먹고 다니는

1/NB10838433.0014.wav|단순히 한 귀로만 풀이하기 어려운 것 바로

1/NB10838433.0015.wav|하림이

1/NB10838433.0016.wav|세종대왕은 재위 초기인 1419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

1/NB10838433.0017.wav|백성은 나라의 근본이

1/NB10838433.0018.wav|밥을 한으로 샀는데

1/NB10838433.0019.wav|또 정조 역시 1783년 경기도에 흉년이 들자

1/NB10838433.0020.wav|나의 한결같은 걱정은 오직 백성의 먹을 것이 있다고 말한다

1/NB10838433.0021.wav|신규 이민철

1/NB10838433.0023.wav|밥을 근본으로 삼은 나라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풍경이다

1/NB10838433.0024.wav|2015년 대한민국의 오늘에도 바뻐 관련된 몇 가지 풍경들이 있습니다

1/NB10838433.0025.wav|전남대가 지난 1일부터 아침밥을 굶는 학생들을 위한 건강밥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

1/NB10838433.0026.wav|아침 식당 밥을 천원에 내놓은

1/NB10838433.0027.wav|학생들은 엄마 밥에 따스함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

1/NB10838433.0028.wav|가난한 이들의 든든한 한끼 위한 천원 밥상을 차렸던 광주 해뜨는식당 이경은

1/NB10838433.0029.wav|지난달에 주인 할머님이 돌아가셨지만

1/NB10838433.0030.wav|주변 상인들이 식당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

1/NB10838433.0031.wav|컴온 밥집을 이어가 달라는 할머니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

1/NB10838433.0032.wav|시귀 민찬이

1/NB10838433.0033.wav|든든한 밥 한 공기로 이어지는

1/NB10838433.0034.wav|9분 한마음

1/NB10838433.0035.wav|한 고등학교에서

1/NB10838433.0036.wav|이른바 급식비 검문이 섰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지

1/NB10838433.0037.wav|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교감 선생님의 이름만 눈치 바뀌었습니다

1/NB10838433.0038.wav|뭔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새끼를 저희는 간절히 바랍니다

1/NB10838433.0039.wav|그러면 어떻게 됐든 선별 급식에서 해도 학생들이 마음은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일부의 주장이다

1/NB10838433.0040.wav|무색해진 순간이었습니다

1/NB10838433.0041.wav|보편적인 급식이 중단된 경상남도에서는 학부모에게 보낸 도의원의 답변 문자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

1/NB10838433.0042.wav|방이 문자보내 돈으로 급식 빌려라 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피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다

1/NB10838433.0043.wav|2분은 상대편 학부모가 순수한 학부모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대꾸 했다고 했습니다

1/NB10838433.0044.wav|글쎄요 순수한 학부모

1/NB10838433.0045.wav|기억하시는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 또 그렇게 갈라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

1/NB10838433.0046.wav|우주의 중심은 어디

1/NB10838433.0047.wav|부탁한 가운데 옳은

1/NB10838433.0048.wav|고가도로를 과속으로 달려와

1/NB10838433.0049.wav|밥 앞에 무릎을 꿇고

1/NB10838433.0050.wav|뜨겁게 서류는 하얀 김

1/NB10838433.0051.wav|바비

1/NB10838433.0052.wav|무거운 허리

1/NB10838433.0053.wav|밥이 법이다라는 제목의 시중에 한 구절이 밑

1/NB10838433.0054.wav|29처럼

1/NB10838433.0055.wav|뜨거운 밥이 우주의중심 일진 돼

1/NB10838433.0056.wav|적어도 아이들의 마음속 우주는

1/NB10838433.0057.wav|지금 어찌 보면 어른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

1/NB10838433.0058.wav|그것도

1/NB10838433.0059.wav|예로부터

1/NB10838433.0060.wav|신민철

1/NB10838433.0061.wav|밥은 하늘이라 강제 회원

1/NB10838433.0062.wav|이 방에서 말이

1/NB10840074.0000.wav|예 뉴스룸 2부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40074.0001.wav|1987년 1월 19일

1/NB10840074.0002.wav|그 밤에 있었던 일을

1/NB10840074.0003.wav|똑같은 진회색 방한복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20명의 남성이 있습니다

1/NB10840074.0004.wav|복제인간도 아닌데 모두 쌍둥이 같아 보입니다

1/NB10840074.0005.wav|이들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두대 미니버스에 나눠타고

1/NB10840074.0006.wav|구치소로 이동합니다

1/NB10840074.0007.wav|20명 모두에게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

1/NB10840074.0008.wav|제가 있는 사람은

1/NB10840074.0009.wav|적어도 그때까진 단 두 사람

1/NB10840074.0010.wav|이들의 얼굴을 가려 주기 위해서 경찰이 벌인 기상천외한 좋은 글이었습니다

1/NB10840074.0011.wav|복제인간

1/NB10840074.0012.wav|오늘 앵커브리핑 오른 단어입니다

1/NB10840074.0013.wav|짐작하셨겠지만 경철이 마치 숨은그림찾기 같은 상황까지 만들어 가면서 보호하려 했던

1/NB10840074.0014.wav|그 두 사람은

1/NB10840074.0015.wav|퍽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

1/NB10840074.0016.wav|23살에 박종철 오늘 물고문 한경관 드려

1/NB10840074.0017.wav|1시 경찰은

1/NB10840074.0018.wav|그들이 대공원 무료 맞고 있어서 북한의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

1/NB10840074.0019.wav|이런 천국을 버렸다는 말을 더 부쳤다고 합니다

1/NB10840074.0020.wav|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지

1/NB10840074.0021.wav|고문 경관이 단지 둘뿐이야 깨는 양은 세간의 의심을 뒤로 하고

1/NB10840074.0022.wav|작업 그 두 사람만을 고문 경관으로 내세운 경찰이

1/NB10840074.0023.wav|그 두 사람마저 가리려고 버린 일정에 가면 거기 아니었냐 아는 것이

1/NB10840074.0024.wav|이 웃지 못할 호성 작전이 알려지면서 의혹 증폭 됐고 여론은 더 악화되었습니다

1/NB10840074.0025.wav|1987년 나라를 뒤흔들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

1/NB10840074.0026.wav|이 땅의 민주주의는

1/NB10840074.0027.wav|그의 죽음에

1/NB10840074.0028.wav|큰 빚을지고 있습니다

1/NB10840074.0029.wav|그리고 28년이 지나서

1/NB10840074.0030.wav|1시 검찰 수사팀 말석에 있었다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진행되었습니다

1/NB10840074.0031.wav|지갑 청문회를 여기까지

1/NB10840074.0032.wav|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

1/NB10840074.0033.wav|검사로서 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

1/NB10840074.0034.wav|후보자는 당시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

1/NB10840074.0035.wav|왜 이런 확신이 틀림이 없기를 우리는

1/NB10840074.0036.wav|그러면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

1/NB10840074.0037.wav|직무유기

1/NB10840074.0038.wav|웹에 굴복

1/NB10840074.0039.wav|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

1/NB10840074.0040.wav|이에 대선 당시 말 속에 있던 검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는 주장도

1/NB10840074.0041.wav|토크에 대한 반론도 무성합니다

1/NB10840074.0042.wav|법관의 최정점에 자리인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

1/NB10840074.0043.wav|87년 이후에도 마무리되지 않은

1/NB10840074.0044.wav|우리 사회의 미완의 과제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

1/NB10840074.0045.wav|오늘은 누구의 말도 또한 누구의 식비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

1/NB10840074.0046.wav|당신이 사진

1/NB10840074.0047.wav|많은 말을 해주는 오늘이지

1/NB10840074.0048.wav|청문회 결혼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

1/NB10840074.0049.wav|그러나 분명한 것은

1/NB10840074.0050.wav|대법관이 다뤄야 하는 우리의 법은

1/NB10840074.0051.wav|박종철의 죽음이 만들어 준 민주 헌법이라는 사실입니다

1/NB10840074.0052.wav|앵커

1/NB10841919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41919.0001.wav|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

1/NB10841919.0002.wav|글쎄요

1/NB10841919.0003.wav|꽃피는 봄날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

1/NB10841919.0004.wav|있습니다마는

1/NB10841919.0005.wav|앵커 브리핑은이 말의 주먹을

1/NB10841919.0006.wav|두 가지의 뉴스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입니다

1/NB10841919.0007.wav|애국 3

1/NB10841919.0008.wav|어제오늘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더군요

1/NB10841919.0009.wav|한 국회의원이 발의안 법 아닌데

1/NB10841919.0010.wav|풀이하자면

1/NB10841919.0011.wav|골자는 이렇습니다

1/NB10841919.0012.wav|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선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

1/NB10841919.0013.wav|누구든지 국가를 임의로 변조해서 부르면 안 된다

1/NB10841919.0015.wav|8월 8일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고

1/NB10841919.0016.wav|모든 국민은

1/NB10841919.0017.wav|국화를 존중하고 애호 해야 한다

1/NB10841919.0018.wav|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

1/NB10841919.0019.wav|어반 대로라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선 국민의회가 보다 자질 것이고

1/NB10841919.0020.wav|또 애국가를 연주해 가면서 자유롭게 부를 경우

1/NB10841919.0021.wav|파스타면

1/NB10841919.0022.wav|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

1/NB10841919.0023.wav|혹시 무슨 꽃 무궁화를 꺾는다면

1/NB10841919.0024.wav|역시 처벌을 받게 될까요

1/NB10841919.0025.wav|일각에선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부모 공경

1/NB10841919.0026.wav|스승 존경법 가지 나오지도 모른다

1/NB10841919.0027.wav|애국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강조하려는 사람들은 혹시

1/NB10841919.0028.wav|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국민의례를 하던

1/NB10841919.0029.wav|이른바 애국의 시절을 추억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

1/NB10841919.0030.wav|자 두 번째로 본 뉴스는 이겁니다

1/NB10841919.0031.wav|20대 이른바 명문대 출신 직장인들이 이민 기회를 만들어서 오늘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

1/NB10841919.0032.wav|이들의 목적은 말 그대로

1/NB10841919.0033.wav|오늘 뭐 하세요

1/NB10841919.0034.wav|이민을 간다는 거지

1/NB10841919.0035.wav|이른바 명문대 나와서 버젓한 직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러느냐

1/NB10841919.0036.wav|한마디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

1/NB10841919.0037.wav|끊임없는 경쟁

1/NB10841919.0038.wav|비는 사귈

1/NB10841919.0039.wav|희망 없는 노후대비

1/NB10841919.0040.wav|이런 현실 때문에

1/NB10841919.0041.wav|용접봉이 대서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다는 명문대 출신

1/NB10841919.0042.wav|용접 전문 학원으로

1/NB10841919.0043.wav|몰린다고

1/NB10841919.0044.wav|Google 법으로 만들어 줘

1/NB10841919.0045.wav|이민 개를 만들고 용접 학원으로 가는 젊은이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

1/NB10841919.0046.wav|지난 2002년 서울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태극기 열풍 기억하시겠죠

1/NB10841919.0047.wav|국기모독 논란까지 가져왔던 당시 젊은이들 외국의 방에서

1/NB10841919.0048.wav|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은

1/NB10841919.0049.wav|아니었어

1/NB10841919.0050.wav|에구구

1/NB10841919.0051.wav|강요가 아닌

1/NB10841919.0052.wav|감동

1/NB10841919.0053.wav|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

1/NB10841919.0054.wav|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

1/NB10841919.0055.wav|이른바 애국 3법이란 것이

1/NB10841919.0056.wav|그 옛날 태극기와 애국가로 점철 조선시대를 그리워 하는 것이라면

1/NB10841919.0057.wav|그것이야말로

1/NB10841919.0058.wav|희미한

1/NB10841919.0059.wav|옛 사랑의 그림자 이지도 모르겠어

1/NB10843881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43881.0001.wav|빅토르 위고의 작품 레미제라블

1/NB10843881.0002.wav|여러 차례 영화 또 뮤지컬로도 제작이 됐을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고전입니다

1/NB10843881.0003.wav|작품 소리 여주인공 팬티를 기억하시죠

1/NB10843881.0004.wav|그녀는 미혼모였습니다

1/NB10843881.0005.wav|어린딸 코제트의 양육비를 위해서 공장에서 돈을 벌다가 미혼모라는 48 각도에서 해고를 당합니다

1/NB10843881.0006.wav|생계가 막막해진 판치는 사창가에서 돈을 벌어 딸의 생활비를 되지

1/NB10843881.0007.wav|결국

1/NB10843881.0008.wav|병에 걸린 그녀는

1/NB10843881.0009.wav|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딸의 얼굴을 그리면서 죽음을 맞이한

1/NB10843881.0010.wav|그들이 만난 세상

1/NB10843881.0011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말입니다

1/NB10843881.0012.wav|19세기 소설 속에 등장한 이야기는 때로는

1/NB10843881.0013.wav|오늘의 산은 우리에게 소설보다 더 소설같은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

1/NB10843881.0014.wav|작년 겨울 밤 통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

1/NB10843881.0015.wav|24살의 여성이

1/NB10843881.0016.wav|6층 여관 방 창문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

1/NB10843881.0017.wav|경찰의 성매매 함정 단속을 피하려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

1/NB10843881.0018.wav|함정 단속에 걸려

1/NB10843881.0019.wav|성매매 여성 모텔에서 추락 사망

1/NB10843881.0020.wav|짧고 건조한 단신 기사 속에 숨겨진

1/NB10843881.0021.wav|그녀의 사연은

1/NB10843881.0022.wav|이랬습니다

1/NB10843881.0023.wav|그녀 역시 싱글맘이었습니다

1/NB10843881.0024.wav|학업을 계속 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가출을 했고

1/NB10843881.0025.wav|그 이후에 17에서 딸을 낳았습니다

1/NB10843881.0026.wav|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린 딸과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

1/NB10843881.0027.wav|결국 성매매 했던 것이죠

1/NB10843881.0028.wav|그녀의 방 서랍 속에는

1/NB10843881.0029.wav|사랑해 엄마

1/NB10843881.0030.wav|이렇게 쓰인 어린 딸의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

1/NB10843881.0031.wav|오늘

1/NB10843881.0032.wav|성매매 특별법에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

1/NB10843881.0033.wav|공개변론

1/NB10843881.0034.wav|시작했습니다

1/NB10843881.0035.wav|며칠 뒤에는 여성을 함께 처벌하는 특별법에 페이지를 요구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도심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하는군요

1/NB10843881.0036.wav|그러나 단순히 측은지심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

1/NB10843881.0037.wav|성매매를 둘러싼 논란이 겁니다

1/NB10843881.0038.wav|여성 인권과 윤리

1/NB10843881.0039.wav|또 사람과 사람간의 삐뚤어진 본능과 생계가 뒤얽힌

1/NB10843881.0040.wav|정말 오래된 인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

1/NB10843881.0041.wav|오늘 오전에 조금 색다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

1/NB10843881.0042.wav|한 인터넷 포털에서 남녀별로 더 많이 본 뉴스를 뽑아 봤더니

1/NB10843881.0043.wav|남성들은 성매매 위한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살폈고

1/NB10843881.0044.wav|여성들은 아예이 문제에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더군요

1/NB10843881.0045.wav|성매매를 대하는 시선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

1/NB10843881.0046.wav|남성은 그들을

1/NB10843881.0047.wav|환웅과 착취의 대상으로

1/NB10843881.0048.wav|반대로 여성은 일을

1/NB10843881.0049.wav|방치 혹은 무시해 대상으로

1/NB10843881.0050.wav|그렇게 내처 두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

1/NB10843881.0051.wav|딸을 그리며 죽어간 판틴

1/NB10843881.0052.wav|그리고

1/NB10843881.0053.wav|여관 방 창문 위에서 마지막 세상을 바라봤을 통영에 젊은 미혼모

1/NB10843881.0054.wav|그들의 비극의

1/NB10843881.0055.wav|시대가 7일 죗값은 없는 것인가

1/NB10843881.0056.wav|잠시 후에 전문가 토론토에서

1/NB10843881.0057.wav|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

1/NB10848367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48367.0001.wav|다빈치코드

1/NB10848367.0002.wav|미국 작가 댄 브라운 스릴러 소설

1/NB10848367.0003.wav|세계 52 개국에서 9,000만 브로콜리 작품입니다

1/NB10848367.0004.wav|소설 속 살인 사건의 실리마린은 바로 이것이었다

1/NB10848367.0005.wav|다잉 메시지

1/NB10848367.0006.wav|제자가 죽기 직전에 곰에게 단서를 알리기 위해 남긴 일종의

1/NB10848367.0007.wav|흔적을

1/NB10848367.0008.wav|오늘 앵커브리핑 오른 단어이기도 해

1/NB10848367.0009.wav|소설 속에 다행히 메시지를 떠올린 이유

1/NB10848367.0010.wav|성완종 전 회장이

1/NB10848367.0011.wav|죽음 직전에 남긴 마지막 55차 때문에

1/NB10848367.0012.wav|그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리의 기억을 낱낱이 드러냈다

1/NB10848367.0013.wav|감춰진 속 마음은 무엇이었을까

1/NB10848367.0014.wav|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

1/NB10848367.0015.wav|추리소설 같은 비리 추적 진실 게임

1/NB10848367.0016.wav|벌어지게 됐어

1/NB10848367.0017.wav|죽은자는 말이 없는데

1/NB10848367.0018.wav|제목된 여덟 명이 살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실무근이라고

1/NB10848367.0019.wav|입을 모읍니다

1/NB10848367.0020.wav|저희 JTBC 간 성완종 전 회장의 다잉메시지에 주목하는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

1/NB10848367.0021.wav|다음과 같습니다

1/NB10848367.0022.wav|그것이 다른 것도 아닌 대선자금 의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

1/NB10848367.0023.wav|부정부패와에 전쟁을 선포하고

1/NB10848367.0024.wav|법과 원칙을 강조해

1/NB10848367.0026.wav|차떼기 대선자금 여파로 무너져가던 한나라당을 천막당사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바로 지금

1/NB10848367.0027.wav|박근혜 대통령 이었어

1/NB10848367.0028.wav|본 정치 뿌리뽑겠다 수차례 강조 회원 집권 여당에 확보했던 의지가

1/NB10848367.0029.wav|허니 대해서는

1/NB10848367.0030.wav|안 들리게

1/NB10848367.0031.wav|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처를

1/NB10848367.0032.wav|10분이든 누구든 비가 드러나면 예외없다

1/NB10848367.0033.wav|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

1/NB10848367.0034.wav|아니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

1/NB10848367.0035.wav|보냈습니다

1/NB10848367.0036.wav|앵커브리핑 전화번호

1/NB10848367.0037.wav|중앙일보 권석천 사회보장의 칼럼을 인용해서 진행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

1/NB10848367.0038.wav|권석천 사회보장의 칼럼을

1/NB10848367.0039.wav|잠시 인용하기

1/NB10848367.0040.wav|영혼 없는 간접 화법에 움직일 검사들은 없다

1/NB10848367.0041.wav|그들은 대변인이 전하는 대통령의 말보다

1/NB10848367.0042.wav|그 말 뒤에 의중을 저울질한다

1/NB10848367.0044.wav|그리고 대선자금 수수료까지 제기된 마당에

1/NB10848367.0045.wav|대통령이 비켜서

1/NB10848367.0046.wav|없다고

1/NB10848367.0047.wav|그리고

1/NB10848367.0048.wav|권석찬 사회부장

1/NB10848367.0049.wav|대통령에게 남은 시간

1/NB10848367.0050.wav|이제

1/NB10848367.0051.wav|72시간 일하고

1/NB10848367.0052.wav|72 시간은

1/NB10848367.0053.wav|대통령이 오는 16일 해외순방을 떠나기 전까지 남은 시간

1/NB10848367.0054.wav|지금 쏟아진다면 이틀하고 절반정도가 남았군요

1/NB10848367.0055.wav|그 순방을 그날 꼭 떠나야 한다면

1/NB10848367.0056.wav|그전에 세월호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

1/NB10848367.0057.wav|대통령

1/NB10848367.0058.wav|직접

1/NB10848367.0059.wav|밝혀 줬으면 한다는 거

1/NB10848367.0060.wav|1년 전 대통령의 7시간 공백이 의혹과 불신을 키웠다

1/NB10848367.0061.wav|앞으로 사흘 72시간

1/NB10848367.0062.wav|박 대통령에게 맞아

1/NB10848367.0063.wav|골든타임

1/NB10848367.0064.wav|권석천 부장

1/NB10848367.0065.wav|마지막 부분

1/NB10848367.0066.wav|인형에서 읽어 줘

1/NB10848367.0067.wav|앵커

1/NB10849884.0000.wav|칫솔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49884.0001.wav|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며칠 전에 새누리당 비 밖에 모임에서 노래를 한자락 불렀다고 합니다

1/NB10849884.0003.wav|예 아시는 것처럼 원래 정 의원은 음반은 몇 장식이 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가 부른 노래 백설희의 봄날은 간다였습니다

1/NB10849884.0005.wav|예

1/NB10849884.0006.wav|미증유의 부패 스캔들로 한국 보세 봄날이 간다

1/NB10849884.0007.wav|이것이 노래를 부르는 의미였다고 하지요

1/NB10849884.0008.wav|자 그렇다면

1/NB10849884.0009.wav|2분 의견은 4월이 어떤 날이야

1/NB10849884.0010.wav|4월이 무슨 무슨 달인지 알고 계시죠 4월 달

1/NB10849884.0011.wav|4월이 잔인한 달 아닌가요 저한테는 잔인한 달로 느껴집니다

1/NB10849884.0012.wav|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

1/NB10849884.0013.wav|종류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이름이 올라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

1/NB10849884.0014.wav|총리가 한 말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

1/NB10849884.0015.wav|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

1/NB10849884.0016.wav|그래서 총리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849884.0017.wav|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니 억울하고 그래서 4월은 잔인하다는 거

1/NB10849884.0018.wav|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를 믿어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

1/NB10849884.0019.wav|종류는 성전 회장과 별다른 인연이 없다고 광주에 있지만 앞서 전해드린 보도에 따르면

1/NB10849884.0020.wav|두 사람은 1년 반 동안 20여 차례 나 만난 사이였습니다

1/NB10849884.0021.wav|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물건은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던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였나 봅니다

1/NB10849884.0022.wav|또 지난 대선 당시 몸이 아파서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 주장 역시 반나절 만에 번목 해야만 했습니다

1/NB10849884.0023.wav|이제 우리가 박근혜 어머니 손을 잡아 줘야 될 겁니다

1/NB10849884.0024.wav|2012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사진과 동영상이 이렇게

1/NB10849884.0025.wav|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

1/NB10849884.0026.wav|충남 태안군의 회전의자의 인터뷰 내용도 전해 드렸습니다

1/NB10849884.0027.wav|성미는 나는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지만

1/NB10849884.0028.wav|협박은 어머니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입니다

1/NB10849884.0029.wav|총리 후보자의 막내 기자들에게 김치찌개 사 주면서 김영란법 안 맞을까 주겠다고 던진 농담 역시

1/NB10849884.0030.wav|듣는 사람들에게 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처럼

1/NB10849884.0031.wav|오늘 또 다시 3000만원 상납 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

1/NB10849884.0032.wav|이미 엎어진 말들의 자네들이 흥건 합니다

1/NB10849884.0033.wav|적극 어머 해야할 친정 새누리당 마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

1/NB10849884.0034.wav|독립투사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

1/NB10849884.0035.wav|비박 걔가 이젠 심박계 와 갈라서는 것이라는 등등 해

1/NB10849884.0036.wav|정치공학적인 차원을 넘어서

1/NB10849884.0037.wav|작금의 상황은

1/NB10849884.0038.wav|진정으로 나라 사정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

1/NB10849884.0039.wav|총리와 전 현직 비서실장 그리고 대선 당시 캠프 책임자들이 줄줄이 리스트에 오르내리게 얻은 미증유의 상황이니까요

1/NB10849884.0040.wav|그래서 다시 한번 드네 개는 가장 잔인한 달

1/NB10849884.0041.wav|사업

1/NB10849884.0042.wav|아이 와중에 하마터면 우리 국회는 가장 멋진 날이 될 뻔 했던 4월 16일

1/NB10849884.0043.wav|3월 5일 죽이는 어느

1/NB10849884.0044.wav|내일모레

1/NB10851555.0000.wav|4시 저녁 5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51555.0001.wav|예 지난 주말에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 행사장에서 일어나니 원래 계획은

1/NB10851555.0002.wav|이게 아니었습니다

1/NB10851555.0003.wav|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급 귀빈들이

1/NB10851555.0004.wav|줄을 당기면 자경로 항아리에 담긴 물이 아래로 흘러야 하는데

1/NB10851555.0005.wav|오늘 날씨는 이렇게 구조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

1/NB10851555.0006.wav|사실 이건 조형물 하나 무너진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

1/NB10851555.0007.wav|이런 일로 국격 오늘 하는 것은 지났습니다

1/NB10851555.0008.wav|그래서 저희들도 당일 뉴스에는 내지도 않았습니다

1/NB10851555.0010.wav|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잠깐 민망하고 말 자 경로 퍼포먼스 정도에 그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

1/NB10851555.0011.wav|국정 이인자 현직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

1/NB10851555.0012.wav|의혹이 끊임없이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총리는 목숨과 바꾸겠다는 말까지 던졌습니다

1/NB10851555.0013.wav|또 막후 2인자라고 불리우는 현직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전직 비서실장 들까지 줄줄이 엮여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

1/NB10851555.0014.wav|다들 억울하다고 하니까 사실 여부는 차차 따져볼 문제지만

1/NB10851555.0015.wav|어디선가 와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

1/NB10851555.0016.wav|자 대통령은 내일부터 9박 10일간의 해외순방을 떠납니다

1/NB10851555.0017.wav|이유는 다름 아닌 웃겨 긴 거 같습니다 제 2의 중동붐 AS

1/NB10851555.0018.wav|우리 경제 영역을 태평양 건너까지 활짝 펼치고자 한다는 것이죠

1/NB10851555.0019.wav|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고

1/NB10851555.0020.wav|또 어차피

1/NB10851555.0021.wav|대통령은 내일 떠나는데

1/NB10851555.0022.wav|자꾸 그렇게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것도 좀 모양이 안 좋다 싶으면서도

1/NB10851555.0023.wav|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의 옷소매를 잡고 만류하고 싶어 하는가를 살펴 봤습니다

1/NB10851555.0024.wav|다크 오늘 다시 알람 하나와 함께 하겠습니다

1/NB10851555.0025.wav|중앙일보 배명복 논설위원

1/NB10851555.0026.wav|펄럭입니다

1/NB10851555.0027.wav|앵커브리핑에 등장하는 세 번째 중앙일보 기사군요

1/NB10851555.0028.wav|아 너무 고깝게 여기 있음 말아 주십시오

1/NB10851555.0029.wav|차 배명복 논설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

1/NB10851555.0030.wav|대통령이 외국에 자주 나가는 것은 박수칠 일이지 시비 걸 일이 아니다

1/NB10851555.0031.wav|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

1/NB10851555.0032.wav|먼저 전임자가 갔던 곳을 3년 만에 다시 찾으면서 외교 지평 확대를 말하는 것은 난센스

1/NB10851555.0033.wav|실제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3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을 비교해 보았더니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녀왔던 곳이었습니다

1/NB10851555.0034.wav|새롭게 개척할 외교 지평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

1/NB10851555.0035.wav|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명 분이고 실적이다

1/NB10851555.0036.wav|뚜렷한 명분도 없이 구운 곗돈 찾아 먹듯이 악착같이 나가는 느낌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

1/NB10851555.0037.wav|이런 얘기였습니다

1/NB10851555.0038.wav|대통령은 이번 남미순 방까지 마치게 되면 취미 2년 2개월 만에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오대양 육대주를 한 바퀴 도는 셈이 된다고 하는구나

1/NB10851555.0039.wav|글쎄 우리 북벽은

1/NB10851555.0040.wav|우리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걸까요

1/NB10851555.0041.wav|대명석곡 논설위원은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

1/NB10851555.0042.wav|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 콜롬비아로 떠나는 박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거워 올 것 같다

1/NB10851555.0043.wav|9박 12일은

1/NB10851555.0044.wav|인식합니다

1/NB10853155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

1/NB10853155.0001.wav|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53155.0006.wav|예 가만히 눈을 감기 만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 만 해도 호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 다 보게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 만 해도

1/NB10857790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평범한 트럭 같아 보이지만 실은이 트럭은 각종 장치를 완비한 최첨단장비입니다

1/NB10857790.0001.wav|한번 보실까요

1/NB10857790.0003.wav|리모컨으로 작동 버튼을 누르면 트럭은 순식간에 형태를 바꿉니다

1/NB10857790.0004.wav|가로 8.6m에 높이는

1/NB10857790.0005.wav|4.1m

1/NB10857790.0006.wav|어른 키 2배가 훨씬 넘지

1/NB10857790.0007.wav|국제 1cm 투명 창은 강한 충격도 견뎌 내도록 만들어졌고

1/NB10857790.0008.wav|화염병 공격에 대비한 분무장치는 물론이고

1/NB10857790.0009.wav|높낮이 조절이 가능한

1/NB10857790.0010.wav|최종용 CCTV를 장착했습니다

1/NB10857790.0011.wav|시위대 해상용 물대포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군요

1/NB10857790.0012.wav|예

1/NB10857790.0013.wav|트랜스포머

1/NB10857790.0014.wav|오늘의 단어입니다

1/NB10857790.0015.wav|이런 최첨단 장비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09년입니다 바로 전해인

1/NB10857790.0016.wav|2008년에

1/NB10857790.0017.wav|광우병 촛불시위 등장했던 이른바 명박산성

1/NB10857790.0018.wav|그러니까 컨테이너 장벽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

1/NB10857790.0019.wav|지난 주말에 차벽 트럭이 서울 광화문 한 복판에 등장했습니다

1/NB10857790.0020.wav|시위대는 이번에도 새벽에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서 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벽은 유적을 포함한 시위대를 4m 장벽을 통해서 분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

1/NB10857790.0021.wav|눈물

1/NB10857790.0022.wav|그리고 빗물이 뒤범벅되어

1/NB10857790.0023.wav|봄날에 주말이어서

1/NB10857790.0024.wav|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사원이 삼성에 대해서 위헌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

1/NB10857790.0025.wav|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

1/NB10857790.0026.wav|그러나 위헌 여부를 떠나서

1/NB10857790.0027.wav|고민해 볼만한 부분은

1/NB10857790.0028.wav|따로 있습니다

1/NB10857790.0029.wav|왕복 백성 있었던 조선시대에는

1/NB10857790.0030.wav|걱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

1/NB10857790.0031.wav|왕이 지나는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울려서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고

1/NB10857790.0032.wav|심지호 궁궐에 몰래 들어가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

1/NB10857790.0033.wav|이런 덕정 저는 일단 피의자로 간주되었고 의례적으로 곤장을 맞은 뒤에

1/NB10857790.0034.wav|왕을 향해서 직접 어려움을 간 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

1/NB10857790.0035.wav|물론 위험을 무릅쓰는 시위 방식이긴 했지만 그 옛날 군주정 시대에도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어디로가

1/NB10857790.0036.wav|제도적으로는 열려 있었던 셈이다

1/NB10857790.0037.wav|왜 그랬을까

1/NB10857790.0038.wav|아마 왕도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으니까

1/NB10857790.0039.wav|비록 권장 몇대 얹어 주더라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기회를 가셨던 것이 아닐까요

1/NB10857790.0040.wav|말씀드렸다시피 헌법 재판소 가는 시민의 통행권을 위해서 2차 벽에 반대했습니다

1/NB10857790.0041.wav|그러나 뒤집어 보면

1/NB10857790.0042.wav|그것이 시민의 통행법만을 위한 것인가

1/NB10857790.0043.wav|정부나 위정자들의 통행권 역시 차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

1/NB10857790.0044.wav|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새벽 뿐만이 아니라

1/NB10857790.0045.wav|국가와 시민들 사이를 심리적으로도 가로막고 있는 자격이

1/NB10857790.0046.wav|서로 자유로이 오가는 신장으로 바뀌는 트랜스포머는 없는 것인지

1/NB10857790.0047.wav|비 오는데 유난히 공기가 맑고 깨끗해 4월 20일에 앵커

1/NB10859354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859354.0001.wav|1 지역 신문 1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

1/NB10859354.0002.wav|내용은 이렇습니다

1/NB10859354.0003.wav|그의 권력남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습니다

1/NB10859354.0004.wav|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이 낳고 키운 인물이 연일 난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

1/NB10859354.0005.wav|이름 막 중앙 무대에 촌놈 신고식이 너무 가혹하다

1/NB10859354.0006.wav|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

1/NB10859354.0007.wav|그러나

1/NB10859354.0008.wav|일면식도 없었다

1/NB10859354.0009.wav|이런 사람과 찍은 사진이 보러 되었을 때

1/NB10859354.0010.wav|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

1/NB10859354.0011.wav|언제 기사일까요

1/NB10859354.0012.wav|이완구 총리 와 관련된 기사가 아닙니다

1/NB10859354.0013.wav|이 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8월

1/NB10859354.0014.wav|1

1/NB10859354.0015.wav|총리후보 낙마 소식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야

1/NB10859354.0016.wav|데자뷰

1/NB10859354.0017.wav|어디서

1/NB10859354.0018.wav|많이 본듯한 기시감을 말합니다

1/NB10859354.0019.wav|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

1/NB10859354.0020.wav|오류가 있으면

1/NB10859354.0021.wav|수정한다고 하지 마

1/NB10859354.0022.wav|그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

1/NB10859354.0023.wav|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인류의 역사는 늘 이런 기시감

1/NB10859354.0024.wav|데자뷰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

1/NB10859354.0025.wav|이완구 총리가 취임 63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

1/NB10859354.0026.wav|후회 없이

1/NB10859354.0027.wav|후보 시절 낙마 위기를 지역 민심으로 돌파했지만

1/NB10859354.0028.wav|결국 지워

1/NB10859354.0029.wav|유적 인사와의 수상한 관계가 팔목을 잡았습니다

1/NB10859354.0030.wav|이번 정부 들어서 다섯 명에 총리 후보 같이 명 됐고이 중 3명이 낭만 있습니다

1/NB10859354.0031.wav|나머지 두 사람이 이완구 총리와 정홍원 전 총리

1/NB10859354.0032.wav|한심한 골프채 총리가 됐다가 결국 모두 삭제 했으니까

1/NB10859354.0033.wav|용인 수레 실패를 넘어서 정치실패 다 하는 비판

1/NB10859354.0034.wav|나옵니다

1/NB10859354.0035.wav|물론 다섯 명 모두 낭만아 사퇴 이유는 제각각이지만

1/NB10859354.0036.wav|그 근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

1/NB10859354.0037.wav|지나치게 좁은 인제 풀

1/NB10859354.0038.wav|인사 검색 실패

1/NB10859354.0039.wav|허울뿐인 책임총리 재생

1/NB10859354.0040.wav|역에 이번 사태는 정치인 출신 총리가 역설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 한계

1/NB10859354.0041.wav|기파가 4장 2까지 작용해서

1/NB10859354.0042.wav|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

1/NB10859354.0044.wav|자신이 뽑은 칼에 자신이 당하는 아이러니

1/NB10859354.0045.wav|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

1/NB10859354.0046.wav|드라마처럼 펼쳐졌다

1/NB10859354.0047.wav|그런데 이런

1/NB10859354.0048.wav|정치 역사 드라마는

1/NB10859354.0049.wav|결코 재밌는 드라마는 아닙니다

1/NB10859354.0050.wav|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정치 역사 드라마는

1/NB10859354.0051.wav|다음과 같은 드라마가 아닐까요

1/NB10859354.0052.wav|공자가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 이제야 성인으로 칭송한 주나라에 주공

1/NB10859354.0053.wav|밥을 먹다가도 누가 찾아오면 먹던 음식을 뱉고라도 만나는

1/NB10859354.0054.wav|일반 삼포의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

1/NB10859354.0055.wav|국정에만 전념하는 정치인들의 귀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

1/NB10859354.0056.wav|일반 상품

1/NB10859354.0057.wav|밥 한 그릇 먹는데 3번 배틀 정도로 국정에 만 전념하는 일반상표 총리를 구하는 것은

1/NB10859354.0058.wav|이리도 어려운 일인데

1/NB10859354.0059.wav|자신이 임명한 종류를 3번 주워담은 정도

1/NB10859354.0060.wav|그리고

1/NB10859354.0061.wav|자신이 뱉은 말을 3번 주워담는 총리가 아니고

1/NB10859354.0062.wav|아 그러고 보니까

1/NB10859354.0063.wav|일반상품의 말은

1/NB10859354.0064.wav|이완구 총리의 취임인사를 받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

1/NB10859354.0065.wav|송이에게 돌렸던 방 불 기도했습니다

1/NB10859354.0066.wav|앵커

1/NB10861230.0000.wav|예수 찾아라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61230.0001.wav|곰의 흙은

1/NB10861230.0002.wav|헐겁다

1/NB10861230.0003.wav|오늘 앵커브리핑

1/NB10861230.0004.wav|고령 날씨

1/NB10861230.0005.wav|보면 누구나 사무트 뜨게 마련이죠

1/NB10861230.0006.wav|벙글 어떤 꽃잎이 활짝 벌어지고

1/NB10861230.0007.wav|나뭇잎들은 연두빛을 띕니다

1/NB10861230.0008.wav|나들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취미는 그런 시간들이 기도합니다

1/NB10861230.0009.wav|자 그러면 이번에 외출

1/NB10861230.0010.wav|이번에 봄나들이는 조미료를 안 했습니다

1/NB10861230.0011.wav|대구에 다녀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

1/NB10861230.0012.wav|예정했던 골프는 취소했다고 하지 마

1/NB10861230.0013.wav|대규모 반찬까지 즐기는 전임 대통령은

1/NB10861230.0014.wav|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안 했으면 좋겠다

1/NB10861230.0015.wav|잘 놀다 간다

1/NB10861230.0016.wav|이런 말을 남겼습니다

1/NB10861230.0017.wav|그러나 그저 잘 놀다 간다고 하기에는 시점도 장소도 중요하다는 풀이가 나왔습니다

1/NB10861230.0018.wav|나들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직후에 최종 결정 되었다고 하는군요

1/NB10861230.0019.wav|장소는 현직 대통령의

1/NB10861230.0020.wav|정치적 고향인 대구

1/NB10861230.0021.wav|또 논란 죽이는 4대강 이었어

1/NB10861230.0022.wav|지난 2월에 내놨던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이 자원외교 수사를 촉발시켰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

1/NB10861230.0023.wav|경찰 수사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

1/NB10861230.0024.wav|방향이 멈춰버렸습니다

1/NB10861230.0025.wav|전임 대통령은 아들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

1/NB10861230.0026.wav|하필 자원외교 수사가 엉켜 버리고

1/NB10861230.0027.wav|국회의 국정조사도 틀어져버린 시점에서

1/NB10861230.0028.wav|그게 봄나들이가 그냥 봄나들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드립니다

1/NB10861230.0029.wav|자 그러니까이이 지점에서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

1/NB10861230.0030.wav|표적수사 별건수사 논란이 있지만

1/NB10861230.0031.wav|성완종 리스트가 나온 액체 이유는

1/NB10861230.0032.wav|자원외교 수사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

1/NB10861230.0033.wav|세월호 참사 당시 동네반상회까지 공원에서 유병언 전 회장만 쫓아다니다가 수사방향 이헌 그랬던 것처럼

1/NB10861230.0034.wav|자원외교 수사 역시

1/NB10861230.0035.wav|성완종 리스트 만졌다가 후 지도에서는 안 들리지

1/NB10861230.0036.wav|경남기업 수사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정권 순애보를 결정했지만

1/NB10861230.0037.wav|또 총리의 부패척결 역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 자신을 찾지 마

1/NB10861230.0038.wav|자원외교 비리수사 영화 30

1/NB10861230.0039.wav|제대로 표적을 향해야 한다는

1/NB10861230.0040.wav|기저귀

1/NB10861230.0041.wav|봄의 흙은

1/NB10861230.0042.wav|할 거 없다

1/NB10861230.0043.wav|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건데요

1/NB10861230.0044.wav|봄기운에 들떠서 헐거워진 흐흐

1/NB10861230.0045.wav|식물의 뿌리를 제대로 잡아 주지 못해서 땅을 단단히 다져 줘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

1/NB10861230.0046.wav|전 대통령은 봄 기운에 잠시 취했는지 모르겠지만

1/NB10861230.0047.wav|성완종 리스트

1/NB10861230.0048.wav|그리고 되돌아가는 부메랑 때문에

1/NB10861230.0049.wav|원래 목적인 자원외교 수사가 헐거워져서 야 안 되겠죠

1/NB10861230.0050.wav|왜냐하면

1/NB10861230.0051.wav|자원외교 회사

1/NB10861230.0052.wav|우리들의 혈세 수십조원에 들어갔고

1/NB10861230.0053.wav|또한 앞으로도 기약 없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

1/NB10862819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

1/NB10862819.0001.wav|이불을 지금부터 시작하자

1/NB10862819.0003.wav|야 인마

1/NB10862819.0006.wav|이준익 감독

1/NB10862819.0007.wav|2003년에 내놓은 영화 황산벌 한 장면

1/NB10862819.0008.wav|백제와 신라의 병사들이 마시기 전에 욕 대결을 버리는데 백제 쪽 병사들이 말 그대로 걸리게 욕을 쏟아붓지

1/NB10862819.0009.wav|물론 상대 병사들은

1/NB10862819.0010.wav|토토핫

1/NB10862819.0011.wav|밥 많이 처먹었냐 다음부터는 저희가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

1/NB10862819.0012.wav|방송 심의 규정상 그렇겠지

1/NB10862819.0013.wav|지금도 볼 때마다 배꼽을 잡을 수밖에 없네

1/NB10862819.0014.wav|제가 개인적으로는

1/NB10862819.0015.wav|우리 영화 장면 중에

1/NB10862819.0016.wav|몇 손가락 안에 꼽는 나름의 명장면입니다

1/NB10862819.0017.wav|욕하는 걸 보는데 웃음이 난다

1/NB10862819.0018.wav|그렇습니다 진정한 욕은 대학이고

1/NB10862819.0019.wav|팀장입니다

1/NB10862819.0020.wav|재작년에 작곡한 민속학자 김열규 교수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

1/NB10862819.0021.wav|욕은 백년 체증은 쉽게 내리게 하는 약 한자들의 이야기 좀 합시다

1/NB10862819.0022.wav|그렇게 우리 조상들의 욕은

1/NB10862819.0023.wav|삶의 고통을 흥으로 풀어 냈는데요 요즘 욕은 더럽지만

1/NB10862819.0024.wav|빵 소리 다 이렇게 얘기했어

1/NB10862819.0025.wav|이거 너무나 다만 사 가지고 있다는게 문제겠죠

1/NB10862819.0026.wav|그래서일까요 요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교실에 나쁜 말 버리기 상자를 갔다 왔습니다

1/NB10862819.0027.wav|사용방법은 이렇습니다

1/NB10862819.0028.wav|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 상대방에게 내뱉는 대신

1/NB10862819.0029.wav|종이에 적어서이 나쁜 말 상세 버리는 겁니다

1/NB10862819.0030.wav|그리고 나서 일주일

1/NB10862819.0031.wav|1번

1/NB10862819.0032.wav|상대를 열어 보고

1/NB10862819.0033.wav|다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얘기

1/NB10862819.0034.wav|아이들도 이러는데 어른들은 어떨까요

1/NB10862819.0035.wav|주원아 물망 말들을 상대방의 전해 던져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요 며칠 사이에 수두룩 나왔습니다

1/NB10862819.0036.wav|근로자는 사실상이 뭐야

1/NB10862819.0037.wav|밀린 임금 좀 해결해 달라면서 찾아온 인터넷 설치 기사들에게

1/NB10862819.0038.wav|지역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되돌려준 막 말이었어

1/NB10862819.0039.wav|몰랑이 되니까이 사람은 직위 해제 되었습니다

1/NB10862819.0040.wav|가장 시간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 줄 것

1/NB10862819.0041.wav|한 대학의이 사장도 이렇게 막말 파문

1/NB10862819.0042.wav|사진 삭제해 줘

1/NB10862819.0043.wav|초등학생 제자에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을 날려 선생님은 학부모 회의해서 결국 고소를 당했습니다

1/NB10862819.0044.wav|실록 막말 시대를 펴낸 원로 언론인 전경이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군요 말과 글의 폭력은 몽둥이나 찻집 보다 무서운 공포의 흉기

1/NB10862819.0045.wav|예

1/NB10862819.0046.wav|온 사회가 분노조절장애 걸린듯 막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

1/NB10862819.0047.wav|몽둥이와 책 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

1/NB10862819.0048.wav|허공을 날아다니는 새는

1/NB10862819.0049.wav|여기에는 그 어떠한 해약도 풍자도 없습니다

1/NB10862819.0050.wav|그냥 흉기 일 뿐이다

1/NB10862819.0051.wav|자 다시 나쁜 말 상자를 꺼내 볼까요

1/NB10862819.0052.wav|이른바 막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꽁꽁 싸매서 상자에 버린다는 것인데

1/NB10862819.0053.wav|어떤 말들을 넣어 주시겠습니까

1/NB10862819.0054.wav|확인

1/NB10862819.0055.wav|요즘 나라 사전공연

1/NB10862819.0056.wav|제법 커다란 나쁜 말 상대가 필요하긴 하겠죠

1/NB10862819.0057.wav|사드란 총리

1/NB10862819.0058.wav|오늘 둘러싼 춤

1/NB10862819.0059.wav|우리들의 세금을 마구 써버린 위정자

1/NB10862819.0060.wav|그런데도 누구 하나 사고 하지 않았나

1/NB10862819.0061.wav|자 그래도 흉기 같은 욕설은 차라리 상자에 넣어 주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

1/NB10862819.0062.wav|정신 건강을 위해서

1/NB10862819.0063.wav|안 그래도

1/NB10862819.0064.wav|해학과 풍자 담긴 패러디

1/NB10862819.0065.wav|할아버지들은

1/NB10862819.0066.wav|엄청 아닐까요

1/NB10862819.0067.wav|오늘의 앵커브리핑

1/NB10867434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67434.0001.wav|예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적 처지를 비유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

1/NB10867434.0002.wav|이게 좀 자 자기야 저기다 이런 비판이 나와서

1/NB10867434.0003.wav|다른 표현도 나왔습니다

1/NB10867434.0004.wav|돌고래

1/NB10867434.0006.wav|고래보다 몸집은 작지만 주도권을 쥐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면 전달하는 의미입니다

1/NB10867434.0007.wav|윤병세 외교장관 역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두고 새우등 터지는게 아니라 축복이다

1/NB10867434.0008.wav|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

1/NB10867434.0009.wav|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외교

1/NB10867434.0010.wav|과연 새우등이 아니네

1/NB10867434.0011.wav|돌고래 그리고

1/NB10867434.0012.wav|축복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

1/NB10867434.0013.wav|링거

1/NB10867434.0014.wav|오늘 앵커브리핑 보름달

1/NB10867434.0015.wav|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

1/NB10867434.0016.wav|열 이틀간 나라를 비운 사이에

1/NB10867434.0017.wav|국내 정치는

1/NB10867434.0018.wav|그야말로

1/NB10867434.0019.wav|파란만장 했습니다

1/NB10867434.0020.wav|대통령은 중남미 월 우호증진 너 확산을 위해서

1/NB10867434.0021.wav|수액 링거까지 맞아 가면서 강행군을 소화했다고

1/NB10867434.0022.wav|합니다

1/NB10867434.0023.wav|앞으로도 며칠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청와대는 전하고 있고

1/NB10867434.0024.wav|그리고 그 열이틀 사이에 주변국의 움직임은 분주했습니다

1/NB10867434.0025.wav|황용 부총리가 대신 참석했던 반둥 정상회의 60주년 기념 회의에서는

1/NB10867434.0026.wav|서로 돌아가셨던 중국과 일본의 정상이

1/NB10867434.0027.wav|마주 앉아

1/NB10867434.0028.wav|일종의 신뢰 결과였습니다

1/NB10867434.0029.wav|아베는

1/NB10867434.0030.wav|일본 총리 최초의 리에 회상 하원 합동연설 위해서 오늘

1/NB10867434.0031.wav|미국으로 날아갔다

1/NB10867434.0032.wav|과거사를 반성하라는 얘기는 미국에서도 나옵니다만

1/NB10867434.0033.wav|왠지 그 말의 무게가 느껴지기 보다는

1/NB10867434.0034.wav|의기양양한 아베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

1/NB10867434.0035.wav|그리고 같은 기간 것이 하는 북한 김정은의 다음 달 방 너 계획을 확인해 줬습니다이 자리는

1/NB10867434.0036.wav|김정은의 첫 국제무대 갓

1/NB10867434.0037.wav|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노래

1/NB10867434.0038.wav|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서로 이렇게 간격을 좁혀 있는 가운데

1/NB10867434.0039.wav|정지

1/NB10867434.0040.wav|지정학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위치에 놓여 있고 또

1/NB10867434.0041.wav|사고가 아닌 돌고래 나는 우리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

1/NB10867434.0042.wav|장기간 출장에 그것도 주로 고산지대로 만 다닌 대통령이 지친다 3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

1/NB10867434.0043.wav|묘하게 이렇게 우리 외교에 안녕까지 겹쳐서 떠오르는 오늘입니다

1/NB10867434.0044.wav|대통령의 건강도 사실은 보안 사항인데

1/NB10867434.0045.wav|다른 건 보안을 그렇게 철저히 한다면서 이거 내놓고 공표하는

1/NB10867434.0046.wav|청와대 참모들의 심중은 무엇인지

1/NB10867434.0047.wav|친구들이야 알 수 없습니다 많은

1/NB10867434.0048.wav|아 그러고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을 쓴 김두전 홍보수석이 번외로 쓴 책에는

1/NB10867434.0049.wav|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픈 것도 숨기고 그저 일만 했다는 사랑도

1/NB10867434.0050.wav|나오긴 합니다

1/NB10868977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868977.0001.wav|산에서는 그렇지 않다

1/NB10868977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부른 날입니다

1/NB10868977.0003.wav|지난 1953년 5월 29일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 한 말이야

1/NB10868977.0004.wav|며칠 사이에

1/NB10868977.0005.wav|네팔의 대지진 소식이 전해지고

1/NB10868977.0006.wav|누구야 바로 에베레스트에서 눈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

1/NB10868977.0007.wav|안타까운 마음 한편으로는

1/NB10868977.0008.wav|그 사람이 처음으로 올랐던 사람이

1/NB10868977.0009.wav|떠올랐습니다

1/NB10868977.0010.wav|다 맞은 것처럼 히말라야가 처음으로 허락한 사람은 두 명 이었어

1/NB10868977.0011.wav|뉴질랜드인 에드먼드 힐러리

1/NB10868977.0012.wav|그리고

1/NB10868977.0013.wav|그래도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

1/NB10868977.0014.wav|그의 출신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팔인 이냐 혹은 인도인이

1/NB10868977.0015.wav|그거 에베레스트를 오른 이후에 사람들은 그의 국적을 따지느라고 바빴습니다

1/NB10868977.0016.wav|그러나 요란스런 논쟁을 바라보던 행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

1/NB10868977.0017.wav|산에서는 그렇지 않다

1/NB10868977.0018.wav|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

1/NB10868977.0019.wav|인도인 이건 네팔인 이건 티베트인 이건 그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니

1/NB10868977.0020.wav|전라도 사람 한번 총 미리 시켜 주시기를

1/NB10868977.0021.wav|며칠 전에 나온 여당 대표의 말이다

1/NB10868977.0022.wav|지난 1월에 호남 총리를 기용해 써야 한다고 말했던 당시 야당대표 후보의 말과도 겹쳐지는 거예요

1/NB10868977.0023.wav|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

1/NB10868977.0024.wav|이것이 지역 화합과 대통합을 위한 차원에서 의제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

1/NB10868977.0025.wav|그러나 국민통합을 위한다는 이체하는 오히려 국민 분화를 초래하고 있는

1/NB10868977.0026.wav|같기도 합니다

1/NB10868977.0027.wav|충청 총리대신 호남 총리

1/NB10868977.0028.wav|충청은 발끈했고

1/NB10868977.0029.wav|화남 역시

1/NB10868977.0030.wav|유쾌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

1/NB10868977.0031.wav|호남의 아들

1/NB10868977.0032.wav|우리가 남이가

1/NB10868977.0033.wav|핫바지가 될 순 없다

1/NB10868977.0034.wav|이런 허무한

1/NB10868977.0035.wav|구글

1/NB10868977.0036.wav|우리의 선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뿌리깊은 지역감정을 오히려 심화시키고

1/NB10868977.0037.wav|그것을 이용하는 것은

1/NB10868977.0038.wav|다름아닌

1/NB10868977.0039.wav|정치권이 없어

1/NB10868977.0040.wav|이러니까 인터넷과 SNS 상에서

1/NB10868977.0041.wav|전라디언 경상디언

1/NB10868977.0042.wav|이런 상경한 단어들이 등장한

1/NB10868977.0043.wav|서로를 향한 과도한 비만

1/NB10868977.0044.wav|네가 정말 같은 하늘 같은 지붕을 이걸 사는 사람들이인지를 의심할만한 지경

1/NB10868977.0045.wav|이렇습니다

1/NB10868977.0046.wav|세대간 계층간 또 남녀 간

1/NB10868977.0047.wav|그리고 생겨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극복된 적이 없어 보이네

1/NB10868977.0048.wav|지역 간의 갈등

1/NB10868977.0049.wav|그리고 그것을

1/NB10868977.0050.wav|자양분으로 삼아온 정치

1/NB10868977.0051.wav|그것이 우리

1/NB10868977.0052.wav|현실이죠

1/NB10868977.0053.wav|산에서는 그렇지 않다

1/NB10868977.0054.wav|우리가 바라는 것은

1/NB10868977.0055.wav|전라도 총리

1/NB10868977.0056.wav|경상도 충청도 총리도 아님

1/NB10868977.0057.wav|그저 제대로 된 총일뿐입니다

1/NB10868977.0058.wav|앵커브리핑

1/NB10870781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70781.0001.wav|전국 200 46개 지역구 가운데 단 4곳에 1분을 새로 뽑는 재보선 투표함에 뚜껑이 조금 전에 다쳤습니다

1/NB10870781.0002.wav|활동시간은 내년 총선 까지니까

1/NB10870781.0003.wav|뭐 한 1년 정도가 될 겁니다

1/NB10870781.0004.wav|그러나 정치권은 반 4군데 일꾼을 뽑는 선거에 말 그대로 올인을 하더군요

1/NB10870781.0005.wav|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

1/NB10870781.0006.wav|섬들에 있는 다리를 건설하겠다

1/NB10870781.0007.wav|대선공약에 버금가는 공약들이 이렇게 나무로 했고

1/NB10870781.0008.wav|차기 대선주자로 불리는 여야의 대표들이 경쟁하듯이 총출동했습니다

1/NB10870781.0009.wav|정작 출발 후보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경인데

1/NB10870781.0010.wav|각 당의 대표 얼굴만 집중 부각이 됐죠

1/NB10870781.0011.wav|그래서 사진만 본다면 이렇게

1/NB10870781.0012.wav|재보선이 아니라

1/NB10870781.0013.wav|예선전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

1/NB10870781.0014.wav|정권 심판대 안정적 국정운영

1/NB10870781.0015.wav|늘 나오는 굿입니다

1/NB10870781.0016.wav|90년동안 들어온 보여서

1/NB10870781.0017.wav|유권자로서 \* 감동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870781.0018.wav|그래서였을까

1/NB10870781.0019.wav|지역 선거에 사활을 건 양당의 대표들은

1/NB10870781.0020.wav|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

1/NB10870781.0021.wav|이상하게 지금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

1/NB10870781.0022.wav|자 그런데 여기 응 답이라도 하듯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

1/NB10870781.0023.wav|와병중이란은 대통령은 사과라는 단어는 빠진 돼

1/NB10870781.0024.wav|메시지를

1/NB10870781.0025.wav|발표해서

1/NB10870781.0026.wav|선거 개입 논란이라는 새로운 불씨를 당겼다

1/NB10870781.0027.wav|물론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치권이 그동안 잘 받는 거에 대해서 내리는 유권자의

1/NB10870781.0028.wav|심판 위로합니다

1/NB10870781.0029.wav|따라서 최근에 불거진 정치자금 수 46c 이번 재보선과 별개로 떼놓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

1/NB10870781.0030.wav|그러나 정식 보내 버린 한 판 전쟁은 이것이 과연 지역을 대표로 해서

1/NB10870781.0031.wav|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 재보선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

1/NB10870781.0032.wav|그것도 내일 온대요

1/NB10870781.0033.wav|아마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

1/NB10870781.0034.wav|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는 것부터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닌데다가

1/NB10870781.0035.wav|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하니

1/NB10870781.0037.wav|무능한 야당을 꾸짖어 달라 하니

1/NB10870781.0038.wav|부담스러워 쓰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870781.0039.wav|이렇듯 과잉으로 점철된 한 바탕 소란죄 남는 것은 무엇일까

1/NB10870781.0040.wav|쏟아져 나온 공약들은 이제 겨우 남아 있는 1년 동안 대체 이룰 수 있기나 한 건가

1/NB10870781.0041.wav|우리는 이미 5년에 정권을 담보로 한 공약들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

1/NB10870781.0042.wav|발랑 레이 지역의 선거로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평가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

1/NB10870781.0043.wav|그러기 위해서 지켜질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공약들

1/NB10870781.0044.wav|한바탕 휩쓸고 간 저 자리에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

1/NB10870781.0045.wav|그러한 공약들로 혹은 뻔한 구호로 전승을 한들 혹은 전패를 한다

1/NB10870781.0046.wav|그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

1/NB10870781.0047.wav|하는가

1/NB10870781.0048.wav|또한

1/NB10870781.0049.wav|이런 정치권이 버려 놓은 자리를 쫓아가면서 경마식 보도록 부추기는 언론은

1/NB10870781.0050.wav|어떤가

1/NB10870781.0051.wav|투표하면 다쳤고 이제 잠시 주위의 결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

1/NB10870781.0052.wav|현명하게 투표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

1/NB10870781.0053.wav|그리고

1/NB10870781.0054.wav|결과에 대한 해석 역시

1/NB10870781.0055.wav|마찬가지입니다

1/NB10872392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이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72392.0001.wav|백설 공주가 잠이 들어 있습니다

1/NB10872392.0002.wav|다 아시는 얘기죠

1/NB10872392.0003.wav|왕자가 찾아옵니다

1/NB10872392.0004.wav|그런데 보내도 없는 말을 던지더군요

1/NB10872392.0005.wav|납품은 내일까지

1/NB10872392.0006.wav|공주는 벌떡 일어나고

1/NB10872392.0007.wav|왕자가 한마디를 덧붙여

1/NB10872392.0008.wav|잠자는 시간은 월급 안 준대

1/NB10872392.0009.wav|이 말을들은 백설 공주

1/NB10872392.0010.wav|충격을 받았어 정말로 죽어버렸다는 얘기

1/NB10872392.0011.wav|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

1/NB10872392.0012.wav|얼마 전부터 일본에서 유행하는 사축동화 중에 하나입니다

1/NB10872392.0013.wav|사축

1/NB10872392.0014.wav|즙

1/NB10872392.0015.wav|직장인이 회사에 가축처럼 길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말 그대로 이쁘게 표현한 이야기 드림

1/NB10872392.0016.wav|내 꿈은 정규직

1/NB10872392.0017.wav|이런 제목의 모바일 게임도 등장했습니다

1/NB10872392.0018.wav|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임인데

1/NB10872392.0019.wav|게임 속의 생존의 방식이 좀 곤란합니다

1/NB10872392.0020.wav|상사가 썰렁한 유머를 던졌는데 웃지 않더니

1/NB10872392.0021.wav|회식 자리에서 감히 탕수육을 시키고

1/NB10872392.0022.wav|아니면

1/NB10872392.0023.wav|땅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봉지를 안 뜯었다

1/NB10872392.0024.wav|등등에 시술하면 가차 없이

1/NB10872392.0025.wav|권고사직 이상합니다

1/NB10872392.0026.wav|최근에 화제가 된 드라마에서도 초능력자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같은 면접을 연거푸 보게 되는데 그래도 취업이 안 되는 것은

1/NB10872392.0027.wav|포 능력 저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

1/NB10872392.0028.wav|일하는 사람들 혹은

1/NB10872392.0029.wav|일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

1/NB10872392.0030.wav|자신들의 아픈 현실을 스스로 풍자하는 이야기들은

1/NB10872392.0031.wav|유행했던 노래 가사처럼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

1/NB10872392.0032.wav|메이데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의 마지막 방입니다

1/NB10872392.0033.wav|달력을 다시 들어가 보니까 울보 메뉴도

1/NB10872392.0034.wav|고단한 일들이

1/NB10872392.0035.wav|참으로 많았어

1/NB10872392.0036.wav|이럴 때 그나마 위안이 되는 대답

1/NB10872392.0037.wav|역시 휴식이 아닌가 싶습니다

1/NB10872392.0038.wav|노동절인 내일부터 수요일 어린이 날까지 이름 바꿀 휴가가 시작됩니다

1/NB10872392.0039.wav|물론 근무하신 분들 계시죠

1/NB10872392.0040.wav|한해 3분의 1을 잘 견디는 이들에게 주어진 소소한 선물이 수도 있습니다

1/NB10872392.0041.wav|열심히 일해요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노동 저래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

1/NB10872392.0042.wav|노동절에 쉬지 못해서 좋으니까 일할 직장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들 모두에게

1/NB10872392.0043.wav|심기일전 할 기회가 되시길

1/NB10872392.0044.wav|빕니다

1/NB10872392.0045.wav|누가 어떻게 비 하더라도

1/NB10872392.0046.wav|노동은

1/NB10872392.0047.wav|나와 가족을 위한 밥벌이는

1/NB10872392.0048.wav|아무도

1/NB10872392.0049.wav|누구도

1/NB10872392.0050.wav|함부로 여길 수 없는 숭고한 일이 되니까

1/NB10875382.0000.wav|최승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니

1/NB10875382.0001.wav|아버지 뭐 하시니

1/NB10875382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얼른 말해

1/NB10875382.0003.wav|골드키즈 란 말이 있죠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양가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외삼촌까지

1/NB10875382.0004.wav|어른 여덟 명이 지갑을 연단 얘기

1/NB10875382.0005.wav|그런데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

1/NB10875382.0006.wav|이건 웬만한 골드 퀴즈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소식이 전해졌다

1/NB10875382.0007.wav|1억원 이상의 상장주식을 가진 12살 이하의 꼬마 주식 부자가 모두 100 21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

1/NB10875382.0008.wav|이주현 아직 첫 돌도 안된 전 먹이 주식투자도 있었고

1/NB10875382.0009.wav|알고 보니 넘는 주식을 가진 어린 갑부가

1/NB10875382.0010.wav|여덟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

1/NB10875382.0011.wav|대부분은 부자 할아버지의 지극한 손주 사랑이었다

1/NB10875382.0012.wav|고만 합니다만

1/NB10875382.0013.wav|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

1/NB10875382.0014.wav|소희이 내리사랑은 매우 친밀하기까지 합니다

1/NB10875382.0015.wav|짬짬이 증여 집

1/NB10875382.0016.wav|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손주들에게 회사 주식을 말 그대로

1/NB10875382.0017.wav|살금살금 물려준다는 얘기입니다

1/NB10875382.0018.wav|덕분에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 하지 못한 수십억 혹은 수백억대 주식 부자 도련님 갖고 아가씨가 줄지어 탄생하는 중입니다

1/NB10875382.0019.wav|KDI가 최근에 나온 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부와 학력이 대물림되고 있는 사회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

1/NB10875382.0020.wav|삼 식상한 얘기

1/NB10875382.0021.wav|상식에 속하는 것이어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

1/NB10875382.0022.wav|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대학에서 지난 주에 학과별로 주요 학부모를 파악해 달라는 공문

1/NB10875382.0023.wav|이 주요 학부모는 예를 들면

1/NB10875382.0024.wav|고위공무원 권력자 돈 많이 가진 아버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뭐 하시냐 아는 내용

1/NB10875382.0025.wav|조사지가 작성 돼서

1/NB10875382.0026.wav|논란이 되기도 했다

1/NB10875382.0027.wav|파이어로 지금 세상은 마치 영화 대사처럼

1/NB10875382.0028.wav|아이들에게 너는 누구냐 그 아닌 아버지 뭐 하시니

1/NB10875382.0029.wav|이렇게 묻는 세상이

1/NB10875382.0030.wav|돼 버리네

1/NB10875382.0031.wav|우리는 아이들에게 미래세대라는 호칭을 달아줬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우리보다는 더 나은 더 행복한 세상을 살게 하고 싶은 그런 희망 때문이겠지

1/NB10875382.0032.wav|그러나 미래세대라고 불리는 아이들에게

1/NB10875382.0033.wav|미래가 아닌

1/NB10875382.0034.wav|과거 집 아버지 뭐 하시냐를 먼저 묻는 어른

1/NB10875382.0035.wav|아이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인가

1/NB10875382.0036.wav|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꿈 꾸라고 해야 할 것인가

1/NB10875382.0037.wav|내일이 어린이 날이니까 어른들은

1/NB10875382.0038.wav|방금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

1/NB10875382.0039.wav|적어도 이런 질문에 대한 현명한 밥이

1/NB10875382.0040.wav|억대

1/NB10875382.0041.wav|억대 주식보다는

1/NB10875382.0042.wav|같이 있는 세상이었으면

1/NB10875382.0043.wav|좋겠습니다

1/NB10875382.0044.wav|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

1/NB10875382.0045.wav|요원하다 하늘 생각 있음

1/NB10876185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 개

1/NB10876185.0002.wav|개인적으로 매우 인상 깊어서 이미 한두 번 인용해 드렸던 말이기도 합니다

1/NB10876185.0003.wav|오늘 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

1/NB10876185.0004.wav|같은 화면에서 방정환 선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

1/NB10876185.0005.wav|싹을 위로 보내고

1/NB10876185.0006.wav|우리는 일정이 밑으로 가자

1/NB10876185.0007.wav|싹이 위로 가고 뿌리가 밑으로 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치입니다

1/NB10876185.0008.wav|그러나 80년 전에 남긴 방정환 선생의

1/NB10876185.0009.wav|말들이

1/NB10876185.0010.wav|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은

1/NB10876185.0011.wav|세상의 이치와는 달리

1/NB10876185.0012.wav|우리가 올라와서

1/NB10876185.0013.wav|목청을 높이는 4일

1/NB10876185.0014.wav|닭들은 그 밑에 눌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

1/NB10876185.0015.wav|3 40년 뒤진 옛사람들이 30년 앞선 새 사람들을 잡아 끌지 말고

1/NB10876185.0016.wav|먼저 산 사람들이 사실은 뒤져 있다는 것

1/NB10876185.0017.wav|1시 노선

1/NB10876185.0018.wav|놀랄 수밖에 없는

1/NB10876185.0019.wav|소파 선생님

1/NB10876185.0020.wav|2통찰력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

1/NB10876185.0021.wav|어린 새 사람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는 오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

1/NB10876185.0022.wav|다시 한번

1/NB10876185.0023.wav|오라버니

1/NB10876185.0024.wav|어린이날

1/NB10877564.0000.wav|jtbc 뉴스룸 2부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77564.0001.wav|물주

1/NB10877564.0002.wav|오늘

1/NB10877564.0003.wav|단어입니다

1/NB10877564.0004.wav|배신 지갑을 여는 사람을 말하죠 원래 인물 중에 권하는

1/NB10877564.0005.wav|막강합니다

1/NB10877564.0006.wav|누구 작물 주인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니까

1/NB10877564.0007.wav|근데 요즘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돈을 보면 물 주라고 해서 모두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

1/NB10877564.0008.wav|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

1/NB10877564.0009.wav|정치권이 합의에 따른 공무원연금개혁 안은 오늘 다시 미궁속으로 빠졌고 국민연금 논란까지 겹쳐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

1/NB10877564.0010.wav|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%에서 50%로 올리려면

1/NB10877564.0011.wav|모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

1/NB10877564.0012.wav|그건 잔고가 바닥나는 시점은 언제인지

1/NB10877564.0013.wav|또 올리겠다는 것인지 안 올리겠다는 것인지

1/NB10877564.0014.wav|아무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

1/NB10877564.0015.wav|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

1/NB10877564.0016.wav|국민은 자신들의 미래가 달린 수학 난제에 진이 빠질 지경입니다

1/NB10877564.0017.wav|지금 보기에도 정말 어지럽고

1/NB10877564.0018.wav|더군다나 정작 지갑을 더 열어야 할 사람은 미래세대인데 아무도 그들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

1/NB10877564.0019.wav|물 주는 물주 일해

1/NB10877564.0020.wav|아무거나 나도 없이 그저

1/NB10877564.0021.wav|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의 계산서 만 받은 셈입니다

1/NB10877564.0022.wav|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정신들은 입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너무 쉽게 풀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

1/NB10877564.0023.wav|매우 정치적으로 말이지

1/NB10877564.0024.wav|8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 35%에 육박하던 20대가 이제는

1/NB10877564.0025.wav|절반으로 뚝 떨어져서

1/NB10877564.0026.wav|그 대표가 두렵지 않은 데다가

1/NB10877564.0027.wav|나중에 부담을지게 될 미래 유권자들은

1/NB10877564.0028.wav|당장 내년 총선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라는 것을

1/NB10877564.0029.wav|정신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

1/NB10877564.0030.wav|미래 세대의 동탁이 됐을 수도 있는 정책을 이른바 정치적 회비로

1/NB10877564.0031.wav|뚝딱 해치워버려 김인 하면 이렇게 변하면

1/NB10877564.0032.wav|정신 들어 너무 서운해 할까

1/NB10877564.0033.wav|물론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단지 정치적 계산만으로 해치우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은

1/NB10877564.0034.wav|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

1/NB10877564.0035.wav|그렇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의 이런 생각이 혹은 이런 의심이

1/NB10877564.0036.wav|매우 근시안적 일하는 반론의 근거를 보여줘야만 합니다

1/NB10877564.0037.wav|오늘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

1/NB10877564.0038.wav|역사적으로 시간을 더 생긴 셈인데 그렇다면

1/NB10877564.0039.wav|그 답을들을 수 있을까요

1/NB10877564.0040.wav|그러나 우리가 여태껏 더운 것은 난무하는 계산법

1/NB10877564.0041.wav|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강요된 위기감 뿐이었습니다

1/NB10877564.0042.wav|미래 세대들은 말그대로 미래는 우리를 먹여살려야 할 물주 드림에 틀림이 없습니다

1/NB10877564.0043.wav|그럼에도 불구하고

1/NB10877564.0044.wav|물 두드러기

1/NB10877564.0045.wav|묻지도 따지지도 않고

1/NB10877564.0046.wav|부담을 전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

1/NB10877564.0047.wav|그 답을 우리는

1/NB10877564.0048.wav|원합니다

1/NB10877564.0049.wav|어제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 선생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있죠 3사 10년 앞서간 나이든 사람들이 사실은 3 40년 뒤쳐진 사람들이

1/NB10877564.0050.wav|뒤처지는 어른들이 앞서가고 있는 미래세대를 눌러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

1/NB10877564.0051.wav|그 말씀이

1/NB10877564.0052.wav|하루만에 다시 떠오른다

1/NB10877564.0053.wav|오늘입니다

1/NB10879028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열기

1/NB10879028.0002.wav|원샷

1/NB10879028.0003.wav|원킬

1/NB10879028.0004.wav|오늘의 단어

1/NB10879028.0005.wav|1972년 2월 24일 새벽

1/NB10879028.0006.wav|단돈 만 4천원만 달랑 들고 서울역에 내렸다

1/NB10879028.0007.wav|산골소녀

1/NB10879028.0008.wav|홍준표 경남도지사

1/NB10879028.0009.wav|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했던 말입니다

1/NB10879028.0010.wav|점심시간 수돗물로 고픈 배를 채웠다는 산골 아니야

1/NB10879028.0011.wav|집권당 대표를 거쳐서

1/NB10879028.0012.wav|도지사가 되기까지

1/NB10879028.0013.wav|맨주먹으로 상경해서

1/NB10879028.0014.wav|강자들과 좌충우돌 해온 그의 인생

1/NB10879028.0015.wav|드라마틱이라는 표현이 잘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

1/NB10879028.0016.wav|실제로 그가 주목 받았던 기억이 역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지요

1/NB10879028.0017.wav|지금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보이긴 합니다

1/NB10879028.0018.wav|단돈 14000원을 들고 상경 했던 산골 소년

1/NB10879028.0019.wav|역시 단돈 100원을 손에 쥐고 상경 했거든

1/NB10879028.0020.wav|또 다른 사람 소년

1/NB10879028.0021.wav|성완종 씨의 리스트에 올라서

1/NB10879028.0022.wav|검찰에 제 1호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

1/NB10879028.0023.wav|그를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검찰의

1/NB10879028.0024.wav|피의자 신분으로

1/NB10879028.0025.wav|추석 가게 된 거

1/NB10879028.0026.wav|그는 저격수라는 별칭답게

1/NB10879028.0027.wav|권력자들을 정조준 했습니다

1/NB10879028.0028.wav|과거 자신의 저축은행 불법자금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위원에게 이렇게 충고 했지요

1/NB10879028.0029.wav|스나이퍼는 원샷 원킬

1/NB10879028.0030.wav|잘못 쓰면 자신이 죽는다

1/NB10879028.0031.wav|저격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기가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

1/NB10879028.0032.wav|그럼 지금 거꾸로 줘 준다 1 스나이퍼가 더 있습니다

1/NB10879028.0033.wav|물론 수상은 해 봐야 아는 것이고

1/NB10879028.0034.wav|일관된 주변인들에 진술이 있긴 하지만 아직 그 혐의가

1/NB10879028.0035.wav|확정된 것은 아닙니다

1/NB10879028.0036.wav|승부사 기질에 홍준표 지사는 자신을

1/NB10879028.0037.wav|변방의 인물로 묘사 보냈어

1/NB10879028.0038.wav|그의 자서전에 제목도 변 방이죠

1/NB10879028.0039.wav|두리의 섞이지 않고

1/NB10879028.0040.wav|전방에서 주리를 겨냥하는 적이 없어

1/NB10879028.0041.wav|그래서 그의 존재가치는

1/NB10879028.0042.wav|전방에서 빛났어

1/NB10879028.0043.wav|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로 들어오려는 순간 그의 정신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

1/NB10879028.0044.wav|이번에 문제가 된 성완종 씨 1억원 전달 주장하는 바로 그가

1/NB10879028.0045.wav|변방에서 벗어나 소주 리로 진출하려 했던

1/NB10879028.0046.wav|집권당의 대표 경선 당시에 얘기 기도합니다

1/NB10879028.0047.wav|지난 2011년 그 경선 끝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된

1/NB10879028.0048.wav|그래

1/NB10879028.0049.wav|이런 취임사를 남겼습니다

1/NB10879028.0050.wav|이제 홍준표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왔습니다

1/NB10879028.0051.wav|그러나 그 치열했던

1/NB10879028.0052.wav|전방 정신을 잊지 않고

1/NB10879028.0053.wav|홍준표 한나라당 배역을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879028.0054.wav|지난 15년 동안 그와 인터뷰를 해 왔던

1/NB10879028.0055.wav|진행자로서

1/NB10879028.0056.wav|많은 상념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

1/NB10879028.0057.wav|자 이제 다시 냉엄한 현실로 돌아가기

1/NB10879028.0058.wav|원시

1/NB10879028.0059.wav|원킬

1/NB10879028.0060.wav|잘못 보면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다는

1/NB10879028.0061.wav|냉엄한 스나이퍼의 법

1/NB10879028.0062.wav|그 스나이퍼의 법칙을

1/NB10879028.0063.wav|이자는

1/NB10879028.0064.wav|검찰이 감당하기를

1/NB10879028.0065.wav|앵커

1/NB10882907.0000.wav|내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 해는

1/NB10882907.0001.wav|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

1/NB10882907.0002.wav|같이 만나 보시죠

1/NB10882907.0003.wav|저는 강릉에서 올라온 11남매 엄마 현장입니다 제가 나오니 오늘이 조금 특별한 날

1/NB10882907.0004.wav|이별의 날이어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

1/NB10882907.0005.wav|저희 가족은요 예쁜엄마 멋진 아빠 그리고 큰 딸 지은이 하은아 손화민 요한 사랑해 쌀 다니엘 한결아 나 지금 막내 행복이까지 모두 열쇠 명이에요 배 가족이죠 한 달여 먹는 쌀만 해도요 그리고요 간식은요 라면이 이만큼 이만큼 해요 11명이 아이들은 모두 제가 가슴으로 나왔어요

1/NB10882907.0006.wav|원래는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여러 번 유산을 하고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

1/NB10882907.0010.wav|잘 들었습니다

1/NB10882907.0011.wav|저도 오늘 모처럼 동화책 한 권을 펴 봤습니다

1/NB10882907.0012.wav|나는 아빠랑 왜 달라

1/NB10882907.0014.wav|두더지 아빠 두 바바와 원숭이 아들 분 눈에 얘깁니다

1/NB10882907.0015.wav|가족을 잃고 아빠 두더지 손의 잘한 원숭이 2는

1/NB10882907.0016.wav|오늘 날 고민에 빠집니다

1/NB10882907.0017.wav|높은 나무 위에서 사는 다른 원숭이 친구들과는 달리 2는 땅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

1/NB10882907.0018.wav|게다가 돈은

1/NB10882907.0019.wav|아빠 하고는 생김새가 달라도 너무 달라 찌요

1/NB10882907.0020.wav|그러나 똑똑한 원숭이 돈은 알게 됩니다

1/NB10882907.0021.wav|겉모습은 달라도

1/NB10882907.0022.wav|오늘은 아빠의 아들이야

1/NB10882907.0023.wav|또 땅 속에 살아

1/NB10882907.0024.wav|원숭이라는 변함없는 사실

1/NB10882907.0025.wav|깨닫게 되는 것

1/NB10882907.0026.wav|그래서

1/NB10882907.0027.wav|세상에서 땅굴을 제일 잘 파는 꼬마 원숭이 두는

1/NB10882907.0028.wav|두더지 아빠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

1/NB10882907.0029.wav|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

1/NB10882907.0030.wav|조금씩 다르다 해도 금세 닮아 가거든요

1/NB10882907.0031.wav|함께 행복한 삶을 나눠 가면 참 좋겠습니다

1/NB10882907.0032.wav|그리고 언젠가

1/NB10882907.0033.wav|밀양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만나신다면

1/NB10882907.0034.wav|정말 잘 자랐구나

1/NB10882907.0035.wav|토닥토닥 다들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

1/NB10882907.0036.wav|그럼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니까요

1/NB10882907.0037.wav|예

1/NB10882907.0038.wav|윤정희 씨 고맙습니다

1/NB10882907.0039.wav|예

1/NB10882907.0040.wav|적어도 잘 하셨어요

1/NB10882907.0041.wav|고맙습니다

1/NB10882907.0042.wav|오늘 입양의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해외입양을 보내는 나라의

1/NB10882907.0043.wav|작년에는

1/NB10882907.0044.wav|10년만에 후속작

1/NB10882907.0045.wav|오전 들었어

1/NB10884513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었습니다

1/NB10884513.0001.wav|킹스맨 놀이

1/NB10884513.0002.wav|들어보셨는지요

1/NB10884513.0003.wav|몇 달 전에 개봉됐던 영화 킹스 맨에서 배우 콜린 퍼스가 입었던 세련된 머리 모양

1/NB10884513.0004.wav|소품 등을 남성들이 놀이하듯 따라 하고 있는 현상을

1/NB10884513.0005.wav|말한다고 합니다

1/NB10884513.0006.wav|아 물론 영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이른바 수파리 살고 또 매너가 좋으리라는 법은 없지만

1/NB10884513.0007.wav|흔히들 얘기하는 영국 신사가 아주 빈말은 아니라는 걸 영화는 보여줍니다

1/NB10884513.0008.wav|게다가 이미 유명해진 교회 책상 신에서는

1/NB10884513.0009.wav|말끔한 성장과 대비되는 무차별 살상 했으니 묘한 조화를 이루면서

1/NB10884513.0010.wav|보는 사람들에게 쾌감을 일으키게 하지

1/NB10884513.0011.wav|상대방을 가차없이 공격 하면서도 후미는 잃지 말자

1/NB10884513.0012.wav|영화 킹스맨 2 보여 준 매우 인상적인

1/NB10884513.0013.wav|구조화 속에 조회하였습니다

1/NB10884513.0014.wav|공갈 치는 것이

1/NB10884513.0015.wav|예

1/NB10884513.0016.wav|요 며칠간 많이 우리가 대체

1/NB10884513.0017.wav|야당 대표 최고위원 일하는 분들의 공식 회의에서 나온

1/NB10884513.0018.wav|언행에 품격 있습니다

1/NB10884513.0019.wav|국민 앞에 고스란히 준비되는 자리에서 망 마리오 갖고 때아닌 노래가락 맞아 등장을 했습니다

1/NB10884513.0020.wav|물론 여당이라고 해서 야당 보다 품위가 있는 야

1/NB10884513.0021.wav|절대 그렇지 않습니다

1/NB10884513.0022.wav|다 읽어 드릴까요

1/NB10884513.0023.wav|생략하겠습니다

1/NB10884513.0024.wav|나 보고 있을 테니까요 여당 의원들에 한 말들입니다

1/NB10884513.0025.wav|오늘도 국회에서는 또 한번 막말과 고성과 울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번에 다 프란시스 커뮤니케이션즈 배설 커뮤니케이션 대해서 말씀드린 뭐가 있습니다

1/NB10884513.0026.wav|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닌

1/NB10884513.0027.wav|자신의 지지자들을 카타르시스 시켜 주면 그 말인 소통 방법 바로 그것이

1/NB10884513.0028.wav|우리 정치인들의 품격을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내 버린 것이 아닐까

1/NB10884513.0029.wav|명예로운 아무거나 위원님께서는 용호상 부정확함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

1/NB10884513.0030.wav|킹스맨에 고향인 영국 의회에서 윈스턴 처칠 했던 말입니다

1/NB10884513.0031.wav|그는 자신을 모욕하는 상대방에게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품위 있게 응대 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도 말끝마다 아니 말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하자

1/NB10884513.0032.wav|존경하는 아무개 위원 개선

1/NB10884513.0033.wav|정말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

1/NB10884513.0034.wav|자 이렇게 만들면 너무 작정이 됩니다 한국정치에서

1/NB10884513.0035.wav|품위 있는 토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

1/NB10884513.0036.wav|저는 직접

1/NB10884513.0037.wav|그 토론에 사회를 본 적도 있습니다

1/NB10884513.0038.wav|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

1/NB10884513.0039.wav|2012년 지난 대선을 하루 앞둔 날 아침에

1/NB10884513.0040.wav|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해서 제가 진행하던 라디오에 출연했던 노 정치인들이 토론을 버렸을 때

1/NB10884513.0041.wav|가장 많이 나왔던 말입니다

1/NB10884513.0042.wav|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

1/NB10884513.0043.wav|그러나 물론 토론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예 바로이 두 분의 토론

1/NB10884513.0044.wav|막말도 없었고

1/NB10884513.0045.wav|고성도 없었습니다

1/NB10884513.0046.wav|막말이나 삿대질이 아니더라도 박수학 공감을 수 있는 그래서 상대는 자기 편이든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은

1/NB10884513.0047.wav|멀리 있지 않습니다

1/NB10884513.0048.wav|아까 소개해 드린 그 토론 있었던 날 많은 분들이 정말

1/NB10884513.0049.wav|진영을 가리지 않고

1/NB10884513.0050.wav|훌륭한 토론이 없다고 말씀드리 하셨습니다

1/NB10884513.0051.wav|오늘의 키워드

1/NB10884513.0052.wav|킹스맨 노래

1/NB10884513.0053.wav|정장 입고

1/NB10884513.0054.wav|상대를 품위있게

1/NB10884513.0055.wav|그러나

1/NB10884513.0056.wav|가차없이 찌르기

1/NB10884513.0057.wav|우리 정치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노래입니다

1/NB10884513.0058.wav|IKEA

1/NB10886115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86115.0001.wav|조금 늦었지만

1/NB10886115.0002.wav|논란이 됐던

1/NB10886115.0003.wav|이른바 자목 동지를

1/NB10886115.0004.wav|다시 꺼내 봤습니다

1/NB10886115.0005.wav|일부 종교단체에서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책이 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냈다

1/NB10886115.0006.wav|인터넷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비난은

1/NB10886115.0007.wav|11승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는

1/NB10886115.0008.wav|어찌 보면

1/NB10886115.0009.wav|자목동자 거라서 무시무시 했을 것 같습니다

1/NB10886115.0010.wav|어찌됐든 지금이 책은 이미 전량 폐기 되었습니다

1/NB10886115.0011.wav|논란이 사그라드는 시점에서 질때이 책을 집어든 이유는 있습니다

1/NB10886115.0012.wav|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죠

1/NB10886115.0013.wav|아동 놀이권 혼자

1/NB10886115.0014.wav|오늘 정부가 제정하기로 했다는 원장입니다

1/NB10886115.0016.wav|지금은 사문화 되어 버린지 오래인 국민 교육 헌장이 떠오르기도 합니다

1/NB10886115.0017.wav|우리나라 어린이의 행복도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위치라는 사실 이미 모두들 알고 계실텐데요

1/NB10886115.0018.wav|그래서 정부가

1/NB10886115.0019.wav|아동 행복도를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

1/NB10886115.0020.wav|차 그런데 이게 헌장을 만들어서 어떤 일입니까

1/NB10886115.0021.wav|이러다가 수학 경시 대회 내보내는 아이들처럼

1/NB10886115.0022.wav|행복도 역시

1/NB10886115.0023.wav|바짝

1/NB10886115.0024.wav|과외 선생님 붙여서 올려 놓는 것이 아닌가

1/NB10886115.0025.wav|걱정이 되기도 해

1/NB10886115.0026.wav|냉정하게 살펴보죠

1/NB10886115.0027.wav|우리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시간과 공간을 주었던 건가요

1/NB10886115.0028.wav|세월호 이후에 그저 아이들이 집에만 돌아와도 눈물겹게 고맙다는 어른들은

1/NB10886115.0029.wav|어느 사이에 당신의 기억을 잃어 버리고 말았습니다

1/NB10886115.0030.wav|그건 어른들도 어쩔 수 없는 경쟁사회에 이니까

1/NB10886115.0031.wav|너무 어른들만 탓하지 말자

1/NB10886115.0032.wav|그 말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

1/NB10886115.0033.wav|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

1/NB10886115.0034.wav|한국 사회의 어른들은 과연 아이들에게

1/NB10886115.0035.wav|간혹 하지 않은가

1/NB10886115.0036.wav|하루종일 폭력과 성을 아이들의 자그만 머리 속에 구겨넣고 있는

1/NB10886115.0037.wav|한국의 어른들은

1/NB10886115.0038.wav|한옥 하지 않은가

1/NB10886115.0039.wav|잠시 뒤에도

1/NB10886115.0040.wav|지들은 초등학교 바로 앞에 버젓이 자리 잡은 유흥가에 모습을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

1/NB10886115.0041.wav|이른바 잔업 동시를 비난하는 기사가 넘쳐나던 그 언론사들의 홈페이지

1/NB10886115.0042.wav|49 보다 더 엄청난 양의 나 뜨거운 성적 광고가 넘쳐나

1/NB10886115.0043.wav|한국의 어른들은 어린이에게 동심을 강요하고 윽박지를 자격이 있는 것인가

1/NB10886115.0044.wav|중앙일보에 양성희 논설위원

1/NB10886115.0045.wav|논란이 됐던 잔업 동시에 대해서

1/NB10886115.0046.wav|당신 이런 내용의 칼럼을 썼더군요

1/NB10886115.0047.wav|처음엔 성지 텍본 제정신인가 싶기도 했지만

1/NB10886115.0048.wav|30년도 더 지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보니까 소녀의 마음이 궁금해졌다

1/NB10886115.0049.wav|자 16시

1/NB10886115.0050.wav|어른들의 끔찍이도 싫어했던 소녀시대를 겪었다는 것이다

1/NB10886115.0051.wav|양성희 논설위원

1/NB10886115.0052.wav|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

1/NB10886115.0053.wav|어른들이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아동 놀이권 혼자

1/NB10886115.0054.wav|그리고 OECD 평균 수준의 어린이 행복도 달성

1/NB10886115.0055.wav|이런 걸 무슨 무역 수출액 팝송처럼 인식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

1/NB10886115.0056.wav|우려가 없어

1/NB10886115.0057.wav|어찌 보면

1/NB10886115.0058.wav|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던 이름 바 잔혹동시

1/NB10886115.0059.wav|그런 어른들이 향한 외침은 아니었을까요

1/NB10886115.0060.wav|놀이밥

1/NB10886115.0061.wav|놀이 운동가 편해문 씨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바빠 같다는 것으로

1/NB10886115.0062.wav|머리를 분계선 안 된다는 거지

1/NB10886115.0063.wav|놀이 밥도 주지 않은 채 동 십만 강요하는

1/NB10886115.0064.wav|지금의 어른들의 모습

1/NB10886115.0065.wav|꺼

1/NB10886115.0066.wav|잔혹동화 간 일치

1/NB10886115.0067.wav|앵커브리핑

1/NB10887802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87802.0001.wav|교사 선생님 스승

1/NB10887802.0002.wav|스승 까진 아니더라도

1/NB10887802.0003.wav|선생님 정돈 돼야지

1/NB10887802.0004.wav|모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뭔가 살갑고 정이 가네

1/NB10887802.0005.wav|공식명칭은 교사 하지만 너무 직접적이고 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

1/NB10887802.0006.wav|가능하면 방송에서도 교사라는 말은 쓰지 않으려 하는 편입니다

1/NB10887802.0007.wav|중고등학생에게 희망 직업을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

1/NB10887802.0008.wav|확인 임용고시라고 하지요 이미 옷이란 단어가 붙은지가 오래됐습니다

1/NB10887802.0009.wav|근데 이런 통계는 바르게 보면 조금 서울 부르기도 합니다

1/NB10887802.0010.wav|선생님이 되고 싶다던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

1/NB10887802.0011.wav|일찍 끝나는 데다가

1/NB10887802.0012.wav|방학 때 쉴 수 있고 충분히 안정적이라서

1/NB10887802.0013.wav|자이 경우에는 스승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

1/NB10887802.0014.wav|그냥

1/NB10887802.0015.wav|교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

1/NB10887802.0016.wav|그렇다면

1/NB10887802.0017.wav|학생들이 그토록 희망하는 집

1/NB10887802.0018.wav|교사가 된 선생님들은 어떨까

1/NB10887802.0019.wav|사장님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

1/NB10887802.0020.wav|교사가 되는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다고 한다

1/NB10887802.0021.wav|우리가 툭하면 인용하기 좋아하는 OECD 국가 중에

1/NB10887802.0022.wav|역시 또 최하위와

1/NB10887802.0023.wav|중앙일보 박시현 SNS 단어 10억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니까

1/NB10887802.0024.wav|지난 1년 동안 해

1/NB10887802.0025.wav|교사 관련 검색어 1위

1/NB10887802.0026.wav|임용이 없습니다

1/NB10887802.0027.wav|2위는

1/NB10887802.0028.wav|사건 사고였습니다

1/NB10887802.0029.wav|국민 10명 가운데 여덟 명은 선생님이 존경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으니까

1/NB10887802.0030.wav|지금 세상은 어느 사이엔가

1/NB10887802.0031.wav|선생님과 스승은 사라지고

1/NB10887802.0032.wav|정말 말그대로

1/NB10887802.0033.wav|직업이니

1/NB10887802.0034.wav|도사 만 남은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

1/NB10887802.0035.wav|오늘 아침에 대길이가 맛동산 한 봉지를 가지고 와서

1/NB10887802.0036.wav|내 앞에서 봉투를 쭉 찍더니

1/NB10887802.0037.wav|할머니가 선생님은 여섯 개 주라고 했다면서 나에게 맛동산을 준다

1/NB10887802.0038.wav|오늘은 행복했어

1/NB10887802.0039.wav|전북 임실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김용택 시인의 상무님 가운데 한 구절을 읽어 드렸습니다

1/NB10887802.0040.wav|맛동산 여섯 개

1/NB10887802.0041.wav|달콤한 과자 몇 달에 행복해질 제자와 선생님

1/NB10887802.0042.wav|시골 분교의 동화 같은 풍경이 눈앞에 그려집니다

1/NB10887802.0043.wav|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

1/NB10887802.0044.wav|현승 그렇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

1/NB10887802.0045.wav|얼마 전에 초등학생 학부모인 저희 제작진 한 사람이 이런 단체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

1/NB10887802.0046.wav|청렴한 학교를 위해서

1/NB10887802.0047.wav|불법찬조금

1/NB10887802.0048.wav|금풍

1/NB10887802.0049.wav|장흥

1/NB10887802.0050.wav|간식 제공 근절 협조 당부합니다

1/NB10887802.0051.wav|김용택 시인의 행복했다 던 맛동산 여섯 개

1/NB10887802.0052.wav|바로 그 간식 제공하였습니다

1/NB10891515.0000.wav|지상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91515.0001.wav|무언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의미

1/NB10891515.0002.wav|너 잘못이 있다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일 겁니다

1/NB10891515.0003.wav|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

1/NB10891515.0004.wav|지난 13일 5.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광주 금남로에 문을 열었습니다

1/NB10891515.0005.wav|참혹했던 단식 기억들을 살펴보다가 유독 한 장면에 시선이 모아집니다

1/NB10891515.0006.wav|80년 6월 2일자 전남매일신문 1면입니다

1/NB10891515.0007.wav|제 음량으로 해서 낼 수 없었던 신문이 다시 발행되었던 첫날에 지면이 기도합니다

1/NB10891515.0008.wav|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

1/NB10891515.0009.wav|라는 제목의 작품 위로

1/NB10891515.0010.wav|수없이 긁어 줘

1/NB10891515.0011.wav|빨간집

1/NB10891515.0012.wav|이것들이 눈에 뜁니다

1/NB10891515.0013.wav|당신이 씨는

1/NB10891515.0014.wav|귀염 당국의 검열로 작품 전체 130편 가운데

1/NB10891515.0015.wav|35 행만 지면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군요

1/NB10891515.0016.wav|제목조차 도메르 당해서 반 이상이 차려 나갔습니다

1/NB10891515.0017.wav|작품에서는 김준태 시인

1/NB10891515.0018.wav|35년 전에 그날은

1/NB10891515.0019.wav|이렇게 기억합니다

1/NB10891515.0021.wav|새벽같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이

1/NB10891515.0022.wav|신문에는 제대로 518

1/NB10891515.0023.wav|비극을 실을 수 없다

1/NB10891515.0024.wav|그러니까 시를 한 편

1/NB10891515.0025.wav|안 쳐져

1/NB10891515.0026.wav|아 감기 우리나라에 십자가는 제가 쓴 것이 아니라

1/NB10891515.0027.wav|광교에서 죽었던 사람들이

1/NB10891515.0028.wav|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

1/NB10891515.0029.wav|채는 단지

1/NB10891515.0030.wav|필리핀 했지 아느냐 130 0에서

1/NB10891515.0032.wav|35년이나 실려서 나머지는 겸사 검열관 외국에서 잠보 삭제되었습니다 잘라버렸습니다

1/NB10891515.0033.wav|예 35년전 에스 인식

1/NB10891515.0034.wav|35회

1/NB10891515.0035.wav|오늘의

1/NB10891515.0036.wav|단어

1/NB10891515.0037.wav|그러나 무료 빠 빨간펜으로 진실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신문에 활판 제작 원본이 남아 있었고 누군가 이것을 몰래 복사해서

1/NB10891515.0038.wav|거리의 F10

1/NB10891515.0039.wav|7시 원문 전체가 외신을 타고 퍼져 나갔고

1/NB10891515.0040.wav|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

1/NB10891515.0041.wav|생각해보면 고작 35년 전에 이야기

1/NB10891515.0042.wav|묻어 왔고

1/NB10891515.0043.wav|뜨거워 뜨거워

1/NB10891515.0044.wav|붉게 물들었다

1/NB10891515.0045.wav|광주의 세월이었습니다

1/NB10891515.0046.wav|오늘 반쪽짜리 518 기념식 진행됐다고 하죠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광주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시 한 편 노래 한 곡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의미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35년 전에 5줄의 작품을 신부의 내야 했던 시인은

1/NB10891515.0047.wav|35년이 지난 지금에도

1/NB10891515.0048.wav|함께 부를 수 없는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

1/NB10891515.0049.wav|이건 부끄러운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두려워할 노래가 아닙니다

1/NB10891515.0050.wav|자랑스러운 노래거든요 민주식 자신을 가진다 가면은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노래는 다 부르게 만들어야 되지요

1/NB10891515.0051.wav|예

1/NB10891515.0052.wav|오늘의 앵커브리핑

1/NB10892955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892955.0001.wav|그래도 된다고 들었다

1/NB10892955.0002.wav|이뻐라 의료 법정에선 신계륜 의원의 한 말입니다

1/NB10892955.0003.wav|국회 상임위원장 시절에 메달

1/NB10892955.0004.wav|1,000만 원 가량을

1/NB10892955.0005.wav|소희 활동비로 받았는데

1/NB10892955.0006.wav|아들의 유학 비도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도 여기에서 꺼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

1/NB10892955.0007.wav|그렇게 써도 되느냐 않은 질문에 사전에 관록있는 의원은

1/NB10892955.0008.wav|어디선가 그래도 된다고 들었다는 말을 더 부쳤습니다

1/NB10892955.0009.wav|풍문으로 들었소

1/NB10892955.0010.wav|드라마도 있더군

1/NB10892955.0011.wav|오늘 앵커브리핑 해골은 말해

1/NB10892955.0012.wav|비슷한 사람은 금방 떠오릅니다 국회 대책들을 아내가 모아서 주는

1/NB10892955.0013.wav|홍준표 도지사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

1/NB10892955.0014.wav|정선 자금 1억 2천만 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검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하지

1/NB10892955.0015.wav|국회 대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줬더니 알뜰한 아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으로 톡 내놓았다

1/NB10892955.0016.wav|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야기

1/NB10892955.0017.wav|연거푸 논란이된 국회 대책은 원래 의정활동에 쓰라고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일정에 수단이라고 하는군요

1/NB10892955.0018.wav|오늘의 대표를 겸임하는 국회운영위원장 은월 4천만 원 이상

1/NB10892955.0019.wav|엄청난 돈이

1/NB10892955.0020.wav|상임위원장은 한 달에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

1/NB10892955.0021.wav|올 한해 예산 만 해도 100억원 가까이 책장도 있다는데

1/NB10892955.0022.wav|구체적인 액수도 내역도

1/NB10892955.0023.wav|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

1/NB10892955.0024.wav|게다가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

1/NB10892955.0025.wav|200억 원에 달하는 국회 대책들은

1/NB10892955.0026.wav|아들의 유학비를 생활비로 등등

1/NB10892955.0027.wav|어느새 의원들의 쌈짓돈 잊어버린 셈입니다

1/NB10892955.0028.wav|이미 많이 알려졌듯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한해동안 지급되는 세비 총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

1/NB10892955.0029.wav|이 정도의 설비도 모자라서 국회 대책들을

1/NB10892955.0030.wav|이른바 호구지책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

1/NB10892955.0031.wav|글쎄요 세금내는 서민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

1/NB10892955.0032.wav|얼마 전에 한 신문이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

1/NB10892955.0033.wav|메르켈 독일 총리가

1/NB10892955.0034.wav|22년째 단거리

1/NB10892955.0035.wav|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

1/NB10892955.0036.wav|사야 할 목록을 꼼꼼히

1/NB10892955.0037.wav|종이에 적어서 장을 보는 총리

1/NB10892955.0038.wav|뭐랄까요 국민에게 받은 월급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마음이

1/NB10892955.0039.wav|이기는 것 같습니다

1/NB10892955.0040.wav|국회에서 어느샌가 풍문으로 들었소 가재 버린 꼬리표 없는 세금 유형의 방식

1/NB10892955.0041.wav|그리고

1/NB10892955.0042.wav|그것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는 국회의원들

1/NB10892955.0043.wav|궁금합니다

1/NB10892955.0044.wav|국민 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 품은

1/NB10892955.0045.wav|대체 어디에서 들으시는 건지요

1/NB10892955.0046.wav|오늘의 앵커

1/NB10894724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었습니다

1/NB10894724.0001.wav|통계 두 가지를 보여드릴텐데요 어제 나온 통계입니다 첫 번째

1/NB10894724.0002.wav|취업이 하고 싶지만 취업을 해보면 경험조차 없다고 답한 이삼십대 청년들의 숫자가 2만 5천명

1/NB10894724.0003.wav|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

1/NB10894724.0004.wav|기업들이 이른바 투자보다는 경력자를 우대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

1/NB10894724.0005.wav|취업 절벽이란 말이 나올만큼 찬바람 부는 청년 고용시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

1/NB10894724.0006.wav|어제 나온 통계 두 번째입니다

1/NB10894724.0007.wav|서울대 의대에서 중장년층의 수면패턴을 조사했더니

1/NB10894724.0008.wav|하루 6시간도 자주 못 한단 남성이 열 명 중에 한 명이

1/NB10894724.0009.wav|대부분 업무와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음

1/NB10894724.0010.wav|화면에 하루 10시간 이상 푹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

1/NB10894724.0011.wav|혹시 물어보십니다

1/NB10894724.0012.wav|그래서 이렇게 답하는 사람 중에 직업이 없는 사람이

1/NB10894724.0013.wav|취업자에 비에서 2배나 많았다고 하는군요

1/NB10894724.0014.wav|두 가지 통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

1/NB10894724.0015.wav|청년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그런 자식들 법정의 잠못이루는 부모도 날로 늘어나지만

1/NB10894724.0016.wav|거꾸로 아예

1/NB10894724.0017.wav|구직 쫓아 포기한 취업포기자

1/NB10894724.0018.wav|이른바

1/NB10894724.0019.wav|10호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

1/NB10894724.0020.wav|그래서 밖에 나가 돈 쓰는 대신 10시간 넘게 잠이나 잘 수밖에 없는

1/NB10894724.0021.wav|서글픈 현실이 되어 버린 건 아닐까

1/NB10894724.0022.wav|잠 못 이루는 사람들과 잠이라도 자야 하는 사람들

1/NB10894724.0023.wav|묘한 대비를 이루는 홍게 드립니다

1/NB10894724.0024.wav|그리고 짐작컨데

1/NB10894724.0025.wav|그들이 잠 속에서 만나게 될 꿈은 그리 아름답지는 못 할 것만 같습니다

1/NB10894724.0026.wav|어느봄날이라는 제목의 동요를 듣고 오겠습니다 청아한 노래 가사처럼 곰의 꿈

1/NB10894724.0027.wav|고운 꿈을 꾸고 싶지만

1/NB10894724.0028.wav|냉정한 현실 찰나의 아름다운 꿈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십억원의 세금이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쌈짓돈 제 간다는 뉴스에 한 켜

1/NB10894724.0029.wav|또한 그에 못지않은 돈이 어느 귀엽다 출신 위원이 살아 있을 때 로비자금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뉴스에

1/NB10894724.0030.wav|한 켠에

1/NB10894724.0031.wav|가까운 미래조차 불안한 사람들의 불면과

1/NB10894724.0032.wav|뭔 미래는 오히려 사치스러운 사람들의 긴 잠이 공개로 나와

1/NB10894724.0033.wav|2015년에 어느 봄날에

1/NB10894724.0034.wav|그렇게 흘러갑니다

1/NB10894724.0035.wav|앵커브리핑

1/NB10896493.0000.wav|jtbc 뉴스룸 2부에 문을 열었습니다

1/NB10896493.0001.wav|탐스

1/NB10896493.0002.wav|승부에 집착하면 오히려 그렇지 싶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앵커브리핑 이불은 말입니다

1/NB10896493.0003.wav|바둑을 좀 드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

1/NB10896493.0004.wav|부득탐승이란 말은 위기십결이라는 바둑의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

1/NB10896493.0005.wav|첫 번째 원칙입니다

1/NB10896493.0006.wav|바둑기사 이창호 9단이 몇 년 전에 내놓은 책 제목이기도 하지요

1/NB10896493.0007.wav|바둑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많은 바둑 그냥 말로 우리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고하죠이기는 데는 왕도가 따로 없고

1/NB10896493.0008.wav|또 신종 하지 못하면 할배 하게 됩니다

1/NB10896493.0009.wav|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신비로운 바둑의 묘미는 바로 보기에 있다 고들 합니다

1/NB10896493.0010.wav|대국 전체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

1/NB10896493.0011.wav|그러니까 유일하게

1/NB10896493.0012.wav|혜자가 승자보다 더 많은 것을

1/NB10896493.0013.wav|허들 쉬는 시간

1/NB10896493.0014.wav|이창호 9단의 말입니다

1/NB10896493.0015.wav|심사숙고해서 한수를 두고 그 결과 보이지 않는 창과 칼이 오갔던 대구에서 패했다면

1/NB10896493.0016.wav|팔베 원인을 되짚어보고 다시는

1/NB10896493.0017.wav|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의미일 겁니다

1/NB10896493.0018.wav|바둑은 유독 정치판에 더 많이 비유가 되죠

1/NB10896493.0019.wav|그렇다면

1/NB10896493.0020.wav|이번 총리 후보자 임명을 바둑에 비유한다면 어떨까요

1/NB10896493.0021.wav|그동안 청와대는

1/NB10896493.0022.wav|국민 여러분 거에 대국에서

1/NB10896493.0023.wav|거듭해 왔습니다

1/NB10896493.0024.wav|5명의 총리 후보자 가운데 문턱을 넘은 두 명 역시 온전히 자리를 고정 하지 못했습니다

1/NB10896493.0025.wav|세관에서 님이 나름의 복귀 통해서

1/NB10896493.0026.wav|지난 팔던데 원인이 의심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

1/NB10896493.0027.wav|인사권자가 이른바 수첩에 없는 인물에는 쉽게 눈길을 주지 않는데다가

1/NB10896493.0028.wav|한번 믿음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거듭 일을 맡기니까

1/NB10896493.0029.wav|따가운 눈총을 무릅쓴

1/NB10896493.0030.wav|회전문인사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

1/NB10896493.0031.wav|통화되는 다섯 번의 표정을 짓고 오랜 장고 끝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고기를 통한 묘수를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

1/NB10896493.0032.wav|부득탐승

1/NB10896493.0033.wav|승리의 만 집착한 나머지 또다시 풀 통해 한 수를 두고 많은 것인지

1/NB10896493.0034.wav|이제

1/NB10896493.0035.wav|판단만이 남아있습니다

1/NB10896493.0036.wav|분명한 것은 이미 수는

1/NB10896493.0037.wav|뭐야

1/NB10896493.0038.wav|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는 것입니다

1/NB10896493.0039.wav|이번엔 부디

1/NB10896493.0040.wav|자충수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

1/NB10896493.0041.wav|한전

1/NB10896493.0042.wav|오늘의 앵커

1/NB10900201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00201.0001.wav|예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리고

1/NB10900201.0002.wav|어떻게 보이시는데

1/NB10900201.0003.wav|이 조형물에 이름은 흥겨운 우리가

1/NB10900201.0005.wav|세종시 국세청 돈 문 앞에 설치됐던 작품인데

1/NB10900201.0006.wav|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충분해 모습이

1/NB10900201.0007.wav|사람들 눈에는 좀

1/NB10900201.0008.wav|다르게 보였던 모양입니다

1/NB10900201.0009.wav|저승사자

1/NB10900201.0010.wav|이런 별칭이 붙었고

1/NB10900201.0011.wav|꿈에 나올까 무섭다 이런 원상을 내내 썼더니 결국 인근 대로변으로

1/NB10900201.0012.wav|옮겨졌습니다

1/NB10900201.0013.wav|약간 좀 코미디 같은 논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

1/NB10900201.0014.wav|대로변으로 옮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

1/NB10900201.0015.wav|이렇게 다른데로 옮기면 안 무서울까

1/NB10900201.0016.wav|그리고 왜 그리 무서웠을까

1/NB10900201.0017.wav|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

1/NB10900201.0018.wav|다른 것도 아닌

1/NB10900201.0019.wav|최청아 키 어떤 것이

1/NB10900201.0020.wav|어떤 사람들에게는 국세청 앞 조형물이 마치 저승사자 칼춤 같이 여겨졌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

1/NB10900201.0021.wav|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

1/NB10900201.0023.wav|국세청 앞에 충분성의 누군가에게 저승사자의 춤처럼 느껴진다

1/NB10900201.0024.wav|그것은

1/NB10900201.0025.wav|시같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흥겨운 춤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

1/NB10900201.0026.wav|그러니까 그 조형물은 오히려 더

1/NB10900201.0027.wav|국세청 앞에 있어야 하지 않나

1/NB10900201.0028.wav|하는 것임

1/NB10900201.0029.wav|대로변 저승사자

1/NB10900201.0030.wav|오늘 앵커브리핑 이불은

1/NB10900201.0031.wav|그렇다면

1/NB10900201.0032.wav|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잊혀질까요

1/NB10900201.0033.wav|김상곤 경기도교육감

1/NB10900201.0034.wav|새정치민주연합 혁신 위원장이 되면서

1/NB10900201.0035.wav|새정치민주연합 운명

1/NB10900201.0036.wav|휴게소

1/NB10900201.0037.wav|독배를 마시겠다

1/NB10900201.0038.wav|혁신위원장 읽으면서 고별을 맡겠다고 하니까 이것이야말로

1/NB10900201.0039.wav|저승사자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얘길 수도 있어

1/NB10900201.0040.wav|과연 김상곤 혁신위원장은

1/NB10900201.0041.wav|이태곤 기억조차 없던 평소의 유순한 이미지와는 달리

1/NB10900201.0042.wav|누군가에게는 이른바 저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

1/NB10900201.0043.wav|어찌 보면

1/NB10900201.0044.wav|유권자들은 한동안

1/NB10900201.0045.wav|저승사자의 칼춤을

1/NB10900201.0046.wav|우리 정치판에 손 제대로 구경조차 해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

1/NB10900201.0047.wav|위기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비장한 각오로 밝히지 마

1/NB10900201.0048.wav|패거리 정치가 아닌 정당 다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은

1/NB10900201.0049.wav|기득권과 계파의 벽을 넘지 못한 무진중

1/NB10900201.0050.wav|그치고 말았다는 거지

1/NB10900201.0051.wav|독배로 들었다고 말하는 김상곤 혁신위원회

1/NB10900201.0052.wav|죽을 줄 알면서도 마셔야 하는 산을 들었다면

1/NB10900201.0053.wav|아예 설정한

1/NB10900201.0054.wav|저승사자 같은 것이 아 말로

1/NB10900201.0055.wav|결국 역설적으로는 흥겨운우리가락

1/NB10900201.0056.wav|흥겨운 춤판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봐

1/NB10900201.0057.wav|그것이 비단 야당뿐 아니라 여당을 포함한

1/NB10900201.0058.wav|한국 사회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이라면

1/NB10900201.0059.wav|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승사자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

1/NB10900201.0060.wav|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역시

1/NB10900201.0061.wav|어디 대로변으로 나 안 끼어들지

1/NB10900201.0062.wav|모르겠어

1/NB10900201.0063.wav|오늘의 앵커브리핑

1/NB10903259.0000.wav|지성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에 문을 열었습니다

1/NB10903259.0001.wav|공포의 전집

1/NB10903259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이불은 말입니다

1/NB10903259.0003.wav|작가 이청준의 단편 소문의 벽에 등장하는 박준이라는 인물은

1/NB10903259.0004.wav|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

1/NB10903259.0005.wav|공포스런 일을 겪습니다

1/NB10903259.0006.wav|백지 창문이 벌컥 열리면서 눈부신 손전등 불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

1/NB10903259.0007.wav|전지 프레카 환불 때문에

1/NB10903259.0008.wav|그 뒤에 선 사람이 어느 편인지라

1/NB10903259.0009.wav|죽어도 알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

1/NB10903259.0010.wav|어느편이냐

1/NB10903259.0011.wav|누구 편이야

1/NB10903259.0012.wav|사정없이 출근하고 들지 않겠습니까

1/NB10903259.0013.wav|적과 아기

1/NB10903259.0014.wav|우리 평과 반동분자 과학관련 시절이었지요

1/NB10903259.0015.wav|자칫 잘못 대답했다 가는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

1/NB10903259.0016.wav|유행에 살아남았던 작품 속 인물은

1/NB10903259.0017.wav|전지 풀에 대한 공포

1/NB10903259.0019.wav|자신의 양심을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

1/NB10903259.0020.wav|이름 박진솔 공포증을 갖고

1/NB10903259.0021.wav|평생을 살아

1/NB10903259.0022.wav|1972년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발표된 오래된 소설 속 이야기였습니다

1/NB10903259.0023.wav|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

1/NB10903259.0024.wav|국정원이 경력 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사전에 접촉해서 물어봤다는 질문입니다

1/NB10903259.0025.wav|국정원장은 국가 보안 위하여

1/NB10903259.0026.wav|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한다

1/NB10903259.0027.wav|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국정원이 이른바 법관 면접을 봤다 하는 얘기

1/NB10903259.0028.wav|정보가 제대로 어째 보지도 못하고 수백명의 아이들을

1/NB10903259.0029.wav|물속으로 보낸 삼산로

1/NB10903259.0030.wav|바로크 성분

1/NB10903259.0031.wav|국가관을 시험하는데 이용하고 있는

1/NB10903259.0032.wav|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기도 하고

1/NB10903259.0033.wav|일부의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이념논쟁으로 몰고갔다는 비판이 아직도 유효한 돼

1/NB10903259.0034.wav|정부가이 것은 이른바 국가관 검증에 쓰고 있다면

1/NB10903259.0035.wav|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성공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903259.0036.wav|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

1/NB10903259.0037.wav|오늘 주제가 세월호는 아니니까

1/NB10903259.0038.wav|질문을 받은 이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오갔을까

1/NB10903259.0039.wav|전짓불 뒤에 숨은 이들이 원하는 이른바 정답이 있을 터인데

1/NB10903259.0040.wav|법과 양심에 맞춰서 판결을 내려야 할 판 사직에 지원한 이들은 과연

1/NB10903259.0041.wav|자신의 양심에 맞춘 답변을 내놓았을 것인가

1/NB10903259.0042.wav|법과는

1/NB10903259.0043.wav|헌법과

1/NB10903259.0044.wav|법률의 의미

1/NB10903259.0045.wav|그 양심에 따라

1/NB10903259.0046.wav|독립하여 심판

1/NB10903259.0047.wav|헌법 제 103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읽어 줘

1/NB10903259.0048.wav|마법의 뒤편 법관의 양심 주에는

1/NB10903259.0049.wav|국정원이 가능한

1/NB10903259.0050.wav|충성심과 양심에 맞춘 신원 검증이 자행되고 있었고

1/NB10903259.0051.wav|좋은 집을 뒤에 누군가 숨어서 질문을 던지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이 시대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

1/NB10903259.0052.wav|앞서 인용한 작가 이청준의 소문의 벽 중에

1/NB10903259.0053.wav|또 다른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

1/NB10903259.0054.wav|그 양심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켜질 수 없게 되고 있다는 것 뿐이다

1/NB10903259.0055.wav|전주 뿌리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

1/NB10903259.0056.wav|나는 언제나

1/NB10903259.0057.wav|누군가의 편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지

1/NB10903259.0058.wav|진정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

1/NB10903259.0059.wav|라는 질문을 던지면서

1/NB10903259.0060.wav|오늘 앵커브리핑

1/NB10904960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04960.0001.wav|병역 먹튀논란으로 예쁘게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

1/NB10904960.0002.wav|국민정서가 그만큼 병역 문제는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

1/NB10904960.0003.wav|심지어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 맞어 나왔습니다

1/NB10904960.0004.wav|유승준의 입국을 막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 법무장관의 문제도 여론조사에 보자

1/NB10904960.0005.wav|만성담마진

1/NB10904960.0006.wav|두드러기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은 없다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

1/NB10904960.0007.wav|실제로 지난 10년 동안의 담마진이란 희귀한 병명으로

1/NB10904960.0008.wav|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단네 명

1/NB10904960.0009.wav|91만 분의 1이라는 통계도

1/NB10904960.0010.wav|치킨 호프

1/NB10904960.0011.wav|오늘의 단어

1/NB10904960.0012.wav|매 흉내를내는 타입이라는 의미

1/NB10904960.0013.wav|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실점은 경험해 보지도 않은 채 국민에게만 안보를 강조하는 미국내 내 팔을 뜻한다고 한다

1/NB10904960.0014.wav|그러나이 치킨 호크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

1/NB10904960.0015.wav|아주 보면

1/NB10904960.0016.wav|식상 할지도 모를 통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까요

1/NB10904960.0017.wav|이번 19대 남성 국회의원 250명 중에 53명이 군대 다녀 오지 않았음

1/NB10904960.0018.wav|다섯 명 중에 한 명 꼴입니다

1/NB10904960.0019.wav|박근혜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30명 중에 다섯 명이 군면제자 이거

1/NB10904960.0020.wav|복이 저녁 한 사람이 5시

1/NB10904960.0021.wav|화면

1/NB10904960.0022.wav|열 명일까 세 명 중에 한 명이

1/NB10904960.0023.wav|부실 경영

1/NB10904960.0024.wav|면제 사유를 볼까

1/NB10904960.0025.wav|만성담마진을 비롯해서

1/NB10904960.0026.wav|태경

1/NB10904960.0027.wav|골수염 부인시 등대

1/NB10904960.0028.wav|하이 종합병원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

1/NB10904960.0029.wav|구매 가지 않은 것은 본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한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

1/NB10904960.0030.wav|박근혜 정부의 4급 이상 공직자 및 공기업임원 자녀 중 16명이

1/NB10904960.0031.wav|국적을 포기해서

1/NB10904960.0032.wav|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함

1/NB10904960.0033.wav|바로 직전에 이명박 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의 병역 면제 이율은 28.5%

1/NB10904960.0034.wav|심지어

1/NB10904960.0035.wav|천안함 사태 당시의 이른바

1/NB10904960.0036.wav|지하벙커에서 진행된 안보 장관 회의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들은

1/NB10904960.0037.wav|실소를 금치 못했다

1/NB10904960.0038.wav|대통령은 물론이고

1/NB10904960.0039.wav|국정원장

1/NB10904960.0040.wav|국무총리

1/NB10904960.0041.wav|외교안보수석 등등

1/NB10904960.0042.wav|참석한 18명 가운데 붕 필자는

1/NB10904960.0043.wav|간 세 명 있다고 합니다

1/NB10904960.0044.wav|국민들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어때

1/NB10904960.0045.wav|곳곳에서 치킨 호크가 날아다니는 세상

1/NB10904960.0046.wav|내가 이러니까 신임 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 논란을 바라보는 마음은

1/NB10904960.0047.wav|씁쓸한

1/NB10904960.0048.wav|유전 면제 무전 복무 란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

1/NB10904960.0049.wav|호 2층과 그 아들들이 빈자리를 채우려 애꿎은 현역 둘만 죽을 고생을 한다는 자조가 나오는

1/NB10904960.0050.wav|국민개병제 나라

1/NB10904960.0051.wav|고관대작들이 나 그 아들들의 현재 유린을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는 걸

1/NB10904960.0052.wav|군대가는 아들들에게

1/NB10904960.0053.wav|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

1/NB10904960.0054.wav|육군 병장 자존심은 장군은 등 간다고 제가 지난번에 좀 허세를 부르기로 했습니다

1/NB10904960.0055.wav|세상이 자꾸 치킨 호프를 만드세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

1/NB10904960.0056.wav|어쩔 수가 없어

1/NB10904960.0057.wav|오늘 브리핑은 그 젖꼭지 털 만자고개

1/NB10909291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09291.0001.wav|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가게

1/NB10909291.0002.wav|하겠다

1/NB10909291.0003.wav|마르스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호언장담이 참으로 무색해졌다

1/NB10909291.0004.wav|감염자가 날로 불어나서 오늘 안타깝게도이 메르스 의심환자

1/NB10909291.0005.wav|사망 소식 맞아 전해졌습니다

1/NB10909291.0006.wav|현재 우리나라 메르스 환자 순 세계 4위입니다

1/NB10909291.0007.wav|낙타가 매개체로 추정 된다는데 낙타이 나라의 중동 카타르 마저 제쳤습니다

1/NB10909291.0008.wav|심지어 메르스 접촉자가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출국 했어

1/NB10909291.0009.wav|이러다가는 내려서 출국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8시 경입니다

1/NB10909291.0010.wav|불안감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

1/NB10909291.0011.wav|번지고 있는 이른바 괴담

1/NB10909291.0012.wav|접해 보셨는지요

1/NB10909291.0013.wav|정부 여당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

1/NB10909291.0014.wav|독버섯처럼 자라는 인터넷 교회당을 뿌리뽑아야

1/NB10909291.0015.wav|뭐랄까요 가장 실감나는 정부 대책이 다른 것도 아니고 괴담 유포자를 잡아 드린다는 것이

1/NB10909291.0016.wav|이쯤 되면 괴담에 겁을내는 것이 10인지 아니면 한국인지 헷갈리기 시작할 정도

1/NB10909291.0017.wav|국가를 믿지 못하는 시민들을 오히려 국가가 더 못견뎌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된 것이죠

1/NB10909291.0018.wav|여당의 원내 대표까지

1/NB10909291.0019.wav|모든 걸 괴담이나 룸으로 치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을 정도

1/NB10909291.0020.wav|이름 바꿔 대담이라는 설레임으로

1/NB10909291.0021.wav|정부가 실책을 가리려 했던 것은

1/NB10909291.0022.wav|아마도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 때부터가 아닌가 합니다

1/NB10909291.0023.wav|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발생하지 않았던 40만 가지고

1/NB10909291.0024.wav|정부는 그것이 괴담 이었다는 근거로 4 무리해서

1/NB10909291.0025.wav|그러나 소액 괴담이 아닌

1/NB10909291.0026.wav|시민들의 성찰과 요구에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이 강화됐다는 것은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

1/NB10909291.0027.wav|그 이후에 천안함 세월호 등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 드리는 예외 없이 이른바

1/NB10909291.0028.wav|괴담 프레임이 작동되지

1/NB10909291.0029.wav|이들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

1/NB10909291.0030.wav|시민들이 정부를 흔쾌히 믿지 못한다는 것이

1/NB10909291.0031.wav|미국 질병관리센터가 밝힌 공중보건을 위한 투명한 소통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

1/NB10909291.0032.wav|불확실성을 인정하라

1/NB10909291.0033.wav|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

1/NB10909291.0034.wav|그리고

1/NB10909291.0035.wav|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라

1/NB10909291.0036.wav|그래야 잠이 안 와

1/NB10909291.0037.wav|재미 한 마리 못 지나간다는 립 서비스 보다는

1/NB10909291.0038.wav|파여진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

1/NB10909291.0039.wav|며칠 전에

1/NB10909291.0040.wav|일본 작은 섬에서

1/NB10909291.0041.wav|화산이 폭발해서

1/NB10909291.0042.wav|한 21분 반에

1/NB10909291.0043.wav|송주빈 백 37명 전원의 안전이 확인됐고

1/NB10909291.0044.wav|5시간만

1/NB10909291.0045.wav|12 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모두 대패 사는 거야

1/NB10909291.0046.wav|신속한 이웃나라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괴담처럼 들려

1/NB10909291.0047.wav|오늘의 앵커

1/NB10910875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10875.0001.wav|5월 20일

1/NB10910875.0002.wav|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날입니다

1/NB10910875.0003.wav|그런데 이날 가장 분주해 써야 했을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일로 매우 분주한 날을 보냈습니다

1/NB10910875.0004.wav|바로 그날은 또

1/NB10910875.0005.wav|번역의 날이야

1/NB10910875.0006.wav|1886년 5월 20일

1/NB10910875.0007.wav|조선이 개항기의 온 옆

1/NB10910875.0008.wav|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선박 검역법이 제정된 말이라고 하는

1/NB10910875.0009.wav|검역의 중요성과 뜻을 기리는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

1/NB10910875.0010.wav|기념 행사 라든가 체육대회가

1/NB10910875.0011.wav|열림

1/NB10910875.0012.wav|메르스가 발생한 날

1/NB10910875.0013.wav|전염병 막기 기념 체육대회

1/NB10910875.0014.wav|참 편치 않은

1/NB10910875.0015.wav|우연의 일치

1/NB10910875.0016.wav|물론 첫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받았겠지만

1/NB10910875.0017.wav|검역의 중요성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중도에 그만 둘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

1/NB10910875.0018.wav|체육대회

1/NB10910875.0019.wav|예정대로 이틀 동안

1/NB10910875.0020.wav|진행됐다고 합니다

1/NB10910875.0021.wav|데자뷰

1/NB10910875.0022.wav|세월호 1주기가 되던 날

1/NB10910875.0023.wav|유가족도 국민도 참석하지 않은

1/NB10910875.0024.wav|국민안전 다짐대회를 열었던 정부의 모습을

1/NB10910875.0025.wav|떠올리게 하는

1/NB10910875.0026.wav|장면입니다

1/NB10910875.0027.wav|보건당국의 그 이후의 대처는 점점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

1/NB10910875.0028.wav|처음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

1/NB10910875.0029.wav|메르스 직접 발생 고객 하지 않았던 이유만으로

1/NB10910875.0030.wav|이틀 동안

1/NB10910875.0031.wav|확진 검사 요청

1/NB10910875.0032.wav|받아주질 않았습니다

1/NB10910875.0033.wav|최초 발명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환자의 가족은 여섯 동안이나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

1/NB10910875.0034.wav|환자 가운데 22명이 모두 최초 발명자에게서 전형 됐고

1/NB10910875.0035.wav|감염자들이 무방비로 병원 10분 데를 넘게 다녔다고 하는데

1/NB10910875.0036.wav|병원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니까

1/NB10910875.0037.wav|공포 밤은 같이

1/NB10910875.0038.wav|드러나겠죠

1/NB10910875.0039.wav|자이 시점에서 또 다시이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

1/NB10910875.0040.wav|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

1/NB10910875.0041.wav|바로 세월호 드라마

1/NB10910875.0042.wav|기본과 원칙에 지켰다면 또다시 떠올리지 않아도 될 마르기도 하지요

1/NB10910875.0043.wav|전 국민을 메르스 공포에 떨게 하고 전세계 대한민국이 방학 후진국임을 선포한다

1/NB10910875.0044.wav|곰에게 날 기념 체육대회가 진행되는

1/NB10910875.0045.wav|5월 20

1/NB10910875.0046.wav|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족구 피구 축구를 하면서 상대방의 빈 구멍을 공략하는 동안에

1/NB10910875.0047.wav|방학에도 커다란 구멍이 생김새

1/NB10912494.0000.wav|예 뉴스룸 2부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12494.0001.wav|지난해 봄에 참으로 절실했던 말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컨트롤타워라는 말이

1/NB10912494.0002.wav|다 지금 운이 되고 있습니다

1/NB10912494.0003.wav|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메르스 방역 때문이지

1/NB10912494.0004.wav|3차 감염 자까지 발생해서 모두 크게 걱정했던 어제 대통령은

1/NB10912494.0005.wav|전남 여수를 방문했습니다

1/NB10912494.0006.wav|창조 개혁

1/NB10912494.0007.wav|혁신

1/NB10912494.0008.wav|창조경제혁신센터

1/NB10912494.0009.wav|개소식 축사를 위해서

1/NB10912494.0010.wav|계란 컨트롤타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국무총리 자리가 비어 있는 와중에서 했음

1/NB10912494.0011.wav|총리 직무대행이 있긴하죠 그러나

1/NB10912494.0012.wav|최경환 경제부총리는

1/NB10912494.0013.wav|사건 발생 13일 만인 어제

1/NB10912494.0014.wav|처음으로 보험 정부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나는

1/NB10912494.0015.wav|곧바로 해외 출장을 떠났어

1/NB10912494.0016.wav|그리고 오늘에서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책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

1/NB10912494.0017.wav|만기친람

1/NB10912494.0018.wav|모든 일을 송수일 일이 생긴다는 대통령이 국회법을 놓고 여당과 실랑이하는 사이에

1/NB10912494.0019.wav|방역당국은 신뢰를 잃었고

1/NB10912494.0020.wav|시민들의 불안감은

1/NB10912494.0021.wav|과자 망가

1/NB10912494.0022.wav|방역 후진국이라는 오명과 떨어진 국가

1/NB10912494.0023.wav|과거에도 일했던 것인지

1/NB10912494.0024.wav|잠깐

1/NB10912494.0025.wav|돼지 보겠어

1/NB10912494.0026.wav|지난 2003년에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

1/NB10912494.0027.wav|고건 국무총리 가정 면에서 대응체계를 지휘했습니다

1/NB10912494.0028.wav|감염 추정환자 발생 당일의 담화문을 발표해서

1/NB10912494.0029.wav|방역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세요

1/NB10912494.0030.wav|지민 불안을 진작 시켰습니다

1/NB10912494.0031.wav|당시 사스가 몇 달 만에 세계로 퍼졌지만 우리나라는

1/NB10912494.0032.wav|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서

1/NB10912494.0033.wav|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 국으로

1/NB10912494.0034.wav|장갑 아줌마도 있습니다

1/NB10912494.0035.wav|2009년 신종플루

1/NB10912494.0036.wav|유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

1/NB10912494.0037.wav|수정 환자 발생 당일에

1/NB10912494.0038.wav|중앙 인플루엔자 대책 본부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

1/NB10912494.0039.wav|총리 교체 지겹지만 한승수 정운찬 총리가 일일이

1/NB10912494.0040.wav|상황을 점검하는 체계가

1/NB10912494.0041.wav|즉시 구축이 됐습니다

1/NB10912494.0042.wav|비록 사실 사망자 나왔지만 방역당국에 크게 비난을 받지는 않았다

1/NB10912494.0043.wav|물론 과거에 일이니까 이렇게

1/NB10912494.0044.wav|예 지나고 보면

1/NB10912494.0045.wav|나 지금 정기적으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저기가

1/NB10912494.0046.wav|나올 수도 있겠습니다

1/NB10912494.0047.wav|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는

1/NB10912494.0048.wav|진아 정부가 최선을

1/NB10912494.0049.wav|다 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신조어

1/NB10912494.0050.wav|신종 질병에 대한 대응이란 측면에서 본다면

1/NB10912494.0051.wav|홈플러스

1/NB10912494.0052.wav|살아남기 위해선 과거에 대한 더 나은 이해 로봇 무장하라

1/NB10912494.0053.wav|지나 콜라타

1/NB10912494.0054.wav|뉴욕타임스 의학 전문 기자 왜 말이 없어

1/NB10912494.0055.wav|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과거에 대한 이해는 커녕 오히려

1/NB10912494.0056.wav|과거보다 더 퇴화되고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

1/NB10912494.0057.wav|낙타 고기와 우유를 먹지 마라

1/NB10912494.0058.wav|낙타와의 접촉을 피하기

1/NB10912494.0059.wav|사실 나타나고는 동물은 빼고는 구경조차 힘든 나라에서 내놓은 방역 대체

1/NB10912494.0060.wav|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국가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

1/NB10912494.0061.wav|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

1/NB10912494.0062.wav|더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

1/NB10912494.0063.wav|오늘

1/NB10914347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 문을 열었습니다

1/NB10914347.0001.wav|코호트

1/NB10914347.0002.wav|동일집단을 뜻하는 통계 용어라고 하는군요

1/NB10914347.0003.wav|메르스가 발생하는 일부 병원에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집단 즉 홑으로 묶어서 외부 완전히 경리 시키겠다고 받겠습니다

1/NB10914347.0004.wav|찾아본 결과 별로 경기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매우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하고 합니다

1/NB10914347.0005.wav|코호트 격렬한 일어나 소년까지 등장한 상황인데 그러나

1/NB10914347.0006.wav|한 사람의 감염자로 시작된이 신종전염병은

1/NB10914347.0007.wav|초기 골든타임을 못친 이후에 속수무책으로 먼지는 중입니다

1/NB10914347.0008.wav|앞서 일본에서 첫 사망자

1/NB10914347.0009.wav|아들의 증언을 전해 드렸습니다

1/NB10914347.0010.wav|그 주장에 따르자면 병원은 환자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

1/NB10914347.0011.wav|어머니가

1/NB10914347.0012.wav|메르스 의심환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

1/NB10914347.0013.wav|믿겨지지가 않는 일이죠

1/NB10914347.0014.wav|방금 병원 의료진이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조차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

1/NB10914347.0015.wav|서울 강남에서는 자가 격리조치 했던 한 여성이 멀리 지방까지 골프 치러 다녀왔을 정도입니다

1/NB10914347.0016.wav|모르는 사람에게라도 감기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 기침도 삼킨다는

1/NB10914347.0017.wav|어느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

1/NB10914347.0018.wav|귓전을 울립니다

1/NB10914347.0019.wav|숨기고 구멍내기

1/NB10914347.0020.wav|정부가 장담하는 경기 조치는 그저 말뿐이 없다는 것입니다

1/NB10914347.0021.wav|다시 떠올리기조차 고통스러운 작년 봄

1/NB10914347.0022.wav|한국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 했지만

1/NB10914347.0023.wav|많은 사람들은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

1/NB10914347.0024.wav|국가 개조를 외쳤지만 여전히 무능함을 드러낸 정보

1/NB10914347.0025.wav|세월호 문제를 이데올로기 문제로 비화 시켜서 편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

1/NB10914347.0026.wav|여기에 편승해서 막말을 일삼았던 정치인

1/NB10914347.0027.wav|작업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골든타임 맞아 날려 버린 것이 아닌가

1/NB10914347.0028.wav|그럼으로써 지금은 사회적 잘 많이 들어가는 메르스 사태는 어찌보면

1/NB10914347.0029.wav|한국 사회가 스스로 자초했던 아니면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914347.0030.wav|그러면 또한 지금 2015년에 6월에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

1/NB10914347.0031.wav|통화 되는 보름 가까이 지나서야 대책 회의를 했지만 결론은 원론적인 없습니다

1/NB10914347.0032.wav|보다는 그동안 같은 편이니 여당과

1/NB10914347.0033.wav|국회법개정 문제를 놓고 더 신경전을 펼쳤다

1/NB10914347.0034.wav|그 통에 여당 내에서도 자중지란입니다

1/NB10914347.0035.wav|야 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겨우 모여서 보여 준 모습이

1/NB10914347.0036.wav|또 그 알약에 남은 기득권 싸움

1/NB10914347.0037.wav|시민들은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데 정치권은

1/NB10914347.0038.wav|기득권을 가운데 두고 뇌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

1/NB10914347.0039.wav|이들이야말로 똑같은 동일 집단으로 묶어서

1/NB10914347.0040.wav|코호트격리 치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

1/NB10914347.0041.wav|무책임

1/NB10914347.0042.wav|떠넘기기 무사안일

1/NB10914347.0043.wav|사회적 질병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이 코호트격리 시켜서 치료해야 할 것들이

1/NB10914347.0044.wav|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

1/NB10914347.0045.wav|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

1/NB10914347.0046.wav|정부의 지시 범퍼가 있었지만

1/NB10914347.0047.wav|정작 불신으로 인해서

1/NB10914347.0048.wav|스스로 코호트 격리된 정부의 외침에

1/NB10914347.0049.wav|시민들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

1/NB10914347.0050.wav|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

1/NB10918646.0000.wav|칫솔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18646.0001.wav|여의도구

1/NB10918646.0002.wav|오늘의 단어입니다

1/NB10918646.0003.wav|여의도 군은 원래 없습니다

1/NB10918646.0004.wav|정부가 뒤늦게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졸지에 생겨난 국민

1/NB10918646.0005.wav|서울 시민이라면 대부분 전 아직 있습니다 많은 여의도는 영등포구에 속한 동입니다

1/NB10918646.0006.wav|여의도 동해도

1/NB10918646.0007.wav|노심초사 끝에 발표했다는 정부의 병원 명단 발표는 이외에도 쓴 웃음을 짓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

1/NB10918646.0008.wav|왜 이렇게 갈팡질팡인가 앞으로는 좀 나아지게 는가

1/NB10918646.0009.wav|오늘 앵커브리핑 한 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918646.0010.wav|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이 국민 앞에 놔뒀습니다

1/NB10918646.0011.wav|메르스 사태 발생 18일 만입니다

1/NB10918646.0012.wav|해외 출장 중에 부랴부랴 귀국한 총리 되는

1/NB10918646.0013.wav|병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총력 대처를 방 배치

1/NB10918646.0014.wav|본의 아니게 총리 같이 하는 바람에 긴 타이틀에서 나이가 됐다 여러 가지하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다

1/NB10918646.0015.wav|이렇게 말해 왔던 대행 총이었으면

1/NB10918646.0016.wav|어쩌면 진짜 총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총리 대행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

1/NB10918646.0017.wav|정배우 왕자 막 내려서 혼선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오늘 청와대는 뜬금없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

1/NB10918646.0018.wav|총리 청문회

1/NB10918646.0019.wav|신상털기시기 아니라 업무수행능력 검증에 방점이 찍혀

1/NB10918646.0020.wav|조속히 임명되기 바란다

1/NB10918646.0021.wav|총리가 물러나고 한 달 가까이 만에 후보자로 임명한 청와대도 이제는 그 자리가 학교에 필요해 보인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

1/NB10918646.0022.wav|빈 컨트롤타워 그 자리 그 빈자리를 메울 황교안 총리 후보 청문회가

1/NB10918646.0023.wav|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

1/NB10918646.0024.wav|그러나

1/NB10918646.0025.wav|청와대의 바람과는 달리

1/NB10918646.0026.wav|이미 제기되는 외국에 대한 설명은 명쾌하지 않아 보입니다

1/NB10918646.0027.wav|왜 하필 경력 검증 전관예우 종교편향 같은 2차적인 장점에 골몰하게 만드는지 너무나 아쉽다

1/NB10918646.0028.wav|초대 총리부터 줄곧 됐다

1/NB10918646.0029.wav|대통령도 답답할 것이다

1/NB10918646.0030.wav|앞으로는 꼭 물어보시길래

1/NB10918646.0031.wav|군대는 갔다 왔는가

1/NB10918646.0032.wav|송호근 서울대 교수의 칼럼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

1/NB10918646.0033.wav|그러니까 기본은 갖춘 사람을 내 보내 달라 하는 요금이

1/NB10918646.0034.wav|입이 많이 늦었지만 더 늦지 않기 위해서

1/NB10918646.0035.wav|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잃지 않기 위해서

1/NB10918646.0036.wav|이번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제대로 올라야 하는 자리 좀

1/NB10918646.0037.wav|그래야 메르스 사태가이 지경이 되도록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았던 그 컨트롤타워라는 것이

1/NB10918646.0038.wav|최소한 다음 번에라도 제대로

1/NB10918646.0039.wav|작동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

1/NB10918646.0040.wav|임진왜란 난리통에 도성을 비우고 피란을 다녀온 선조가 폐허가된 도성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

1/NB10918646.0041.wav|재성이 어떤 서류 성령이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하는군요

1/NB10918646.0042.wav|양을 잃었어도 우리를 고치고

1/NB10918646.0043.wav|말을 잃었어도 마구를 지었다

1/NB10918646.0044.wav|지난 일은 비록 어쩔 수 없지만

1/NB10918646.0045.wav|오늘은 그래도 대체할 수 있으니

1/NB10918646.0046.wav|그래야

1/NB10918646.0047.wav|여의도동 2 졸지에 여의도 부가되는 일이 없이 시민들도 그래도 조금은 안심하게 되는 세상이 오겠지요

1/NB10920161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20161.0001.wav|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웃는 얼굴입니다

1/NB10920161.0002.wav|이거

1/NB10920161.0003.wav|우는 얼굴입니다

1/NB10920161.0004.wav|전화 보다 더 익숙해진 문자 메시지 이모티콘 드립니다

1/NB10920161.0005.wav|요즘은 휴대전화 통화 보다도 문자를 주고 받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하죠

1/NB10920161.0006.wav|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의 방법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

1/NB10920161.0007.wav|아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

1/NB10920161.0008.wav|문자로만 하는 대화는 섬세한 감정을 전달하기 쉽지 않은데다

1/NB10920161.0009.wav|가끔은 오해도 블로그

1/NB10920161.0010.wav|그래서 생긴 것이

1/NB10920161.0011.wav|이런 웃음 표시

1/NB10920161.0012.wav|또 눈물 표시

1/NB10920161.0013.wav|이런 이모티콘 드리고 그 종류가 점점 필요에 따라서

1/NB10920161.0014.wav|아 굉장히 이렇게 많아졌습니다

1/NB10920161.0015.wav|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운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

1/NB10920161.0016.wav|울고 웃고 하는 것이겠죠

1/NB10920161.0017.wav|기업들의 경우에도 경우도 그렇습니다 휴가 신청 같은 소소한 결제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 결제 방식도 등장했습니다

1/NB10920161.0018.wav|그러나 매우 중요한 결제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

1/NB10920161.0019.wav|대면보고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

1/NB10920161.0020.wav|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직접 대면해서 소통하는 방식

1/NB10920161.0021.wav|거짓말 하려는 욕구를

1/NB10920161.0022.wav|무료 준다는 결과도 있다

1/NB10920161.0023.wav|다시 금정 보내 보고 체계가 입길에 올랐습니다 복지부장관이 메르스 발생 6일이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대면 복을 했다는 겁니다

1/NB10920161.0024.wav|단독 보고가 아니라

1/NB10920161.0025.wav|국무회의이 자리에 섰습니다

1/NB10920161.0026.wav|공부가 너무 늦었다는 중에 장관은 유선상으로 보고 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지

1/NB10920161.0027.wav|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에선 곧바로 일어나 해명들을 내놨습니다 참모들과 거의 30분 넘게 전화한다

1/NB10920161.0028.wav|하루 25시간 일한 각오로 뛰어 달라고 전화로 당부한다

1/NB10920161.0029.wav|이렇게 대통령 역시 유선상의 짓을 바쁘게 내리고 있다는 전원이 없습니다

1/NB10920161.0030.wav|사실 국가라는 큰 조직에서 대면보고 많은 강조 화순

1/NB10920161.0031.wav|포스코 미다

1/NB10920161.0032.wav|정부청사도

1/NB10920161.0033.wav|뚝 떨어져서 분리 되어 있으니까

1/NB10920161.0034.wav|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오히려

1/NB10920161.0035.wav|어찌 보면 서명 보거나 전화 보고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

1/NB10920161.0036.wav|그러나 왜 우리 정부는 무슨 일만 생기면 소통의 문제가 불거지는 걸까

1/NB10920161.0037.wav|모두가 메르스를 찾겠다고 혹은 피하겠다고 황망한 사이에

1/NB10920161.0038.wav|왜 또 되면 보고니 아니면 소통이 하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인가

1/NB10920161.0039.wav|어찌 보면 한가위 보인다는 생각마저 든다는 겁니다

1/NB10920161.0040.wav|이제 이런 뉴스는

1/NB10920161.0041.wav|정말 보지 말았으면

1/NB10920161.0042.wav|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일겁니다

1/NB10920161.0043.wav|다산 정약용 선생 이런 말을

1/NB10920161.0044.wav|안겼습니다

1/NB10920161.0045.wav|얼굴을 맞대고 직접 바르게 하는 것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

1/NB10920161.0046.wav|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풍경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

1/NB10920161.0047.wav|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

1/NB10920161.0048.wav|예

1/NB10920161.0049.wav|이제 장관 님들은

1/NB10920161.0050.wav|그렇게 웃지만 하지 마시고

1/NB10920161.0051.wav|명확하게

1/NB10920161.0052.wav|자기 의견을

1/NB10920161.0053.wav|대답해 주시기 바라며

1/NB10920161.0054.wav|오늘의 앵커

1/NB10921944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21944.0001.wav|낙타

1/NB10921944.0002.wav|그리고

1/NB10921944.0003.wav|코끼리

1/NB10921944.0004.wav|오늘의 단어 미선

1/NB10921944.0005.wav|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

1/NB10921944.0006.wav|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나는 책을 냈습니다

1/NB10921944.0007.wav|간단히 정리하자면

1/NB10921944.0008.wav|코끼리는 생각하지마

1/NB10921944.0009.wav|이렇게 말할수록 사람들은

1/NB10921944.0010.wav|코끼리를 더

1/NB10921944.0011.wav|생각하게 된단 얘기

1/NB10921944.0012.wav|내 쿠폰이 책을 통해서 언어를 통한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을 설명했습니다

1/NB10921944.0013.wav|배에 가스가 따른다면 완벽한 중간중간 1,000 없어 보입니다

1/NB10921944.0014.wav|봉순아 진보가 아닌 중도층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이슈에 대한 극단적인 논쟁이 벌어지며

1/NB10921944.0015.wav|왼편이 나 오른편 중에 한 편으로

1/NB10921944.0016.wav|입장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

1/NB10921944.0017.wav|자 이런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그래서 평가하기는 끊을 수 없는 유혹 인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921944.0018.wav|복잡하게 얽힌 이수로 해도 편을 갈라서 단순화 할 수 있고 때로는

1/NB10921944.0019.wav|불리한 국면을 단번에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

1/NB10921944.0020.wav|세월호 유가족들은 단식농성장 앞에서 벌어진 일부 보수단체 이름 밥 폭식투쟁 장면을 떠올려 보면

1/NB10921944.0021.wav|또한

1/NB10921944.0022.wav|당시 정부의 무기력한 구조작업에 1편에서 끈질기게 이어졌던 다이빙벨에 대한 논란을 떠올려보면

1/NB10921944.0023.wav|이판 가르기가 얼마나 사회를 갈라지게 했는지

1/NB10921944.0024.wav|알 수 있을 것입니다

1/NB10921944.0025.wav|일부 교회를 빌자면 모두가

1/NB10921944.0026.wav|코끼리 드립니다

1/NB10921944.0027.wav|구멍난 방역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번 메르스 사 배도 역시 어쩌면

1/NB10921944.0028.wav|코끼리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

1/NB10921944.0029.wav|지난 4일 자체적인 방역대책을 내놓은 서울시를 향해서 정치적 욕심 채우기

1/NB10921944.0030.wav|변 일부에 비난이 쏟아졌다

1/NB10921944.0031.wav|광역을 우선시하기 보다는

1/NB10921944.0032.wav|정치적 셈법을 앞세워서 분리하는

1/NB10921944.0033.wav|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

1/NB10921944.0034.wav|요 며칠 인터넷을 살펴보면

1/NB10921944.0035.wav|광우병처럼 메르스로 선동한다

1/NB10921944.0036.wav|메르스 공포는 친노종북 좌익세력의 거짓말이다 이런 댓글들이

1/NB10921944.0037.wav|슬슬 눈에 뛰기 시작한다

1/NB10921944.0038.wav|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시민사회의 성찰의 한 문제제기 어찌 괴담이 아니었습니다

1/NB10921944.0039.wav|실제로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의 여부에 따라서 불리한 구성이 어떤 쇠고기 협상을 일부나마 다시 하셨으니까

1/NB10921944.0040.wav|물론 과장된 공포나 말도 되지 않는 유언비어는 차단하고 정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기능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

1/NB10921944.0041.wav|초기 방역이 방심으로 뚫렸다

1/NB10921944.0042.wav|그로 인해서 안 나와도 될 사망자가 나오고

1/NB10921944.0043.wav|달성 병원방 여기 줄지어 뚫리는이 상황에서

1/NB10921944.0044.wav|그 상투적 편가르기 명칭이 또다시 지겹도록 등장하는 것을 보면

1/NB10921944.0045.wav|우리 사회 체질과 우리 사회가

1/NB10921944.0046.wav|호흡하고 있는

1/NB10921944.0047.wav|사회적 공기는 무엇인가

1/NB10921944.0048.wav|사성제 돌아보게 됩니다

1/NB10921944.0049.wav|부부싸움을 하다가도

1/NB10921944.0050.wav|집에 불이 나면 같이 부르듯이

1/NB10921944.0051.wav|지금은 내편 내편 편가르기 해 가면서 손가락 집에 갈 타이밍

1/NB10921944.0052.wav|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

1/NB10921944.0053.wav|서울대공원과 광주우치동물원 에그 낙타

1/NB10921944.0054.wav|중동의 메르스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던 그 낙타

1/NB10921944.0055.wav|그런데도 불안하다고 해서 가둬 두었던 주희 없는 낙타가 얼마 전에 다시 밖으로 나왔다

1/NB10921944.0056.wav|반대로

1/NB10921944.0057.wav|크로노 우리는 그 코끼리는

1/NB10921944.0058.wav|다시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

1/NB10921944.0059.wav|오뎅탕

1/NB10923518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23518.0001.wav|낙타가 태양을 피하는 방법

1/NB10923518.0002.wav|뜨거운 태양과 마주했을 때

1/NB10923518.0003.wav|작은 그늘조차 찾지 못할 때

1/NB10923518.0004.wav|나타나 어떻게 할까요

1/NB10923518.0005.wav|오히려

1/NB10923518.0006.wav|얼굴을

1/NB10923518.0007.wav|이렇게

1/NB10923518.0008.wav|태양과 마주 한다고 하는군요

1/NB10923518.0009.wav|왜일까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

1/NB10923518.0010.wav|메르스 사태가 23일 저를 맞았습니다 시민들의 불씨는 마치 사막의 태양처럼 뜨겁습니다

1/NB10923518.0011.wav|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

1/NB10923518.0012.wav|우리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

1/NB10923518.0013.wav|인천 인하대병원 원장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

1/NB10923518.0014.wav|다른 병원들이 메르스 환자 치료를 꺼려하는 가운데 인하대병원은 확진 환자를 있는게 받아서 치료 들어갔고

1/NB10923518.0015.wav|정부가 발표한 지역 거점의료기관 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

1/NB10923518.0016.wav|메르스 1번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되었고 치료를 받아서 완치된 서울 개인 병원 원장 응

1/NB10923518.0017.wav|내 병원이 타격을 입어도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

1/NB10923518.0018.wav|메르스 확진 자들의 여러 명 발생한 대전의 대청병원

1/NB10923518.0019.wav|병동에 격리된 100여명의 환자와 간병인들은

1/NB10923518.0020.wav|수간호사들이 앞장 서서 돌보고 있다고 하는 거야

1/NB10923518.0021.wav|메르스 치료가 두렵지 않다

1/NB10923518.0022.wav|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환자 곁에 있을 겁니다

1/NB10923518.0023.wav|신종질병 앞에 마산 의료진들의 이런 모습은 불안해 하는 많은 시민들에게

1/NB10923518.0024.wav|식물 좀비

1/NB10923518.0025.wav|물론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은 있습니다

1/NB10923518.0026.wav|대통령의 방미 계획조차 취소된 비상시국에 더위를 떠난 분들

1/NB10923518.0027.wav|한의원 공직자들 정말 많았습니다

1/NB10923518.0028.wav|이처럼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채워 주지 못한 무언가를 누군가가 대신 메꿔주고 있는 상황

1/NB10923518.0029.wav|덕분에 우리 내 세상은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923518.0030.wav|자 이제 낳다가 뜨거운 태양을 마주했을 때 왜 얼굴을 태양 쪽으로 향하는지

1/NB10923518.0031.wav|말씀드리죠

1/NB10923518.0032.wav|낙타가 얼굴을 태양과 마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전해 줍니다

1/NB10923518.0033.wav|장을

1/NB10923518.0034.wav|취하려고 등을 돌리면 오히려

1/NB10923518.0035.wav|몸 전체가 뜨거워지면

1/NB10923518.0036.wav|태양을 마주 보면

1/NB10923518.0037.wav|비록 얼굴은 화끈거리더라고요

1/NB10923518.0038.wav|몸통 부위에는

1/NB10923518.0039.wav|그늘이 만들어 지난다

1/NB10923518.0040.wav|그래서 어려움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

1/NB10923518.0041.wav|이 글자는 태양에 맞서는 낙타의 지혜

1/NB10923518.0042.wav|오늘

1/NB10927640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27640.0001.wav|투명인간

1/NB10927640.0002.wav|오늘

1/NB10927640.0003.wav|앵커브리핑

1/NB10927640.0004.wav|주목한다

1/NB10927640.0005.wav|사회의 맨얼굴

1/NB10927640.0006.wav|화장이 벗겨진 민낯은 위기상황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져와

1/NB10927640.0007.wav|위기 상황을

1/NB10927640.0008.wav|약자에게 복 냉정하게

1/NB10927640.0009.wav|작용하는 것 같습니다

1/NB10927640.0010.wav|탄탄한 줄로만 알았던

1/NB10927640.0011.wav|국가 방망이 무너지는 것 이상으로

1/NB10927640.0012.wav|당황스러운 일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

1/NB10927640.0013.wav|명단에 없는 사람들

1/NB10927640.0014.wav|집 이름은 있으래

1/NB10927640.0015.wav|플레이 스토어

1/NB10927640.0016.wav|관리 되지도 않았던 이른바 투명인간들의 존재가 속

1/NB10927640.0017.wav|드러나고 있는

1/NB10927640.0018.wav|대전 대청병원에서 근무한 전산 업체 직원

1/NB10927640.0019.wav|메르스에 감염되지만

1/NB10927640.0020.wav|파견직이란 이유

1/NB10927640.0021.wav|관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

1/NB10927640.0022.wav|그 사람이 말을 안 했다

1/NB10927640.0023.wav|지하에서만 업무를 했다

1/NB10927640.0024.wav|관련자들의 명 어떻게

1/NB10927640.0025.wav|차가 있어

1/NB10927640.0026.wav|그 사이 집이 부산에는 그런

1/NB10927640.0027.wav|770명 가장의 사람과

1/NB10927640.0028.wav|접촉 했어요

1/NB10927640.0029.wav|삼성서울병원에 협력업체 직원 응급실 이송요원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

1/NB10927640.0030.wav|열이 났지만 당장에 참게가 걱정됐던 탓인지 아흐레 동안 일을 계속 했고

1/NB10927640.0031.wav|그 사이에 그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

1/NB10927640.0032.wav|역시 간접고용 형태인 대형병원 안전요원과 청원경찰 등도 메르스에 가면 됐고

1/NB10927640.0033.wav|이번 사태 초기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무자에게

1/NB10927640.0034.wav|고고장구조차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

1/NB10927640.0035.wav|이미 알려졌습니다

1/NB10927640.0036.wav|이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

1/NB10927640.0037.wav|쓰지 못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역시 꽤 많았습니다

1/NB10927640.0038.wav|대부분이 파견직 혹은

1/NB10927640.0039.wav|계약직이란 이유로 사회가 명단 취급하지 아나운서

1/NB10927640.0040.wav|우리라고 부르지 않았던 사람

1/NB10927640.0042.wav|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름 바 투명 인간들이 아니었을까

1/NB10927640.0043.wav|바이러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하지 않는데

1/NB10927640.0044.wav|사회적 차별로 틈새가 벌어졌고 그 사이로

1/NB10927640.0045.wav|신종 질병은 가차없이 파고든

1/NB10927640.0046.wav|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

1/NB10927640.0047.wav|내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팔아버려 하지 않으면

1/NB10927640.0048.wav|보이지않는 질병과 싸우겠다는 모순에 빠져 있었던 셈이지요

1/NB10927640.0049.wav|그렇게 내렸으면 우리 사회의 감춰진 민낯 맞아

1/NB10927640.0050.wav|낱낱이

1/NB10927640.0051.wav|보여주고 있는 중

1/NB10927640.0052.wav|오늘의 앵커

1/NB10930500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에 문의했습니다 대통령자문 그룹으로 알려진 16회에

1/NB10930500.0001.wav|김용갑 전의원

1/NB10930500.0002.wav|정부의 메르스 대응해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

1/NB10930500.0003.wav|대통령이 국민을 걱정 해야지

1/NB10930500.0004.wav|국민이 대통령을 걱정 해서요

1/NB10930500.0005.wav|청와대 안 공기와 바깥 공기는 전혀 다르다

1/NB10930500.0006.wav|청와대 대응이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유 급기야는 자문 그룹의 원로에게 수도 이런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는

1/NB10930500.0007.wav|이렇게 안 공기와 바깥 공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

1/NB10930500.0008.wav|음악 정리

1/NB10930500.0009.wav|이제 뭐 다 아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병실에 압력을 낮추어서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말아 줘

1/NB10930500.0010.wav|그렇게함으로써 안에 있는 바이러스는 물론 그 어떤 것도

1/NB10930500.0011.wav|바깥으로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

1/NB10930500.0012.wav|음악 경리

1/NB10930500.0013.wav|안 공기와 바깥 공기

1/NB10930500.0014.wav|오늘 앵커브리핑 주목한 말입니다

1/NB10930500.0015.wav|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승용차 뒷자석 시티에 대해서 정부청사와 국회

1/NB10930500.0016.wav|고급 식당 사이를 오갔다

1/NB10930500.0017.wav|병원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

1/NB10930500.0018.wav|어쩔 수 없이 밀접 접촉하며

1/NB10930500.0019.wav|들숨 하나 날숨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

1/NB10930500.0020.wav|시민의 프라이나 분노 따위는

1/NB10930500.0021.wav|그들의 안중에 없었을것이다

1/NB10930500.0022.wav|뉴스 브리핑 해 뉴스룸 앵커브리핑 가끔 등장하는 중앙일보 권석천 사회부정의 컬럼 중에 한 구절을

1/NB10930500.0023.wav|소개해 드렸습니다

1/NB10930500.0024.wav|역시

1/NB10930500.0025.wav|안 공기와 바깥에 공기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

1/NB10930500.0026.wav|권석천 부장은 알베르 카뮈 1947년 작 테스트를 기억해라

1/NB10930500.0027.wav|명령 있어야 그렇게 하지

1/NB10930500.0028.wav|7단 9분 사진에서 무엇을 해 볼 생각도 전혀 없었어

1/NB10930500.0029.wav|아무런 대책도 없었지만

1/NB10930500.0030.wav|적어도 무기력했던 메르스 초기 단계에 방역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

1/NB10930500.0031.wav|그 이후에도 대책은 뒷북이었고 관리는 허술 했습니다

1/NB10930500.0032.wav|관료들이 위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스스로를 여론에서 자가 격리시켜 왔고

1/NB10930500.0033.wav|그 결과 메르스는 먼 곳에서

1/NB10930500.0034.wav|풍문으로 들었소

1/NB10930500.0035.wav|권석천 부장에게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

1/NB10930500.0036.wav|메르스가 폭로하는 것은

1/NB10930500.0037.wav|공감이 빠진채 공회전하는

1/NB10930500.0038.wav|권력에 누워

1/NB10930500.0039.wav|듣기에 따라서는 거북한 지적에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지적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

1/NB10930500.0040.wav|그것은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지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

1/NB10930500.0041.wav|아마도 베레스는 곧 지나가게 되겠지

1/NB10930500.0042.wav|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안전해질 것인가

1/NB10930500.0043.wav|알베르 까미는 작품 속에서 말합니다

1/NB10930500.0044.wav|혜숙이는 결코

1/NB10930500.0045.wav|죽지도 사라져 버릴지도 않는다

1/NB10930500.0046.wav|까미는 너무 비관적인 것일까요

1/NB10930500.0047.wav|사실 그가 말하는 페스트균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

1/NB10930500.0048.wav|아마도

1/NB10930500.0049.wav|권력자와 시민간의 음악 경제 상황도

1/NB10930500.0050.wav|그 은유의 대상으로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

1/NB10930500.0051.wav|왜 비관이 역설이 되기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희망합니다

1/NB10930500.0052.wav|그래요 병원에서도 버스에서

1/NB10930500.0053.wav|지하철에서

1/NB10930500.0054.wav|들숨 하나 날숨 하나

1/NB10930500.0055.wav|신경 곤두세우지 않게 저

1/NB10930500.0056.wav|사실 알베르 까뮈

1/NB10930500.0057.wav|자신의 작품이

1/NB10930500.0058.wav|긍정으로 일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

1/NB10930500.0059.wav|오늘의

1/NB10931925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31925.0001.wav|혜연 하우

1/NB10931925.0002.wav|기가 넘치도록 내린다는 그새 한자 옵니다

1/NB10931925.0003.wav|요즘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

1/NB10931925.0004.wav|조금 후에 구름과바람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주며 큰 비가 내리는지

1/NB10931925.0005.wav|선지자 엘리야의기도 로비가 내렸다는 성서중 한 구절입니다

1/NB10931925.0006.wav|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았죠

1/NB10931925.0007.wav|중국 나라의 탕왕 역시 가뭄 앞에서는 육사 자책

1/NB10931925.0008.wav|여섯 가지를 자책하면서

1/NB10931925.0009.wav|하늘 앞의 통렬한 반성의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

1/NB10931925.0010.wav|또

1/NB10931925.0011.wav|세조가 왕위에 오르자

1/NB10931925.0012.wav|억수같이 비가 내리니 백성에 크게 기뻐하였다

1/NB10931925.0013.wav|조선왕조실록 역시 태조 집 바로 다음날 큰비가 내렸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

1/NB10931925.0014.wav|다른 왕들 역시 가뭄이 극심 하면 성대 옷을 입고 거 저 위에 올라서

1/NB10931925.0015.wav|기우제를 지냈습니다

1/NB10931925.0016.wav|치수로 문명의 흥하고 3차 했던 분명한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

1/NB10931925.0017.wav|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치수

1/NB10931925.0018.wav|물관리는

1/NB10931925.0019.wav|국가의 몫이었고

1/NB10931925.0020.wav|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

1/NB10931925.0021.wav|물 끓여 슬프게 만들겠다

1/NB10931925.0022.wav|칫솔을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이명박 정부 내내 20조원 넘게 들여서 밀어붙인 4대강 공사

1/NB10931925.0023.wav|정작 가두어진 물은 흐르지 못해서 이른바 녹조라떼가 돼 가는데

1/NB10931925.0024.wav|무슨 영문인지 인근 논밭은 바짝 찾으러 간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

1/NB10931925.0025.wav|상습 가뭄 지역이 아닌 엉뚱한 곳에 보르지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요

1/NB10931925.0026.wav|더구나 4대강에 지천과 지하수위를 맞춰 놨다는 증거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

1/NB10931925.0027.wav|물풀 소리 크게 만들기 했는데

1/NB10931925.0028.wav|그냥 만들기만 했지 쓸만은 없다

1/NB10931925.0029.wav|뭐 이런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

1/NB10931925.0030.wav|선수

1/NB10931925.0031.wav|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오로지

1/NB10931925.0032.wav|김 물에만 의존하는 매우 전통적인 방식의 논을 말합니다

1/NB10931925.0033.wav|수십조원 예산을 드려서 거대한 물그릇을 만들어 놨다 하지만 그 비싼 물그릇을 앞에 둔 채 또 다시

1/NB10931925.0034.wav|김우재 나 지내야 하는 천수답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

1/NB10935988.0000.wav|지선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35988.0001.wav|인간에 대한 예의

1/NB10935988.0002.wav|소설 제목이기도 하지

1/NB10935988.0003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말입니다

1/NB10935988.0004.wav|메르스라는 낯선 질병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

1/NB10935988.0005.wav|광역시 시스템에 대한 신뢰

1/NB10935988.0006.wav|소중한 생명

1/NB10935988.0007.wav|모두가 동의 할 내용들이

1/NB10935988.0008.wav|그러면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

1/NB10935988.0009.wav|인간에 대한 예의

1/NB10935988.0010.wav|메르스로 인해서 가족간의 마지막 인사 마저 금지되어야 했던 사연들이 이어졌습니다

1/NB10935988.0011.wav|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해도

1/NB10935988.0012.wav|무릎 생사 이별은

1/NB10935988.0013.wav|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

1/NB10935988.0014.wav|그러나 보건당국의 발표는 건조한 문구들로 만 가득했죠

1/NB10935988.0015.wav|모두

1/NB10935988.0016.wav|고혈압

1/NB10935988.0017.wav|대장염증 기저 질환이 있었다

1/NB10935988.0018.wav|실제로 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고령이나 만성질환자가 90%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

1/NB10935988.0019.wav|그러니까

1/NB10935988.0020.wav|원래 아팠었다는 말이 됩니다

1/NB10935988.0021.wav|이 말은 지병이 있는 이들에게

1/NB10935988.0022.wav|노인들에게

1/NB10935988.0023.wav|또한 그 가족에게 얼마나 잔인했던 것인가

1/NB10935988.0024.wav|지병이 있었다고 한들 그 죽음의 무기에 대해서 우리는

1/NB10935988.0025.wav|함부로

1/NB10935988.0026.wav|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

1/NB10935988.0027.wav|비록 세상을 떠났지만

1/NB10935988.0028.wav|우리가 지켰어야 할 얘기가 아닌가

1/NB10935988.0029.wav|우리가 지켰어야 할 인간에 대한 얘기는 또 있습니다

1/NB10935988.0030.wav|각자도생

1/NB10935988.0031.wav|이번 사태에 초기부터 나왔던 말이지요

1/NB10935988.0032.wav|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었어

1/NB10935988.0033.wav|그런데 이게 각자도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엉뚱하게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

1/NB10935988.0034.wav|경미를 벗어나서 골프장을 다녀 온 사람도 있었고

1/NB10935988.0035.wav|그렇게 하는 병원을 탈출한 사람도

1/NB10935988.0036.wav|일정에

1/NB10935988.0037.wav|각자도생

1/NB10935988.0038.wav|투병 끝에 완치된 환자가 여전히 피해야 할 대상인 것도

1/NB10935988.0039.wav|의료진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바이러스라는 별명을 달고 깊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

1/NB10935988.0040.wav|집 오면 이름 봐

1/NB10935988.0041.wav|각자도생의 한 단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

1/NB10935988.0042.wav|감염은 불안과 공포

1/NB10935988.0043.wav|혐오와 배척 등

1/NB10935988.0044.wav|본능적인 차원의 반응을 일으킨다

1/NB10935988.0045.wav|문학평론가 정과리 씨의 감염병과 인문학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

1/NB10935988.0046.wav|그렇습니다 우리는

1/NB10935988.0047.wav|버스에서

1/NB10935988.0048.wav|지하철에서

1/NB10935988.0049.wav|거리에서

1/NB10935988.0050.wav|우리도 모르게

1/NB10935988.0051.wav|서로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고

1/NB10935988.0052.wav|그것은이 시대를 살아가는 슬픈 생존법

1/NB10935988.0053.wav|각자도생 했습니다

1/NB10935988.0054.wav|메르스는 언젠가는 사그러 들겠지만

1/NB10935988.0055.wav|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우리의 덕목은 그래서

1/NB10935988.0056.wav|또 다시

1/NB10935988.0057.wav|인간에 대한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935988.0058.wav|그리고 그때 찾으면 시간은

1/NB10935988.0059.wav|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

1/NB10937480.0000.wav|지선이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37480.0001.wav|보건소에 구급차가 한대밖에 없다

1/NB10937480.0002.wav|누구의 말일까요

1/NB10937480.0003.wav|신연희 강남구청장 이번 메르스 사태 겪으면서 한 말입니다

1/NB10937480.0004.wav|강남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가 몰려있다는 지역에서 나온다

1/NB10937480.0005.wav|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없어

1/NB10937480.0006.wav|음악 병실도 충분히 갖추겠다

1/NB10937480.0007.wav|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놀러 갔던 것은

1/NB10937480.0008.wav|최고의 시스템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

1/NB10937480.0009.wav|당고개 기준에 따른 음악 병실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

1/NB10937480.0010.wav|남는 장사

1/NB10937480.0011.wav|오늘

1/NB10937480.0012.wav|앵커브리핑에 주목한

1/NB10937480.0013.wav|단어입니다

1/NB10937480.0014.wav|국내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들이 음악 병신 조차가 주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

1/NB10937480.0015.wav|시설비 3억 5천만 원

1/NB10937480.0016.wav|공조기 등 장비비용 약 8400만

1/NB10937480.0017.wav|음악 병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

1/NB10937480.0018.wav|화면에 전염병은 늘 도는 것이 아니지요

1/NB10937480.0019.wav|그니까 다시 말해서 돈이 안 되는 그런 방이 없다는 겁니다

1/NB10937480.0020.wav|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은 대형병원에 기형적 병실 구조가 메르스 확산에 한몫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

1/NB10937480.0021.wav|병원들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2 3인실 만들기 위해서 6인실 무리하게 소개팅

1/NB10937480.0022.wav|환기장치도 없이 바이러스만 득실대는 병실을 만들었던 주장

1/NB10937480.0023.wav|자 우리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9.56

1/NB10937480.0024.wav|일본 다음으로

1/NB10937480.0025.wav|2위를 차지했으며

1/NB10937480.0026.wav|인구 천명당 병상수는

1/NB10937480.0027.wav|불과 1.1

1/NB10937480.0028.wav|그러니까 OECD 24개국

1/NB10937480.0029.wav|울지었습니다

1/NB10937480.0030.wav|홍게는 우리가 처한 의료현실을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

1/NB10937480.0031.wav|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번 메르스 사태 최전선을

1/NB10937480.0032.wav|평소에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던 그 공공의적 기관

1/NB10937480.0033.wav|시켰습니다

1/NB10937480.0034.wav|반대로

1/NB10937480.0035.wav|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경남도의 경우는

1/NB10937480.0036.wav|의심 환자가 무료팩 20km 떨어진 부산까지 의료 피난을 가야 했다

1/NB10937480.0037.wav|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소방서가 존재하듯이

1/NB10937480.0038.wav|만약을 위한 빈방을 마련하여 놓아야 한다는 것

1/NB10937480.0039.wav|이번 메르스 사태로 우리는 톡톡히 수업료를 치른 셈입니다

1/NB10937480.0040.wav|복지는 투자다

1/NB10937480.0041.wav|얼마 전에

1/NB10937480.0042.wav|저희 뉴스룸에서 만난 전 이코노미스트 기자의 말입니다

1/NB10937480.0043.wav|그가 경제지 출신이라는 것이 다시 와닿는 말이기도 하지요

1/NB10937480.0044.wav|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했으니까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었을만큼

1/NB10937480.0045.wav|성공해서 올려 달라는 것

1/NB10937480.0046.wav|복지는

1/NB10937480.0047.wav|공공의료는

1/NB10937480.0048.wav|공짜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

1/NB10937480.0049.wav|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언젠가

1/NB10937480.0050.wav|취미 다시 돌려 받게 되는 것

1/NB10937480.0051.wav|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믿지는 것 같아도 결국 복지는

1/NB10937480.0052.wav|남는 장사라는 겁니다

1/NB10937480.0053.wav|그리고 조승현 인천 의료원장은 이런 말도 했더군요

1/NB10937480.0054.wav|메르스 같은 사태가 터지면 민간 병원이 안 움직이니까 공공병원을 내세운다

1/NB10937480.0055.wav|그러나 당신은 영웅처럼 말하다가

1/NB10937480.0056.wav|지나가면 잊혀짐

1/NB10937480.0057.wav|이번에 어떨까요

1/NB10937480.0058.wav|무엇이 친정 남는 장사인데

1/NB10937480.0059.wav|우리는 또 잊어버리세요

1/NB10937480.0060.wav|오늘의 앵커브리핑 이였습니다

1/NB10938971.0000.wav|세상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태극기 사랑 7시 운동

1/NB10938971.0001.wav|혹시 들어 보셨는지요

1/NB10938971.0002.wav|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지난 7월부터 광복절인 8월까지

1/NB10938971.0003.wav|70일동안 진행중인 나라사랑 운동입니다

1/NB10938971.0004.wav|나라사랑을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

1/NB10938971.0005.wav|오늘 앵커브리핑이 던지는 질문입니다

1/NB10938971.0007.wav|며칠 전에 이메일을 한통 받았습니다

1/NB10938971.0008.wav|평범 주부 조미성이라고 합니다

1/NB10938971.0009.wav|뉴스룸에 시청자인 도우미 솜씨 오늘

1/NB10938971.0010.wav|앵커브리핑이 주목한

1/NB10938971.0011.wav|이번 메르스 정보를 닦으면서 느꼈던 단상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

1/NB10938971.0012.wav|그러니까 오늘 앵커브리핑은 시청자 도우미 솜씨와 함께하는 세미나

1/NB10938971.0013.wav|지금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

1/NB10938971.0014.wav|들숨과 날숨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미 정신은 심리학자 매슬로우 5단계 욕구이론을 떠올렸습니다

1/NB10938971.0015.wav|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

1/NB10938971.0016.wav|인간의 심리는 가장 아래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

1/NB10938971.0017.wav|그 다음 윗 단계 이어진다는 것이 매슬로 이론의 올립니다

1/NB10938971.0018.wav|그러니까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

1/NB10938971.0019.wav|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진 이후에

1/NB10938971.0020.wav|그것이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고

1/NB10938971.0021.wav|워크 2단계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

1/NB10938971.0022.wav|조미송 씨눈에는 이번 메르스사태 Yes lovely 다르지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

1/NB10938971.0023.wav|동구에 대처방안이 앞뒤 순서가 뒤바뀌었다 메시지 저

1/NB10938971.0024.wav|지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국가는 시민에게

1/NB10938971.0025.wav|믿음부터 강의했고 오히려

1/NB10938971.0026.wav|잔뜩 얼음 짝만 왔다는 것입니다

1/NB10938971.0027.wav|아시다시피 초기 정부 대응은 유언비어 단속이 없어

1/NB10938971.0028.wav|한 달이 넘었네 황당한 사투리 들었거든 20대 평범 주부

1/NB10938971.0029.wav|조미 성씨가 겪은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

1/NB10938971.0030.wav|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할 때

1/NB10938971.0031.wav|국가는 과잉의 존재로 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

1/NB10938971.0032.wav|좀 이성춘 이렇게 말합니다

1/NB10938971.0033.wav|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리는

1/NB10938971.0034.wav|아랫단계 기본욕구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4시

1/NB10938971.0035.wav|애국심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랫단계 욕구부터 채워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

1/NB10938971.0036.wav|이런 그녀에게

1/NB10938971.0037.wav|아마도

1/NB10938971.0038.wav|혁기 사랑해 71 운동은

1/NB10938971.0039.wav|국가 과잉으로 비쳐지지 않을까

1/NB10938971.0041.wav|오늘의 앵커

1/NB10940618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40618.0001.wav|너무도 유명한 장면이죠

1/NB10940618.0002.wav|영화 레미제라블 중에 탈옥수 장발장을 쫓던 자베르 경감이 부른 노래

1/NB10940618.0003.wav|자베르는 장발장을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

1/NB10940618.0004.wav|기억 속의 장발장은 그 저 24601

1/NB10940618.0005.wav|19년 동안 감옥에서 풀렸던 그의 수인 번호

1/NB10940618.0006.wav|이름이 필요 없는 영원한 죄수일 뿐이었어

1/NB10940618.0007.wav|42번 확진자

1/NB10940618.0008.wav|그녀는 수의도 없이

1/NB10940618.0009.wav|비닐 팩에 담겨서

1/NB10940618.0010.wav|화장실로 향했다

1/NB10940618.0011.wav|대상포진을 앓았을 뿐인 54세 여성 이었죠

1/NB10940618.0012.wav|어머니가 투병 19일 만에 세상을 떠난 뒤에

1/NB10940618.0013.wav|그녀의 젊은 따른

1/NB10940618.0014.wav|장도 밥도 취하지 못한 채

1/NB10940618.0015.wav|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

1/NB10940618.0016.wav|곽진 번호 14번

1/NB10940618.0017.wav|80명을 감염시키는 슈퍼전파자라 불렸던 35살에 그는

1/NB10940618.0018.wav|퇴원 직전에야 자신이 바로 그 14번 슈퍼전파자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

1/NB10940618.0019.wav|괴롭고 죄송하다

1/NB10940618.0020.wav|졸지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그는 복잡하게 얽힌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

1/NB10940618.0021.wav|번호로 폰 번호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

1/NB10940618.0022.wav|또 번호로 됐다가

1/NB10940618.0023.wav|이웃에 차가운 시선 속에서

1/NB10940618.0024.wav|다시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사람들

1/NB10940618.0025.wav|강철의 이들에게 번호를 붙인 것은 물론 이들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

1/NB10940618.0026.wav|그러나 그들의 인격을 보호하기위해서 번호를 붙이는 바로 그 순간

1/NB10940618.0027.wav|그 번호로 인해서 인격을 상실하고 야만은 아이러니의 시대

1/NB10940618.0028.wav|메르스가 가져온 2015년 한국 사회 모습입니다

1/NB10940618.0029.wav|장발장으로 불리하지 못한 수인번호 24601

1/NB10940618.0030.wav|100여 년 전인 1914년 최남선의 출력한 레미제라블의 한글 제목은

1/NB10940618.0031.wav|너 참 불쌍타였습니다

1/NB10940618.0032.wav|오늘의 앵커

1/NB10944493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44493.0001.wav|난지

1/NB10944493.0002.wav|난 좋아 영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

1/NB10944493.0003.wav|미인이 나 현인 같이

1/NB10944493.0004.wav|그렇게 아름다운 무언가를 비유할 때

1/NB10944493.0005.wav|쓰인다고 하자

1/NB10944493.0006.wav|지극히 아름다운

1/NB10944493.0007.wav|오늘 앵커브리핑 해 주목한 말입니다

1/NB10944493.0008.wav|난지도이 아름다운 이름의 섬에 서울에 쓰레기가 매립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8년이었습니다

1/NB10944493.0009.wav|그 이후에는 안지 너는

1/NB10944493.0010.wav|15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만든

1/NB10944493.0011.wav|80 m 높이의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

1/NB10944493.0012.wav|지금은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서 생태공원이 조성됐고 많은 시민이 사랑하는

1/NB10944493.0013.wav|쉼터로

1/NB10944493.0014.wav|변모했습니다

1/NB10944493.0015.wav|하지 마

1/NB10944493.0016.wav|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이 땅 아래에는

1/NB10944493.0017.wav|우리가 마치 쓰레기처럼 버림

1/NB10944493.0018.wav|현대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상처가 깊이 묻혀 있습니다

1/NB10944493.0019.wav|한 20초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바로 오늘

1/NB10944493.0020.wav|1,500여명의 머리 위로

1/NB10944493.0021.wav|강남의 부를 상징하던 최고급 백화점이 무너져 내려

1/NB10944493.0022.wav|저는 당신 뉴스 속보 행사였습니다

1/NB10944493.0023.wav|눈으로 보고도 참아 믿기 힘든 장면들이 계속 됐습니다

1/NB10944493.0024.wav|사람의 복숭아 팩

1/NB10944493.0025.wav|오늘 내 세웠기에 발생했던

1/NB10944493.0026.wav|더욱 믿을 수 없었던 사실은 방귀사고 보름 만에 현장 자네 3만 4천

1/NB10944493.0027.wav|당시 필수도 있던 난지도 쓰레기장에 매입했다는 것입니다

1/NB10944493.0028.wav|실종자 상당수의 시신을 미쳐 찾지도 못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에 지금 그거를 다기능 해 가지고 있으면은 다 골라 가지고 그걸 술에다 마요 나는 나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 24시 학원에 갔다가 하남 신장 있는데 눈물 눈물 눈물 나

1/NB10944493.0029.wav|붉은색 손짓

1/NB10944493.0030.wav|잡화 보여 직원의 이름표가 들어 있는 푸른색 송이 값

1/NB10944493.0031.wav|실종자 가족들은 쓰레기 더미로 변환 자네를 맨손으로 파헤쳐야

1/NB10944493.0032.wav|기억해야 할

1/NB10944493.0033.wav|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비극을

1/NB10944493.0034.wav|곧장 매립해 버린

1/NB10944493.0035.wav|불행한 스텝

1/NB10944493.0036.wav|아마도 빨리 입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

1/NB10944493.0037.wav|그래서 그렇게 허겁지겁 묻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

1/NB10944493.0038.wav|훌라

1/NB10944493.0039.wav|입고 싶었을뿐 해결된 것은

1/NB10944493.0040.wav|없었습니다

1/NB10944493.0041.wav|그래서 3층에 비극은 화성 씨랜드 참사

1/NB10944493.0042.wav|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

1/NB10944493.0043.wav|그 배 세월호

1/NB10944493.0044.wav|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944493.0045.wav|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도 세월호를 빨리 입고 싶어 하지

1/NB10944493.0046.wav|지극히 아름다운 섬

1/NB10944493.0047.wav|한편으로는 지극히 슬픈 섬

1/NB10944493.0048.wav|난지도가 품고 있는 우리 현대사의 슬픈 역설입니다

1/NB10944493.0049.wav|우리는이 순간

1/NB10944493.0050.wav|발을 딛고서 있는이 땅 위에서

1/NB10944493.0051.wav|함부로 힘을 주어 거 잊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어

1/NB10944493.0052.wav|오늘의 앵커

1/NB10946031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

1/NB10946031.0001.wav|메르스 대란이 한풀 꺾이는 수세미

1/NB10946031.0002.wav|조만간 종식 뜰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

1/NB10946031.0003.wav|그러나 여기

1/NB10946031.0004.wav|긴 잠복기를 끝내고

1/NB10946031.0005.wav|고개를 꿈틀대고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어

1/NB10946031.0006.wav|국회법 갈등이란 숙주를 매개로 한 권력 갈등의 바이러스

1/NB10946031.0007.wav|확 산세가 빠릅니다

1/NB10946031.0008.wav|배신의 정치

1/NB10946031.0009.wav|국민이 심판 해달라고

1/NB10946031.0010.wav|지난 6월 25일 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가

1/NB10946031.0011.wav|여자에겐 폭탄이 없어

1/NB10946031.0012.wav|내 제도 있던 갈등이 폭발한 전쟁의 서막이었다고 나을까요

1/NB10946031.0013.wav|바뀌는 여권 내부 친박과 비 박근혜 내전에서 시작해서

1/NB10946031.0014.wav|장천 간 그리고

1/NB10946031.0015.wav|의회와 행정부 간 대결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

1/NB10946031.0016.wav|용서받지 못한 자

1/NB10946031.0017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

1/NB10946031.0018.wav|폭풍의 중심에서 있는 사람

1/NB10946031.0019.wav|유승민 원내대표

1/NB10946031.0020.wav|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

1/NB10946031.0021.wav|GP 허리 굽혀 사과했지만

1/NB10946031.0022.wav|용서 같은 못 한 것 같습니다

1/NB10946031.0023.wav|국민들이 보기에 당황스러운이 집권세력의 갈등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끝날지 가능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

1/NB10946031.0024.wav|그리고 집권세력에 용서받지 못한 자 의거 체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이에

1/NB10946031.0025.wav|정식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

1/NB10946031.0026.wav|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은

1/NB10946031.0027.wav|반한건

1/NB10946031.0028.wav|올해 법안 처리 건수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

1/NB10946031.0029.wav|1분기 자영업자 수는 49,000 명이 감소했다

1/NB10946031.0030.wav|신장개업 보다 눈물의 폐업이 더 많아

1/NB10946031.0031.wav|메르스 한 팔 감염된 서민경제 역시 쉬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

1/NB10946031.0032.wav|비정상의 정상화 가니

1/NB10946031.0033.wav|비정상의 일상화

1/NB10946031.0034.wav|이런 비난 맞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

1/NB10946031.0035.wav|그들만의 전쟁을 바라보는 여론이 호의적일 리가 없습니다

1/NB10946031.0036.wav|그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가 있어

1/NB10946031.0037.wav|대통령과 여당 원내 대표의 정치적인 고향인 대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군요

1/NB10946031.0038.wav|그러나 잠복기를 거친

1/NB10946031.0039.wav|권력 투쟁의 바이러스는 이미 발현이 되어 버렸고

1/NB10946031.0040.wav|이제는

1/NB10946031.0041.wav|이 바이러스가 혹시

1/NB10946031.0042.wav|변이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지켜봐야 하는

1/NB10946031.0043.wav|불편 하는 과정 많이 남았어

1/NB10946031.0044.wav|오늘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꺼내 줘

1/NB10946031.0045.wav|용서받지 못한 자

1/NB10946031.0046.wav|그리고 생각하기

1/NB10946031.0047.wav|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또한 무엇에 대해서 용서 받아야 하는가

1/NB10946031.0048.wav|오늘의 앵커

1/NB10947531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2부입니다

1/NB10947531.0001.wav|1초

1/NB10947531.0002.wav|예

1/NB10947531.0003.wav|눈 한번 깜빡이면 금세 사라질 시간 같아 보이지만

1/NB10947531.0004.wav|이 1초에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합니다

1/NB10947531.0005.wav|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배채 맞고 다시 투수에게 날아가는 시간

1/NB10947531.0006.wav|우주에서 일은 아홉 개의 별이 소변에서 빛을 잃는 시간

1/NB10947531.0007.wav|모두 단 1초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

1/NB10947531.0008.wav|오늘 비 선물 같은 시간 1초가 더 주어졌습니다

1/NB10947531.0009.wav|우리 시간 오전 9시 교회에서 지구 자전 속도 와 우리가 기준으로 사는 원자시계 미세한 차이를

1/NB10947531.0010.wav|고정하기 위한 윤 초가 시행이 된 거

1/NB10947531.0011.wav|부윤초 덕분에 오늘은 24시간에 1초가 더해진

1/NB10947531.0012.wav|올 한해 중에 가장 긴 하루가 되었습니다

1/NB10947531.0013.wav|아마도 1분 1초 맞아 아까웠을 누구에게는

1/NB10947531.0014.wav|황금 같은 1초에 더운물 어떤 날이 태국

1/NB10947531.0015.wav|애타게 무언가를 기다렸을 누군가에게는 지겹도록 가장 긴 하루였을 또 모르겠습니다

1/NB10947531.0016.wav|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 시간 조사를 살펴보니까 전 국민의 50%가

1/NB10947531.0017.wav|시간이 부족하다

1/NB10947531.0018.wav|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

1/NB10947531.0019.wav|젊을수록 시간은 더 바티칸 법인지 30대는 77%가 시간에 쫓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

1/NB10947531.0020.wav|여가 시간은 5년전과 견적 볼 때 6분이 줄어들었고

1/NB10947531.0021.wav|그래서인지 열 명 중에 여덟 명은

1/NB10947531.0022.wav|피곤한 일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

1/NB10947531.0023.wav|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시간 빈 곤자가 돼버린 셈입니다

1/NB10947531.0024.wav|미 하이랜드의 1970년 모모의 한 구절을 펼쳐봅니다

1/NB10947531.0025.wav|평화롭던 도시의 어느 날

1/NB10947531.0026.wav|남은 시간을 조금 해 준다는 회색 신사들이 나타납니다

1/NB10947531.0027.wav|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

1/NB10947531.0028.wav|산책을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

1/NB10947531.0029.wav|이른바 쓸데없는 시간들을 모아서

1/NB10947531.0030.wav|회색 신사들이 세운 시간 은행에

1/NB10947531.0031.wav|적응하기 시작하죠

1/NB10947531.0032.wav|그러나 사람들은

1/NB10947531.0033.wav|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

1/NB10947531.0034.wav|가진 것이 점점 더 줄어든

1/NB10947531.0035.wav|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

1/NB10947531.0036.wav|시간을 훔치는 도둑

1/NB10947531.0037.wav|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 나선 소원이야

1/NB10947531.0038.wav|모모에 대한 이야기였어

1/NB10947531.0039.wav|사랑해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 열심히 사는구나

1/NB10947531.0040.wav|옥상달빛 노래 희한한 시대 중에 한 구절입니다

1/NB10947531.0041.wav|방금 전에 문을 열었던 것만 같은 2015년 하네 절반이

1/NB10947531.0042.wav|휘리릭

1/NB10947531.0043.wav|지나갔습니다

1/NB10947531.0044.wav|나머지 남은 반년을 여는 7월의 첫날

1/NB10947531.0045.wav|덤으로 받은 1초로 가장 길었던 오늘 하루

1/NB10947531.0046.wav|어떻게 보내셨는지요

1/NB10947531.0047.wav|귀중한 하루 24시간 여기에 1초를 더한 긴 하루를 숨가쁘게 보낸 여러분께 드리는 위로 앞서 소개해드린 옥상달빛의 또 다른 중에 마지막 구절입니다

1/NB10949098.0000.wav|예상대로 jtbc 뉴스룸 2부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49098.0001.wav|업종에 맞게

1/NB10949098.0002.wav|필요한 부분만 고쳐라

1/NB10949098.0003.wav|좋은 인상을 주는 얼굴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

1/NB10949098.0004.wav|이른바 취업 성형 이야기

1/NB10949098.0005.wav|얼굴 바꿔서라도

1/NB10949098.0006.wav|취업하고 싶은 절실함 나오면

1/NB10949098.0007.wav|올해 청년 실업률 10%를 처음으로 넘긴 답답한 현실을 반영한다

1/NB10949098.0008.wav|절망이 기교를 낳고

1/NB10949098.0009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말입니다

1/NB10949098.0010.wav|그런데이 답답한 현실만으로도 부족해서 더 답답한 마음이 들게 했더니

1/NB10949098.0011.wav|바로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

1/NB10949098.0012.wav|귀엽 성에 대한 좋은

1/NB10949098.0013.wav|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

1/NB10949098.0014.wav|성형

1/NB10949098.0015.wav|취업 7종 세트 조건으로

1/NB10949098.0016.wav|자리 잡았다

1/NB10949098.0017.wav|기업이 선호하는 얼굴 스타일이 라면서 견본 사진까지 제시한 EK 식물에 대해서

1/NB10949098.0018.wav|고용 성형부로 바꿔라 이런 비판이 쏟아졌다

1/NB10949098.0019.wav|고용부는 즉각 발명과 함께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습니다

1/NB10949098.0020.wav|이것을 대학생 기자단의 실수였고

1/NB10949098.0021.wav|웃는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려 했다는 겁니다

1/NB10949098.0022.wav|그러나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사방을

1/NB10949098.0023.wav|그야말로 적나라하게

1/NB10949098.0024.wav|내 보여 줘

1/NB10949098.0025.wav|가타카

1/NB10949098.0026.wav|에단 호크가 주연한 1997년작 SF 영화

1/NB10949098.0027.wav|탁월한 유전자로 신분이 결정되는 미래세계

1/NB10949098.0028.wav|주인공은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우성 유전자를 밀거래 해서 신분을 세탁합니다

1/NB10949098.0029.wav|취업 성형을 넘어서 유전자 성형까지 하는 얘기

1/NB10949098.0030.wav|어찌 보면

1/NB10949098.0031.wav|이 공상 과학 같은 성형이야기

1/NB10949098.0032.wav|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에서 현실화되어 버리는 거지

1/NB10949098.0033.wav|취업의 이름으로 성형 당하는 것은 비단 얼굴 뿐만이 아닙니다

1/NB10949098.0034.wav|대학들은

1/NB10949098.0035.wav|취업에 쓸모없는 인문계를 줄이는 학과 성형에 나선지 오래고

1/NB10949098.0036.wav|인문학도들은 인문계 적은 두고 있을 때 이공계를 공부해야 한다

1/NB10949098.0037.wav|전공 성향 맞아

1/NB10949098.0038.wav|강요 받고 있어

1/NB10949098.0039.wav|아마도 이런 취업 성형 소동은 쌓이고 쌓인 젊은 그들의 절망감을 건드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

1/NB10949098.0040.wav|까마득한 취업 절벽을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들이

1/NB10949098.0041.wav|취업을 위해서 죽을똥살똥 애쓰는 젊은이들을 향해서

1/NB10949098.0042.wav|자기가 없다

1/NB10949098.0043.wav|해외로 나가

1/NB10949098.0044.wav|더 밀기만 해 왔던 사진

1/NB10949098.0045.wav|정부의 블로그에 올라온 것이 얼굴 고치라는 얘기했으니 말해

1/NB10949098.0046.wav|절망이 기교를 낳고

1/NB10949098.0047.wav|기교 때문에 절망한

1/NB10949098.0048.wav|1930년대를 살았던 젊은 시인

1/NB10949098.0049.wav|이상해 마리오

1/NB10949098.0050.wav|오늘

1/NB10949098.0051.wav|앵커브리핑

1/NB10953086.0000.wav|내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53086.0001.wav|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네

1/NB10953086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에 주목한 말입니다

1/NB10953086.0003.wav|지난 주말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라고 전해 주려고

1/NB10953086.0004.wav|같은 줄에 앉아 있던

1/NB10953086.0005.wav|박 대통령이

1/NB10953086.0006.wav|김대표 쪽을 쳐다보지도 않지

1/NB10953086.0007.wav|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

1/NB10953086.0008.wav|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는 이유는

1/NB10953086.0009.wav|당대표가 국회 법 개정안 파동으로 얼룩진 유승민 전국을 시원스레 처리하지 못한다

1/NB10953086.0010.wav|불만이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

1/NB10953086.0011.wav|대통령이 뭐라고 입장을 밝힌

1/NB10953086.0012.wav|첫 번째

1/NB10953086.0013.wav|국회법 개정안은 결국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가

1/NB10953086.0014.wav|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개정안

1/NB10953086.0015.wav|배신의 정치라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

1/NB10953086.0016.wav|허공에 흩어져서

1/NB10953086.0017.wav|자신들이 통과시키는 법안조차 권력자의 중에 따라서 뒤집어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돼 버린 것

1/NB10953086.0018.wav|그리고 대통령이 노라는 입장을 밝힌다

1/NB10953086.0019.wav|두 번째

1/NB10953086.0020.wav|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

1/NB10953086.0021.wav|나가라는 동료 위원들의 맹비난 이어지고 있어

1/NB10953086.0022.wav|최고위원회는 막말과 구성으로 얼룩졌다

1/NB10953086.0023.wav|dual FAN 오는 고사작전에이어서

1/NB10953086.0024.wav|오늘은

1/NB10953086.0025.wav|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소집하지 않은 요금 하자 나오는

1/NB10953086.0026.wav|사퇴 압박은

1/NB10953086.0027.wav|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

1/NB10953086.0028.wav|왕과

1/NB10953086.0030.wav|공화국 사이에

1/NB10953086.0031.wav|대통령과 국민이 다른시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다

1/NB10953086.0032.wav|또 앞으로 어떤 막장 드라마까지 지켜봐야 할 듯

1/NB10953086.0033.wav|국정은 감정이 아니라

1/NB10953086.0034.wav|이성으로 하는 것

1/NB10953086.0035.wav|원내 사령탑에 공개적으로 격하게 비난에서 오늘의 사태 불렀다

1/NB10953086.0036.wav|이렇게 바라보는 언론들의 시각은 대부분 싸늘해

1/NB10953086.0037.wav|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네

1/NB10953086.0038.wav|오늘의 키워드

1/NB10953086.0039.wav|싸늘한 대통령의 모습

1/NB10953086.0040.wav|여당 대표는 무척

1/NB10953086.0041.wav|서운했던 고양이

1/NB10953086.0042.wav|그러나

1/NB10953086.0043.wav|서운해할 사람들은 사실

1/NB10953086.0044.wav|따로 있습니다

1/NB10953086.0045.wav|대통령만 쳐다보는 사람들과

1/NB10953086.0046.wav|대통령이 쳐다봐 주지 않는 사람들

1/NB10953086.0047.wav|그리고

1/NB10953086.0048.wav|이들을 쳐다 봐 주지 않는

1/NB10953086.0049.wav|대통령

1/NB10953086.0050.wav|그런데 그들 역시

1/NB10953086.0051.wav|한 곳만 바라보다가

1/NB10953086.0052.wav|정작 바라 봐야 할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

1/NB10953086.0054.wav|우리들

1/NB10953086.0055.wav|그래서 이렇게

1/NB10953086.0056.wav|말씀드립니다

1/NB10953086.0057.wav|우리는

1/NB10953086.0058.wav|쳐다보지도 않네

1/NB10953086.0059.wav|오늘의 앵커브리핑

1/NB10954624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으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954624.0001.wav|종방 예고

1/NB10954624.0002.wav|오늘의 단어 미사 지금 정치권에서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펼쳐지고 있죠

1/NB10954624.0003.wav|여당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쏟아진 씨가 또 있었을까요

1/NB10954624.0004.wav|출근길에

1/NB10954624.0005.wav|국회에서 내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

1/NB10954624.0006.wav|마이크와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

1/NB10954624.0007.wav|내일 아침 그의 거취를 논의하는 의원총회에는 예정도 있고 논란의 주인공 역시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니까

1/NB10954624.0008.wav|내일이면

1/NB10954624.0009.wav|동방

1/NB10954624.0011.wav|결론은 내려질 것 같기도 합니다

1/NB10954624.0012.wav|동방예의

1/NB10954624.0013.wav|마지막 회 예고편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

1/NB10954624.0014.wav|더 이상은 언급 안 할 것이라면서 압박 중인 청와대와

1/NB10954624.0015.wav|사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매몰차게 내치는 식구들

1/NB10954624.0016.wav|또 결로 가지 않기 위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한 사람인

1/NB10954624.0017.wav|너 의성에 안 꺼 명을 둘러싸고 불참하겠다고 으름장을 왔던 사람들이 나

1/NB10954624.0018.wav|모두가 각자

1/NB10954624.0019.wav|복잡한 셈법을 드러내고 드렸습니다

1/NB10954624.0020.wav|1년에 여권 내 권력투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

1/NB10954624.0021.wav|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는 관전평을 내놓고 있습니다

1/NB10954624.0022.wav|연구 대상이다

1/NB10954624.0023.wav|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다

1/NB10954624.0024.wav|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

1/NB10954624.0025.wav|방천 갈등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

1/NB10954624.0026.wav|정치권에서 이른바 막드가 만들어진 이유

1/NB10954624.0027.wav|무엇일까요

1/NB10954624.0028.wav|원칙과 권력

1/NB10954624.0029.wav|이 두 가지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

1/NB10954624.0030.wav|배신의 정치를 단지 하기 위해서 드라마는 시작됐지만

1/NB10954624.0031.wav|원칙

1/NB10954624.0032.wav|대통령이 원내대표를 직접 삭제 시킨다는 것이 당헌 당규에조차 나와 있지 않고

1/NB10954624.0033.wav|권력 이른바 용인 오질 않아서 물밑 압박조차 먹지 않으니까 사탄은 점점

1/NB10954624.0034.wav|장기화 되고

1/NB10954624.0035.wav|국정에 공회전하는 동안에

1/NB10954624.0036.wav|바라보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그저 입금만 잔뜩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

1/NB10954624.0037.wav|종방 예고

1/NB10954624.0039.wav|그동안의 피로감과 실망감을 상쇄할 만한

1/NB10954624.0040.wav|무언가 극적인 반전

1/NB10954624.0041.wav|품격있는 결말

1/NB10954624.0042.wav|혹시라도

1/NB10954624.0043.wav|기대할 수 있을까

1/NB10954624.0044.wav|글쎄요 그동안의 방송에서 봐왔던 막장 드라마는 결과라도 되게 해피엔딩이어서

1/NB10954624.0045.wav|일종의 카타르시스 역할이라도 한다고 합니다

1/NB10954624.0046.wav|이 드라마는

1/NB10954624.0047.wav|어떨지 모르겠습니다

1/NB10954624.0048.wav|혹시 시즌 2라도 준비되고 있는 건 아니지요

1/NB10954624.0049.wav|오늘의 앵커

1/NB10956236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56236.0001.wav|라이온 퀸

1/NB10956236.0002.wav|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

1/NB10956236.0003.wav|초원의 여전사

1/NB10956236.0004.wav|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는 암살자들의 이야기

1/NB10956236.0005.wav|6년 전인 2009년에 제가 내레이션에 참여한 자연 다큐멘터리 제목입니다

1/NB10956236.0006.wav|한테 나이가 들면 동물의 왕국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이 바람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

1/NB10956236.0007.wav|이런 야생의 동물들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들은 저를 포함한 다른 평범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

1/NB10956236.0008.wav|전직대통령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했던 모양입니다

1/NB10956236.0009.wav|동물이 사람보다 낫다

1/NB10956236.0010.wav|두 사람 모두

1/NB10956236.0011.wav|동물의 왕국에 열혈 시청자 였다고 합니다

1/NB10956236.0012.wav|전직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예배가 아닌 듯합니다

1/NB10956236.0013.wav|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

1/NB10956236.0014.wav|20년 전 당시의 야인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

1/NB10956236.0015.wav|동물의 왕국에서 바로 배신의 키워드를 뽑아냈다

1/NB10956236.0016.wav|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 사람의 욕망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똑똑히 보았다

1/NB10956236.0017.wav|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는 기고도 단단해 보입니다

1/NB10956236.0018.wav|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에서도

1/NB10956236.0019.wav|말씀에 키워드를 뽑아낸 것인지도 모르겠다

1/NB10956236.0020.wav|결국 8시네 이름으로 지목당한 대선은 오늘 어렵게 지금 내려 놓았습니다

1/NB10956236.0021.wav|대통령이 표 대상자를 지목한 이후에

1/NB10956236.0022.wav|벌어진 현상

1/NB10956236.0023.wav|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봐

1/NB10956236.0024.wav|그대로입니다

1/NB10956236.0025.wav|배신 한자를 무리해서 몰아내야 한다

1/NB10956236.0026.wav|총선을 앞둔 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

1/NB10956236.0027.wav|결국 그 대성전은 2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

1/NB10956236.0028.wav|그런데 그가 떠나면서 남긴 말이 주목을 끕니다

1/NB10956236.0029.wav|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청명한 헌법 1조 1항에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

1/NB10956236.0030.wav|어떻게 해석 하시는지요

1/NB10956236.0031.wav|헌법 1조 이랑은 누구든 예배가 될 수 없는

1/NB10956236.0032.wav|우리 법에 큰 거 아닙니다

1/NB10956236.0033.wav|다시

1/NB10956236.0034.wav|자연 다큐멘터리로 돌아가 보기

1/NB10956236.0035.wav|제가 진행했던 라이온 퀸

1/NB10956236.0036.wav|그 어떤 배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

1/NB10956236.0037.wav|다만 그 누구도

1/NB10956236.0038.wav|예배가 될 수 없는

1/NB10956236.0039.wav|자연의 법칙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

1/NB10957812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지금부터 했습니다

1/NB10957812.0001.wav|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권의 막장 드라마를 보아온 시청자 여러분들께

1/NB10957812.0002.wav|오늘은 웰메이드 고품격 드라마를 보여 드릴까

1/NB10957812.0003.wav|또한 지난 두 달 동안 메르스란 공포의 시간을 겪어온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위로의 시간 일할 수도 있겠어

1/NB10957812.0004.wav|우선

1/NB10957812.0005.wav|지난 주에 축구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주인공

1/NB10957812.0006.wav|전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최용수

1/NB10957812.0007.wav|서울 FC 감독 이야기

1/NB10957812.0008.wav|최성 50억원

1/NB10957812.0009.wav|그러니까 현재 연봉의 5분의 6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한 중국의 영입제의를

1/NB10957812.0010.wav|거절하고 K 리그에 남기로 했다고 합니다

1/NB10957812.0011.wav|물론 한편에서는 최 감독의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

1/NB10957812.0012.wav|보내 따라서 움직이는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본다면 참으로

1/NB10957812.0013.wav|낯선 선택이었습니다

1/NB10957812.0014.wav|눈에 보이는 것이

1/NB10957812.0015.wav|전부가 아니라

1/NB10957812.0016.wav|지켜야 할

1/NB10957812.0017.wav|더욱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음을

1/NB10957812.0018.wav|왕년에 축구 국가대표는 그렇게 보여 줬습니다

1/NB10957812.0019.wav|고품격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비단 유명인사들만의 몫은 아닙니다

1/NB10957812.0020.wav|트럭과 충돌해서 순식간에 미끄러진 승용차

1/NB10957812.0021.wav|저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

1/NB10957812.0022.wav|보령까지 부쳐 가면서 차 밑에 깔린 여고생을 구해 놨습니다

1/NB10957812.0023.wav|6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달려 나온 시민들의 값진 마음 드렸습니다

1/NB10957812.0024.wav|너 어제 부산에서는 수표 현금화 쳐서 10억원이 넘는 돈이든 지갑이

1/NB10957812.0025.wav|32분 반에 주인 품에 돌아갔다고 하지요

1/NB10957812.0026.wav|거액의 돈을 찾아준 시민과 경찰은 지갑 주인의 사례금 마저도 한사코 거절했다고 전해 줍니다

1/NB10957812.0027.wav|그런가하면 지난 주 광주에서는 쉬게 흘린 5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고스란히 주어서 돌려 줬다는 훈훈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

1/NB10957812.0028.wav|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관은

1/NB10957812.0029.wav|헌법 제 1조 1항까지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

1/NB10957812.0030.wav|우리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957812.0031.wav|우리는 이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

1/NB10957812.0032.wav|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그렇게 찍혀 왔는지도 모르고

1/NB10957812.0033.wav|그것이

1/NB10957812.0034.wav|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

1/NB10957812.0035.wav|여러분께서 만들어

1/NB10957812.0036.wav|고품격의 드라마

1/NB10957812.0037.wav|정치권은 또 뭐지 않아 우리에게 막장 드라마를 선보일 것이다

1/NB10957812.0038.wav|감염병은 언젠가

1/NB10957812.0039.wav|너 우리에게 공포의 시간을 덕계 하겠지만

1/NB10957812.0040.wav|one more time

1/NB10961687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61687.0001.wav|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

1/NB10961687.0002.wav|너무나도 유명했던 방송 사고였습니다

1/NB10961687.0003.wav|피해망상 장애가 있는 한 전직 선반 02 방송사에 침입해서 버린 일이었죠

1/NB10961687.0004.wav|27년 전에 일이었지만 어제일처럼 생생한 장면입니다

1/NB10961687.0005.wav|사실 자기는 잊지 못할 이유가 또 있는데요이 청양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던 당시 앵커의 리포트 소개

1/NB10961687.0006.wav|바로 제가 취재했던 리포트 여기 때문입니다

1/NB10961687.0007.wav|축구를 하다가 다친 귀가 먹먹해지는 상황 현상을 도청장치라고 오해했던 청년

1/NB10961687.0008.wav|이 웃지 못할 사건이 두고두고 회자될 이유는

1/NB10961687.0009.wav|1980년대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

1/NB10961687.0010.wav|북하면 웃지못할 이유로 잡혀가고 했던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에 시대를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죠

1/NB10961687.0011.wav|누군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

1/NB10961687.0012.wav|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들은

1/NB10961687.0013.wav|지금도 낯선 풍경 많은 아닌가 봅니다

1/NB10961687.0014.wav|자 지난 2005년에 국정원에 전시는 안기부가 비밀 도청 팀 이름을 만들어서 주요 인물들의 대화를 보충하는 것이 알려 줬습니다

1/NB10961687.0015.wav|그 이후에 국정원

1/NB10961687.0016.wav|모든 장치를 용광로의 폐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

1/NB10961687.0017.wav|그러나 사장이 끊임없이 계속 돼 왔지요 5년 뒤에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됐고

1/NB10961687.0018.wav|10년 뒤

1/NB10961687.0019.wav|국정원과 주소가 같은 것으로 확인된 우리나라에 5163 부대

1/NB10961687.0020.wav|전 국민의 PC 와 휴대폰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

1/NB10961687.0021.wav|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

1/NB10961687.0022.wav|사실이라면

1/NB10961687.0023.wav|평범한 우리 시대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사찰에 보면 더 넓어진 3

1/NB10961687.0024.wav|앵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모든 것들을 감시할 수 있고 그렇게 마치 원형 감옥에 감시자처럼

1/NB10961687.0025.wav|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현실이 된다며

1/NB10961687.0026.wav|우리가 사는 이세상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

1/NB10961687.0027.wav|항상 모두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입 편집증적인 의심 사회가

1/NB10961687.0028.wav|이상화 된다면

1/NB10961687.0029.wav|27년 전에 우리가 미쳤다고 믿었던 한 청년의 외침은

1/NB10961687.0030.wav|그건 미친 것이 아니라

1/NB10961687.0031.wav|실은이 세상의 실체를

1/NB10961687.0032.wav|무려 27년 전에

1/NB10961687.0033.wav|미리 알아 버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961687.0034.wav|내 귀에 도청장치

1/NB10961687.0035.wav|이제는 한 청년이 아니라

1/NB10961687.0036.wav|시민 모두가

1/NB10961687.0037.wav|이 말을 합창 해야 하는 걸까

1/NB10961687.0038.wav|오늘

1/NB10963150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63150.0001.wav|가장 으슥한 곳에

1/NB10963150.0002.wav|오늘 앵커브리핑 시골은 말입니다

1/NB10963150.0003.wav|서울 강변북로 한 가운데 그 곳은 걸어서 가기 어렵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

1/NB10963150.0004.wav|달리는 차 사이를 지나야

1/NB10963150.0005.wav|한 구석에 세워진

1/NB10963150.0006.wav|위령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

1/NB10963150.0007.wav|예 성수대교 참사 위생 희생자 위령비 얘깁니다

1/NB10963150.0008.wav|거짓말처럼 백화점이 주저앉은 사건 삼풍참사의 추모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요

1/NB10963150.0009.wav|사고 장소의 추모 공간을 세우자는 의견이 나왔지만

1/NB10963150.0010.wav|시민의 휴식처 공간이다

1/NB10963150.0011.wav|인근 집값이 떨어진다

1/NB10963150.0012.wav|이런 각자의 셈법에 따른 거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

1/NB10963150.0013.wav|가장 으슥한 곳

1/NB10963150.0014.wav|서초구청은 이런 답변을 내놓은 뒤에야 반대한 일들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

1/NB10963150.0015.wav|결국 삼품의 기억은 사고 장소와 상관없는 한참이나 떨어져

1/NB10963150.0016.wav|양재시민의숲 뒤편 으슥한 곳으로 옮겨 가게 됐습니다

1/NB10963150.0017.wav|제주도 수학여행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지 1년이 훌쩍 넘겨서 봄이가고 여름이 왔습니다

1/NB10963150.0018.wav|가족 가족들에 부러진 일상도 계속 되고 있죠

1/NB10963150.0020.wav|오늘은 가족들이 광화문에 천막을 펼친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

1/NB10963150.0021.wav|일부 시민들은 편치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혹은 내가 좀 살아야겠습니다

1/NB10963150.0022.wav|자리를 비워달라 옮겨달라 하는 겁니다

1/NB10963150.0023.wav|가족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

1/NB10963150.0024.wav|제가

1/NB10963150.0025.wav|이제 세월호 얘기가 지겨워 오십니까라고 여쭤 봤던 것이 작년 10월 16일

1/NB10963150.0026.wav|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6개월 제가 되던 날이었습니다

1/NB10963150.0027.wav|솔직히

1/NB10963150.0028.wav|또 세월호 얘기를 꺼내는 것이

1/NB10963150.0029.wav|마음 한 구석에서 두렵기도 합니다

1/NB10963150.0030.wav|아이들 수백 명이 바다에 미쳤어도 정파란 아니어서 싸움

1/NB10963150.0031.wav|해결한 이념 논쟁까지 끼어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

1/NB10963150.0032.wav|그러나 다시 꺼냅니다

1/NB10963150.0033.wav|영원

1/NB10963150.0034.wav|출발한지 반년이 넘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

1/NB10963150.0035.wav|실종자들이 그대로 품고 있는 세월호는 지금도 바다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다

1/NB10963150.0036.wav|가족들이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그는

1/NB10963150.0037.wav|지금 남은

1/NB10963150.0038.wav|광화문

1/NB10963150.0039.wav|기억의 공간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963150.0040.wav|부재 반출

1/NB10963150.0041.wav|뉴욕 시내 한복판 911 테러 두 개 빌딩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만들어진 거대한 두 개의 연못입니다

1/NB10963150.0042.wav|미국은 가장 값비싼 지역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을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

1/NB10963150.0043.wav|시민들은 그 결정에

1/NB10963150.0044.wav|공유했습니다

1/NB10963150.0045.wav|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요

1/NB10963150.0046.wav|가장 으슥한 곳에

1/NB10963150.0047.wav|잊기 위해

1/NB10963150.0048.wav|잊혀지게 하기 위해

1/NB10963150.0049.wav|오늘의 앵커브리핑

1/NB10964458.0000.wav|여러분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964458.0001.wav|큰 공을 세우고 개선 하는 사람을 맞이 하듯이 그 동네 인심은

1/NB10964458.0002.wav|들떠 있었다

1/NB10964458.0003.wav|고 박완서 작가의 두부라는 제목의 삶은 한 구절이

1/NB10964458.0004.wav|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도에서 돌아오던날 작가의 마음은 불편했다고 합니다

1/NB10964458.0005.wav|그래 좀 더 쓸쓸하고 외롭게 추억하게 할 순 없었을까

1/NB10964458.0006.wav|문 기둥 뒤에 오롯이 모여 있던 가족과 이웃들이 그를 눈물로 반기며 두부를 먹을 순 없을까

1/NB10964458.0007.wav|내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은

1/NB10964458.0008.wav|성모의 두부를 향해

1/NB10964458.0009.wav|고개를 숙인

1/NB10964458.0011.wav|두부 한입 베어 먹는 반송조차 없었던 당당했던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본 박완서 선생의 마음이야

1/NB10964458.0012.wav|두부 한 모

1/NB10964458.0013.wav|오늘 앵커브리핑

1/NB10964458.0014.wav|옳은 말입니다

1/NB10964458.0015.wav|음식 평론가들이 말하는 두부의 세계는 킥보드 오묘합니다

1/NB10964458.0016.wav|장작불 온도 거품 등에 따라서

1/NB10964458.0017.wav|맛과 질감이 똑같은 두부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군요

1/NB10964458.0018.wav|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

1/NB10964458.0019.wav|교도소에서 나올 때 두부를 먹는 것도

1/NB10964458.0020.wav|같은 이치다

1/NB10964458.0021.wav|동생 똑같은 2분은

1/NB10964458.0022.wav|두번다시 없으니까

1/NB10964458.0023.wav|황성옛터

1/NB10964458.0024.wav|승권이 되려나

1/NB10964458.0025.wav|감옥에서 나와 입에 넣는 부분은 죄의 대가만큼

1/NB10964458.0026.wav|정직하게 옥고를 치른 이들에게 건네는

1/NB10964458.0027.wav|위로 이제

1/NB10964458.0028.wav|반성의 의미라는 것이

1/NB10964458.0029.wav|청와대가 특별 사면 언급한 뒤에 논란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

1/NB10964458.0030.wav|석 달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

1/NB10964458.0031.wav|화면에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합의와 납득을 강조했습니다

1/NB10964458.0032.wav|그보다 훨씬 전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한 말은 좀 더 확보해 보이기도 합니다

1/NB10964458.0033.wav|그럼에도 그런 약속이 그리 지켜 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

1/NB10964458.0034.wav|이메이 성분은 상당부분의 공약을 빼돌린 바 있습니다

1/NB10964458.0035.wav|그리고 어제 출연했던 대통령의 정무특보 김재원 의원

1/NB10964458.0036.wav|이렇게 말하고 있어

1/NB10964458.0037.wav|우리는 다시 한번

1/NB10964458.0038.wav|시작하게 돼

1/NB10964458.0039.wav|우리가 믿어왔던

1/NB10964458.0040.wav|그러면 이제는

1/NB10964458.0041.wav|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도면 곳으로

1/NB10964458.0042.wav|교과서 소개 사회 정의

1/NB10964458.0043.wav|현실정치에 부박한 논리에서 왜곡되는 것을 지켜봐야할 참

1/NB10964458.0044.wav|그리고

1/NB10964458.0045.wav|합의를 이루지 못한

1/NB10964458.0046.wav|그래서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면은

1/NB10964458.0047.wav|박완서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다

1/NB10964458.0048.wav|그건 권력의 상층부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흥정의 혐의가 짙은 용서해 주지

1/NB10964458.0049.wav|국민으로부터 얻어낸 용서는

1/NB10964458.0050.wav|아니다

1/NB10964458.0051.wav|오늘의 앵커브리핑

1/NB10965906.0000.wav|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

1/NB10965906.0001.wav|국민 여러분

1/NB10965906.0002.wav|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군요

1/NB10965906.0003.wav|국민 여러분 안심하고

1/NB10965906.0004.wav|통화하십시오

1/NB10965906.0005.wav|오늘의 키워드

1/NB10965906.0006.wav|1999년 9월 22일 모든 일간지에 실렸던

1/NB10965906.0007.wav|국정원의 대국민 호소문 제목이기도 합니다

1/NB10965906.0008.wav|전화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도감청 논란을 거론하자

1/NB10965906.0009.wav|억울하다면서 결백을 국민 앞에 주장한 것입니다

1/NB10965906.0010.wav|그동안 국정원에 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역대 수사는

1/NB10965906.0011.wav|산 2번 진행이 되었습니다

1/NB10965906.0012.wav|주사위 공통분모는 무엇이었을까요

1/NB10965906.0013.wav|공교롭게도

1/NB10965906.0014.wav|부분에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

1/NB10965906.0015.wav|검찰 콩 한 통으로 불리우던 지금의 황교안 총리

1/NB10965906.0016.wav|검찰의 도청 수사 첫 번째인 시즌 1

1/NB10965906.0017.wav|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폭로로

1/NB10965906.0018.wav|의혹이 불거져 씁니다

1/NB10965906.0019.wav|그러나 서울지검 공안 2부 당시 황교안 부장이 지휘한 검찰 수사 팀은

1/NB10965906.0020.wav|휴대전화 포천 어렵다는 결론을 내 놔

1/NB10965906.0021.wav|언론에서는

1/NB10965906.0022.wav|검찰이 DJ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

1/NB10965906.0023.wav|당시 황교안 부장검사 로손

1/NB10965906.0024.wav|오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965906.0025.wav|자 도청 수사 시즌 2

1/NB10965906.0026.wav|안기부 비밀 도청 티비 세계 주요 인물들은 도청 회원 사건입니다

1/NB10965906.0027.wav|대규모로 끓여진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 역시 황교안 당시 서울 지금이 차장이

1/NB10965906.0028.wav|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

1/NB10965906.0029.wav|임동원 신건 부전 집 국정원장을

1/NB10965906.0030.wav|분석했습니다

1/NB10965906.0031.wav|그러나 수술을 잘 해서 공을 세운 것과는 달리

1/NB10965906.0032.wav|황교안 검사장 이후에 승진에서 해제됐습니다

1/NB10965906.0033.wav|검찰 내부에서조차

1/NB10965906.0034.wav|집권당인 당시 열린우리당에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

1/NB10965906.0035.wav|거 세 개 나왔습니다

1/NB10965906.0036.wav|자 이렇게 보면 황교안 총리에게 있어서 지난 2번에 도청 주사는 그닥 유쾌하지

1/NB10965906.0037.wav|또 개운 하지도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

1/NB10965906.0038.wav|조만간 국정원 도청 수사 시즌 3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

1/NB10965906.0039.wav|아무튼 국정원은 또 다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

1/NB10965906.0040.wav|만일 수사가 시작된다면

1/NB10965906.0041.wav|황교안 총리는 일성 검사가 아니야

1/NB10965906.0042.wav|내각의 책임자이자

1/NB10965906.0043.wav|바로 직전에 법무부장관으로 써

1/NB10965906.0044.wav|세 번째에 도청 수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

1/NB10965906.0045.wav|자 우리가 황교안 총리 도청 수사 시즌 3 1 주목하는 것은

1/NB10965906.0046.wav|그가 책임지고 있는 내각이

1/NB10965906.0047.wav|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

1/NB10965906.0048.wav|억지로라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

1/NB10965906.0049.wav|그냥 권력의 간섭이

1/NB10965906.0050.wav|검사의 독이 된다는 것을

1/NB10965906.0051.wav|자신이 겪은 체험으로

1/NB10965906.0052.wav|누구보다

1/NB10965906.0053.wav|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

1/NB10965906.0054.wav|자 그렇다면 도청 수사에 주인공을 도맡았던 국무총리에게 이런 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

1/NB10965906.0055.wav|후배 검사 여러분

1/NB10965906.0056.wav|안심하고 수고하십시오

1/NB10965906.0057.wav|그리고

1/NB10965906.0058.wav|국민 여러분

1/NB10965906.0059.wav|안심하고

1/NB10965906.0060.wav|통화 10시

1/NB10965906.0061.wav|오늘의 앵커브리핑

1/NB10969767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입구에 문을 열겠습니다

1/NB10969767.0001.wav|2013년작 영화 베를린

1/NB10969767.0002.wav|이 영화에는 국정원 요원이 등장합니다

1/NB10969767.0003.wav|베를린 주재 첩보원 정진수

1/NB10969767.0004.wav|완벽하게 정의롭지 않지만

1/NB10969767.0005.wav|거친 현장의 밑바닥을 치열하게 지켜내는 모습

1/NB10969767.0006.wav|많은 관객들이 몰입해서

1/NB10969767.0007.wav|비록 영화 수업 장면이지만 이름 없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

1/NB10969767.0008.wav|짐작하게 되는 대목입니다

1/NB10969767.0009.wav|그런 무명의 혼 신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

1/NB10969767.0010.wav|지난 주말 한 국정원 직원의 죽음이 전해졌습니다

1/NB10969767.0011.wav|업무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

1/NB10969767.0012.wav|같이 일했던 동료들과

1/NB10969767.0013.wav|죄송할 따름입니다

1/NB10969767.0014.wav|국가정보기관 직원의 죽음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

1/NB10969767.0015.wav|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

1/NB10969767.0016.wav|억울함을 호소할 위해서 선택했던 극단적인 방법이 없

1/NB10969767.0017.wav|국정원 직원들의 명의로된 입장이 나왔죠

1/NB10969767.0018.wav|그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로 이어가는 개탄스러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

1/NB10969767.0019.wav|죽음으로 증언한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

1/NB10969767.0020.wav|그들의 주장처럼 절대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음지에서

1/NB10969767.0021.wav|무명으로

1/NB10969767.0022.wav|헌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

1/NB10969767.0023.wav|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굳이 군사정권 시절에 남산 대공분실 떠올리지 않더라도

1/NB10969767.0024.wav|반복되는 도청 사건과 댓글 사건으로 실제로 이론

1/NB10969767.0025.wav|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은

1/NB10969767.0026.wav|어떻게든 교회 사이온 그 불신을

1/NB10969767.0027.wav|믿음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

1/NB10969767.0028.wav|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개탄스러운 거야 할 일은 지금의 도청 논란이 아니라

1/NB10969767.0029.wav|무명의 헌신이 총회에 당한

1/NB10969767.0030.wav|불신의 역사가 반복되는 현상이 아닐까

1/NB10969767.0031.wav|다이와 진리를 향한

1/NB10969767.0032.wav|무명의 헌신

1/NB10969767.0033.wav|국정원이 건물 정면 묵직한 원 속에 사게 나온 다짐입니다

1/NB10969767.0034.wav|짧은 문장 소개

1/NB10969767.0035.wav|그 어느 것 하나

1/NB10969767.0036.wav|허리 단어가 없습니다

1/NB10969767.0037.wav|타요

1/NB10969767.0038.wav|진리

1/NB10969767.0039.wav|무명

1/NB10969767.0040.wav|헌신

1/NB10969767.0041.wav|아마도 국정원 직원 모두

1/NB10969767.0042.wav|아니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한다

1/NB10969767.0043.wav|강렬한 문장의 틀림이 없습니다

1/NB10969767.0044.wav|그러므로

1/NB10969767.0045.wav|신뢰받는 정보기관에 대한 믿음과

1/NB10969767.0046.wav|시민들의 지지를 위해서라도

1/NB10969767.0047.wav|그의 죽음을 단지 한 명 정보위원회의 비극으로 마무리 할 수는 없는 일

1/NB10969767.0048.wav|내국인 감청이 사실이든 아니든

1/NB10969767.0049.wav|지금

1/NB10969767.0050.wav|발전 해야겠다

1/NB10969767.0051.wav|수많은

1/NB10969767.0052.wav|무명의 헌신 그래 병해를 위해서라도

1/NB10969767.0053.wav|오늘의 앵커

1/NB10971406.0000.wav|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으로 열겠습니다

1/NB10971406.0001.wav|전철 안에 의사들이 나란히 앉아있었다

1/NB10971406.0002.wav|모두 귀에 청진기를 끼고 있었다

1/NB10971406.0003.wav|손가락 두 개로 스마트하게

1/NB10971406.0004.wav|세상을 진찰 진단 하고 있었다

1/NB10971406.0005.wav|서울 지하철에서 놀라다라는 시 중에 한 구절이

1/NB10971406.0006.wav|이렇게 지내는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모습들이

1/NB10971406.0007.wav|마치 청진기를 목에건 의사들 마냥

1/NB10971406.0008.wav|무척 상경해 보였던 것 같다

1/NB10971406.0009.wav|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에 가는지

1/NB10971406.0010.wav|뭘 검색하고

1/NB10971406.0011.wav|신용카드는 또 얼마 있었는데

1/NB10971406.0012.wav|메신져와 SNS 나의 사회적 관계망

1/NB10971406.0013.wav|공짜로 담고 있어

1/NB10971406.0014.wav|거미줄처럼 얽힌 관계망을 타고 넘어가면

1/NB10971406.0015.wav|다른 사람들의 정도로까지

1/NB10971406.0016.wav|접근이 가능합니다

1/NB10971406.0017.wav|스마트폰은 마치 청진기를 대고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듯이

1/NB10971406.0018.wav|개인의 삶을 속속들이 모아놓은 요물단지지도 모르겠어

1/NB10971406.0019.wav|장현 미국 연방대법원이 매우 주목할 만한 핑계를 내놨습니다

1/NB10971406.0020.wav|이른바 라일리 사건

1/NB10971406.0021.wav|검찰이 범죄현장에서 압수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다른 범죄를 발견하고 이걸 기소한 것을 두고

1/NB10971406.0022.wav|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

1/NB10971406.0023.wav|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의 집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

1/NB10971406.0024.wav|모든 걸 뒤진다는 의미가

1/NB10971406.0025.wav|아무리 중 범죄자라 하더라도

1/NB10971406.0026.wav|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

1/NB10971406.0027.wav|사전영장이 필요하다는 의미 없습니다

1/NB10971406.0028.wav|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스마트폰에 대한 고민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

1/NB10971406.0029.wav|기술은 발전했을 때

1/NB10971406.0030.wav|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

1/NB10971406.0031.wav|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

1/NB10971406.0032.wav|아랍의 속담이자 영화 제목으로 유명해진 마

1/NB10971406.0033.wav|